최종보고서

제주해녀문화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2016. 10.

Jeju 제주특별자치도

제 출 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본 보고서를 「제주해녀문화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의 관련부서 협의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년 10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김 정 만

● ● ● 연구수행기관

(재)한국문화관광연구원

● ● ● 연구진

연구책임

김규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유철인 | 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

연구원

이정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위촉연구원
오현아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위촉연구원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1. 연구 배경 ····· 3
2. 연구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 ····· 4
1. 연구의 범위 ····· 4
2. 연구의 방법 ····· 5

제3절 연구의 수행과정 ····· 6
1. 연구 수행 절차 ····· 6
2. 연구 주요 고려 사항 ····· 7
3. 연구 기대 효과 ····· 7

제2장 제주해녀문화 진단 ····· 9

제1절 제주해녀문화의 의미 ····· 11
1. 해녀의 의미와 역사자원 ····· 11
2. 제주해녀 역사자원 ····· 13

제2절 제주해녀문화의 가치 ····· 16
1. 해녀문화의 가치 ····· 16
2. 제주 해녀 문화의 속성별 구분 ····· 18

제3절 제주해녀문화 현황 및 진단 ····· 20
1. 제주해녀현황 ····· 20
2. 제주해녀 자원 현황 ····· 26
3. 해녀박물관 현황 ····· 37

제3장 제주해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공공지원 현황 ····· 39

제1절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검토 ····· 41
1. 상위 및 관련계획 ····· 41
2. 관련 법규 검토 ····· 50

Contents

제2절 관련 추진사업 및 기대사업 검토 ····· 52
1. 추진사업 ····· 52
2. 기대사업 ····· 56

제4장 제주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방안 ····· 59

제1절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 ····· 61
1.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개요 ····· 61
2.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 65

제2절 인류무형문화유산 관련 지원 정책 사례 ····· 66
1. 국내 사례 ····· 66
2. 국외 사례 ····· 81

제3절 제주해녀문화 전승 및 보존을 위한 수요자 의견조사 ·· 107
1. 조사개요 ····· 107
2. 조사결과 ····· 108

제5장 제주해녀문화 활성화를 위한 종합 방안 ····· 111

제1절 활성화 방향 및 목표 설정 ····· 113
1. SWOT 분석 ····· 113
2. SWOT 분석을 통한 전략 도출 ····· 114
3. 중장기 정책 목표 제시 ····· 115
4. 제주해녀문화 활성화 방향 설정 ····· 115

제2절 국가차원 정책 구상 ····· 121
1. 제주해녀문화 가치확산 ····· 121
2. 정부 차원에서의 행정기반마련 ····· 122
3. 국가 유산 보존 및 활용 중심 ····· 123
4. 기존 제도 개선 ····· 125
5. 공감대 확대(해녀의 날 지정, 해녀축제 국가행사 확대) ··· 125
6. 국제교류 후원(국제 및 유네스코 심포지엄 등 행사) ····· 126
7. 해녀박물관 관련 기반 지원 ····· 126
8. 전승 및 연구사업 지원 및 협력(인프라, 사업, 예산, 인력 등) ·· 127

목 차

제3절 제주특별자치도 차원 정책 구상 ····· 128
1. 제주해녀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제주도 旣 추진 계획 ····· 128
2. 제주해녀문화 가치 확대 및 선양사업 ····· 129
3. 전승 및 관련 인력 양성 ····· 130
4. 제주해녀 축제 확대사업 ····· 131
5. 체험관광 및 홍보 기반 마련 ····· 133
6. 소득확대 기반 마련 ····· 135
7. 해녀 축제 확대 방안 ····· 137
8. 해녀학교 발전 방안 마련 ····· 139

제4절 해녀박물관을 통한 제주해녀문화 거점 방안 마련 ·· 140
1. 해녀박물관의 발전 가능성 ····· 140
2. 해녀박물관 기능과 역할 확대 ····· 142
3. 해녀박물관 조직 확대 방안 ····· 145

제5절 제주해녀문화 소프트웨어 확대 방안 마련 ····· 150
1. 국제 네트워크 구성 전략 ····· 150
2 제주해녀문화 연구 및 아카이빙 확대 방안 ····· 154

제6절 제주해녀 에코뮤지엄 및 현장박물관 운영방안 마련 ·· 156
1. 현장박물관 필요성과 가치 ····· 156
2. 현장박물관의 의미와 형태 ····· 157
3. 제주해녀 에코뮤지엄 사전 개관 방안(가이드라인 북 제작) ·· 159
4. 제주해녀 에코뮤지엄 개관 프로그램 구성 ····· 160
5. 현장박물관 운영사례 ····· 161

제6장 제주해녀문화 사업 개발 ····· 167

제1절 해녀문화 사업 구상 ····· 169
1. 제주해녀문화 정책 전략 및 사업 연계 ····· 169
2. 제주해녀문화 정책 사업추진방안 ····· 171
3. 제주해녀문화 사업별 예산 산정 ····· 180

참고문헌 ····· 183

Contents

부 록 ····· 187

제1절 해녀박물관국립화방안 ····· 189

1. 해녀박물관 국립화의 필요성 및 가치 ····· 189
2. 확대 및 국립화의 기본 방향 ····· 195
3. 준거모델의 설정을 통한 확대 방안 ····· 196
4. 공용관광지 요금 현실화 방안 관련 ····· 201

제2절 제주해녀문화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조사 ····· 203

목 차

표 목차

<표 2-1> 해신당의 분포 및 무속의례 ····· 51
<표 2-2> 해녀 현황 ····· 22
<표 2-3> 연도별 해녀 현황 ····· 22
<표 2-4> 제주시 어촌계별 해녀 현황(2015.12.31. 기준) ····· 2·· 2
<표 2-5> 서귀포시 어촌별 해녀 현황(2015.12.31. 기준) ····· 4·· 2
<표 2-6> 오일장가름의 해녀생태유산 ····· 72
<표 2-7> 해녀박물관가름의 해녀생태유산 ····· 82
<표 2-8> 별방진성가름의 해녀생태유산 ····· 03
<표 2-9> 토끼섬가름의 해녀생태유산 ····· 23
<표 2-10> 철새도래지가름의 해녀생태유산 ····· 43
<표 2-11> 지미봉가름의 해녀생태유산 ····· 53
<표 2-12> 소금밭가름의 해녀생태유산 ····· 53
<표 3-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제주자치도 주요내용 ····· 24
<표 3-2>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주요내용 ····· 44
<표 3-3> 2016년 도정계획 주요 내용 ····· 74
<표 3-4> 해녀관련 2016 도정계획 주요 내용 ····· 84
<표 3-5>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5개년 기본계획 중점추진 과제 ····· 94
<표 3-6> 해녀박물관 어린이교육 운영 개요 ····· 35
<표 3-7> 세부프로그램 내용 예시: 찾아가는 박물관 교육 중
제주해녀를 소개합니다! ····· 53
<표 3-8> 2016 제주해녀문화 아카데미 프로그램 내용 ····· 45
<표 3-9> 제주해녀축제 프로그램 세부 내용 (4회~8회) ····· 55
<표 3-10> 제주해녀문화진흥원 사업 ····· 65
<표 3-11> 하도지역 해녀에코뮤지엄 사업 ····· 75
<표 4-1>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으로 본 무형문화유산의 정의 ····· 16
<표 4-2> 인류무형문화유산 분류 ····· 26
<표 4-3> 인류무형문화유산 긴급보호목록 등재 기준 ····· 26
<표 4-4>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기준 ····· 36
<표 4-5> 인류무형문화유산 모범사례 선정 기준 ····· 36
<표 4-6>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모범사례목록 ····· 46
<표 4-7>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목록 ····· 66
<표 4-8> 국내 인류무형문화유산 시설 관련 정부지원 ····· 76
<표 4-9> 국내 인류무형문화유산 DB 구축 및 기록 관련 정부지원 ·· 96

Contents

<표 4-10> 국내 인류무형문화유산 연구사업 확대 및 지속 관련 정부지원 ·96
<표 4-11> 국내 인류무형문화유산 진흥기관 설립 및 전문인력 확보 관련 정부지원 ····· 70
<표 4-12> 국내 인류무형문화유산 관련 제도 마련 및 개선 관련 정부지원 ·07
<표 4-13> 국내 인류무형문화유산 전승 자문인력 양성 관련 정부지원 ·17
<표 4-14> 국내 인류무형문화유산 일반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관련 정부지원 ····· 72
<표 4-15> 국내 인류무형문화유산 전승 시스템 및 정책 개발 관련 정부지원 ·37
<표 4-16> 국내 인류무형문화유산 전승 프로그램 지속화 관련 정부지원 ·37
<표 4-17> 국내 인류무형문화유산 축제 및 행사 관련 정부지원 ····37
<표 4-18> 국내 인류무형문화유산 온-오프라인 홍보 시스템 마련 관련 정부지원 ····· 74
<표 4-19> 국내 인류무형문화유산 체험 및 향유 확대 기회 관련 정부지원 ·57
<표 4-20> 국내 인류무형문화유산 미디어 홍보 확대 관련 정부지원 ·57
<표 4-21> 국내 인류무형문화유산 아마추어 및 동호회 확보 및 관리 관련 정부지원 ····· 75
<표 4-22> 국내 인류무형문화유산 유사 종목 국제 네트워크 사업 관련 정부지원 ····· 76
<표 4-23> 국내 인류무형문화유산 국제 교류 및 행사 지원 관련 정부지원 ·67
<표 4-24> 국내 인류무형문화유산 국제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 개최 관련 정부지원 ····· 77
<표 4-25> 국내 인류무형문화유산 유네스코 연계 지속적인 사업 개발 및 참여 지원 ····· 77
<표 4-26> 국내 인류무형문화유산 기타 지원 관련 정부지원 ·····77
<표 4-27> 문화재청의 문화유산 관련 국제사업 ·····87
<표 4-28> 전라북도 세계유산 예산 ·····08
<표 4-29> 국외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목록 현황 ·····38
<표 4-30>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주요 현황 ·····29
<표 4-31> 국외 인류무형문화유산 시설 관련 정부지원 ·····39
<표 4-32> 국외 인류무형문화유산 DB 구축 및 기록 관련 정부지원 ·69
<표 4-33> 국외 인류무형문화유산 진흥기관 설립 및 전문인력 확보 관련 정부지원 ····· 97
<표 4-34> 국외 인류무형문화유산 제도 마련 및 프로그램 관련 정부지원 ·89
<표 4-35> 국외 인류무형문화유산 연구·교육 사업 및 기반 마련 ···89
<표 4-36> 국외 인류무형문화유산 전승 자문인력 양성 ·····99

목 차

<표 4-37> 국외 인류무형문화유산 일반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 100
<표 4-38> 국외 인류무형문화유산 전승 시스템 및 정책 개발 ····· 100
<표 4-39> 국외 인류무형문화유산 전승 프로그램 지속화 ····· 101
<표 4-40> 국외 인류무형문화유산 축제 및 행사 ····· 101
<표 4-41> 국외 인류무형문화유산 온-오프라인 홍보 시스템 제작 ·· 102
<표 4-42> 국외 인류무형문화유산 체험 및 향유 확대 관련 정부지원 ·· 103
<표 4-43> 국외 인류무형문화유산 미디어 홍보 확대 관련 정부지원 ·· 103
<표 4-44> 국외 인류무형문화유산 아마추어 및 동호회 확보 및 관리
관련 정부지원 ····· 104
<표 4-45> 국외 인류무형문화유산 유사 종목 국제 네트워크 사업 개발 · 104
<표 4-46> 국외 인류무형문화유산 국제 교류 및 행사 개최 ····· 104
<표 4-47> 국외 인류무형문화유산 국제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 개최 ·· 105
<표 4-48> 국외 인류무형문화유산 유네스코 연계 지속적인 사업
개발 및 참여 ····· 105
<표 4-49> 국외 인류무형문화유산 기타 정부지원 ····· 106
<표 4-50> 설문조사내용 ····· 107
<표 5-1> SWOT 분석 ····· 311
<표 5-2> (신설) 제3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안) ····· 421
<표 5-3> 제주해녀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 ····· 8
<표 5-4> 제주해녀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연차별 투자계획(재원별) ·· 9
<표 5-5> 제주해녀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사업별) ····· 12
<표 5-6> 투자계획비 ····· 3
<표 5-7> 2016년도 주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축제 예산현황 ·· 3
<표 5-8> 해녀박물관 및 주변 주요 관광지 방문객 ····· 4
<표 5-9> 전통적 박물관과 에코뮤지엄의 비교 ····· 8
<표 5-10> 국내 현장박물관의 범위 설정 ····· 9
<표 6-1> 제주해녀문화 사업구상 ····· 6
<표 6-2> 제주해녀문화 사업 단계별 추진 계획 ····· 7
<표 6-3> 해녀문화 자긍심 고취 및 가치 확대 관련 예산 ····· 7
<표 6-4> 해녀문화 전승 및 양성 관련 예산 ····· 7
<표 6-5> 제도적 개선 및 복지 관련 예산 ····· 7
<표 6-6> 국제교류 관련 예산 ····· 7
<표 6-7> 해녀 홍보 및 브랜드 구축 관련 예산 ····· 7
<표 6-8> 소득확대 기반 마련 관련 예산 ····· 7

<표 6-9> 지식 기반 마련 관련 예산 ····· 87
<표 6-10> 거점(해녀박물관) 활성화 관련 예산 ····· 91
<표 6-11> 에코뮤지엄 조성 관련 예산 ····· 91
<표 6-12> 제주해녀문화 사업별 예산 산정 ····· 98

목 차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 수행 절차 ····· 6
[그림 2-1] 제주해녀문화 가치체계 ····· 61
[그림 2-2] 제주해녀문화의 속성별 구분: 문화의범주, 작업의 범주 ·· 81
[그림 2-3] 제주해녀문화의 속성별 구분: 규범의 범주, 공간의 범주 ·· 81
[그림 2-4] 제주해녀문화의 속성 ····· 91
[그림 2-5] 전국 해녀 현황 ····· 53
[그림 2-6] 제주해녀의 7개 가름 ····· 63
[그림 2-7] 기존 해녀생태유산 현황 ····· 63
[그림 2-8] 제주도 해녀관련 주변 관광자원 ····· 83
[그림 3-1] 수정계획의 기본 틀 ····· 114
[그림 3-2] 2016 제주도 정책방향 ····· 64
[그림 4-1] 국외 문화유산 정책 현황 ····· 83
[그림 4-2] 해녀에 대한 국내 인지도 파악 ····· 103
[그림 4-3] 해녀에 대한 국외 인지도 파악 ····· 109
[그림 4-4] 해녀문화 활성화 단기적 정책방향 ····· 110
[그림 4-5] 해녀문화 활성화 중장기적 정책방향 ····· 110
[그림 5-1] SWOT Matrix ····· 111
[그림 5-2] SWOT 분석을 통한 전략 도출 ····· 114
[그림 5-3] 주요 정책 구성 ····· 119
[그림 5-4] 제주해녀문화 활성화 정책 추진 주체별 구상 ····· 120
[그림 5-5] 제주해녀활성화 방안 설정 ····· 121
[그림 5-6] 소속별 위원회 현황 ('15.6월말 기준) ····· 122
[그림 5-7] 해녀 다큐 영화 '물숨' ····· 127
[그림 5-8] 해녀박물관 ····· 132
[그림 5-9] SNS 홍보이벤트 사례 ····· 134
[그림 5-10] 고양시 SNS 홍보이벤트 사례 ····· 134
[그림 5-11] 제주문화원형을 주제로 한 문화콘텐츠 공모 사례 ····· 138
[그림 5-12] 사례 국립국악원 뮤지컬 오늘이(제주 설화주세) ····· 143
[그림 5-13] 해녀 직영 음식점 ····· 155
[그림 5-14] 서울안심먹을거리인증마크 ····· 156
[그림 5-15] 남양주시 유기농산물 사용음식점 인증마크 ····· 157
[그림 5-16] 제주지역 특산물(사례) ····· 162
[그림 5-17] 제주해녀축제 ····· 163

Contents

[그림 5-18] 어촌계 별 현직 제주해녀 분포도 ····· 110
[그림 5-19] 제2공항 ····· 111
[그림 5-20] 해녀박물관의 기능 확대 ····· 113
[그림 5-21] 기능확대를 위한 대안 ····· 114
[그림 5-22] 국립중앙박물관과 박물관문화재단 조직 ····· 114
[그림 5-23] 국립국악원과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 115
[그림 5-24] 제주해녀박물관 조직도 ····· 115
[그림 5-25]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조직도 ····· 116
[그림 5-26]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형 문화유산 국제 연구센터 조직도 ·· 116
[그림 5-27] 현 박물관 조직 확대와 조직 내에서 세부 조직 신설 ·· 117
[그림 5-28] 현 박물관 조직의 확대와 병행하여 사업 중심 기관 신설 ··· 118
[그림 5-29] 현 박물관 조직의 진흥기관으로의 변화 ····· 118
[그림 5-30] 우선적 교류 대상의 기관/단체(예시) ····· 121
[그림 5-31]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 125
[그림 5-32] 현장박물관 구성요소 및 목표 ····· 127
[그림 5-33] 에코뮤지엄의 범위 ····· 128
[그림 5-34] 제주해녀 에코뮤지엄 프로그램 구성 ····· 130
[그림 5-35] 브라질 '살아있는 판당고 박물관' ····· 132
[그림 5-36] 판당고 무도회 및 생활 관습 ····· 133
[그림 5-37] 판당고 살아있는 박물관 프로그램 ····· 134
[그림 5-38] 살아있는 판당고 박물관 사례 ····· 135

제 1 장

연구의 개요

제 1 장 연구의 개요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016년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후 국내외의 다양한 제주해녀문화 향유 욕구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

- 제주의 해녀는 한국의 특별한 삶의 방식으로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생활문화임. 이 때문에 해녀를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인식하여 학계, 문화계, 언론계에서 제주해녀를 2016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 해녀박물관이 2006년 구좌읍 하도리에 개관되어 현재 연간 관람객 수가 20여만 명에 이르는 등 동부권의 관광명소로서 자리 매김하고 있으며, 더불어 해녀문화센터 건립, 해녀생태박물관 계획, 해녀축제 개최 등 해녀문화의 전승 보존에 대한 열기가 드높음
- 등재 이후 제주 해녀문화의 세계적인 보존 및 확산 가치 역시 국제적, 그리고 국가적으로 확대
- 이에 제주해녀는 세계적으로 희소가치와 인류 문화에 우수한 유산으로 제시될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향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연구가 필요

▌제주해녀문화 관련 제주도와 중앙정부 간의 지속적 공동 사업 발굴 및 지원 방안 마련, 이에 대한 중장기 전략과 핵심과제 및 방안 발굴이 시급

- 해녀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해녀육성, 주변자원을 이용한 문화관광 산업의 발굴 및 추진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통계에 따르면 도내 해녀 현황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50대 이상으로 고령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 및 국내 관광객도 마찬가지로 제주 해녀박물관 등 관광 상품에서 구매할 수 있는 매력 및 브랜드 가치가 높은 상품이 매우 미흡한 실정

2. 연구 목적

▌추진 전략 및 세부 사업 준비

- 해녀문화 관련 정책 환경 및 사회·경제 및 자연 환경의 변화에 직면한 해녀문화의 현황 파악 및 문제점에 대한 공공 정책으로서 대응방안 제시
- 제주도와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지속적인 해녀문화 진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추진전략 및 세부 사업을 준비하여 제시

▌해녀문화 정책 수립

- 제주도와 중앙정부가 지속적으로 의사소통 하면서 해녀문화를 국내외에 확산하며 실태를 개선하고 종합적으로 진흥시킬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해녀문화정책을 수립
- 이를 통해 제주해녀문화를 세계적인 문화 아이콘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해녀문화를 제주의 자연유산과 해양문화의 중심으로서 국제적인 대한민국의 문화 콘텐츠로서 고양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

제 2 절 연구의 범위

1. 연구의 범위

1.1. 공간적 범위

- 공간적 대상: 대한민국(국정계획으로 확대) 및 제주도
  - 유네스코 관련 국제적 범위 확대 가능
- 제주해녀문화 과거·현재·미래

1.2.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16년(계획수립 및 착수)
- 목표연도: 2020년(계획 포함 5개년 중장기 계획)
- 개발기간: 2016년~2020년(5년간)

1.3 내용적 범위

▌해녀문화 관련 현황 분석

- 제주해녀문화 현황과 향후 전망 및 문제점 분석
- 국외 유사 해녀문화 현황과 향후 전망 및 제도 및 정책 분석

▌해녀문화 관련 정책방향 수립

- 제주해녀문화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 제시
- 제주해녀문화 육성 목표, 전략, 단계별 계획 수립
- 해녀문화 세계화 정책방향 수립
- 제주도와 중앙정부와의 핵심과제 발굴
- 제주해녀박물관 현황 분석 및 세계화를 위한 거점 활용 방안 및 구체적인 개선사항 발굴
- 제주해녀박물관을 거점으로 정부차원에서 제주 해녀문화 확산을 위한 역할 확대, 기본 운영 체계 및 방안 마련

2. 연구의 방법

2.1. 연구 수행 방법

▌현장 조사 및 분석

- 현장 조사: 제주해녀 대상 현장 실태 및 요구도 조사
  - 제주해녀 관련 주요 권역별 방문 정책 요구사항 및 필요성 등 청취
  - 관련 주요 인프라 현장 조사
- 의견 수렴 및 인터뷰 조사
  - 제주해녀 대상 1:1 면담 조사
  - 정책자문, 전문가 간담회 개최를 통한 의견 청취(정책 자문회의, 간담회 및 보고회 활용)

▌자료 및 문헌연구

- 제주해녀문화의 개념 및 내용 등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 수집 분석
- 국내외 해녀문화 지원 관련 법률, 정책자료 등을 검토하여 현재 해녀문화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 수준을 통합적으로 분석
- 국내 다양한 문헌 및 기타 자료를 통해 제주해녀문화 현황 및 여건을 분석하여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적 방향을 도출

▌국내외 조사

- 국내외 해녀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및 지원책 등의 정책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현실과 정부 정책에 접목 가능한 방안 제시

2.2 주요 선행 연구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5개년 기본계획

- 주요내용: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계획 관련 장기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제시
- 제주해녀축제 세계화
- 제주해녀문화 발굴·조사·연구
- 마을어장 보호 및 소득증대
- 해녀문화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 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 해녀의 날 지정/해녀문화 홍보

▌해녀생태 박물관 조성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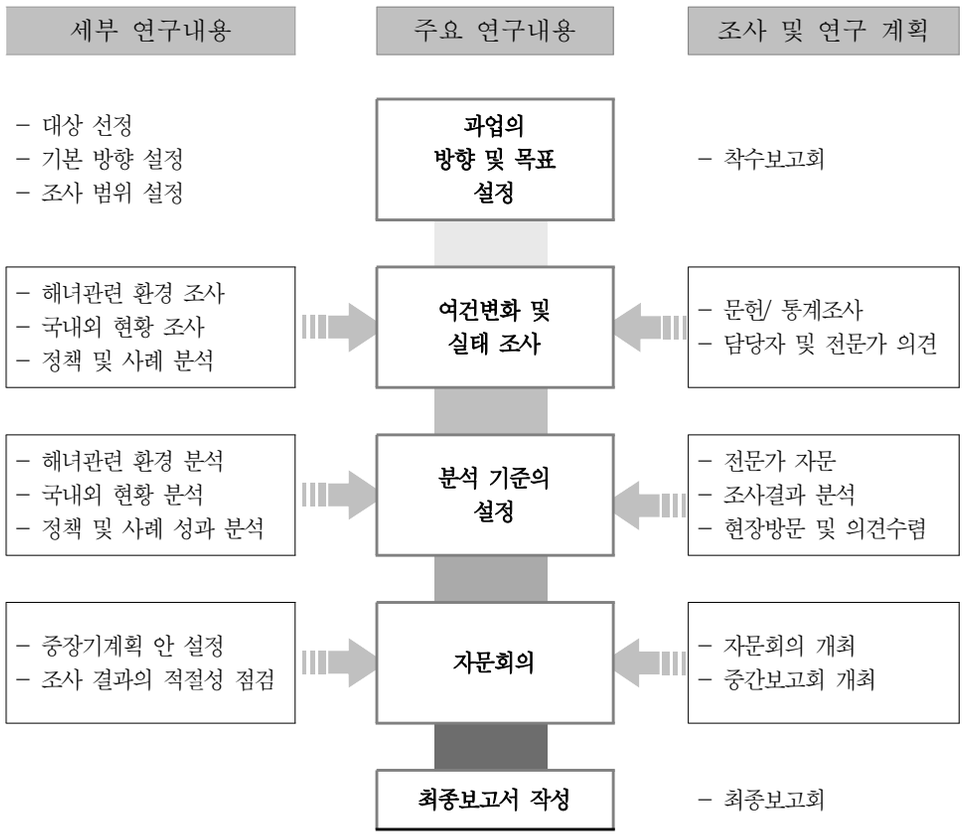
- 생태박물관(Eco-Museum)은 환경과 조화되고 역할 달성의 의미에서 '확장된 의미의 박물관'으로 고유의 역사적 전통을 바탕으로 하여 사람, 환경, 문화가 만나는 장소임
- 해녀들의 삶과 자연의 축소판으로 해녀마을의 모습, 어촌의 풍경, 주거생활, 바다어장의

생태, 바다로 가는 도로와 탈의장, 불턱, 해신당, 굿 의례 등의 보존을 가능케 함

- 대상지인 구좌읍 하도리는 '해녀항일운동 발상지'라는 역사적 의의가 담긴 곳으로 해녀생업이 왕성하고 해녀공동체와 작업장이 잘 정비되어 있으며 과거에 사용하던 불턱과 무속의례 성소인 '각시당', 요왕맞이, 잠수 굿 등 고유한 무속의례 형태가 잘 보존되어있음
- 해녀생태박물관은 작업공간인 해녀마을의 모습과 주거생활, 바다어장의 생태, 작업도구와 옷, 불턱, 해신당, 해녀노래와 신앙 등 제주해녀의 유·무형 문화유산의 전통을 전승 보존하는 중심적 연구의 역할을 하고 정적인 전시 관람의 한계를 극복하는 기능과 역할
- "독특한 해양 생태 지킴이, 제주해녀의 지속가능성"을 제목으로 2012년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WCC)의 제주형 의제에서 해녀가 '해양생태 관리자'로서 해양생태계에 기여해왔던 공을 인정하여 사라질 위기에 처한 해녀문화 보존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적으로 정부·지방차원에서 해녀 공동체를 보호하고 고양시킬 노력을 촉구함

제 3 절 연구의 수행과정

1. 연구 수행 절차



[그림 1-1] 연구 수행 절차

2. 연구 주요 고려 사항

▌주요내용

- 국가차원의 종합계획의 대상으로서 제주해녀문화의 가치 발견 및 제시
- 제주해녀문화 차원에서 국가 정책 필요성 제시
-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제주해녀문화 위상 제시

▌제주해녀문화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 수립

-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해녀문화 발전 계획으로 제시될 수 있는 정책 목표, 전략 및 중점사업 제시
-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방안을 위해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현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기존의 문제점 및 대안제시)
- 제주해녀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제주도와 중앙정부간의 실질적, 중장기, 지속적인 실행가능 핵심과제 발굴
- 핵심과제 발굴 시 해녀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해녀 문화지속화, 해녀 문화 전승확산 방안 및 교육방안 등 효율적인 양성 방안마련
- 제주의 자연 유산과 역사/문화 콘텐츠와 연계한 제주해녀문화 활성화 방안 마련
- 제주해녀문화의 중심 거점으로서 해녀박물관의 국내외적 위상, 역할 및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국내외 해녀문화의 거점으로 재조정함
- 제주해녀가 중심이 되어 제주해녀문화를 국내외 확산할 수 있는 거버넌스 방안을 제시하며 제주해녀박물관을 거점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안 제시
- 해녀박물관이 해녀문화의 구체적인 거점으로서 연구, 홍보, 교육, 전시, 기념, 안내, 자연유산연계, 편의 기능을 포함한 조직체계 구성, 예산, 운영관련 제도적 근거, 프로그램 예시, 중장기 운영방향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함
- 해녀박물관 인근 지역 유적과 연계한 문화관광 코스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콘텐츠자원화 활용방안을 마련
- 국내외의 유사 사례의 운영 실태를 비교·검토하고 이를 벤치마킹

3. 연구 기대 효과

▌해녀문화 지원을 국가 종합정책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

▌제주해녀문화 활성화를 위한 실천적 정책 사업 마련을 위한 근거 마련

▌제주해녀문화의 국제화 및 정부차원의 위상 확대 방안 마련

제 2 장

제주해녀문화 진단

제 2 장 제주해녀문화 진단

제 1 절 제주해녀문화의 의미

1. 해녀의 의미와 역사자원

1.1 해녀의 의미

▌수산업법에 의한 해녀의 의미[1)]

- 수산업법에 의하면 '수산업'은 어업·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 가공업을 포함하고 있음. '어업'이란, 수산 동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말하며 '어획물운반업'이란, 어업장으로부터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이며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사료·비료·호료(糊料)·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함
- 또한 '어업인'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하며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어획물운반업자'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하며 '어획물운반업종사'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현장에서 양륙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의미함
- 어업 중, 면허사업과 신고어업을 제외한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고어업에 포획·채취를 하는 나잠어업이 있음
- 이 나잠어업에 종사하면서 바다 속에 들어가 해삼·전복·미역 등을 따는 여성 어업인을 해녀라고 정의함

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신고어업)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나잠어업(裸潛漁業):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호미·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2. 맨손어업: 손으로 낫·호미·해조틀이 및 갈고리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② 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고한 조업수역이 제12조제3항에 따라 어업면허의 금지가 공고된 수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7조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2조에 따른 조업수역의 조정이나 조업의 허용 또는 제한을 말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7조 제6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가 효력을 잃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어업신고증명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1) 국토해양부(2009), 해녀 복지증진 및 관광자원화 내용 발췌

▌제주해녀의 의미[2)]

- 해녀는 아무런 기계 장치 없이 맨몸으로 바닷물 속에 들어가 전복·소라·미역·우뭇가사리 등 해산물을 직업적으로 채취하는 여성을 일컬음. 제주에서는 잠녀(潛女)·잠수(潛嫂)라고 불렀음
- 자맥질을 하면서 해산물을 캐는 사람들은 세계 곳곳에 존재하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업으로 물질을 하는 해녀·해남의 분포지역이 한국과 일본으로만 한정되어 있고, 특히 일본에서는 남자 잠수부를 해사(海士)라고 불렀음
- 제주여성은 돌, 바람과 함께 제주 섬을 다른 지역과 구별시키는 특별한 존재로 알려져 왔음. 동시에 제주 여성, 특히 해녀에 관한 이야기는 제주 섬 전체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음. 수탈과 고통의 해녀 역사는 곧 제주 섬의 설움의 역사로 말하여짐
- 또한 해녀의 특성으로 말해지는 근면, 검소, 자립, 생명력은 오늘날 제주여성, 나아가서 제주인의 정체성으로도 나타남. 따라서 해녀 또는 제주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제주 섬 정체성 변화를 이해해 볼 수도 있음
- 해녀의 역사로써 문헌상에는 800년 전이라는 기록이 발견되었는데 유물로 볼 때는 아마도 2000년 전 즉,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보고 있음. 즉, 제주의 역사와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척박한 제주도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들은 제주의 상징이라 할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3차 여성정책 중기계획안에 제주해녀를 유네스코 지정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한 준비를 갖춘 후, 2011년 등재 신청을 한다는 계획을 세웠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인 해녀의 수가 사회 환경 변화로 급격히 줄어들자 2010년까지 기초통계 및 고문헌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해녀생태마을을 지정하며, '불턱'과 '해신당', '잠수굿'을 지방문화재로 지정하는 등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기반을 구축하고 있음
- 해녀의 가치는 인간주거의 특징적인 사례로서 자연에 의해 파괴되기 쉽거나 역행할 수 없는 사회·문화적 혹은 경제적 변혁의 영향으로 상처받기 쉬운 것과 연관됨으로써 해녀의 자산과 문화가 10년 이내에 완전히 와해되고 사라질 위험에 있다는 점 등이 최근 부각되기 시작하였음
-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해녀를 유네스코 지정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리민족 문화를 대표하는 100대 민족문화상징으로 해녀를 선정하고 있는 등의 해녀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전해 나가려는 움직임이 있음

▌제주해녀문화의 의미[3)]

- 해녀문화란 제주해녀들이 물질과 함께 생활에서 생겨난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하며, 나잠기술, 어로민속지식, 신앙, 노래, 작업 도구와 옷, 공동체의 습속 등을 포함한다고 해녀문화의 정의를 내리고 있음

2) 제주특별자치도(2014), 해녀항일운동공원조성 기본계획수립 연구보고서 내용 발췌
3) 제주특별자치도(2009), 해녀항일운동공원조성 기본계획수립 연구보고서 내용 발췌

2. 제주해녀 역사자원[4)]

▌해녀노래, 일명 해녀 노 젓는 소리(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호)

- '해녀노래'는 일명 '해녀 노 젓는 소리'를 지칭함
- 노래의 생산 주체는 흔히 '잠녀'(潛女), '잠수'(潛嫂)들로 주로 돛배의 노를 저어 섬으로 가거나 출가(出稼)를 위해 육지로 배를 저어가면서 '뱃물질' 나갈 때 부르는 '노 젓는 소리' 유형이 주종임

▌해녀항일가

- 1932년 구좌읍 세화리 해녀 항쟁을 기점으로 해서 우도 출신 강관순이 작사하고 일본의 공인 '동경행진곡'의 음곡에 맞추어 우도 구좌 성산 해녀들 중심으로 불림
- 1,2,3절은 해녀의 삶을 동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고, 4절은 구체적으로 항일의 저항의지를 그 내용으로 담고 있음

(1)
우리는 제주도의 가이없는 해녀들
비참한 살림살이 세상이 안다
추운 날 더운 날 비가 오는 날에도
저 바다에 물결 위에 시달리는 이내 몸

(2)
아침 일찍 집을 떠나 황혼 되면 돌아와
어린아이 젖먹이며 저녁 밥 짓는다
하주옹일 하였으나 버는 것을 기막혀
살자하니 근심으로 잠도 안 오네

(3)
이른 봄 고향산천 부모형제 이별코
온가족 생명줄을 등에다 지고
파도 세고 물결 센 저 바다를 건너서
기 울산 대마도로 돈벌이 간다

(4)
배움없는 우리해녀 가는 곳마다
저놈들은 착취기간 설치해놓고
우리들의 피와 땀을 착취해간다
가이없는 우리해녀 어디로 갈까

▌무속의례(1) – 김녕리 잠수굿

- 해녀들의 무사안녕과 어업의 풍요를 위해 치러지는 굿을 말하며 해녀들의 안녕과 해산물의 풍요를 기원하는 굿으로 김녕리 잠수굿이 유명함
- 김녕리 잠수굿은 음력 3월 8일이 제일(祭日)로 재물준비나 모든 의식의 제수비용은 잠수회에서 공동으로 마련해 치르고 있어서 생업과 의례가 하나가 된 모습을 볼 수 있음
- 구좌읍 김녕리 '잠수굿' 의례는 해녀들 독자적인 신앙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성하는

4) 제주특별자치도(2014), 해녀항일운동공원조성 기본계획수립 연구보고서 2014, p 10~15

것으로 볼 수 있고, 해양신앙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무형문화재로 시급한 지정이 필요함

- 김녕리 성세기당은 동해용왕의 말젯아들을 모시고 있으며, 어선과 해녀들을 관장하는데, 매월 1일, 8일, 19일을 제일로 잡는 소위 '여드렛당'이며 남성들의 유교식 제례인 포제(酺祭)가 끝난 후에도 해녀들은 성세기당을 찾아 기원함
- 해녀들 각자는 집에서 돼지를 잡아서 제를 올리는 '돗제'를 행하고 있기도 한데, 과거에는 '궤눼깃당'에서 치러졌으나 현재는 개별의례로 치러지고 있음
- 해녀사회의 신앙공동체 의식이 잘 반영되고 그 문화를 대표하는 것으로서의 '김녕리 잠수굿'은 반드시 전승 보존되어야 할 해녀문화유산임

▌무속의례(2) – 구좌읍 하도리 요왕맞이

- 해녀들 공동으로 치러지는 집단의례로는 영등굿이 있으며, 개인의례로 음력 정초에 '본향당'에 가서 비는 '비념', 바다의 용왕에게 바치는 '지드림' 행사를 치름
- 해녀의 일은 위험하여 사고로 인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경우도 있기에 재발방지를 기원하는 무속의례는 비교적 오염되지 않은 기초적인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신적인 무기와도 같음
- 작업의 안전과 풍요를 기원하는 신앙처이며, 신이 좌정한다고 여겨지는 무속의 성소인 '각시당'에 좌정한 신은 바다의 용왕과 관련된 '요왕(용왕)', '용해국대부인', '용녀부인', '남당할망'과 함께 주로 '뱃선왕' 관련 신들이 좌정해 있음
  - 과거에는 '영등환영제'와 '영등송별제'가 현존하는 영등굿 형식으로 생업과 신앙이 하나가 되어 의례가 치러지며, 어부나 해녀들의 해상안전과 생업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풍요신이면서 음력 2월 초하룻날에 들어와 2월 15일에 우도를 통해서 나간다고 믿어짐
  - 영등굿의 주신인 영등신은 '영등할망'으로, '강남천자국' 또는 '외눈배기섬'에서 왔다가 되돌아가는데 해녀와 어부의 어로활동과 안전, 해산물의 풍요를 관장함
  - '지드림'은 영등굿의 제례가 종료된 때이거나 신년이 되어 처음 물질 작업을 시작할 때, 밥이나 쌀을 한지에 싸서 실로 묶어 바다에 던지는 것을 말하며, 물에서 돌아가신 조상의 영혼을 위로하여 바치는 조그마한 정성과도 같음

▌해신당 소재와 무속의례

- 해신당은 해녀들이 물질작업의 안전·풍요를 기원하거나 신앙하는 곳임.
- '개당', '돈짓당'이라고도 하며 좌정한 신 역시 대부분 바다를 관장한다고 인식되는 '요왕'이 좌정하거나, '용해국대부인', '용녀부인', '남당할망', '남당하르방'과 더불어 주로 어부들이 신앙하는 뱃선왕이 좌정해 있다고 신앙되고 있음

<표 2-1> 해신당의 분포 및 무속의례

연번	마을명	당명	매인 심방	신적 특성과 제일
1	한동리	'망애물 해신당'		강원도에서 온 해신, 구좌읍 행원리에서 가지 갈라옴
2	세화리	'갯것 할망당'		송씨할망, 송씨하르방, 개하르방, 개할망, 돈지아미 (음력 2월 11일 제일)
3	하도리	'면수동 본향'	고복자	여씨불도 할망당
		'각시당'		남당하르방, 남당할망, 초하루 보름 제지냄 (음력 2월 13일 영등제일)
4	종달리	'생개남동짓당'		수시 의례
5	김녕리	'성세기당'	서순실	잠수굿(음력 3월 8일 제일)
6	행원리	'남당'		남당하르방, 남당할망, 중이대사 (음력 1월 2일 제일)
7	월정리	'배롱개해신당'		요왕, 선왕, 초하루 보름 제지냄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2014), 해녀항일운동공원조성 기본계획수립 연구보고서, p 14

해녀문화 전승 보존의 장 '해녀축제'

- 해녀축제는 해녀문화 전승 보존을 형성하는 장을 위한 최고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이벤트라고 할 수 있음
- 해녀들 생업과 역사, 문화 등 독특한 해녀전통문화의 전승 보존을 위한 지역축제로 관광인프라 구축이 가능함
- 제주여성의 전통적인 생업이며 전 세계적으로 희귀한 직종으로 해양문명사적 가치 홍보가 가능함
- 인간의 한계의지, 곧 죽음에 도전해서 작업하는 해녀들의 강인함과 도전정신이 포함되고 있음
- 도내 역사 관련 기록상에 남은 해녀축제는 1966년 6월 28일 행해졌던, 행사 내용으로 개인경기 200미터 수영, 소라와 전복 따기, 노 젓기, 보물찾기, 릴레이, 미스잠수선발 대회, 의상선발 대회 등이 포함됨
- 그간의 해녀민속공연과 축제 관련 추진상황
  - 해녀민속공연('06. 6. 9)
  - 해녀민속공연('07. 6. 9, 10. 9)
  - 해녀민속축제('08. 10. 10 ~ 10. 11)
  - 제3회 해녀축제('10. 10. 9 ~ 10. 10)
  - 제4회 해녀축제('11. 10. 15 ~ 10. 16)
  - 제5회 제주해녀축제('12. 9. 8 ~ 9. 9)
  - 제6회 제주해녀축제('13. 10. 12 ~ 10. 13)
- 제3~6회 해녀축제는 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세계적인 무형문화 축제로 확대하고

일본 아마와 출가 해녀와의 공동연대 결성 및 교류의 장 마련이 그 특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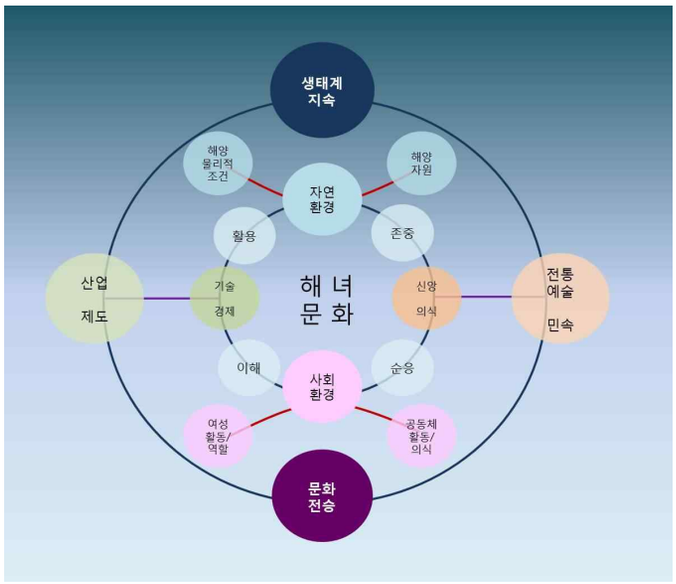
- 위치: 제주 전역(어촌계 단위) 및 구좌읍 해녀박물관
- 내용: 해녀문화 행사(축제) 1식
  - 전국 출가 해녀 및 제주도내 해녀 대 집합 물질 경연
  - 해녀민속예술공연(초중고), 일본 아마 초청 공연
  - 관광객과 함께하는 해녀 체험, 불턱 체험 등

제 2 절 제주해녀문화의 가치

1. 해녀문화의 가치

▌제주해녀 문화의 체계

- 제주 해녀문화의 가치는 자연환경, 인간사회 그리고 자연과 인간이 만나며 생성된 문화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
- 즉 해녀문화는 '생태계', '자연환경', '전통', '민속', '생활문화', '산업', '제도' 전반에 걸친 살아있는 공동체문화로서 가치가 있음
- 제주해녀문화는 자연 및 생태계 측면에서는 해양, 해안과 섬 등 서로 다른 물리적 환경이 연결되는 환경에 적응하고 반면 보존과 활용이 연계되는 문화의 가치가 있음
- 사회문화적으로는 과거-현재-미래로 연결되는 공동체의 사회문화로서의 가치가 있으며, 전통문화의 측면에서는 신앙, 의식, 예술 등이 포괄되는 가치가 있음
- 어업과 다양한 제도와 과학기술의 변화, 산업 및 소비의 변화에 따른 결과로서 현재 제주해녀문화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음



[그림 2-1] 제주해녀문화 가치체계

▌제주해녀문화 가치

- 제주특별자치도는 2009년에 <제주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주해녀문화에 대한 보존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이 조례는 "세계적으로 희소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인 제주해녀들의 고유한 공동체 문화" 즉 해녀문화를 "체계적으로 발굴, 보존 및 전승시키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 이 조례에서 해녀란 현재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안의 마을어장에서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고 있거나 과거에 이와 같은 일에 종사했던 여성을 말함
- 제주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위원회>가 2011년에 구성되었으며, 같은 해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제주해녀문화의 보존과 전승에 관한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음
-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5개년 기본계획(2011~2015)은 제주해녀축제의 세계화, 제주해녀문화의 발굴·조사·연구, 마을어장 보호 및 소득증대, 해녀문화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해녀의 날 지정, 그리고 해녀문화 홍보 등 7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으며 마을어장 자원의 조성 및 회복사업과 신규해녀 양성 프로그램이 기본계획의 핵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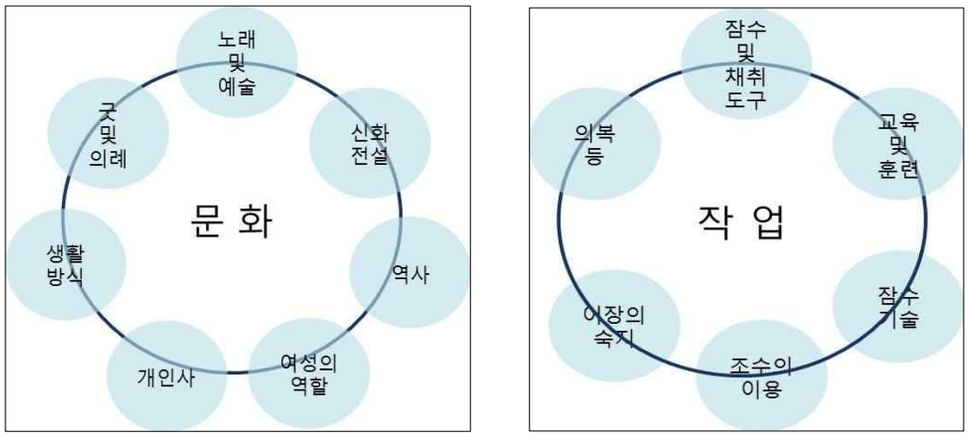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해녀문화 가치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무형유산협약 2조 1항"에 명시된 무형유산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특히 전 세계 문화다양성을 보여주고 인류 창의성을 증명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함
- 무형유산협약 2조 1항에는 공동체, 집단 및 개인들이 그들의 문화유산 일부분으로 인식되는 실행, 표출, 표현, 지식 및 기술뿐만 아니라 이오 관련된 전달 도구, 사물, 유물 및 문화 공간을 모두 의미하고 있음
- 무형유산협약의 관점에서 해녀 문화는 독특한 해양생태 지킴이로서 세계 유일 여성 중심의 바다를 대상으로 한 지식 및 기술의 형태로 세계 문화다양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인정되었음
- 고려(Considering): 해녀는 여성이 중심이 되고, 수세기 동안 이어져 내려온 여성의 전문직업으로 인식, 재고(Furtuer Considering): 기술, 도구, 노동요, 주술적 신념체계, 집단 경제의 실천, 지역사회 재투자, 상호부조, 무엇보다도 어느 누구와도 필적하기 힘든 해양 생태계에 대한 지식이 독특한 지혜와 유형, 무형의 문화유산을 대표하여 그들만의 '전통지식'을 만들고 있음
- 주의(Noting): 호흡기 없이 잠수를 통해 수확을 하고 수확량을 조절하여 재생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며, 바다 청소 등과 같은 작업을 통해 해양 생태계 유지를 위한 관행을 지속함으로써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는 지속가능형 생태계 모델을 실천하고 있음
- 인식(Recognizing): 해녀들의 채취활동은 원칙적으로 바다를 지배하고 황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다라는 자연 안에서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가면서 공존하는 방식이며 그들

의 삶 자체도 누구에게 굴복하지 않는 합리성에 기반을 두고 있음에 따라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해양생태계 관리자로서 인식으로 그 가치가 의제되었음

2. 제주 해녀 문화의 속성별 구분

- 제주해녀 문화는 크게 제주해녀 고유의 '문화', 생업으로서의 나잠 '작업', 사회적 합의로서 '규범과 제도' 그리고 물리적 환경으로서 '공간'으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 요소로 분석하면 아래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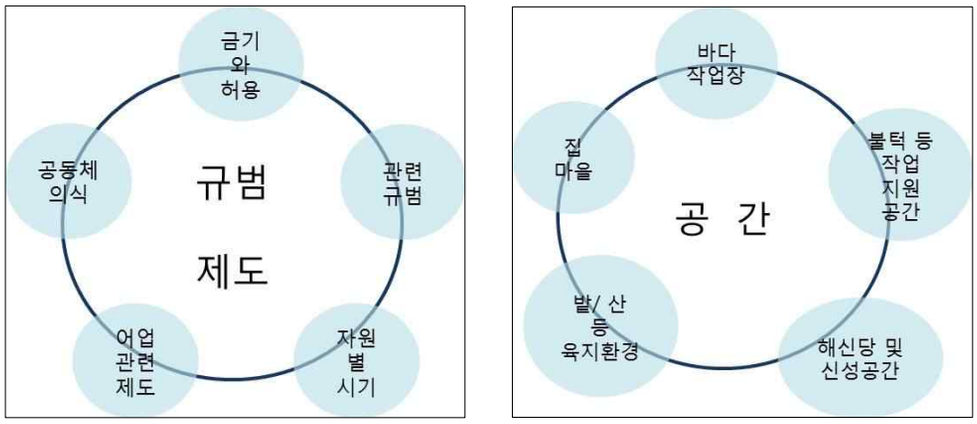
[그림 2-2] 제주해녀문화의 속성별 구분: 문화의범주, 작업의 범주

▌문화의 범주

- 제주해녀 문화는 해녀 활동과 관련하여 전승되어온 다양한 신화, 전설, 노래 및 전통예술, 굿과 의례 등을 포함하며 과거와 현대의 생활방식의 변화, 역사 그리고 해녀를 통한 여성의 삶에서의 역할, 개인사 등을 포함함. 이는 제주해녀 정체성의 중심요소로 볼 수 있음

▌작업의 범주

- 생업으로서 해녀활동과 관련된 의복, 도구(빗창, 소중이, 태왁 등), 잠수기술, 어장과 바다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를 위한 교육과 훈련 전반에 걸친 요소를 포함하며 실재 해녀의 전승과 지속에 관련된 중심 요소임



[그림 2-3] 제주해녀문화의 속성별 구분: 규범의 범주, 공간의 범주

규범의 범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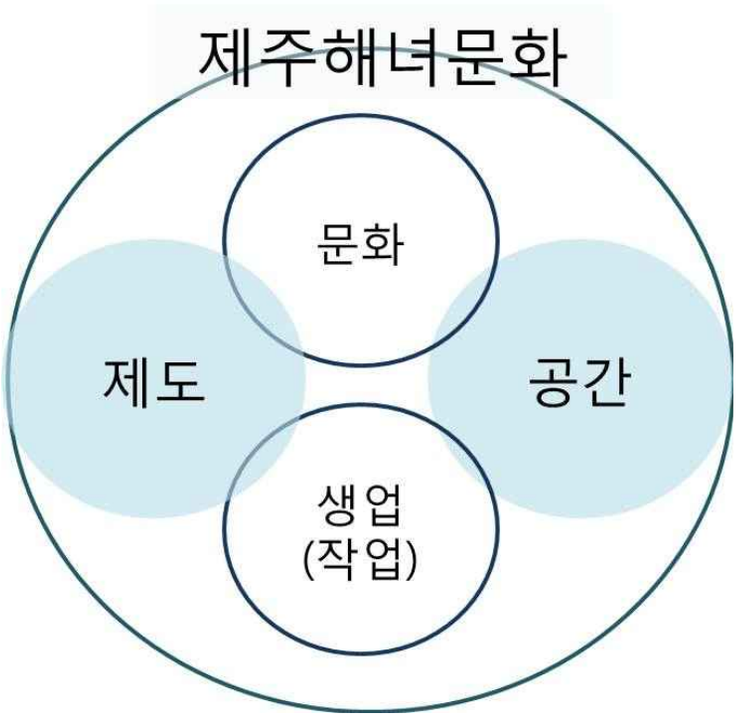
- 규범 분야에서는 전승해온 규범, 공동체의식, 금기 등과 현대 어업관련 제도, 조례를 포함한 지원제도, 문화재보호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유네스코 등의 제도까지 포함함

공간의 범주

- 공간은 제주 해녀문화의 산실인 환경을 포함하며 자연환경(해양, 해안 및 육지)와 마을 등 인공 환경을 포함
- 또한 공간에 조성된 제주해녀문화의 물리적 환경 즉 불턱, 신성공간(해산당 등) 및 작업관련 공간을 포함하고 있어 제주해녀문화를 둘러싼 환경 전반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 이러한 제주의 특정한 공간은 제주해녀문화가 생성되고 지속되는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 볼 수 있음

정책 구성

- 정책은 제주해녀문화의 속성 중 이러한 문화, 생업(작업), 제도, 공간을 중심으로 포괄적인 제도적 및 물리적 기반 마련, 보존, 전승, 교류, 연구, 발전 및 진흥, 교육과 체험을 중심으로 제시될 수 있음



[그림 2-4] 제주해녀문화의 속성

제 3 절 제주해녀문화 현황 및 진단

1. 제주해녀현황

▌제주해녀의 역사[5)]

- 제주여성은 돌, 바람과 함께 제주섬을 다른 지역과 구별시키는 특별한 존재로 알려져 왔음
- 동시에 제주 여성, 특히 해녀에 관한 이야기는 제주섬 전체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음. 수탈과 고통의 해녀 역사는 곧 제주섬의 설움의 역사로 말하여 지고 있음
- 또한, 해녀의 특성으로 말해지는 근면, 검소, 자립, 생명력은 오늘날 제주 여성, 나아가서 제주인의 정체성으로도 나타남
- 따라서 해녀 또는 제주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제주섬 정체성 변화를 이해해 볼 수 도 있음
- 제주도의 마을은 대부분 해안을 돌아가며 이루어졌고, 해안 마을마다 해녀가 있음. 이 해녀들은 제주도 수산업의 중추역학을 담당해왔으며 그 해녀 수가 제주도 수산인구의 3분의 2에 이르는가하면 해녀들에 따른 소득은 총 어획고의 절반쯤을 항상 확보해 오고 있음
- 오늘날에는 제주해녀를 근면하고 강인한 존재로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물질하는 것을 천한 것으로 간주해 왔음. 제주해녀에 대해 나오는 조선시대의 문헌들은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관리들 아니면, 제주에서 유배생활을 하였던 이들이 남겨놓은 것들임
- 제주해녀의 모습에 대한 기록은 「탐라문헌집: 제주풍토기」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며 17세기 제주에서 유배생활을 하였던 이건(李建)의 기록을 보면, 남녀유별을 강조하였던 유교사회에서 남녀가 같이 물질을 한다고 놀라워하면서 특히 '물소중이'만을 입은 벌거벗은 모습으로 물질을 하는 제주해녀를 '천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음
- 과거에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인들이나 유배인들이 천하다고 보았던 벌거벗은 모습은 제주도가 관광지가 된 오늘날에는 관광객을 위해 해녀상과 관광토산품으로 다시 형상화 되고 있으며, 이들 석상과 관광토산품은 요즘 보기 힘든 젊은 제주해녀를 모델로 하여 성적매력을 강조하고 있기도 함
- 그러나, 제주 역사의 흐름과 함께 주로 수탈당하는 존재로써 강요된 이미지를 받아들여야 했던 제주 여성이 1960년대 이후 지역 엘리트나 지역 당국에 의하여 긍정적인 이미지가 강조되어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 '근면·검소·자립' 정신 등 당시 국가의 구호에 맞추어 전 세계적으로 본보기인 '근면성', 숙명적이고 무의식적 '검소', 자력으로 늙도록 생계를 유지하는 '자립정신'이 제주 여성의 본질적인 자질로써 강조되어짐
- 해녀 또한 수출 산업의 역군으로써 재평가되기도 하였으며, 제주 여성 스스로도 이러한 이미지에 적극적으로 동일시하고 있음이 1970년대에서 엿볼 수 있으며, '일하는 제주여성·생활역이 강한 여성·근면, 검소, 자립적인 제주 여성상'은 그 후 거듭 재생산되면서 현재까지

5) 국토해양부(2009), 해녀 복지증진 및 관광자원화 내용 발췌

유지되어지고 있음

- 1980년대 이후 관광업, 매스컴, 교통 등의 발달로 제주 주민은 유사 이래 가장 많은 타 집단과 직·간접으로 만나게 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제주 여성에 대한 내용들도 정부, 관광객, 지역 당국, 육지 여성 등 보다 다양해지고 제주 여성들의 정체성도 보다 다중적이고 모순적으로 나타났음
- 우선 지역 엘리트와 지역 당국은 제주섬의 고유한 특성이 약화되어 간다고 인식하면서 '전통의 재창조' 작업에 관심을 두는데 이때 제주 여성, 특히 해녀의 이미지를 적극 재창조하였음
- 해녀는 제주섬의 뿌리이며 '이어도'의 꿈으로써, '성실의 표상'으로써 그리고 무엇보다 저항, 항쟁 정신의 성역으로써 부각되었음. 즉 해녀는 육지 문화에 대항할 수 있는 고유한 문화 자산의 상징 또는 기호로써 일컬어졌으며, 이러한 기호로써의 해녀상도 제주 여성 정체성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최근 정체성 논의에서 볼 수 있듯이 '제주 정신'으로 확대되면서 제주인의 정체성으로 확산되어 말해지고 있음
- 또 다른 해녀상은 여성주의 시각에서 형성된 것으로 외부로부터 오염되지 않은 해녀가 '동양의 아마조니언'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시작함. 저항하는 해녀의 이미지와는 달리 평등한 해녀 공동체에서 자율적이고 낙천적인 기질을 지닌 해녀가 근면한 노동을 통하여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해녀상도 오늘날 제주 여성의 인식 세계에서 다른 지역의 여성과 구별되는 차이로써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음
- 따라서 제주 여성의 정체성은 다중적일 수밖에 없으며 우선 해녀들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여전이 자신들이 천하다고 믿고 있음. 제주의 역사에 비추어 버림받은 여성. '한의 대명사'로도 인식함. 그러나 동시에 해녀들은 자신들을 '부지런하고 강인하다'고 말함
- 제주 여성 스스로도 제주 여성하면 여전히 먼저 '해녀'가 떠오르고 '해녀'하면 강한 생활력, 근면성, 강한 정신으로 동일시하고 있음. 육지여성과 비교하여 '억세다', '상냥하지 못하다'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도 가지고 있지만 '강한여성'으로 자신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지배적임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3차 여성정책중기계획안에 제주해녀를 유네스코 지정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한 준비를 갖춘 후, 2011년 등재 신청을 한다는 계획을 세웠음
- 또한, 이를 위해 해녀들의 쉼터인 불턱과 해신당, 잠수굿 등을 지방문화재로 지정하고 해녀 관련 자료가 풍부한 일본의 도바시 바다박물관 등과 자매결연하여 구체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제주해녀 현황

- 제주해녀는 1970년대 약 15,000명에 이르렀으나 현재는 젊은 층의 기피로 급격히 고령화되어 30세 미만의 해녀는 없는 상태이며 현재는 약 4,400명에 그치고 있는 수준임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과에서 발표한 '해양수산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기준 제주 해녀현황을 살펴보면 총 해녀 수는 4.377명으로 2014년도에 비해 38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1990년대 이후 50세 이상의 고령자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2-2> 해녀 현황

(단위 : 명, %)

구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2015년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2014년
계	9,227	9,668	4,551	4,822	4,676	4,846
현직해녀	4,377	4,415	2,481	2,485	1,896	1,930
전직해녀	4,850	5,253	2,070	2,337	2,780	2,916

※ 참고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2015), 2015년 말 현재 도내 해녀현황

<표 2-3> 연도별 해녀 현황

(단위 : 명, %)

구분 \ 연도별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12	2013	2014	2015
잠수수		14,143	7,804	6,827	5,789	5,545	4,995	4,574	4,507	4,415	4,377
연령구성비율	30세 미만	31.3	9.8	4.3	0.1	–	–	–	–	–	–
	30~49세	54.9	60.7	44.2	22.1	12.9	2.5	1.9	1.4	1.5	1.4
	50세 이상	13.8	29.5	51.5	77.8	87.1	97.5	89.1	98.6	98.5	98.6

※ 참고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현재 도내 해녀현황 각 연도별

▌제주해녀 어촌계별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과에서 발표한 '해양수산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기준 제주시 어촌계별 해녀현황을 살펴보면 구좌읍의 해녀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2-4> 제주시 어촌계별 해녀 현황(2015.12.31. 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제주시	화북동	화북어촌계	12	–	–	–	1	2	8	1
	도두동	도두어촌계	35	–	1	4	10	12	7	1
	삼양동	삼양어촌계	19	–	–	–	2	4	10	3
	용담동	용담어촌계	16	–	1	1	3	7	3	1
	건입동	산지어촌계	50	–	–	–	2	17	21	10
	외도동	외도어촌계	15	–	–	–	2	–	9	4
		내도어촌계	4	–	–	–	–	–	2	2
	이호동	이호어촌계	30	–	–	–	–	4	16	10
	조천읍	신촌어촌계	35	–	–	–	–	5	18	12
		조천어촌계	31	–	–	1	4	14	11	1
		신흥어촌계	20	–	–	–	8	8	4	–
		함덕어촌계	25	–	–	–	2	8	10	5
		북촌어촌계	80	–	–	1	18	20	36	5

구분			계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제주시	구좌읍	동복어촌계	19	–	–	–	4	5	9	1
		김녕어촌계	111	–	–	–	10	52	36	13
		월정어촌계	66	–	–	–	6	23	29	8
		행원어촌계	84	–	–	3	16	22	34	9
		한동어촌계	75	–	1	–	9	38	25	2
		평대어촌계	146	–	4	2	13	52	55	20
		세화어촌계	20	–	–	–	1	6	9	4
		하도어촌계	268	–	–	5	32	71	117	43
		종달어촌계	124	–	–	–	12	39	55	18
	애월읍	곽지어촌계	29	–	–	–	1	13	14	1
		애월어촌계	12	–	–	–	1	3	7	1
		고내어촌계	26	–	–	–	1	10	13	2
		신엄어촌계	12	–	–	1	3	1	4	3
		구엄어촌계	17	–	–	1	10	3	2	1
		귀일어촌계	30	–	–	–	5	11	11	3
		동귀어촌계	29	–	–	–	–	3	11	15
	우도면	서광어촌계	62	–	–	4	13	15	17	13
		천진어촌계	50	–	–	3	9	11	25	2
		조일어촌계	67	–	1	5	10	25	21	5
		오봉어촌계	116	–	–	5	27	18	37	29
	한림읍	귀덕1어촌계	25	–	–	2	3	5	11	4
		귀덕2어촌계	38	–	–	–	6	9	16	7
		용운어촌계	11	–	–	–	2	3	2	4
		수원어촌계	40	–	–	–	2	9	19	10
		한수어촌계	22	–	–	–	–	12	8	2
		한림어촌계	18	–	–	–	7	5	4	2
		옹포어촌계	53	–	–	–	4	17	29	3
		협재어촌계	33	–	–	2	4	7	13	7
		금능어촌계	50	–	–	–	12	21	15	2
		월령어촌계	31	–	–	1	4	5	19	2
		비양어촌계	33	–	–	1	6	11	11	4
	한경면	판포어촌계	23	–	–	2	–	5	13	3
		금등어촌계	11	–	–	–	1	2	3	5
		두모어촌계	27	–	–	–	4	9	12	2
		신창어촌계	51	–	–	–	2	22	21	6
		용당어촌계	29	–	–	–	2	12	11	4
		용수어촌계	36	–	–	1	5	11	16	3
		고산어촌계	40	–	–	–	2	15	20	3
	추자면	대서어촌계	20	–	–	–	3	9	7	1
		영흥어촌계	9	–	–	1	2	4	2	–
		묵어촌계	20	–	–	–	2	11	7	–
		신양어촌계	26	–	–	–	5	11	10	–
		예초어촌계	23	–	1	1	–	10	10	1

※ 참고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통계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과에서 발표한 '해양수산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기준 서귀포시 어촌계별 해녀현황을 살펴보면 성산읍의 해녀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2-5> 서귀포시 어촌별 해녀 현황(2015.12.31. 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서귀포시	하효동	하효어촌계	18	–	–	–	2	11	4	1
	보목동	보목어촌계	62	–	–	–	6	27	21	8
	토평동	토평어촌계	8	–	–	–	–	6	2	–
	서귀동	서귀어촌계	42	–	–	–	5	16	18	3
	법환동	법환어촌계	57	–	–	–	7	14	28	8
	강정동	강정어촌계	71	–	–	–	8	28	34	1
	대포동	대포어촌계	23	–	–	1	1	8	13	–
	색달동	색달어촌계	24	–	–	–	4	6	10	4
	하예동	하예어촌계	55	–	–	–	7	15	26	7
	중문동	중문어촌계	14	–	–	1	1	2	8	2
	남원읍	신흥어촌계	25	–	–	–	2	3	18	2
		위미2어촌계	70	–	–	–	5	29	32	4
		위미1어촌계	48	–	–	–	2	22	23	1
		신례리어촌계	9	–	–	–	–	2	5	2
		하례리어촌계	11	–	–	–	2	6	2	1
		태흥3어촌계	32	–	–	–	3	10	16	3
		태흥2어촌계	46	–	–	2	2	18	19	5
		태흥1어촌계	15	–	–	–	–	3	11	1
		남원어촌계	60	–	–	2	5	16	29	8
	대정읍	하모어촌계	86	–	–	–	8	23	35	20
		상모어촌계	51	–	–	–	5	22	20	4
		동일어촌계	17	–	–	–	4	6	6	1
		가파어촌계	52	–	–	–	10	16	23	3
		일과1어촌계	23	–	–	–	4	6	11	2
		일과2어촌계	11	–	1	1	–	2	5	2
		영락어촌계	9	–	–	–	–	4	1	4
		무릉어촌계	30	–	–	–	5	5	7	13
		신도어촌계	20	–	–	–	–	6	14	–
	안덕면	화순어촌계	41	–	–	–	3	12	22	4
		사계어촌계	75	–	–	–	10	27	29	9
		대평어촌계	42	–	–	–	5	13	15	9
	표선면	표선어촌계	98	–	–	–	3	16	53	26
		하천어촌계	17	–	–	–	2	6	7	2
		세화어촌계	26	–	–	–	1	5	17	3
		토산어촌계	12	–	–	–	2	3	6	1

구분			계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성산읍	시흥어촌계	62	–	–	–	8	20	31	3
		오조어촌계	48	–	–	–	3	22	23	–
		성산어촌계	73	–	–	–	5	32	34	2
		고성신양어촌계	95	–	–	–	7	27	55	6
		온평어촌계	102	–	–	2	25	27	40	8
		신산어촌계	46	–	–	1	3	13	24	5
		삼달어촌계	18	–	1	–	2	5	5	5
		신풍어촌계	17	–	–	–	–	9	6	2
		신천어촌계	50	–	–	–	2	20	24	4

※ 참고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통계

전국해녀 현황

- 전국 조합원소속 해녀 10,201인 중 경인 3인, 강원 265인, 충청 103인, 전남 22인, 경북 1,022인, 경남 1,273인, 부산 938인, 제주 6,575인으로 나타남
- 조합의 경우 옹진(경인), 고성, 동해시, 삼척, 원덕, 속초, 양양, 강릉, 죽왕(강원), 보령, 서산, 안면도(충남), 신안, 거문도, 여수(전남), 경주, 강구, 구룡포, 울릉군, 죽변, 영덕북부, 포항, 후포(경북), 거제, 삼천포, 울산, 의창, 진해, 통영, 남해군, 욕지, 사량, 창원서부(경남), 부산, 기장(부산) 조합 소속임

※ 참고자료 : 수협중앙회 조사, 전국해녀현황(2012년 12월 31일)

[그림 2-5] 전국 해녀 현황

2. 제주해녀 자원 현황

2.1 지역별 제주해녀 생태유산 현황[6)]

- 지역적 특성을 살려 7개 가름(오일장가름, 해녀박물관가름, 별방진성가름, 토끼섬가름, 철새도라지가름, 지미봉가름, 소금밭가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음
- '가름'은 제주어로 '한 마을 안에서 작은 단위로 구분한 동네, 한 마을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구역' 또는 '마을 안의 구분된 거리'를 의미함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2013), 해녀생태박물관 조성 연구, p 61

[그림 2-6] 제주해녀의 7개 가름

▌오일장가름

- 오일장 가름은 구좌읍의 중심지인 세화리 해안도로변에 위치해 있으며 서쪽으로는 평대 갯머리, 동쪽으로는 하도리 면수동 해안과 접해 있고 일제시대 때부터 세화항, 오일장, 세화주재소가 있던 지역임
- 또한, 이 지역은 제주도 3대 항일운동의 하나로 평가되는 해녀항일운동의 발상지로 1931년과 1932년 사이에 세화, 하도, 종달, 연평 등 6개리 지역 해녀들이 제주도해녀어업조합의 횡포에 대항하여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투쟁을 했던 곳임
- 오일장가름은 바로 이러한 사건이 배경이 된 세화오일장을 되새기며 붙인 이름으로 해녀항쟁길은 이곳의 생활·문화·역사적 이해를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음
- 오일장 가름의 해녀생태유산은 현 오일장, 옛 오일장터, 세화주재소터 등 총 8개로 이루어져 있음
- 해녀생태유산의 대부분은 문화 및 생활의 유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순이빌레할망당의 경우 자연유산의 형태로 이루어짐

6) 제주특별자치도(2013), 해녀생태박물관 조성 연구 내용 발췌

<표 2-6> 오일장가름의 해녀생태유산

구분	종류			설명	이미지
	자연	문화	생활		
현오일장		◎	◎	• 5일과 10일을 기준으로 열리는 제주시 동부지역에 유명한 민속5일시장임 • 구과지역은 물론이고 멀리 성산과 표선에서 타지 손님들이 찾고 있음	
옛오일장터		◎	◎	• 세화지서 서쪽 100미터 정도에 위피한 옛 세화오일장은 일제강점기 제주의 대표적인 여성항일 운동인 '해녀항일투쟁'이 일어났던 장소임	
세화주재소터 (현 구좌파출소)		◎		• 1932년 1월 12일 종달리, 오조리, 하도리, 세화리 해녀들이 세화주재소 동쪽 네거리로부터 장터로 모여들어 2차 군중집회를 연후 주재소 앞에서 제주도사(島司)를 포위하여 2차 집회를 열었던 곳임	
모사랑물통터		◎	◎	• 세화리 해변에 인접한 통항동민회관 앞 정자목에서 바닷가 가는 길목의 동산 밑에 있었던 통물터임 • 1970년대 마을이 정비되면서 매립되었지만 해녀들이 바다를 왕래하면서 수없이 드나들던 곳으로 이 지역 해녀의 삶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임	
도래갯물		◎	◎	• 해녀박물관 아래쪽 모래사장에서 용출하는 용천구로 돌담으로 사방을 두르고 있어서 해수욕을 하고나서 몸을 헹구기에 알맞음 • 바다에 접한 쪽은 남자용이고, 육지에 가까운 쪽은 여자용임	
중머들코지		◎	◎	• 세화항 방파제가 길게 뻗친 중머들코지는 세화리 해녀들이 물질하고 정기적으로 안녕과 풍요를 비는 지드림을 하던 장소임	
정순이빌레 할망당	◎		◎	• 해녀박물관 아래쪽 모래사장을 건너 바위 위에 돌로 에워싸서 만든 여신을 모시는 당임 • 해녀들은 한 달에 한 번 날을 보거나 물질 시작 때 제를 올리기도 함	

구분	종류			설명	이미지
	자연	문화	생활		
해녀항일항쟁 기념비		◎		• 해녀항일운동 당시 구좌 우도 해녀들이 구름떼처럼 모여들었던 '연두망' 동산에 역사적 거사의 장소임을 기념하여 세운 탑임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2013), 해녀생태박물관 조성 연구, p 63~64

해녀박물관가름

- 해녀박물관가름은 해녀박물관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신앙과 생업문화, 제주해녀의 역사와 하도리 해녀문화를 함께 볼 수 있는 곳임
- 특히, 해녀박물관의 안과 밖을 고루 볼 수 있어서 살아있는 해안생태유산을 학습, 체험할 수 있음
- 하도리 서쪽 끝자락에 위치한 면수동 주민들의 성소라 할 수 있는 삼싱당,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용문사, 너른 조간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갯담, 출항하여 끝내 돌아오지 못한 가족의 넋을 기리며 바다를 바라보는 언덕 위 비석들 등 신앙, 생업, 역사가 함께 어우러져 제주해안의 생태, 역사,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보기에 좋은 지역임
- 해녀박물관가름의 해녀생태유산은 순비기나무, 폭낭알, 용문사 등 총 11개로 이루어져 있음
- 해녀생태유산의 종류를 살펴보면, 자연적 문화유산이 2개, 문화적 문화유산이 7개, 생활적 문화유산이 2개로 이루어져 있음

<표 2-7> 해녀박물관가름의 해녀생태유산

구분	종류			설명	이미지
	자연	문화	생활		
순비기나무	◎			• 갯바위에서 자란 끈질긴 순비기나무의 생명력은 여름 고운 햇을 가진 연보라색 꽃으로 피어남 • 그 잎과 가지, 열매는 약재나 차, 또는 목욕물 향료로 쓰이기도 함	
폭낭알 (쉼팡)	◎			• 폭낭(팽나무)은 여름철 태풍과 겨울 찬 바람에도 강한 나무임 • 마을 안 교차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팽나무는 정자로 이용되어짐	

구분	종류			설명	이미지
	자연	문화	생활		
용문사		◎		• 용문사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오층석탑과 해수관음상이 대웅전 앞에 나란히 서 있음 • 절 입구에는 용문사의 건립역사와 함께 여러 공적비들이 세워져 있음	
비석군		◎		• 숨비소리길을 따라 작은 양지바른 언덕의 비석들이 모두 바다를 바라보고 서 있음 • 바다에서 목숨을 잃은 경우가 많아 시신이 없기에 봉분 또한 없어 가족을 잃은 애절함이 비문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음	
환해장성		◎		• 해안선을 따라 돌담을 쌓아 올린 장성 • 고려 말 삼별초의 진입과 조선시대 왜구의 침입과 영국 이양선 등 외부 세력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았음	
삼싱당		◎		• '여씨할망당' 또는 '금산당'이라고도 하는 면수동 마을 한가운데 있는 솟은 듯 움푹 패인 '금산'에 자리한 당임	
서동불턱		◎		• 바다 가까이에 돌을 쌓아 해녀들이 바람을 막고 몸을 녹이던 곳임 • 제주화산암으로 만든 해녀들의 집, 지붕 없이 바람을 피하고 볕을 쬘 수 있는 불턱은 해녀 공동체의 산실로 상징되는 곳임	
만물 (용천수)		◎		• 용문사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서쪽으로 걷다보면 길 아래에 콘크리트로 지어진 시설 밑에 샘솟는 용천수임	
서문동 갯담		◎		• 제주에는 각양각색의 모양을 이룬 해안 지형과 밀물과 썰물의 차를 이용한 어로 방법이 전해져 왔음 • 이러한 것을 '갯담' 또는 원'이라 불러 왔는데 서문동 갯담은 그 형태를 잘 볼 수 있는 곳임	

구분	종류			설명	이미지
	자연	문화	생활		
밭담길			◎	• 제주 밭담은 얼기설기 쌓아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서 태풍에도 쓰러지는 법이 없음 • 제주사람들은 화산지형의 땅을 농경지로 만들기 위해 밭안의 돌들을 담으로 쌓음 • 돌담밭은 2013년 1월 국가농업유산으로 지정되었음	
공동창고			◎	• 면수동 경로회관 옆에 있는 공동창고는 동네주민들이 농작물과 해초를 거둬들인 후 보관하던 곳임 • 이러한 공동창고는 제주 마을이 동네별로 작은 조합을 형성·공동작업 공동 분배하였던 역사를 보여주고 있음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2013), 해녀생태박물관 조성 연구, p 66~68

별방진성가름

- 별방진성가름은 유서 깊은 별방진성이 있어 제주의 방어체계를 살필 수 있는 곳임
- 옛 별방진성의 모습과 복원된 성체 주변으로 마을이 형성되어져 있고, 그 지역들이 이용하던 식수터와 밭의 유기적 관계가 돋보이는 지역임
- 특히 경작지를 보호하는 밭담은 제주 돌문화의 아름다운 특징을 보여주는 유산으로 원형이 잘 보존되어져 있음
- 이 지역 내 비석거리는 비극적인 해양문화를 잘 보여주는 곳으로 제주 근현대의 질곡의 역사를 보듬고 있는 곳이기도 함
- 별방진성가름의 해녀생태유산은 서문 망대, 별방진성, 옛 성담 등 총 11개로 이루어져 있음
- 해녀생태유산의 종류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문화적 유산으로 이루어져 있음

<표 2-8> 별방진성가름의 해녀생태유산

구분	종류			설명	이미지
	자연	문화	생활		
서문 망대		◎		• 별방진 서문에 있는 치성으로 마을의 제일 높은 지대임 • 이곳은 남서쪽으로 한라산이 훤히 보이고 하도리 해안, 별방진성내 마을이 잘 내려다보임	

구분	종류			설명	이미지
	자연	문화	생활		
별방진성		◎		• 해안의 진성으로 제주도 기념물 제 24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음 • 별방진은 둘레 960m의 타원형 모양의 성으로 전체 지형은 한라산 서남 방향으로 높으며 북쪽으로 낮은 남고북저()의 형태임	
옛 성담		◎		•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3354-57번지에 위치하는 별방진의 옛 성담 • 별방진성 옛 성담은 잣벡과 같이 촘촘히 쌓은 겹담 양식의 돌담으로 웅장한 괴체감을 느끼게 함	
밭담		◎		• 밭담은 제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돌담군으로 경작지의 경계를 구분하고 있음 • 밭담 조성의 기원은 고려시대 판관 김구가 제주 민중의 민원을 들어준 것에서부터 유래하였으며, 2013년 1월 국가농업유산 2호로 지정되었음	
심신할망당 (본향)		◎		• 삼신할망당은 하도리 본향으로 하도리 신동 서쪽 '호추마르 당동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음 • 하도리 면수동을 제외한 서동, 신동, 굴동, 동동, 창흥동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음	
비석거리		◎	◎	• 신동 서쪽 '호추마르 당동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음 • 아시아 태평양 전쟁 때 강제 징용으로 끌려가 돌아오지 못한 영혼, 4·3사건 때 성산포 해안에서 학살된 영혼, 한국전쟁, 남영호 침몰, 외항선과 관련하여 실종된 영혼을 위무하기 위해 세워진 비석들임	
서동 마을길		◎	◎	• 바다 가까이에 돌을 쌓아 해녀들이 바람을 막고 몸을 녹이던 곳임 • 제주화산암으로 만든 해녀들의 집, 지붕 없이 바람을 피하고 볕을 쬘 수 있는 불턱은 해녀 공동체의 산실로 상징되는 곳임	
각시당		◎		• 신동 해안 해안도로 나지막한 빌레 동산에 위치하고 있음	

구분	종류			설명	이미지
	자연	문화	생활		
환해장성		◎		• 옛 기록에는 고장성, 장성이라 하였고 1270년에 김수·고여림이 삼별초군을 막기 위해 제주도 해안가 약 300여리를 돌로 쌓음	
한개창		◎	◎	• 별방진성과 바로 인접한 포구로 '큰 포구'라는 뜻을 지님	
알짓물		◎	◎	• '탐라순력도'에는 알짓물을 '호수'라고 기록하고 있음 • 이 물은 성안 사람들의 식수로 쓰임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2013), 해녀생태박물관 조성 연구, p 70~72

토끼섬가름

- 토끼섬(란도)은 문주란 자생지로 천연기념물 19호로 보호받고 있음
- 이곳은 쿠로시오해류에 의한 식생의 전래를 이해할 수 있는 곳이며, 또한 해안을 배경으로 문주란이 피는 경관이 독특하고 아름다운 곳임
- 토끼섬가름의 해녀생태유산은 굴동포구, 웃개(염습지), 진모살 해변 등에서 우도, 일출봉, 한라산 등을 바라보는 경관의 가치가 매우 높음
- 토끼섬가름의 해녀생태유산은 하도 초등학교, 보존가옥, 글동포구 등 총 7개로 이루어져 있음
- 해녀생태유산의 종류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문화·생활적 유산으로 이루어져 있음

<표 2-9> 토끼섬가름의 해녀생태유산

구분	종류			설명	이미지
	자연	문화	생활		
하도초등학교		◎	◎	• 1919년 2월 개성의숙으로 개설되어, 1921년 당시 구좌명장인 강공칠과 민족주의자들이 어렵게 기금을 모아 제주도 최초의 사립보통학교로 설립	

구분	종류			설명	이미지
	자연	문화	생활		
보존가옥		◎	◎	• 종가집 규모의 민가로, 안팎거리의 공간 구조와 개인 방앗간과 쇠막이 잘 보존되어 있음	
굴동포구		◎	◎	• 문주란섬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밭담이 펼쳐져 있어 자연경관과 생산 활동을 같이 느낄 수 있음	
토끼섬	◎	◎		• 토끼섬에서 자생하고 있는 문주란은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 흘러들어온 것으로 문주란의 식생은 해류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식물임	
황근자생지 (웃개)	◎			• 해안도로가 웃개 바깥으로 만들어지면서, 해안도로에 의해 폐쇄되어진 웃개는 다양한 식물이 자생하는 습지가 되었음 • 황근을 비롯한 문주란, 순비기낭, 해녀콩, 큰비쑥, 모새달 등 다양한 식물을 관찰할 수 있음	
영등바당	◎	◎		• 갯담과 불턱 체험 장소로 만들어짐 • 해녀들의 물질과 해양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진모살 해변이 있어서 해양경관도 뛰어난 장소임	
밭담		◎	◎	• 제주의 농업문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거친 바람에 맞서 억세게 살아온 제주인의 생활력을 보여주고 있음 • 2013년 1월 농업문화유산 2호로 그 가치를 인정받음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2013), 해녀생태박물관 조성 연구, p 73~74

철새도래지가름

- 하도리 철새도진은 1940년대까지 '용항포'라 불리는 포구였지만 간척사업을 위한 방조제가 건설되면서 물길이 막혀 형성된 습지임
- 바닷물과 용천수가 만나는 광활한 기수지역이어서 철새 먹이가 풍부한 까닭에 겨울철 철새인 청둥오리, 도요새류, 저어새, 노랑부리저어새 등의 30여종의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가 되고 있음

- 철새도래지가름의 해녀생태유산은 철새탐조대, 용항포, 대조개왓 등 총 5개로 이루어져 있음
- 해녀생태유산의 종류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자연적 유산으로 이루어져 있음

<표 2-10> 철새도래지가름의 해녀생태유산

구분	종류			설명	이미지
	자연	문화	생활		
철새탐조대	◎			• 철새탐조대는 광활한 습지로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도요새류, 저어새 등 겨울 철새들의 중간기착지임	
용항포	◎	◎		• 철새도래지 지역은 제방이 있기 전까지는 용항포라는 큰 포구였음	
대조개왓	◎			• 제방이 생기면서 바닷가 쪽으로 모래가 퇴적되어 조개가 풍부했던 지역이었으나 지금은 해수욕장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음	
용천수	◎			• 예전에 탕탕물과 서느렝이물 등의 용천수는 지역주민들의 식수로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간척지 논에 물을 공급하기도 하였음	
금붕사		◎	◎	• 1702년 이형상 목사 당시 폐사되었던 옛 금붕사 자리에 1926년 재건된 사찰임 • 1948년 제주 4.3 사건 당시 대웅전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기도 하였음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2013), 해녀생태박물관 조성 연구, p 76~77

지미봉가름

- 지미봉가름은 지미봉 정상을 올라 하도 철새도래지 쪽으로 내려 농경지를 가로질러 해안도로를 거쳐 두문이개에 이르는 가름임
- 주요 포인트는 예전에는 섬이었던 지미봉, 옛 정취를 자아내는 밭담과 머들, 독특한 용암지형을 연출하는 고망난 돌 등 이 있음
- 지미봉가름의 해녀생태유산은 간척지, 해수관상어센터, 조개왓 등 총 5개로 이루어져 있음

<표 2-11> 지미봉가름의 해녀생태유산

구분	종류			설명	이미지
	자연	문화	생활		
간척지		◎		• 예전의 소금밭으로 논농사를 짓기 위한 간척공사가 이루어짐	
해수관상어 센터		◎		• 조개왓 인근 저수지(목)에 위치하고 있음 • 새로운 해수 열대어종을 개발하고 산업화 하는 곳으로, 공적 지원을 통하여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음	
조개왓	◎			• 맛조개가 많이 나기로 유명한 곳이며 조개잡이 체험어장이 운영되고 있음	
중퉁굴포구	◎	◎	◎	• 모래해변이 많은 종달리에 중퉁굴은 해녀들의 중요한 바다밭이 되고 있음	
불턱		◎		• 바다 가까이에 돌을 쌓아 해녀들이 바람을 막고 휴식을 취하던 곳임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2013), 해녀생태박물관 조성 연구, p 79~81

소금밭가름

- 소금밭가름은 염전을 만들어 소금을 생산하여 타 지역과의 교환을 통해 식량을 수급해야 했던 지역민들의 고단했던 삶을 엿볼 수 있는 가름임
- 소금밭가름의 해녀생태유산은 지미봉, 지미봉수터, 고망난돌 등 총 5개로 이루어져 있음

<표 2-12> 소금밭가름의 해녀생태유산

구분	종류			설명	이미지
	자연	문화	생활		
지미봉	◎	◎	◎	• 종달리는 상징하는 오름으로 중요한 전망대 역할을 하고 있음	

구분	종류			설명	이미지
	자연	문화	생활		
지미봉수터		◎		• 왜적의 침입을 알렸던 제주의 25봉수 중의 한 곳인 지미봉수의 터가 지미봉 정상에 있음	
고망난돌	◎			• 바다 조간대에 여가 발달하여 바다생물이 풍부하므로 해녀들 작업이 활발했던 곳임	
생개납돈짓당	◎	◎		• 두꺼비 형상의 용암 바위에 마련되어 바다와 관련된 인들에 대해 해신에게 기원을 드리는 전형적인 해신당임 • 선박의 안전, 풍어의 기원, 조업의 무사를 비는 곳으로 해녀, 어부, 선주가 참여하고 있음	
두문포구			◎	• 바다로 나가는 관문 역할을 하는 곳임 • 해녀들이 뱃물질할 때면 여기서 배를 타고 종달과 우도 사이에 있는 깊은 바다로 나가는 곳이기도 함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2013), 해녀생태박물관 조성 연구, p 83~84

▌기존 해녀생태유산 현황

• 기존의 문헌과 자료 등을 통해 해녀생태유산, 즉 해녀의 물질과 밭일에 관련된 자연, 문화, 생활 유산들의 현황을 파악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2013), 해녀생태박물관 조성 연구, p 145

[그림 2-7] 기존 해녀생태유산 현황

3. 해녀박물관 현황

▌개요

- 제주특별자치도의 해녀박물관은 처음에 북제주군(특별자치도 제주시로 통합)과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하여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공원을 조성하였고, 공원에는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탑이 있다. 이에 해녀들의 문화와 역사를 기록하는 해녀박물관도 이와 연계하여 조성되었음
- 2003년 12월부 조성 사업을 착공하여 2006년 6월 9일 개관하였음. 관할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임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상 1종 공립박물관으로 제주시 구좌읍 해녀박물관길 26에 위치하고 있음

▌연혁

- '02. 9. 15 : 제주어촌민속전시관건립 기본계획수립
- '03. 12. 23 : 건물 착공(공사 준공 : '05. 9. 12)
- '06. 6. 9 : 제주해녀박물관 개관('06. 7. 1 해녀박물관 명칭변경)
- '15. 3. 16 : 리모델링에 따른 재개관

▌주요기능

- 제주해녀의 생애를 집대성한 해녀의 정신과 문화를 관광 자원화
- 제주해녀의 삶과 역사 관련 자료를 수집, 보존관리
- 해녀자료의 학술조사, 강연, 교육, 전시 및 문화예술

▌박물관 시설

- 위치 : 제주시 구좌읍 해녀박물관 26(총면적 67,449㎡)
- 시설규모 : 건물 2동 4,958.2㎡(지하1층, 지상3층), 기념탑 1개(H=12M)
  지하1층(1,590㎡) 세미나실, 수장고, 기계실 등
  1층(1,449㎡) 영상실, 전시실, 로비 등 / 2층(643㎡) 전시실
  3층(320㎡) 전망대 / 분관(956.2㎡) 공연장, 어린이해녀관, 사무실 등
- 박물관 자료: 해녀관련 원자료 중심으로 해녀 관련 시도지정문화재 14점을 포함 3,579점 박물관자료 소장
- 연 관람인원 163,602명, (일 평균 537명)[7)]

▌관리인력

- 관장을 비롯하여 학예직 2인 포함 14인(일반직 4인, 청원경찰 1인, 공무직 8인)

7) 2015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해녀문화센터

- 해녀문화를 전승 보존하기 위해 해녀문화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교육, 체험, 공연 프로그램운영 공간, 연면적 956.20㎡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탑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상도리 연두망 작은 동산에 위치, 1932년 1월 구좌읍과 성산읍, 우도면 일대에서 벌어진 국내 최대 규모의 여성항일운동으로서 제주해녀 항일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장소. 당시 시위에 참여했던 해녀들의 2차 집결지에 해녀 항일 운동 정신을 기리고자 조성

[그림 2-8] 제주도 해녀관련 주변 관광자원

제 3 장

제주해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공공지원 현황

제 3 장 제주해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공공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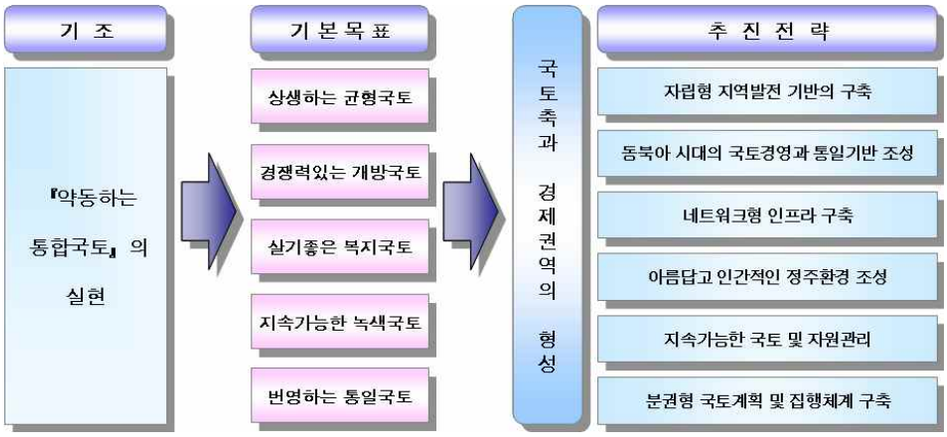
제 1 절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검토

1. 상위 및 관련계획

1.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8)]

1.1.1 수립배경

- 제4차 국토종합계획(2011~2020) 수립 이후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요 내용의 수정이 불가피
- 참여정부의 새로운 국가경영 패러다임을 국토계획에 반영
- 국경 없는 세계화 시대의 진전으로 요구되는 미래지향적이고 개방적인 국토기반 구축 방안을 국토계획에 반영



[그림 3-1] 수정계획의 기본 틀

1.1.2 제주자치도의 계획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관광휴양, 청정환경, 국제자유도시활성화를 통한 성장방안 제시
- 제주권역의 비전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 국제자유도시
- 기본목표는 국제교류, 관광·문화 중심의 관광휴양지역화, 국제자유도시 전략사업 및 성장동력사업확보 지역, 청정환경, 세계자연유산 및 녹색성장의 모범지역으로 설정

8) 국토해양부(201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11~2020 내용 발췌

1.1.3 제주자치도의 발전방향

- 권역별 특성화와 공간구조개편, 국제자유도시 기반육성 및 전략산업 등 육성, 청정환경보전 및 녹색성장도시 실현, 자치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
- 제주시는 국제교류 R&D 및 교육중심지, 서귀포시는 관광휴양중심지로 집중 육성
- 국제자유도시활성화를 위해 고부가가치 국제휴양관광산업과 국제비지니스 산업, 해양 산업, 지역특성, 문화가 융합된 신 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고 1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 청정환경 보전 및 녹색성장도시 실현을 위해 세계자연유산 등 국제적 환경자산의 보전 및 가치 증진, 제주형 녹색성장도시 기반구축
- 모범적 자치시스템 구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잠재적 가치를 극대화하여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를 조성

1.1.4 제주자치도의 기본목표 및 발전방향

<표 3-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제주자치도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비전	•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 국제자유도시
기본 목표	• 국제교류·관광·문화 중심의 관광휴양지역화 • 국제자유도시 전략산업 및 성장동력산업 확보 지역 • 청정환경, 세계자연유산 및 녹색성장의 모범지역
발전 방향	• 권역별 특성화와 지역 공간구조 개편 – 제주시는 국제교류, R&D 및 교육중심지, 서귀포시는 관광휴양 중심지로 집중 육성 – 농어촌의 소득과 문화 창달을 위한 문화, 생태, 역사 등 어메니티 특화마을 조성 – 탐라문화권 복원사업 추진과 스토리텔링, 영상, 영화 등 문화관광 디지털 콘텐츠 구축 – 생태·신화공원의 성공적 추진과 돌문화공원 중심의 문화·신화·역사 프로그램 개발 – 제주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수준 향상 및 국제적 공연프로그램 기획을 통한 국제적 공연관광 중심지로 조성 • 국제자유도시 기반 육성 – 세계자연유산 등 세계적 브랜드 활용과 제주지질자원의 세계 유네스코 지질공원 등재를 투진하고, 사계절 기후 및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복합리조트 개발과 MICE 산업 육성 – 5대 핵심수용태세(숙박, 교통, 음식, 안내, 쇼핑)의 집중적 개선으로 선진형 관광산업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수준의 관광서비스 제공 – 관광수요 잠재력이 높은 신흥유망시장을 발굴하고, 각 시장의 특성에 적합한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을 강화하여 재방문과 FIT관광객 유치 – 국제자유도시의 핵심·전략프로그램(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휴양형 주거단지 등)의 성공적 추진 – 도내 항만과 포구에 종합항만기능을 보완하고, 마리나 시설 및 크루즈 기반 확충 등 휴양관광과 연계 – 한·중·일 연계 크루즈 기반 확충, 제주항 크루즈터미널 완성, 남해안성벨트와 크루즈 연계 추진 • 국제자유도시 전략사업 및 신 성장 동력산업 육성 – 골프, 승마, 요트, 마리나 등 레저·스포츠관광 육성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 관광 레저교육 양성 중심지로 육성 – 숲길,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과 연계된 치유프로그램과 양약, 한의약, 대체의학 프로그램이 융복합된 치유관광거점 육성 – 항공레포츠 이착륙장에 대한 안정·시설기준 마련, 세계적 골프대회 및 요트경기 유

구 분	내 용
	치 등 육상-해상-항공을 연결하는 레저·스포츠관광산업 육성 - 세계 15위권 컨벤션 개최지로 도약하기 위한 ICC 확충 및 관련 인프라 구축 - 국내외 인센티브관광, 기업회의 등 리조트형 MICE산업 육성 - 해양과학관, 바다스튜디오, 마리나 시설의 확대를 통한 사계절 해양관광 실현 - 1차 산업의 생산·가공·유통·판매·체험·관광 등을 융복합화한 권역별·작목별 클러스터 조성 - 마(馬)산업 육성 및 관련축제 개최 등 마산업과 레저·스포츠산업의 연계 육성

출처 : 국토해양부(201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11~2020, p 173~177

1.2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9)]

▌계획의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3조 제4항)에 근거한 도시계획 체계상 최상위 계획

▌계획의 목적

- 제주도를 대상으로 장기 발전 방향 및 도시기반시설 정비 방향 제시
- 향후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 제공

▌문화·체육 분야 계획

- 국제도시에 걸맞은 문화공연시설 설치
  - 대규모 전시·공연시설 확충
- 문화 활동 기회의 불균형 해소
  - 문화 사각지대에 대한 도서관 등 확충

▌계획의 실천 전략

- 국제적 규모 문화공연·전시시설 건립 - 서귀포시 광역거점에 1개소

1.3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2012~2021)[10)]

▌계획의 개요

-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제주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222조에 근거하여 수립한 법정계획임
- 물적시설, 산업경제,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 문화 등 지역의 전 부문에 대한 발전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성격의 중장기 계획임

▌주요 내용

- 관광부문의 비전으로는 '투어피아 제주(Tourpia Jeju)', 목표로는 내도관광객 1,300만 명 시대를 실현하고, 관광조수입 8조 원 달성, 연간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유치(연간 중국

9) 제주특별자치도(2007),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 내용 발췌
10) 제주특별자치도(2011),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내용 발췌

인 관광객 200만 명 유치)로 정함

- 주요 전략으로는 친환경, 집중화, 고급화, 복합화, 글로벌전략 등 5가지 전략을 제시함
- 12대 전략사업을 제시하고 있으며, 관광 관련 사업으로 랜드마크적 복합 리조트 조성, 뷰티케어 빌리지 조성이 제시됨

<표 3-2>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친환경 관광	• 3D 에코피아(3D Ecopia)의 조성 –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을 3D로 구현하는 테마파크인'3D 에코피아'를 조성 • 세계지질공원 엑스포 개최, 국제트래킹대회 확대 계획 • 어플 등 IT 광관상품 개발
몸과 마음이 행복한 건강·휴양 관광	• 자연치유단지 조성(Natural Healing Complex) 헬스관광의 대표 브랜드화 • 세계장수마을 지정 및 자원화 – 장수마을 후보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장수마을로 지정하고, 지역 마을회관을 활용한 '장수마을체험센터'의 운영 및 홈스테이 추진
의료관광특구의 조성	• 핵심 프로젝트인 헤스케어타운의 의료기능을 세분화하고, 전문화시켜 의료관광특구로 조성 •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아라동을 연결하는 지역을 의료관광특구로 지정
일 속에서 여유를 즐기는 마이스(MICE) 관광	• MICE 멀티홀 조성 – 서귀포시에는 ICC 제주의 MICE 시설을 확대하고 제주시 소재 MICE 시설을 새롭게 조성 • MICE 전문대학(원) 설립 • STAR MICE 유치 및 육성 • 숙박시설 공급 확대, 중저가 호텔 제주 브랜드 구축 밑 시설 확충, 관광시설의 비즈니스 인프라 확충
고품격 럭셔리를 추구하는 위락·쇼핑관광	• 제주도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 도입 • 관광객이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는 국제적인 브랜드의 제품을 판매하는 명품 프리미엄 아울렛몰 조성 • 실내형 테마파크(키즈파크) 조성 • 제주형 뷰티테라피 프랜차이즈 육성 • 기업 시제품 상설전시장 조성
관광마케팅과 제도의 선진화	• 관광 홍보 마케팅의 강화 – 관광마케팅 조직 강화, 원 스톱(One-Stop) 제주관광 정보시스템 구축, 관광시장 조사의 장례화 추진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 관광마케팅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 • 관광진흥제도의 개선 – 제주자치도 관광개발계획을 별도 계획으로 수립, 제주형 복·융합 관광자원 발굴 및 관광상품 개발 지원체계 구축,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방안 마련, 관광통계정보체계(TSI)의 구축, 관광확대문화 정립을 위한 교육 강화, 제주형 자연·문화축제의 발굴 및 육성, 자치경찰인력을 활용한 '관광경찰제도' 도입,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 마련
다목적 해양레저 센터 건립	• 해양레저 전진기지 4개 거점화 – 다양한 해양레저관광이 유도될 수 있도록 지역특성을 반영한 거점센터 건립 – 제주시권은 북항 개발지역, 서귀포시권은 서귀포항 주변, 동부권은 성산항 주변지역, 서부권은 고산지역을 중심으로 기존의 해양레저관광활동이 활성화된 지역과의 연계를 고려 • 지속적인 해양레저 이용객 창출을 위항 해양레저 교육정보 시스템의 도입 • 해양레저활동에 필요한 장비 지원체계 구축

구 분	내 용
해양레저 전문인력 양성	• 도내 외 관련대학, 연구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양레저전문 과정을 설치, 위탁운영
크루즈관광 육성	• 크루즈관광 육성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 크루즈를 유치할 종합 TF팀과 협의회 활성화 – 장기적으로 크루즈산업 육성 담당 기구나 조직 구성 • 크루즈 전문여행사 및 전문 인력 양성 – 도내 대학에 크루즈학과 신설이나 크루즈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신설 – 도내 크루즈 전문여행사의 육성과 전문 인력 양성 • 신규 관광류트 개설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 국내 주요 크루즈 기항도시, 동북아 주요 크루즈 모항·기항지 도시와 연계·협력 강화 • 국제크루즈선사 의사결정자(코디네이터)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마케팅 강화 • 크루즈 관광과 연계한 중국의 인센티브 시장 공략 강화
바다낚시 공원개발	• 바다낚시와 전통어업체험, 해안조깅, 어촌마을문화체험, 피쉬바베큐 체험 등을 연계한 4계절형 낚시 프로그램 개발 운영 • 해양낚시대회 개최의 정례화를 통한 방파제나 갯바위가 아닌 배를 활용한 적극적인 바다낚시 유도를 통한 소득원 다양화 • 가두리형 바다낚시터 조성 – 유어장 지정 조건 다양화, 선상바다낚시 허용구역제 도입 등 행정직 지원 • 바다낚시 전용어선 지원
요트산업 육성	• 요트 저변확대, 요트산업관련 전문 인력 양성 기관, 설계, 디자인, 요트의 관리, 수리 전문 등 인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요트 아카데미 설립·운영 • 요트계류장, 요트스쿨시설 확충, 서비스 수리 센터 등 해양레저산업 클러스터 시설 확충 • 요트 이벤트 개최
해양레저 스포츠 공원 조성	• 마린폴리스 개발을 위한 거점권역의 설정은 배후지역과의 관계, 교통망, 해안의 지리적 형태 등을 고려하여 김녕과 화순지역의 2대 권역으로 구분 집중 투자 • 마린폴리스의 도입시설 확충(마리나, 컨벤션센터, 호텔, 리조트, 수족관, 해변 공원, 클럽하우스, 스쿠버센터, 테마레스토랑, 해양레저스포츠센터 등)
해수욕장	• 사계절 해수욕장 프로그램, 이벤트, 시설 확충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2011),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내용 발췌

1.4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11)]

▌계획의 개요

• 친환경 · 고품격 문화를 향유하는 국제자유도시 U-Jeju를 목표로 제시

– 국제도시, 첨단도시, 관광도시, 생태도시, 안전도시를 추진전략으로 설정

• 4개 시 · 군 단위로 수립되었던 기존의 도시계획을 통합하고 관광휴양산업, 첨단산업, 특정산업 등 전략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중점

– 지역 균형발전차원에서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다핵분산형'을 제시했으며, 제주공항의 확충 및 신공항 건설 계획 검토, 제주항과 서귀포항만 시설확충, 새로운 연륙교통수단의 검토, LNG 비축기지 및 발전소 건설 등의 계획을 포함

–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의 계획인구를 체류인구 14만 명과 상주인구 66만 명 등 총 80만 명으로 설정하고 관광객은 1100만 명으로 추산

11) 제주특별자치도(2007),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 내용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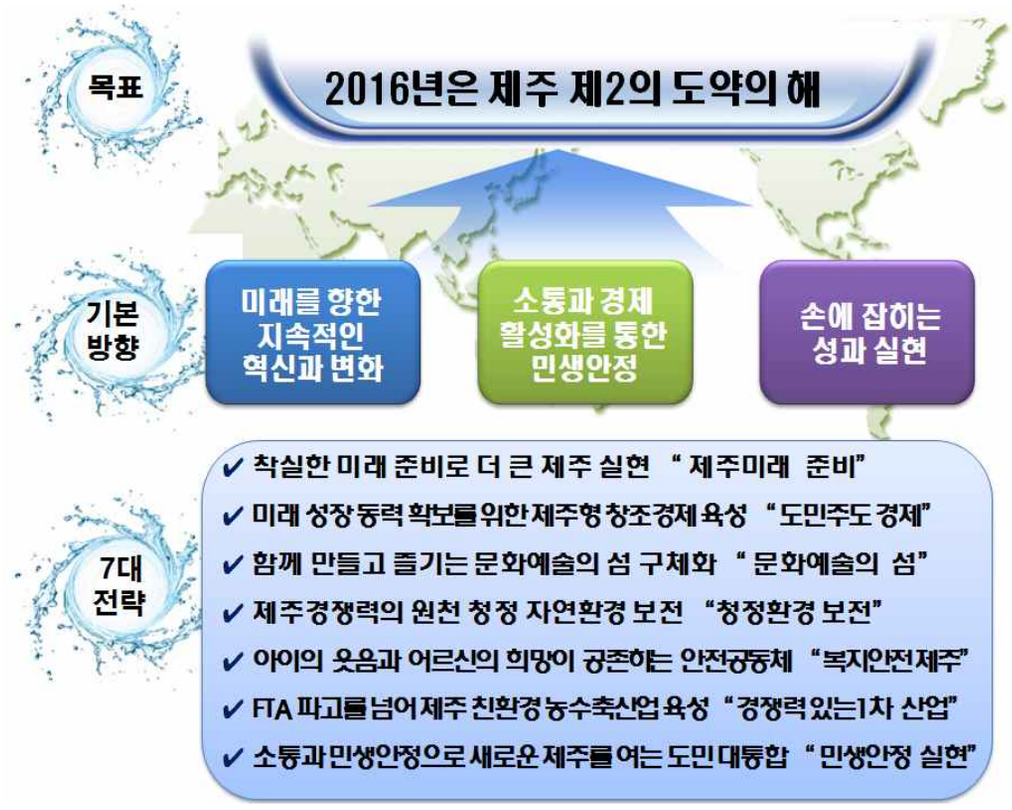
- 제주광역도시계획권 전체를 하나의 계획단위로 보고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도시계획체계상 최상위계획으로서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

▌주요내용

- 기존 관광지 재정비, 관광투자 촉진, 외국인 방문객 유치, 수요자 중심의 개발지원, 평화의 섬 이미지 제고, 지역별 관광거점 형성, 경관자원의 관광자원화, 야간관광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1.5 2016 제주도 도정계획[12)]

▌정책방향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2016), 2016년 주요 업무 계획, p 12

[그림 3-2] 2016 제주도 정책방향

12) 제주특별자치도(2016), 2016년 주요 업무 계획 내용 발췌

2016 도정계획

<표 3-3> 2016년 도정계획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제주 미래 준비	• 청정과 공존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한 미래비전 계획 수립 • 대한민국의 관문으로 제주의 외연 확대 • 4개 권역별 균형발전 핵심사업의 착실한 추진 • 대중교통체계 개편 개선 방안 마련 •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정립 • 평화의 섬 제주를 국제교류 및 협력의 플랫폼으로 육성 • 특별자치도 제도 개선 및 운영 내실화 •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미래 인재 육성
도민 주도 경제	• 제주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을 대한민국 대표산업으로 추진 • 혁신기술과 미래문명의 글로벌플랫폼 구축 • 투자+인재양성+고용창출 연계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세계로 나가는 경제영토, 도민에게 스며드는 따뜻한 경제 •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을 통한 도민행복 실현 • 도민자본 육성, 도민중심 성장전략 구체화
문화예술의 섬	**• 도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 문화 교류 확대를 통한 제주문화 브랜드 세계화** **• 제주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제주어 보전 및 제주학 진흥** **• 문화와 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한 새로운 제주가치 창출** **•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및 원도심 활성화** **•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
청정 환경 보존	• 제주의 독특한 환경자산의 체계적 보전·관리 방안 마련 •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반 구축 및 국제환경 협력 확대 • 늘 깨끗한 제주 만들기 • 산림자원 가치 증진 및 도민 행복 산림복지 실현 • 2016년은 물관리 정책 혁신의 해
복지 안전 제주	• 효율적인 복지정책 추진으로 복지 체감도 제고 • 어르신 및 장애인의 삶이 따뜻한 사회 조성 • 여성이 일하기 좋고 안전한 양성평등 구현 • 보건의료체계 강화로 질병 없는 건강한 사회 조성 •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세대를 위한 「제주형 주거복지」 본격 시행 • 안전한 제주
경쟁력 있는 1차 산업	• 4대 농정 혁신의 강력한 추진 •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 관리제도 연구용역 추진 합리적 모델 제시 • 농어촌의 고부가가치를 높이는 농수산식품가공, 6차 산업의 활성화 • FTA, TPP 등 개방화 시대 총체적 대응 태세 확립 • 도 전역 농업용수 광역화로 미래형 농업기반 구축 • 기후변화 적응 농작물 안정생산 기술개발 보급 • 미래 성장산업으로 축산업 도약 • 전통 수산업 수산물 생산·유통 구조 인프라 확대 • 제주광어 양식산업 체질개선 통한 제2도약 발판 마련
민생 안전 실현	• 도민 중심의 갈등 해소를 통한 도민 통합 • 나눔과 배려의 생활화로 자원봉사 모범 도시 구현 • 마을의 특성과 경쟁력을 살린 균형발전 구현 • 변함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한 도민 신뢰 구축 • 성과 중심의 민생안정시책 추진 • 도제 실시 70주년, 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 계기 도민 화합 한마당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2016),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p 14~48

▌해녀관련 2016 도정계획

<표 3-4> 해녀관련 2016 도정계획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 등재 추진	• 제주해녀축제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로 등재 역량 강화 • 제주해녀문화 중장기 발전방안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 후 세계적인 문화 아이콘 및 제주문화 발전 모델로 구체화
다이버(해녀, 스쿠버) 지원센터 조성사업	• 해녀와 다이버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지원센터 조성으로 작업환경 및 지원시설 개선 • 제주를 방문하는 스쿠버 다이버들의 여건개선 및 스쿠버 다이빙의 메카로 조성
해녀아카데미 등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제주해녀문화에 대한 해양 전문 교육을 통해 해양문화유산 탐방 기회 제공 • 해녀의 삶과 터전인 제주바다의 소중함을 체험, 해양자원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 해녀문화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해녀문화 우수성 홍보
해녀박물관 예산 집행 및 세외수입 관리	•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급량비 등 해녀박물관 소관 적정한 예산집행으로 재정의 건전성 확보 • 해녀박물관 입장료, 기념품 판매를 통한 세입 증대 도모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과(2016), 2016년 주요업무 실행계획 내용 발췌

1.6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5개년 기본계획[13)]

▌계획수립 배경 및 목적

- 세계적으로 희소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인 제주해녀들의 고유한 공동체 문화를 체계적으로 발굴, 보존 및 전승 필요
- 제주해녀 세계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 제주해녀문화 비즈니스 역량강화

▌계획의 성격 및 역할

- 제주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대한 종합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둔 법정계획

▌중점추진과제 및 성과

- 제주해녀 축제 세계화 : 축제의 대표화, 콘텐츠의 다양화, 축제의 세계화, 축제시기조정, 축제의 민간이양, 지역경제 활성화
  - 성과 : 축제의 세계화는 등재 이후 더욱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추진필요. 축제 민간이양은 2017년 예정
- 제주해녀문화 발굴·조사·연구 : 해녀문화 조사·발굴, 해녀문화 학술적 가치 적립, 해녀문화 자료집 발간, 민속 마을 지정, 조직 및 인력 확충
  - 성과 : 자료집은 지속 발간, 학술적 가치는 국제세미나를 통해 지속적 정립, 민속마을

13) 제주특별자치도(2011),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5개년 기본계획 내용 발췌

지정은 미정, 조직 인력 충원 (2016.7월)

- 해녀문화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 해녀문화 교육센터 건립, 해녀문화 체험장 운영, 상설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성과 : 교육센터 건립, 체험장 미정, 상설교육프로그램 어린이 포함 운영 중
- UNESCO 인류무형유산 등재
  - 성과 : 추진 중
- 해녀의 날 지정
  - 성과 : 등재 이후 특정날짜 등 조정
- 해녀문화 홍보 : 제주해녀상 건립, 문화관광상품개발, 캐릭터 개발, 미디어 콘텐츠 제작, 초등 교과서 수록 등
  - 성과 : 캐릭터 개발 및 콘텐츠, 홍보, 초등교과서 수록은 향후 추진

▌지속 추진필요 사업

- 축제의 세계화 및 축제참여의 다양화, 해녀문화 조사 발굴 대폭 확대, 민속마을 지정, 해녀문화체험장 에코뮤지엄 연계 지정 및 운영, 해녀의 날 지정, 초등교과서 수록 등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 과제

<표 3-5>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5개년 기본계획 중점추진 과제

구 분	내 용
제주해녀축제 세계화	• (축제의 규모화 및 대표화) 도내 6개 지구별 수협과 100개 어촌계, 해녀가족, 도민 등 관광객과 함께하는 축제 • (콘텐츠의 다양화) 해녀문화의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 반영 • (축제의 세계화) 일본해녀, 한반도 출향해녀 등을 초청
제주해녀문화 발굴조사연구	• (해녀문화 민속자료 조사 수집) 해녀문화 보존 기반 구축 • (해녀문화 학술적 가치 정립) 체계적 해녀문화 조사연구
마을어장 보호 및 소득증대	• (마을어장 자원조성) 수산자원 조성 및 생산성 향상 • (조업환경 개선) 잠수 탈의장 보강, 잠수복지원 등
해녀문화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 (해녀문화교육센터 건립) 박물관내 해녀문화교육센터 시설 확충 • (해녀문화 체험장 운영) 해녀문화 교육을 통한 해녀정신 계승
UNESCO 인류무형유산 등재	• (1단계 : 2011년~2012년) 국가 비지정무형유산 잠정목록 반영 • (2단계 : 2013년~2014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해녀의 날 지정	• (지정방안) UNESCO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는 날(2014. 9월)을 기념하여 해녀의 날 지정
해녀문화 홍보	• (2012여수세계박람회 제주홍보관) 제주해녀 메인컨셉 운영 • (제주해녀상 건립) “자유의 여신상”개념의 랜드마크로 시설 • (국제크루즈 문화관광 상품개발) 국제크루즈 문화관광 상품 제공 • (제주해녀 홍보영상 제작) 제주해녀 영상자료 제작 및 배포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2011),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5개년 기본계획 내용 발췌

2. 관련 법규 검토

2.1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14)]

▌제정이유

- 해녀문화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과 해녀 및 해녀문화 산업 등의 환경변화에 따른 조례의 재정립을 통하여 해녀문화 산업의 진흥 및 지원을 확대, 해녀문화 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 '해녀'란 현재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안의 마을 어장에서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고 있거나 과거에 이와 같은 일에 종사했던 여성을 말함
- '해녀문화'란 제주해녀들이 물질과 함께 생활에서 생겨난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하며, 나잠기술, 어로민속지식, 신앙, 노래, 작업 도구와 옷, 공동체의 습속 등을 포함
- '해녀문화산업'이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문화적 가치가 내포된 상품을 기획·제작·가공하여 생산하거나 유통, 마케팅 및 소비과정에 참여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연관 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

  가. 해녀 및 해녀문화 관련 문화콘텐츠 개발

  나. 해녀 및 해녀문화 관련 여행 및 체험관광 상품 개발

  다. 해녀 및 해녀문화 관련 유·무형의 상품 제조 및 서비스

  라. 해녀 및 해녀문화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해녀문화사업자'란 해녀문화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함

2.2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15)]

▌제정이유

- 해녀문화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해녀문화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해녀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녀문화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 '해녀문화콘텐츠산업'이란 해녀의 문화적 가치가 내포된 상품을 기획·제작·가공하여 생산하거나 유통, 마케팅 및 소비과정에 참여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모든 연관 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함

  가. 영화와 관련된 산업

  나. 음반·비디오물·게임물과 관련된 산업

14)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과,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내용 발췌(제정 2009. 11. 4 조례 제548호)
15)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개발과,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내용 발췌(제정 2012. 07. 18 조례 제931호)

다. 방송영상, 광고와 관련된 산업

라.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해녀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 제외)과 관련한 산업

마.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

- '디지털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디지털콘텐츠를 말함
- '디지털콘텐츠'란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한 것을 말함
- '멀티미디어콘텐츠'란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과 관련된 미디어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새로운 표현 및 저장기능을 갖게 한 콘텐츠를 말함
- '콘텐츠'란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함
- '에듀테인먼트'란 해녀문화콘텐츠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기획 및 제작된 것으로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말함

2.3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16)]

▌제정이유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32409-1번지에 둠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가. '수장품'이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유물로써 수집 또는 보관 등에 의하여 박물관에서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함

나. '수집'이란 수장품의 기증·기탁·구입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수장하는 것을 말함

다. '시설물'이란 박물관,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공원,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탑, 조형물, 야외전시물, 야외화장실, 운동장, 주차장 등 박물관의 모든 부대 시설물을 말함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7)]

▌개요

- 특별법의 목적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16)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개발과,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내용 발췌(제정 2008. 03. 05 조례 제346호)
17)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내용 발췌

- 특별법은 제3절 관광 및 향토문화의 진흥에서 관광에 관한 규정은 제169조(관광산업의 육성과 진흥)부터 제178조(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 및 부과금의 면제)까지 규정하고 있음
- 특별법은 그간 4차례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중앙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와 핵심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제도 추가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과 국가 신 성장 동력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선개선의 가속화의 필요성에 따라 분야·기능별 일괄이양 시범 추진 등을 포함하여 제5단계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음
- 특별법은 관광3법의 일괄 이양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다양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였음

제 2 절 관련 추진사업 및 기대사업 검토

1. 추진사업[18)]

1.1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개요

- 실제 해녀도구 및 유물학습을 통해 제주해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키우고, 직접 만들고 꾸며보는 체험활동으로 제주해녀문화 간접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추진 현황

- 2013년 12월 해녀박물관에서 도내 6~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녀, 제주바다를 부탁해' 1단계 <나도 꼬마 해녀!>교육프로그램 운영 실시
- 2014년 상반기부터는 연간 2회에 걸쳐 도내 6~7세 및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2~4학년,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해녀박물관 전시실 및 야외 체험장에서 진행하는 '어린이 체험 교육'과 도내 6~7세 및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2~6학년, 미취학 아동 및 초등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신청 주관 기관에서 진행하는 '찾아가는 박물관 교육'으로 확대 실시함

18) 제주해녀박물관 홈페이지 내 교육프로그램 내용 발췌

<표 3-6> 해녀박물관 어린이교육 운영 개요

구 분	프로그램명	교육대상	교육일시	교육장소	비고
해녀박물관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4회)	제주 바닷속 이야기	6~7세 미취학 아동 단체, 초등 1학년	2시간 (120분 이내) 날짜, 시간은 협의	해녀박물관 세미나실 (공연장), 전시실 및 야외체험장	학급단체 학년단체 (30~120명 이내)
	박물관 스스로 학습	초등 2~6학년			
찾아가는 박물관 교육 (6회)	제주 바닷속 이야기	6~7세 미취학 아동 단체, 초등 1학년	2시간 (120분 이내) 날짜, 시간은 협의	신청하는 유치원 및 학교, 단체 교실	단체 (90명 이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제주해녀 이야기	초등 2~6학년			학급단체 (30명 이내)
	제주해녀를 소개합니다!	미취학아동, 초등 전학년	4시간 (1일 2시간씩 2일 연속) 둘째, 넷째 화, 수요일 오전		

출처 : 제주해녀박물관 홈페이지, http://www.haenyeo.go.kr

<표 3-7> 세부프로그램 내용 예시: 찾아가는 박물관 교육 중 제주해녀를 소개합니다!

구분	학습단계		상세 프로그램	시간
1일차	도입	동기유발	인사하기 및 박물관 프로그램 소개 <제주해녀>를 소개하는 인포그래픽 영상	20분
	전개	활동1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제주해녀 이야기 (PPT 학습 및 유물탐구 활동, 활동지) - 물소중이와 고무옷 - 해녀들의 공동체: 도란도란 불턱이야기 - '호오이 호오이' 숨비소리	50분
		활동2	체험활동 - 소라껍질 양초 만들기(2학년) - 해녀 종이인형 만들기(3학년) - 해녀 아트북 만들기(4~6학년)	40분
	정리	학습정리	생각정리 및 평가	10분
2일차	체험활동		공동작품 만들기 <제주해녀를 소개합니다!> - 제주해녀를 소개하는 도자기 타일 작품 만들기 ※ 완성된 작품은 해녀박물관 전시에 활용	2시간

출처 : 제주해녀박물관 홈페이지, http://www.haenyeo.go.kr

1.2 해녀아카데미

▌개요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녀문화 및 해양문화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제주해녀의 가치를 홍보하고 보급하고자 함

- 제주해녀문화에 대한 이론과 실기가 결합된 해양 전문 교육을 통해 해양문화유산 탐방 기회를 제공하고 해녀문화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함

▌추진 현황

- 2015년 6월부터 국내 거주자 중 해녀에 관심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제주해녀 및 해양문화 이론 강좌와 물질체험 및 해녀유적 탐방 등 현장교육으로 구성된 제주해녀문화 아카데미 운영

<표 3-8> 2016 제주해녀문화 아카데미 프로그램 내용

구 분	강의 주제
1	제주해녀
2	제주해녀의 역사적 고찰
3	해녀는 제주도에만 존재하는가?
4	해녀유적 답사
5	제주해녀의 출가 물질
6	제주해녀어업
7	해녀를 통해 본 제주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생태주의
8	해녀와의 대화
9	해녀의 어업권 제도, 어장관리
10	마을어장의 생태
11	무형유산과 공동체
12	제주해녀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출처 : 제주해녀박물관 홈페이지, http://www.haenyeo.go.kr

1.4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국제학술대회

▌개요

- 제주해녀문화에 대한 국내외 학자들과 토론 및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제주해녀문화의 보존 및 계승기반 구축하고자 함
-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 및 후속 조치

▌추진 현황

- 2006년 해녀박물관 개관을 기념하여 국내외학자들이 모여 제주해녀의 항일운동, 문화유산, 해양문명을 주제로 해양문화 속의 해녀 노동문화의 학술적 체계정립 등 다양한 논의하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함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에 따라 공감대 확산과 가치 재정립을 위해 학술적 논의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2014년부터 제주해녀축제의 첫째날 행사로 진행되면서 제주해녀문화에 대한 국제학술대회가 보다 활발히 진행됨

1.5 제주해녀축제

▌개요

- 2007년 구좌읍 지역주민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해녀문화 세계화가 제주특별자치도청 중점 과제로 채택되면서 2011년 제4회 축제부터 국제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 도 단위 축제로 승격됨
- 제주해녀축제를 통해 해녀의 자긍심 고취 및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기원을 위해 공감대 조성하고자 함

▌추진 현황

<표 3-9> 제주해녀축제 프로그램 세부 내용 (4회~8회)

구 분	강의 주제
제4회 2011.10.15. ~ 2011.10.16	주제: 게계로 울려 퍼지는 숨비소리 1일차: 제주칠머리당 영등굿 환영제, 해녀물질대회·테왁수영대회·사진촬영대회, 제주해녀불턱가요제, 바릇잡이체험, 해녀복체험&포토존, 어린이와 함께하는 해녀어장 만들기, 국제해녀 홍보단 발대식 등 2일차: 해녀민속공연, 해녀연극, 전통해녀음식 요리대회, 보말까기대회, 어린이그림그리기대회, 물질체험(이동해녀학교), 테왁망사리 만들기 체험, 몽니 캐릭터 홍보관, 제주해녀 해외언론 기사소개 영상, 해녀들의 수다(인터뷰 영상) 등
제5회 2012.09.08. ~ 2012.09.09	주제: 숨비소리,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1일차: 제주도 칠머리당 영등굿, 해녀바당 물 합수식, 뮤지컬 '숨비소리' 갈라쇼, 숨비소리 영상 상영, 지역동아리 축하공연, 해녀물질대회·해녀테왁수영대회, 물질체험(이동해녀학교), 해녀안전기원제 및 넋드림 2일차: '숨비소리 길' 걷기행사(칠머리당 영등굿, 숨비소리길 체험탐방, 물질/밭담/스토리텔링), 숨비소리 경연, 해녀의 민속경연(어촌계별), 해녀민속공연(해녀무용, 일본아마민속공연, 비바리춤, 해녀연극), 물소중이 패션쇼,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바릇잡이체험, 물질체험(이동해녀학교), 전통해녀음식 요리대회, 보말까기체험, 어린이와 함께하는 해녀어장 만들기, 해녀굿 송별제
제6회 2013.10.12. ~ 2013.10.13	주제: 숨비소리, 바다건너 세계로! 4개의 장(경연의 장, 소통의 장, 힐링의 장, 체험의 장) 26개 프로그램 1일차: 해녀굿, 거리퍼레이드, 일본 아마 공연, 해녀노래 공연, 영상 상연, 지역동아리공연, 테왁수영대회·물질대회, 해녀불턱가요제, 해녀사진 전시회, 전통 해녀복 체험, 희망의 불꽃쇼 등 2일차: 보말잡기, 해녀굿(잠수굿: 삼천벵뎃대, 초감제, 넋드림, 요왕맞이, 씨드림, 지드림, 배방선), 물질체험, 도전! 나도 해녀(해녀 물품 이용한 참여 이벤트), 제주해녀 민속경연, 숨비소리 창작가요제, 어린이와 함께하는 해녀어장 만들기, 바릇잡이 체험, 부대행사 등
제7회 2014.10.17. ~ 2014.10.19	주제: 숨비소리, 바다건너 세계로! 5개의 장(학술대회, 공연행사, 경연대회, 체험행사, 상설운영) 29개 프로그램 1일차: 국제해녀학술대회 2일차: 지역문화공연, 해녀굿공연, 소원띠 기원, 해녀 다큐멘터리 상영, 바릇잡이체험, 해녀문화해설 트래킹, 해녀물질대회, 해녀테왁수영대회, 여러 부대행사 3일차: 제주해녀 OX 퀴즈골든벨, 해녀가족노래자랑, 어린이사생대회, 어린이와 함께하는 해녀어장 만들기, 바릇잡기 체험, 해녀문화해설 트래킹, 여러 부대 행사
2015년도 2015.10.02. ~ 2015.10.04.	주제: 숨비소리, 바다건너 세계로! 1일차: 국제해녀학술대회 2일차: 거리퍼레이드 행진 및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기원 퍼포먼스 행사, 해녀굿, 해녀물질대회, 해녀테왁수영대회 3일차: 해녀불턱가요제, 팔딱광어잡기 체험행사, 해녀문화해설트래킹, 어린이사생대회 등

출처 : 제주해녀박물관 홈페이지, http://www.haenyeo.go.kr

1.6 홍보사업

▌개요

- 제주해녀의 진취성, 민주적 리더십, 생태주의, 도전정신 등 제주해녀문화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가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제주해녀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 진행

▌추진 현황

- 제주해녀 공연 및 해녀체험 활성화
- 여성생태 축제로의 제주해녀축제 활성화
- 제주해녀 구글 서비스 등 해외 홍보 활성화

2. 기대사업

2.1 제주해녀문화진흥원 설립

▌설립 목적

- 해양개발과 해녀박물관(박물관운영 및 해녀문화조사), 수산정책과 수산자원계(해녀생업지원), 문화정책과 문화재관리계(해녀유적 조사 관리)와 같이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있는 다양한 해녀관련 문화 사업들을 총괄하여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하여 분산된 사업들을 진흥원 소관으로 일원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세계화 사업 추진하고자 함

▌실천 전략

<표 3-10> 제주해녀문화진흥원 사업

구 분	내 용
해녀박물관 관리팀	• 박물관 및 센터 운영 • 도내외 해녀 문화단체 지원 • 해녀축제 추진
해녀문화세계화팀	• 해녀문화교육 • 해녀관련 전시 • 해녀관련 도내외 행사 • 해녀관련 홍보, 마케팅
해녀문화연구팀	• 국내외 해녀 조사 • 국내외 해녀유물 관리 • 해녀자료 아카이브 구축 • 해녀항일운동사업 정립

2.2 하도지역 해녀에코뮤지엄사업

▌사업 목적

- 하도리 일대를 제주도 특성화 체험마을을 해녀생태박물관화하여 제주해녀문화의 지속발전 가능한 자연 및 문화의 융복합산업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새로운 수익구조를 제공하고자 함

▌실천 전략

<표 3-11> 하도지역 해녀에코뮤지엄 사업

구 분	내 용
해녀촌 경험하기	• 가족단위 방문객, 휴일 기간 외지방문객에게 제공하는 홈스테이 프로그램 • 해녀탈의장에서 숙식 체험 • 식사, 노동, 해산물 채취 등을 통해 해녀촌 경험 • 단순 방문객보다는 해녀촌 일원으로 해녀촌 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
해녀촌에 살기	• 해녀마을 장기 거주 프로그램 • 집, 토지 대여를 통해 해녀촌 구성원으로 살아보는 체험 프로그램 • 입어권 부여하여 해녀촌 거주민으로서 경제활동 참여 기회 제공 • 프로그램 종료 후 거주 여부 결정
해녀되기	• 신청자 1인, 스승 2~3인으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진행 • 신청자의 상황에 맞게 단기 거주 가능 • 물질경험과 더불어 음식, 생업 등 해녀 생활에 관련 체험
연구자 되기	• 국내외 해녀연구자 대상 프로그램 • 1년에 2명으로 한하여 해녀촌 숙소를 연결해줌에 따라 해녀 및 해녀촌 문화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며 학문적 접근 가능한 환경 제공

제 4 장

제주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방안

제 4 장 제주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방안

제 1 절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

1.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개요[19)]

1.1 무형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의 정의 및 개요

-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나 집단이 관습, 표상, 표현물, 지식 및 기술 등을 환경, 자연, 역사의 상호작용에 따라 재창조하며 세대 간에 전승해온 것으로 공동체나 집단에게 정체성 및 연속성을 제공함
- 유네스코는 1997년 제29차 총회에서 산업화와 지구화 과정에서 급격히 소멸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제도'를 채택했으며, 2001년, 2003년, 2005년에 지정된 총 70개국 90건의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은 2008년 11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자동 전환됨
- 이후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증대됨에 따라 2003년 유네스코 총회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을 채택함

<표 4-1>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으로 본 무형문화유산의 정의

구분	내 용
정의 (제2조 1항)	• 공동체, 집단 및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분으로 인식하는 관습, 표현, 지식 및 기술 • 이와 관련된 전달 도구, 사물, 공예품 • 문화 공간
범위 (제2조 2항)	•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체로서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 공연 예술(전통음악, 무용 및 연극 등) • 자연 및 우주에 관한 지식 및 관습 • 전통 기술
특징 (제2조 1항)	• 세대와 세대를 거쳐 전승 • 인간과 주변 환경, 자연의 교류 및 역사 변천 과정에서 공동체 및 집단을 통해 끊임없이 재창조 • 공동체 및 집단에 정체성 및 지속성 부여 • 문화 다양성 및 인류의 창조성 증진 • 공동체간 상호 존중 및 지속가능발전에 부합 ※ 국제 인권 관련 규범과 양립

출처 : 유네스코(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003

19)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와 유산' 내용 중 발췌

1.2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등재 분류

- 무형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국제협력을 강화하고자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은 '인류무형문화유산 긴급보호목록(Urgent Safeguarding List)'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 2가지로 구분하여 무형문화유산 목록을 제정하도록 규정함
- 성공적인 무형유산 보호 프로그램을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협약의 원칙과 목적에 잘 부합한 보호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활동을 무형문화유산 보호 모범사례(Register of Best Safeguarding Practices)로 선정함

<표 4-2> 인류무형문화유산 분류

구 분		내 용
무형문화유산 목록	긴급보호목록	• 보유 공동체나 당사국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멸 위기에 직면한 무형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국제적인 관심과 협력 도모하고자 함 • 등재절차가 엄격한 반면, 무형유산기금의 대부분을 긴급보호목록 내 무형유산 보호에 지원하도록 함
	대표목록	• 무형유산의 가시성 증진과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 간 대화를 촉진하고자 함
모범사례		• 무형유산보호협약의 원칙과 목표를 가장 잘 반영한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과 사업, 활동을 선정하여 무형문화유산 보호 프로그램 시행 시 참고사례로 활용하여 효과적인 보호 활동을 추구하고자 함

출처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와 유산', http://heritage.unesco.or.kr/ich/ich_reg/

▌등재 기준 및 선정 기준

- 무형문화유산목록 등재 기준

<표 4-3> 인류무형문화유산 긴급보호목록 등재 기준

구분	내 용
기준1	무형유산협약 제2조에서 규정하는 무형문화유산에 부합할 것
기준2	관련 공동체나 집단, 개인 또는 당사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멸위험에 처해있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준3	즉각적인 보호 조치가 없으면 곧 소멸될 정도로 극도로 긴급한 상황에 놓여있을 것
기준4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이 계속 실연하고 전승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기준5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들이 자유롭게 사전 인지 동의(free, prior, informed consent)하고, 가능한 최대한 폭넓게 신청과정에 참여할 것
기준6	신청유산이 당사국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을 것

출처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와 유산', http://heritage.unesco.or.kr/ich/ich_reg/

<표 4-4>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기준

구분	내 용
기준1	무형유산협약 제2조에서 규정하는 무형문화유산에 부합할 것
기준2	대표목록 등재가 해당 유산의 가시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문화 간 대화에 기여하며, 아울러, 세계문화다양성 반영 및 인류의 창조성을 입증할 것
기준3	신청유산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기준4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들이 자유롭게 사전 인지 동의(free, prior, informed consent)하고, 가능한 최대한 폭넓게 신청과정에 참여할 것
기준5	신청유산이 당사국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포함되어있을 것

출처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와 유산', http://heritage.unesco.or.kr/ich/ich_reg/

• 모범사례 선정 기준

<표 4-5> 인류무형문화유산 모범사례 선정 기준

구분	내 용
기준1	무형유산협약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보호 조치를 포함한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일 것
기준2	보호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은 무형문화유산 보호 조치를 위해 지역, 구역, 국제 단계별 효율적 협력을 증진할 것
기준3	보호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은 무형유산협약의 원칙과 목적을 반영할 것
기준4	보호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이 종료된 경우 해당 무형문화유산의 활성화와 전승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할 것. 진행 중인 경우, 향후 해당 무형문화유산의 활성화 및 전승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되어질 것
기준5	보호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은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들이 자유롭게 사전 인지 동의(free, prior, informed consent)하고, 가능한 참여하여 진행할 것
기준6	보호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은 보호 조치 활동을 위한 지역, 구역, 국제별 모델을 제시할 것
기준7	제출 당국, 시행 기관,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들은 해당 보호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이 선정될 시 해당 모범사례 전파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
기준8	보호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은 결과 평가에 용이한 경험을 포함할 것
기준9	보호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은 개발도상국 상황에 적용하기 적합할 것

출처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와 유산', http://heritage.unesco.or.kr/ich/ich_reg/

▌등재 효과

• 관리 책임

– 긴급보호목록 또는 대표목록에 등재되어도 해당 유산의 관리는 이전과 변화가 없으며, 당사국 국내법 적용 받음

– 무형유산위원회는 당사국이 세계유산을 적정하게 보호 및 관리하고 있는지 보고서 제출 요구 가능하며, 필요시 현지 조사를 실시함

• 국제협력 및 지원

– 긴급보호목록 및 대표목록에 등재되면 무형유산협약에 따라 설치된 무형문화유산기금에서 재정 및 기술 지원을 시행함

– 선진국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도 해당 유산 보존을 위해 세계유산위원회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 거의 없으며, 유네스코 신탁기금 등을 통해 저개발국 유산 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것이 보편적임

1.3 인류무형문화유산 목록 (2015년 12월 기준)

▌대표목록에 등재된 무형유산은 전 세계 104개국 336건

- 2001년, 2003년, 2005년 각각 선포했던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걸작' 90건은 2008년 11월 대표목록으로 자동 전환됨
- 대표목록 선정은 2009년부터 진행되었으며, 2009년 75건, 2010년 44건, 2011년 18건, 2012년 27건, 2013년 25건, 2014년 34건, 2015년 23건이 대표목록에 등재되어 총 336건이 됨

▌긴급보호목록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목록에 등재된 무형유산은 24개국 43건임

▌모범사례

- 협약의 원칙과 목적에 잘 부합한 보호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활동을 선정함
- 2009년 3건, 2011년 5건, 2012년 2건, 2013년 1건, 2014년 1건 등 총 12건이 목록에 등재됨

<표 4-6>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모범사례목록

국 가	등재년도	목 록
볼리비아·칠레·페루	2009	볼리비아·칠레·페루의 아이마라족 사회의 무형문화유산보호
인도네시아	2009	인도네시아 페칼롱간의 바틱 박물관과 공동 수행하는 초·중·고등학교, 직업학교, 기술전문학교 학생들에 대한 바틱 무형문화유산 교육 및 훈련
에스파냐	2009	전통 문화 센터 – 푸솔 학교 박물관의 교육 프로젝트
	2011	안달루시아 세비야 주 모론 데 라 프론테라의 전통적 석회 제조 기술의 재활성화
	2013	생물권 보전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목록 작성 방법 : 몬트세니의 경험
브라질	2011	판당고의 살아 있는 박물관
		국가 무형유산 프로그램 사업 공모
헝가리	2011	탄차즈(Táncház) 방식 : 무형문화유산을 전승하는 헝가리식 모델
벨기에	2011	'놀이다양성' 진흥 프로그램: 플랑드르 지역의 전통 놀이 보호
	2014	카리용 문화 보호 : 보전, 전승, 교류 및 인식제고
멕시코	2012	크탁스크가크겟 막그칵스틀라와나: 멕시코 베라크루스 주 토토나카족의 원주민예술센터
중국	2012	차세대 푸젠 성 인형극 예능보유자의 양성 전략

출처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와 유산', http://heritage.unesco.or.kr/ich/ich_reg/

2.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20]

▌배경

- 해녀문화의 유네스코 등재는 일차적으로 해녀 문화의 보호가 시급하기 때문이며, 둘째 제주도를 벗어나 조선시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여성으로 한국의 어업 근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해녀 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발하기 위함이며, 이와 더불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에서 해양생태계를 보존하며 지속가능한 경제행위를 우리 고유의 문화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하는 바램에서 시작되었음
- 사회적 약자, 양성평등, 자연과의 조화, 사회공헌 등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주요 요소를 갖추고 있는 제주해녀문화 보존, 계승 및 발전을 위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고자 함

▌등재조건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의 등재조건을 살펴보면, 첫째, '신청하는 유산은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제2조에 나오는 무형문화유산의 정의를 충족해야 한다. 둘째, 신청하는 유산이 무형유산의 가시성 확보, 무형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무형유산에 관한 대화 촉진에 기여함으로써 전 세계 문화다양성을 반영하고 인류 창의력을 증명해야 한다. 셋째, 등재신청서는 신청하는 유산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보호조치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넷째, 등재신청 전에 관련공동체, 단체 또는 개인이 등재과정에 광범위하게 참여해야 하고, 그들은 유산 등재에 대해 제공된 정보에 기반을 두어서 자유의지에 따라 사전 동의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청하는 유산은 해당 당사국의 무형유산 국가목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임

▌추진 현황

- 2013년 12월 문화재청은 제주해녀문화를 유네스코 등재신청 한국 대표종목으로 선정
- 2014년 3월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신청서 제출
- 2014년 6월 2016년 유네스코 등재종목으로 재선정 추진
- 2015년 3월 유네스코 등재신청서 보완 제출

▌향후 계획

-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에 따른 활성화 방안 수립
- 유네스코 등재 기념우표 발간
- 제주해녀의 날 제정

20) 제주특별자치도 통권 118호(2014년 12월 발행) p 159~165

제 2 절 인류무형문화유산 관련 지원 정책 사례

1. 국내 사례

1.1 국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목록

▌현황

- 문화재청은 2016년 정책과제로 '인간문화재' 칭호 법제화를 내세우며 기존의 기능 및 예능 위주였던 무형문화재 범위를 유네스코 협약 기준에 맞춰 전통지식, 생활관습 등 7개 범주로 확대하고자 함
- 우리나라는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에 선정된 종묘 및 종묘제례악(2001년), 판소리(2003년), 강릉단오제(2005년)가 2008년 11월 대표목록으로 자동 전환된 이후 2009년 5건, 2010년 3건, 2011년 3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각각 1건씩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되며 현재까지 총 18건의 유산을 등재함

<표 4-7>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목록

구분	등재일	목 록
대표목록	2001.05.18	종묘제례(宗廟祭禮) 및 종묘제례악(宗廟祭禮樂)
	2003.11.07	판소리
	2005.11.25	강릉단오제
	2009.09.30	처용무
		강강술래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남사당놀이
		영산재
	2010.11.16	대목장(大木匠), 한국의 전통 목조 건출
		매사냥, 살아있는 인류 유산
		가곡(歌曲), 국악 관현반주로 부르는 서정적 노래
	2011.11.29	줄타기
		택견, 한국의 전통 무술
		한산(韓山) 모시짜기
	2013.12.05	김장,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문화
	2014.11.27	농악(農樂)
	2012.12.05	아리랑, 한국의 서정민요
	2015.12.02	줄다리기

출처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와 유산', http://heritage.unesco.or.kr/ich/ich_reg/

1.2 유형별 국내 인류무형문화유산 관련 정부 지원

1.2.1 기반인프라

▌시설

<표 4-8> 국내 인류무형문화유산 시설 관련 정부지원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판소리[21]</td><td>고창군 판소리박물관
전북도립국악원
공주시 박동진판소리전수관
보성군 판소리성지
하동군 판소리체험관(건립 2년 지났으나 운영 기본계획 미비)
전주소리문화관
국악의 성지
– 2007년 국비·지방비 105억 원을 투입해 전라남도 남원에 개관
– 국악의 성지 연간 예산액
<table>
<tr><th>년도별</th><th>예산액</th></tr>
<tr><td>2008</td><td>166,709,000원</td></tr>
<tr><td>2009</td><td>181,791,000원</td></tr>
<tr><td>2010</td><td>299,157,000원</td></tr>
<tr><td>2011</td><td>179,837,000원</td></tr>
<tr><td>2012</td><td>135,979,000원</td></tr>
<tr><td>2013</td><td>154,051,000원</td></tr>
<tr><td>2014</td><td>136,279,000원</td></tr>
<tr><td>2015</td><td>130,213,000원</td></tr>
</table></td></tr>
<tr><td>남사당놀이[22]</td><td>경기도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내 남사당공연장 및 바우덕풍물단(2003년 창단) 운영
– 2014년부터 안성맞춤랜드사업소는 안성시 직속기관으로 운영
연간예산액
5,478,018,000원(국 5억+시 4,978,018,000원/2015)
4,420,004,000원(2014)
3,527,685,000원(2013)
2013년도 대표내역
남사당전수관 : 21,900,000원
남사당공연장 : 151,632,000원
시립바우덕이풍물단 : 1,629,362,000원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내 남사당놀이 단체 입주</td></tr>
<tr><td>택견[23]</td><td>80여개의 교육센터 운영
전국전수관
충주시 택견전수관
– 21억 8,000만원의 국비와 지방비를 들여 2년 여에 걸쳐 건립
– 1997년 5월 31일 준공
세계무술공원
– 1989년 충주댐 준공시 한강 주변 관광지 조성 필요에 의해 계획
– 총 부지면적은 617,000㎡
– 주요시설: 세계무술박물관(지상1층 지상5층, 연면적 4,125㎡의 규모로 2010년 10월 개장, 773점 유물 전시 및 수장, 강당 및 전시실 구비), 야외대공연장, 돌미로원, 수석공원, UN기념관(컨벤션 센터) 조성 예정</td></tr>
</table>

21) 자료: 고창판소리박물관(pansorimuseum.gochang.go.kr), 국립국악원(www.gugak.go.kr), 국악의성지(gukak.namwon.go.kr), 박동진판소리전수관(www.parkdongjin.com),

구분	내용
아리랑[24]	아리랑센터, 아리랑박물관 개관(정선 소재 2016.05.19.) – 아리랑박물관: 정선아리랑을 포함한 국내외 모든 아리랑 관련 유물 600여점과 각종 영상 및 음원 전시 한국 아리랑마을(34만 6,000여㎡) 조성사업을 위해 정선군은 국비 확보 요청 국립국악원, 국립부산국악원, 국립남도국악원(진도 소재) 밀양아리랑아트센터 2016년 9월 1일 개관 예정 – 교동 밀양대공원 부지 총 458억원 – 지상 4층, 연면적 9811㎡ 규모로 2016년 6월 3일 완공 – 1층 소공연장(156석) 및 아리랑전수관, 2층 대공연장(810석), 3층 (재)밀양문화재단 운영사무실, 4층 다목적 세미나실, 강의실 등 – 밀양지역 문화예술의 전당으로 다양한 공연 및 문화행사 개최,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예정
김장문화[25]	광주김치타운 – 김치타운을 조성하여 세계김치연구소, 김치박물관 설립
농악[26]	강릉농악전수관 2015년 8월 21일 완공 – 총사업비 42억(국비 21억, 도비 6억, 시비 15억) 농악전수관 운영 – 필봉농악전수관, 빗내농악전수관, 고창농악전수관, 벽골우도농악전수관, 우도농악전수관, 정읍우도농악전수관 등 정읍농악전수회관 리모델링 지원(2016년) – 총사업비 6억(국비 3억, 도비 9천, 시비 2억 1천) 섬진강소리문화체험마을(전북남원) 진행 중 – 강변문화관광개발사업의 일환 – 2014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지연됨 – 소리명상길, 새태주차장, 소리아카이브관(농악 관련 DB 구축) 등 – 2013년 당시 95억원 투자 예상/2014년 75억 투자/2015년 17억 투자 계획

전주소리문화관(sori.jjcf.or.kr), 한국판소리보존회(www.koreapansori.com)
처용문화제 관련 기사(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885)

22) 자료: 남사당놀이보존회(www.namsadang.or.kr), 안성맞춤랜드(asmcland.or.kr),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www.baudeogi.com), 안성시청(www.anseong.go.kr)

23) 자료: 대한택견연맹(www.koreataekkyon.com), 충주시청(www.cj100.net),
충주시택견전수관(www.taekgyeon.net), 한국택견협회(www.krtga.com)

24) 자료:서울아리랑페스티벌(www.seoularirangfestival.com),
아리랑보존회(www.ariranginfo.co.kr), 정선아리랑문화재단(www.jacf.or.kr),
아리랑남북교류협의회 창립 관련 기사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415_0013601845&cID=10201&pID=10200)
정선아리랑센터 관련 기사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783187)
밀양아리랑아트센터 관련 기사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183313)

25) 자료: 광주김치타운(kimchitown.gwangju.go.kr), 뮤지엄김치간(www.kimchikan.com)
국제학술대회 및 심포지엄 관련
(http://www.cha.go.kr/multiBbz/selectMultiBbzView.do?id=17878&no=24538&bbzId=newpublic&pageIndex=1&pageUnit=10&strWhere=content&searchWrd=%ea%b9%80%ec%9e%a5%eb%ac%b8%ed%99%94&sdate=&edate=&mn=NS_01_01)

26) 자료: 고창농악보존회(www.gochanggut.org), 남원농악보존회(www.namwongut.org),
평택농악보존회(www.ptnongak.or.kr), 호남좌도임실필봉농악(www.pilbong.co.kr)
강릉농악전수관 관련 기사(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744287)
섬진강소리문화체험마을 관련 기사
(http://www.newsmak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9669)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9828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799743)
국제교류 및 행사지원 관련 기사
(http://www.kyongbuk.co.kr/main/news/news_content.php?id=663290&news_area=110&news_divide=&news_local=23&e

DB 구축 및 기록

<표 4-9> 국내 인류무형문화유산 DB 구축 및 기록 관련 정부지원

구분	내용
판소리	국립국악박물관 운영 국립국악원 내 자료실 및 아카이브 운영 고창판소리박물관 내 온라인 자료실 운영 국악음반박물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택견	세계무술공원 내 세계무술박물관을 통해 DB 구축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 정선아리랑 학술조사 및 채록 – 해외동포 아리랑 현지조사 – 아리랑아카이브 운영
농악	보존회별 아카이브 구축

연구사업 확대 및 지속

<표 4-10> 국내 인류무형문화유산 연구사업 확대 및 지속 관련 정부지원

구분	내용
판소리	연간 2회 국악원논문집 발행으로 지속적인 학술연구 운영
남사당놀이	비정기적 학술대회 개최 – 2014 제2회 안성맞춤 학술 심포지움 '남사당 전통과 바우덕이 담론–지역문화자산의 전승과 과제–'(주관, 주최: 참빛아카이브/후원: 안성시) – 2011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지정 학술세미나–남사당놀이의 유네스코 등재 의의와 전망, 남사당놀이의 원류와 발전 양상–(주최: 김을동의원사무실/주관: 중요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놀이보존회/(사)남사당) – 2010 안성남사당바우덕이축제 학술회의 개최(주최: 2012안성세계민속축전 조직위원회/주관: 인문콘텐츠학회, 중앙대학교 한국문화유산연구소)
택견	세계무술아카데미 – 2008년 11월 설립된 한국연구재단 등재연구소 –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과 전통무예 보호 및 전승발전을 위한 교육과 교류 및 학술적 연구 사업 수행 – 2009년부터 매년 세계무술국제학술대회 개최 – 2015년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인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매년 2억 원씩 3년간 6억 원의 연구비 지원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 해외동포 아리랑 현지조사 지속 – 학술회 개최 및 자료집 발간 밀양아리랑 시민토론회 개최

ffect=4)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868586&thread=09r02)
국제학술대회 및 심포지엄 관련
(http://www.chf.or.kr/c6/sub2.jsp?thisPage=23&searchField=title&searchText=&brdType=R&bbIdx=101733)

구분	내용
김장문화	2013 김장문화 및 아리랑 대토론회 개최 – 주최: 문화융성위원회, 문화재청 주관: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농악	전북대학교 농악/풍물굿 연구소: 농악·풍물굿 전국학술대회 개최 보존회별 비정기적 학술회 개최 – 남원농악학술대회, 충청웃다리농악학술세미나, 김천빗내농악학술대회, 제천두학농악학술심포지엄 등 지자체별 학술연구 진행 – 전라남도 곡성군 관광문화과(2015.07~2015.12): 죽동농악 학술연구용역(죽동농악의 체계적인 정리를 통해 좌도농악의 전통 재조명) – 충청남도 청양군 문화체육관광과(2015.05~2015.08): 충청웃다리농악 학술연구

▌관련 진흥기관 설립 및 전문인력 확보

<표 4-11> 국내 인류무형문화유산 진흥기관 설립 및 전문인력 확보 관련 정부지원

구분	내용
판소리	판소리연구 보존회 국립국악원 운영
남사당놀이	남사당놀이 보존회
택견	한국택견협회(충청북도 충주시 소재):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지정 전승 단체 충주시립택견단 – 국내외 연간 백 회 이상 시연 – 일반인에게 무료 훈련 강좌 제공
아리랑	아리랑보존회 중심으로 보존 – 정선아리랑 보존회, 진도아리랑 보존회, 밀양아리랑 보존회 등 정선아리랑문화재단 – 전승단체인 정선아리랑제위원회, 정선아리랑보존회, 정선아리랑연구소, 아라리인형의집 관리
김장문화	광주김치타운 설립
농악	보존회를 중심으로 보존 및 전승

▌관련 제도 마련 및 개선 (법규, 조례 등)

<표 4-12> 국내 인류무형문화유산 관련 제도 마련 및 개선 관련 정부지원

구분	내용
판소리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지정 전북 고창군 조례(2014.01.16.) 고창군 판소리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충남 공주시 조례(2008.11.14.) 공주시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운영 조례 전남 보성군 조례(2014.03.14.) 보성군 판소리성지 관리 및 운영 조례 경남 하동군 조례(2016.05.20.)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북 남원시 조례(2015.02.10.) 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 및 운영 조례
남사당놀이	중요무형문화재 제3호 경기 안성시 조례(2016.05.17.) 안성시 남사당 전용공연장 운영 조례

구분	내용
	경기 안성시 조례(2015.08.07.)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경기 안성시 조례(2015.08.07.) 안성시 남사당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경기 안성시 조례(2013.09.26.) 안성맞춤 남사당바우덕이 축제 조례
택견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 충북 충주시(2016.02.19.) 충주시 택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충북 충주시(2016.02.19.)충주시 택견연구원 설치와 운영 조례 대통령령 제6434호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 학점으로 인정
아리랑	국가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 지정 시·도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인간문화재) 지정 정선아리랑 강원도 무형문화재 1호 지정 강원 정선군(2009.07.14.) 정선아리랑전수관 운영조례 강원 정선군(2010.12.15.)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 정선군(2013.03.12.) 정선군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강원 정선군(2014.03.12.)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강원 정선군(2016.04.01.) 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강원 정선군(2016.04.01.) 정선군 아리랑박물관 운영 조례
김장문화	전남 해남군(2015.10.23.) 해남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 경북 영양군(2015.12.04.) 영양군 축제 지원 및 관리 조례(일부)
농악	중요무형문화재 제11호 경기 평택시(2000.08.07.) 평택시 평택농악전수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강원 원주시(2013.12.13.)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강원 속초시(2013.06.12.) 속초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 충남 금산군(2015.04.15.) 금산군 농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북 익산시(1998.03.17.) 익산시 이리농악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북 정읍시(2011.11.18.) 정읍시 정읍우도농악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북 남원시(2009.11.24.)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북 임실군(2015.10.30.) 임실군 필봉농악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북 고창군(2012.11.23.) 고창군 동리국악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북 부안군(2015.09.08.) 부안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남 화순군(2008.03.11.) 화순군 화천농악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남 영광군(2015.07.28.) 영광군 호남우도농악전수회관 운영관리조례 경북 김천시(2003.09.25.) 김천시금릉빗내농악전수관설치 및 운영조례

1.2.2 인적자원 관리

▌전승 자문인력 양성

<표 4-13> 국내 인류무형문화유산 전승 자문인력 양성 관련 정부지원

구분	내용
판소리	(사)한국판소리보존회를 주축으로 진행
남사당놀이	남사당놀이보존회를 중심으로 전승 지속
택견	지도자 교육 진행 충주시립택견단
아리랑	아리랑보존회를 중심으로 전승보존을 위한 다양한 활동 운영
김장문화	광주김치타운 프로그램 내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제공

▌일반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표 4-14> 국내 인류무형문화유산 일반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관련 정부지원

구분	내용
판소리	국립국악원 내 교육프로그램 운영 – 푸르미르 짧은 배움과정/푸르미르 긴 배움과정 – 가족국악강좌/외국인국악강좌/장애청소년국악강좌 – e국악아카데미 국립국악원 내 체험프로그램 운영 – 유아국악체험/청소년국악체험/외국인국악체험/장애청소년가족국악체험 전주소리문화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박동진판소리전수관 무료강습 운영 – 국립무형유산원, 충청남도, 공주시 후원
남사당놀이	남사당놀이보존회 매년 여름 일반인 대상 무료강습 진행 안성맞춤랜드 남사당공연장는 대상에 따른 맞춤체험프로그램 제공 – 외국인체험교실, 뱅뱅돌이버나놀이, 덩덕궁이악기체험, 공연보고 체험하기 등
택견	시민택견무료교실 – 충주시민 및 관내 거주인을 대상으로 비교적 쉬운 기술 및 동작 교육 – 관람객을 위해 수련 모습 공개 택견 힐링캠프 방문객프로그램
아리랑	정선아리랑학교 운영 – 산골마을 아리랑학교(어린이)/정선아리랑학교(일반인)/중고생아리랑교육/대학생아리랑교육/외국인을 위한 아리랑 교육/정선 학생들을 위한 향토문화 프로그램
김장문화	광주김치타운 및 다수 김장 관련 축제에서 김장 체험 운영
농악	고창농악보존회 – 일반전수: 쇠, 장구, 북, 소고반 4개반 개설 – 단기전수: 일반인 대상으로 3박4일 또는 4박5일 진행 – 심화전수: 여름기간에 개최되는 악기별 심화 학습 – 보름굿전수 – 기획전수 평택농악보존회 – 동하계 전수프로그램 – 일반강습: 기초반, 중급반, 판굿반, 어린이풍물아카데미 – 청소년 전통문화예술교육사업(전승지정학교, 농악교실): 평택시 초중고등학교 대상

▌전승 시스템 및 정책 개발

<표 4-15> 국내 인류무형문화유산 전승 시스템 및 정책 개발 관련 정부지원

구분	내용
남사당놀이	남사당놀이보존회는 매년 전수자·이수자 선발
아리랑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전수교육 지원
농악	평택농악보존회 – 후계양성전문예능교육(청소년예술단): 평택시 중고등학생 대상 – 지역전통예술교육사업: 지역농악단체 대상 필봉농악전수자심화교육 – 필봉농악 전수자, 이수자 대상

1.2.3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전승 프로그램 지속화

<표 4-16> 국내 인류무형문화유산 전승 프로그램 지속화 관련 정부지원

구분	내용
판소리	(사)한국판소리보존회 판소리경연대회 개최 전주소리문화관 소리꿈나무 학당 운영 – 오디션을 통해 뛰어난 실력을 갖춘 어린 국악인 선발
남사당놀이	남사당놀이보존회를 중심으로 전승 지속
택견	예능보유자공개발표
아리랑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운영
농악	학점운영제 운영(필봉농악전수관) – 필봉문화촌: 국내 최초 무형문화유산 학점인정제 교육훈련기관으로 인정 – 무형문화유산 표준교육과정 내 전문실습과정 개설하여 운영 –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이상자를 대상 타지역 출장 강습(고창농악보존회) – 고창을 찾기 힘든 외부 단체나 모임 대상 – 2,3일에서 1주일

▌축제 및 행사

<표 4-17> 국내 인류무형문화유산 축제 및 행사 관련 정부지원

구분	내용
판소리	(사)한국판소리보존회 공연 진행 – 판소리유파대제전 – 관극시증정 및 공연 – 창우회 등 전주세계소리축제 – 판소리를 중심으로 세계 다양한 음악 소개하는 월드뮤직 축제 박동진판소리전수관 추모음악회/명창·명고대회 진행

구분	내용
남사당놀이	안성남사당 바우덕이축제 안성맞춤랜드 내 상설공연 진행
택견	충주세계무술축제 세계택견대회 – 충주시 택견전수관 주최 – 해외 16개국 및 국내 500여명 참가 송암배 전국택견한마당 – (사)한국택견협회 소속 전수관 및 대학생, 충주관내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진행
아리랑	서울아리랑페스티벌 – 서울특별시와 (사)서울아리랑페스티벌조직위원회가 공동주최 – 2012년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작된 국내 최초 민간재원 중심의 문화예술 공공축제 밀양아리랑대축제, 아리랑대축제, 정선아리랑제
김장문화	매해 여러 지역에서 김장 관련 축제 진행 –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 양평김장축제, 빛깔찬 영양김장축제, 사랑의김장축제 등
농악	보존회별 상설공연 및 기획공연 진행 고창농악보존회 – 고창굿한마당, 고창농악 '문화재발표회', 고창농악경연대회, 고창농악 '사랑의날', 고창농악 '정월대보름굿' 평택농악보존회 – 대한민국농악축제(보존회 또는 지자체가 돌아가며 주최) – 농악마을 상설공연 –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문화소외지역 – 파일난장굿 남원농악보존회 – 필봉마을굿축제/필봉정월대보름축제 등 마을 행사 내 참여 전국농악대축제

1.2.4 홍보 사업 개발

▌온-오프라인 홍보 시스템 마련

<표 4-18> 국내 인류무형문화유산 온-오프라인 홍보 시스템 마련 관련 정부지원

구분	내용
판소리	국립국악원 교육프로그램 중 e-국악아카데미 운영하여 프로그램 중 판소리 소통공간 마련
택견	택견 앱 및 택견게임 출시(비영리법인 세계택견본부)
농악	임실군 필봉굿마을(상필마을)에 이미지벽 설치 – 호남 좌도농악을 대표하는 필봉농악 우수성 홍보 – 풍물문화기반조성사업의 일환 – 2m*22m 병풍모양의 40개 이미지판에 농악 역사 및 계보 소개

▌체험 및 향유 확대 기회 마련

<표 4-19> 국내 인류무형문화유산 체험 및 향유 확대 기회 관련 정부지원

구분	내용
판소리	국립국악원 교육프로그램 중 교원연수: 전국 유·초·중등교원을 대상으로 국악교육에 필요한 체계적인 연수프로그램 제공하여 교원들의 국악교육 능력 배양 및 학교 현장에서의 국악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악직무 연수 사업
남사당놀이	안성맞춤랜드 내 남사당공연장은 매주 주말마다 공연 진행
택견	택견 힐링캠프 방문객프로그램
아리랑	정선아리랑 해외홍보 – 외국인을 위한 아리랑 공연 및 강연 – Arirang Camp – 외국인 수학여행단 유치 – 외국 문화단체와의 교류
김장문화	뮤지엄김치간 – 김치와 김장문화 체험 가능
농악	고창농악보존회 – 일반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전수반 운영 – 고깔제작체험, 잡색놀이 체험, 동호바다 현장체험, 문화재 선생님들과 함께 옛날이야기 듣기, 시청각교육 및 이론강의 등 다양한 체험여행 진행 – 마을 내 숙박체험 가능 필봉농악전수관 : 문화바우처 사업운영(보건복지부) – 임실지역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만 8~12세) 대상 – 클래식(국악악기 및 이론), 정서프로그램(음악치료 및 미술치료), 부가서비스(상상음악회 및 연주회 관람) 2015년 국립무형유산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DAY' – 무형유산 전승기반 강화와 지역 전수교육관 활성화를 위한 전통 무형문화재 체험교육의 장 – 임실필봉농악 전수교육관–필봉가락과 난타 선정하여 참여

▌미디어 홍보 확대

<표 4-20> 국내 인류무형문화유산 미디어 홍보 확대 관련 정부지원

구분	내용
판소리	2011년 전주국악방송 개국
김장문화	뮤지엄김치간 – 디지털콘텐츠박물관으로 수준 높은 김치 영상과 디지털 기술을 통해 김장문화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제공

▌아마추어 및 동호회 확보 및 관리

<표 4-21> 국내 인류무형문화유산 아마추어 및 동호회 확보 및 관리 관련 정부지원

구분	내용
농악	방학/휴가기간 각 농악보존회에서 동호회를 대상으로 전수교육 진행

1.2.5 네트워크 구성 및 국제교류

▌유사 종목 국제 네트워크 사업 마련

<표 4-22> 국내 인류무형문화유산 유사 종목 국제 네트워크 사업 관련 정부지원

구분	내용
판소리	전주세계소리축제
남사당놀이	안성남사당바우덕이축제 중 상설행사로 세계민속공연 및 월드퍼레이드를 진행하여 해외 각국의 다양한 민속문화 향유 기회 제공
아리랑	2015년 4월 14일 아리랑남북교류협의회 창립 – 아리랑, 서정민요(한국)와 아리랑 민요(북한)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각각 등재돼 있는 아리랑의 남북공동등재와 아리랑을 통한 통일 공공외교 목적
김장문화	전주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 매년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진행한 점 높이 평가되어 선정됨

▌국제 교류 및 행사 지원

<표 4-23> 국내 인류무형문화유산 국제 교류 및 행사 지원 관련 정부지원

구분	내용
판소리	2013년 처용문화제 개막식 공연 '판소리, 플라멩코를 만나다' – 정가악회와 스페인 뮤지션이 2년 간 국제교류를 하며 공동제작 이자람 판소리 해외공연 호평
남사당놀이	2012년 CIOFF 안성세계민속축전
택견	문화동반자사업 참자가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택견 무술과 문화 전파 – 유네스코 공식협력기구 세계무술연맹이 수행 –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 2013년 몰도바, 2014년 우즈베키스탄, 2016년 미얀마 등 진행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 해외동포 아리랑 교류사업 : 중국, 러시아, 일본, 미주 지역에 대한 해외동포 아리랑 연구 조사를 진행해오며 특히 1991년부터 중국 조선족 문화예술계와 교류하며 조사한 결과물인 아리랑시선 제3권 발행 – 2016년 역점사업으로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스탄 등지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의 아리랑에 대한 학술조사 실시
김장문화	외국인 대상 김장체험 지원
농악	2014년 김천개령초등학교-일본오사카시 백두학원 건국학교 상호문화교류행사 – 농악을 주제로 상호문화교류행사 진행 2015년 팽성·국제교류센터 한미어린이써머스쿨 중 농악체험 프로그램 진행

▌국제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 개최

<표 4-24> 국내 인류무형문화유산 국제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 개최 관련 정부지원

구분	내용
택견	세계무술국제학술대회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 2016년 5월 중국 조선족 예술가, 연구자들과 아리랑을 한민족 공동체 상징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토론회 개최 예정
김장문화	2013 유네스코 무형유산 NGO 국제심포지엄: 김치와 김장문화 개최 – 주제: 김치와 김장문화, 주최: 한국문화재재단(구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농악	한중일 무형유산 국제심포지엄: 농악의 보전과 문화적 의미 – 한국문화재재단 2014년 10월 16일 개최 – 농악과 유사한 해외무형유산 보전사례를 통해 농악의 보호와 전승방안 모색: 중국, 일본, 케냐의 무형유산 전문가 참여

▌유네스코 연계 지속적인 사업 개발 및 참여 지원

<표 4-25> 국내 인류무형문화유산 유네스코 연계 지속적인 사업 개발 및 참여 지원

구분	내용
택견	1998년부터 충주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충주세계무술축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가 공식 후원하는 세계인의 무술축제임
김장문화	풀무원의 김치박물관인 '뮤지엄김치간'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간 업무 협약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헌정방': 대형 디스플레이 형태로 김치, 김장문화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세계 발효음식 등 식문화에 대한 내용 전시

1.2.6 기타

▌기타 지원

<표 4-26> 국내 인류무형문화유산 기타 지원 관련 정부지원

구분	내용
남사당놀이	① 상품개발 및 관광연계 – 안성맞춤랜드 내 남사당공연장 이외에 천문과학관, 공예문화센터, 사계절썰매장, 오토캠핑장 등을 운영하여 남사당공연장에 대한 대중들의 접근 기회 증대시킴
택견	① 기술 (디지털, 온라인 등) 지원 – 택견 앱 및 택견게임 출시(비영리법인 세계택견본부) ② 생품개발 및 관광연계 – 택견 앱 및 택견게임 출시(비영리법인 세계택견본부) ③ 추가 지원 – 지정 협회 이외 다양한 비영리법인 및 기관의 활동으로 중복 행사 및 전수관 운영의 혼선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구분	내용
아리랑	① 상품개발 및 관광연계 – 아라리인형의 집 운영 – 강원도 정선의 나전분교에 소재한 단체로 지역문화활동, 다양한 인형극 관련 워크숍, 정선아리랑을 소재로 한 인형극 등 여러 활동해옴 – 인형극 체험학습, 인형극 워크숍, 인형극제 개최 – 2004년에 확장하여 인형극박물관이라는 명칭으로 전시관 개관
김장문화	① 상품개발 및 관광연계 – 광주김치타운 내 소재한 ㈜광주김치 감칠배기 (실패) – (사)광주김치협회가 설립한 법인 – 광주김치축제 명품김치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김치 명인들이 모여 만든 법인 – 원·부재료를 100% 국산만 사용하고 가공양념도 광주, 전라도에서 나는 재료만 사용 – 연구 실적이 산업화로 연계되지 못하며 독자적인 사업체로 홀로서는데 실패 (참고 :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57228)
농악	① 상품개발 및 관광연계 – 평창 둔전평농악 – 올림픽 문화관광상품으로 개발 예정 – 총사업비 3억 9천만원(국비 3억1천만원, 군비 8천만원 등)

1.3 문화재청의 문화유산 관련 국제 지원 사업

▌개요

• 세계문화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 등 문화유산을 지원하는 문화재청의 사례를 통해 제주해녀문화의 활성화 및 세계화를 도모하고자 다른 국가의 유사 종목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국제적 활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

▌문화재청의 문화유산 관련 국제사업

<표 4-27> 문화재청의 문화유산 관련 국제사업

기반 인프라	
DB 구축 및 기록	무형문화유산의 가시성 및 인식을 제고하고자 관련 출판물 발간 및 디지털 콘텐츠 사업 지원
연구 사업 확대 및 지속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현황 파악 및 보호 제도 구축을 위한 학술대회, 전문가 세미나 등 개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관련 NGO의 효율적인 역할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해당 무형문화유산의 자생적인 보존 및 전승 방안 마련 기회 제공
관련 제도 마련 및 개선 (법규, 조례 등)	무형문화유산보호 국가목록작성 및 등재, 무형문화유산 영상기록 및 자료 복원을 포함한 아카이브 구축, 지적재산권 보호 사업, 인간문화재 정책 보급 등 협력국 무형문화유산 관련 보호제도 구축 지원
인적자원 관리	
전승 자문인력 양성	담당 관리자 및 전문가 초청연수

전승 시스템 및 정책 개발	문화유산 등재 및 관리 시스템을 일괄 지원하여 협력국의 문화재 보호 자생력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문화재 보호 기반 형성에 기여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전승 프로그램 지속화	관련 기자재 지원, 현지상황에 따른 기술교육, 홍보관 및 사무소 건립과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 관리 역량 강화
네트워크 구성 및 국제교류	
유사 종목 국제 네트워크 사업 마련	공동체 및 단체, 국제·지역 전문가, 아시아권 유네스코지역사무소 등과 네트워크 및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보다 용이한 문화보존 및 전승에 기여 – 아시아태평양 소지역 협력회의 개최 –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무형문화유산 관련 공동체 및 NGO 간 협력 관계 강화를 통해 효율적인 보존, 전승 활동 시행

1.4 지방자치단체 종합 지원 사업 사례

▌전라북도의 문화유산 관련 지원 사업[27)]

- 앞에서는 각 분야별로 인류무형유산 지원 사례를 정리하였으나 본 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접근을 살펴보고자 함
- 사례로 전라북도는 기존 등재된 5개 세계유산을 활용한 보존, 전승과 연계된 관광활성화를 준비하고 있으며 동시에 2022년까지 5개 유산을 추가등재하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추진대상으로는 한국의 서원(정읍 무성서원), 서남해안 갯벌(고창갯벌), 남원·장수 가야고분군, 김제 벽골제, 동학기록유산 등임
- 정책사업의 경우 정비, 체험시설, 기록화 및 전승학교 운영, 관광지 조성, 연구 및 MOU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유산팀' 신설을 통한 시스템 마련도 병행하고 있음

27) 세계유산, 토탈관광 접목 관광객 유치 쌍끌이, 장병문, 전라일보(2016.09.20.일자 16쪽),

△ 전북도는 현재 5개를 보유 전북이 세계유산의 보고(寶庫)임을 입증하고 있다. 전북도는 등재된 세계유산 보존 뿐 아니라 활용 활성화에도 나서고 있다. 전북도가 세계유산 추가 등재와 함께 토탈관광에 접목하는 쌍끌이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세계유산 추가 등재를 위해 각종 학술대회와 이코모스 자문계약 등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유산 활용은 예산을 적절히 투입해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 5개 세계유산 토탈관광 뼈대

전북도는 등재된 5개 세계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해 민선 6기 핵심인 토탈관광에 접목하고 있다. 전북도는 '고창 고인돌'에 4억5000만원을 투입해 고인돌 유적정비와 안전시설을 설치했고, 홍보를 위해 홍보책자 3000부(중국어 1000, 영어 2000)제작한데 이어 한국은행에서 고인돌 기념주화도 발행했다.'판소리'는 2013년부터 남원광한루원에서 매주 1회 상설공연을 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명창 안숙선(국가 무형문화재 23호)전수관을 착공해 2018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매사냥'은 계승 보전을 위해 2억5000만원을 추경에 확보 매사냥 체험·홍보관을 2017년 초에 준공할 계획이며, 매사냥 체험·홍보관이 조성되면 전북지역의 관광 상품화에도 한 몫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악'도 2015년도에 3억5000만원을 투입 시군 농악기록화사업에 이어 올해는 2억1000만원을 투입 7개 시군에 농악 전승학교(7개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세계유산팀 신설 추진 체제 정비

전라북도는 세계유산 등재 및 등재유산 보존·활용의 중요성과 업무량 증가, 세계유산에 대해 전국적인 지자체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올 하반기 조직개편시 '세계유산팀 신설'을 추진 중이다. 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세계유산 등재는 그 기준이 특정기간이나 문화지역 내에서 건축, 기술, 기념비적 예술, 도시계획과 경관디자인에서 인류가치의 중요한 교류의 증거"라면서 "등재된 세계유산은 관광콘텐츠 개발 제공 등으로 관광객을 유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추가등재를 착실히 준비하여 전라북도 유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사업예산

<표 4-28> 전라북도 세계유산 예산

대상	세부사업	예산	비고
고창 고인돌	유적정비 및 안전시설 설치 홍보책자 3,000부(중국어 1,000부, 영어 2,000부) 제작 고인돌 기념주화 제작	4.5억원	
매사냥	체험·홍보관 준공	2.5억원	
농악	농악기록화 사업	3.5억원	
	농악 전승학교(7개교) 운영	2.1억원	
익산백제역사유적지구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	230억원	2017년부터 추진
김제 벽골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 용역비	1.4억원	

2. 국외 사례

2.1 해외 문화유산 관련 정책

2.1.1 해외 문화유산 정책 방향

▌기후변화 및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문화유산 대책 강화

- 세계적인 기후 변화에 따라 세계 유네스코 지정 문화·자연유산이 훼손되고 있으며, 도시화로 인한 각종 개발사업과 인간의 부주의 등 문화유산의 보존 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어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을 보호해야한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
-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올라간 유산 중 파괴 위험에 처한 문화·자연유산은 현재 30점에 달하며, 독일의 드레스덴 엘버계곡은 엘버강의 다리 건설로 인하여 2009년 세계유산 목록에서 삭제됨
- 위기에 처한 세계유산을 보존·보호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와 각종 개발 사업에 대응한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문화유산 보존의 지속가능성을 통한 도시 재생 및 지역 발전 촉진

- 문화유산의 보호는 도시재생과 지역발전에 기여한다고 보고 문화유산 보호를 개별 정책으로 수립·실행하기보다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다루고 있음
- 지역 특유의 건축 환경, 문화적 가치, 거주민들의 집단적인 기억(collective memory) 등을 담고 있는 문화유산이 새로운 도시 재생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문화유산을 보존하면서 도시를 개선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하여 최소한의 자원 활용으로 도시의 균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음

▌기존 문화유산의 개념 및 범위의 확대 적용

- 기존 문화유산의 개념이 점점 확대 되고 있고 있으며, 역사적 건축물 및 마을 등으로 한정되었던 문화유산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 전적지, 산업시설지, 교통시설 등 근대적 유산까지 포함하고 있는 추세임
-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새롭게 발굴·지정하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으며 문화유산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과 문화유산이 갖고 있는 의미를 형성시켜준 사회·문화적 맥락까지 함께 보존하려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정책적 노력도 확대되어 근대문화유산에 대하여 대대적인 철거 및 교체보다는 유지·보수를 통하여 재활용함으로써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환경보존에도 일조하고 있음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 증가

- 최근 문화유산의 보존에 대한 국민의 역할 및 자발적 참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국민의 참여는 안내 및 홍보 등에서부터 문화재정책의 전반적인 부분까지 기여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바이마르 궁전 복원과 베를린 박물관섬 복원 등에 공개토론을 개최하여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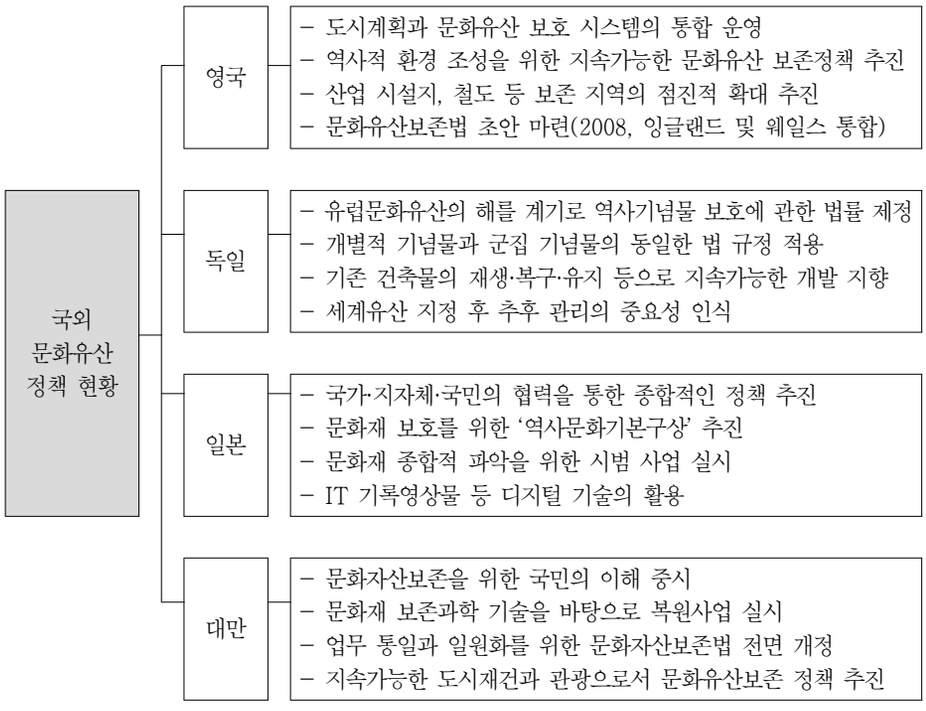
민의 의견수렴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정책전반에 국민의 역할을 마련하고 있음

- 국민들의 참여 증가를 위하여 문화유산 홍보에 힘쓰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자발적인 커뮤니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대만의 경우 '2001년 문화유산의 해', '2002년 문화환경의 해' 등을 조직하여 지속적인 문화유산 홍보에 노력하고 있음
  - 지자체 및 시민들의 협력을 통해 문화유산을 일상생활과 연결하고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음

2.1.2 해외 문화유산 정책 추진 실태

▌정책 환경

- 국외 문화유산 보유국들은 자국의 문화 및 역사적 정체성을 확보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유산자원 보존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 최근 기후변화 및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문화유산자원이 훼손되고 문화유산에 대한 향유 욕구가 증대되는 등 환경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국외 문화유산 보유국들은 환경변화에 대응·적응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보존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유산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도시재생을 도모하고 있음
- 국외 문화유산 보유국 중 법적·제도적 선진국가인 영국·독일·일본·대만 등의 정책현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그림 4-1] 국외 문화유산 정책 현황

2.2 국외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목록

▌현황

<표 4-29> 국외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목록 현황

대륙	국가명	등재연도	등재목록
아시아	일본	2008	가부키
			노가쿠(能樂) 극
			닌교 조루리 분라쿠(人形淨瑠璃文樂) 인형극
			하야치네 카구라
		2009	가가쿠
			다이니치도 부가쿠
			다이모쿠타테
			세키슈 반시(石州半紙), 시마네 현 이와미 지방의 제지술
			아이누(アイヌ)족의 전통춤
			아키우(秋保)의 다우에 오도리(田植踊)
			야마호코(山鉾), 교토 기온 마쓰리의 꽃수레 행진
			오지야 지지미(小千谷縮)와 에치고 조후(越後上布) : 일본 니가타 현 우오누마 지방의 모시 직조 기술
			오쿠노토 지방의 아에노고토(アェノコト) 의식
			차키라코
			코시키지마(甑島)의 도시돈(トシドン)
			히타치 후류모노
		2010	구미오도리(組踊), 오키나와의 전통 악극
			유키 쓰무기(結城紬), 견직물 직조 기술
		2011	미부(壬生)의 하나타우에(花田植) — 히로시마(廣島) 현 미부의 모내기 의식
			사다 신노(佐陀神能), 일본 시마네현 사다 신사의 신성한 춤
		2012	나치의 덴가쿠(那智の田樂), 나치의 불 축제에서 연행하는 종교적 공연 예술
		2013	와쇼쿠(和食), 특히 신년 축하를 위한 일본의 전통 식문화
		2014	와시, 일본의 전통 수공예 제지술
	중국	2008	구친(古琴)과 그 음악
			신장 위구르족의 무카무
			쿤취
		2009	거싸얼(格萨尔) 서사시 전통
			난인
			난징 윈진(南京云锦) 문직(紋織) 비단 직조 기술
			동주다그
			레공(熱貢) 예술
			리(黎)족의 전통 직물 기술 : 방적·날염·방직·자수
			마나스
			마주(媽祖) 신앙과 풍습
			몽골족의 가창 예술, 후미(呼麥)
			쉔지(宣紙) 전통 제지술

대륙	국가명	등재연도	등재목록
			시안 구유에
			용선(龍船) 축제
			유에주
			중국 전통 목가구조(木架構造) 건축 기술
			중국 전통 목조 아치교의 설계 및 축조 기술
			중국 조선족의 농악무(農樂舞)
			중국의 도장 전각(篆刻) 공예
			중국의 목판 인쇄술
			중국의 서예
			중국의 양잠과 비단 직조 공예
			중국의 지엔지(剪紙) 공예
			창족(羌族)의 신년 축제
			티베트 가극(藏戏)
			화얼
		2010	경극
			메시레푸
			중국식 범선(帆船)의 방수 격벽 기술
			중국의 목활자(木活字) 인쇄술
			중국의 전통 의술인 침구술(鍼灸術)
		2011	중국의 그림자극 피잉시(皮影戏)의 기예
			허쩌(赫哲) 족의 이마칸 강창예술(講唱藝術))
		2012	룽취안(龙泉) 청자의 전통 소성(燒成) 기술
			차세대 푸젠 성 인형극 예능보유자의 양성 전략
		2013	중국수판셈(中国珠算), 수판을 이용한 산술 지식 및 관습
	몽골, 중국	2008	우르틴두, 전통 민요 장가
	몽골	2008	모린후르의 전통 음악
		2009	몽골 툴리, 몽골의 서사시
			비옐게, 몽골의 전통 민속춤
			추르의 전통 음악
		2010	나담, 몽골의 전통 축제
			몽골의 전통 예술 후미(전통 창법에서 유래한 예술)
		2011	림베의 민속 장가 연주 기예-순환호흡법
		2013	몽골 게르의 전통 제작법과 관련 풍습
			몽골의 서예
		2015	새끼 낙타를 위한 달래기 의식
	말레이시아	2008	막용, 말레이시아의 전통 고전극
	방글라데시	2008	방글라데시의 음유시인 '바울'의 노래
		2013	잠다니 직조 전통예술
	레바논	2014	낭송 또는 가창되는 시, 알 자잘
	베트남	2008	냐냑, 베트남의 궁정 음악
			공 문화 공간
		2009	까 쭈 가창(歌唱)
			꽌호 박닌 민요
		2010	푸동 사원과 속 사원의 종 축제

대륙	국가명	등재연도	등재목록
		2011	베트남 푸토 성의 쏘안 가창
		2012	푸토 성의 훙 왕조 숭배 의식
		2013	베트남 남부 지방의 '던 까 따이 뜨' 음악과 가창 예술
	부탄	2008	드라메체의 북 연주를 동반한 탈춤
	우즈베키스탄	2008	보이순 지역의 문화 공간
		2009	카타 아슐라
		2014	아스키야, 재치의 예술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2008	샤쉬마콤 음악
	인도	2008	람릴라, 라마야나의 전통 연극
			베다 전통
			쿠티야탐, 산스크리트어 연극
		2009	람만, 인도 가르왈 히말라야의 종교 축제 및 제례극(祭禮劇)
		2010	라자스탄 지방 칼벨리아 족의 민속 가무(歌舞)
			무디예투, 케랄라 지역의 의례극과 춤극
			차우 댄스
		2012	라다크의 독송(讀誦) 의식 : 인도의 히말라야 산맥을 경유하는 라다크 지역, 잠무와 카슈미르의 신성한 불경(佛經) 독송
		2013	산키르타나, 마니푸르의 의식용 가무(歌舞) 및 북 연주
	인도네시아	2008	인도네시아 크리스 공예 기술
			화양 인형극
		2009	인도네시아 바틱
			인도네시아 페칼롱간의 바틱 박물관과 공동 수행하는 초·중·고등학교, 직업학교, 기술전문학교 학생들에 대한 바틱 무형문화유산 교육 및 훈련
		2010	인도네시아 앙클룽
		2011	사만 춤
		2012	노켄, 파푸아 인들이 매듭짓거나 직조한 다기능 수공예 가방
		2015	세 가지 장르의 발리 전통춤
	북한	2014	조선민요 '아리랑'
		2015	김치 담그기 전통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2015	즉흥의 예술, 아이티시/아이티스
	캄보디아	2008	스벡 톰, 크메르 그림자극
			캄보디아 왕실 춤극
	키르기스스탄	2008	아킨스의 예술, 키르기스의 서사시 음송 시인
		2012	키르기스인의 전통 펠트 카펫 알라키이즈와 쉬르닥
		2013	키르기스인의 3부작 서사시, 마나스·세메테이·세이테크
	투르크메니스탄	2015	괴로글리 서사시 예술
	필리핀	2008	라나오 호수 인근에 살고 있는 마라나오 족의 서사시 다랑겐
			이푸가오 족의 후드후드 노래
유럽	그리스	2015	티노스 섬의 대리석 공예
	라트비아	2009	수이티 문화 공간(작은 가톨릭 공동체 내 다양한 행사)
	러시아	2008	세메이스키 문화 공간과 구전 문화

대륙	국가명	등재연도	등재목록
			올론호, 야쿠트 민족의 영웅 서사시
	루마니아	2008	컬루슈 의식 무용
		2009	도이너(서정적이면서도 엄숙한 즉흥적으로 불리우는 민요)
		2012	호레주의 도예 기술
		2013	남성들의 콜린다트 모임, 크리스마스 풍습
		2015	루마니아의 '청년의 춤'
	룩셈부르크	2010	에히터나흐의 호핑 댄스 행렬
	리투아니아	2008	십자가 공예와 그 상징성
		2010	수타르티네, 리투아니아의 다성부 노래
	마케도니아	2013	슈티프의 성(聖) 40인 순교자 축일
		2015	돌니 폴로크의 남성이중창, 글라소에치코
	벨기에	2008	벨기에 및 프랑스 축제 퍼레이드에 쓰이는 거인상(巨人像) - 거인과 용
			뱅슈 카니발 [Carnival of Binche]
		2010	알스트 카니발
			크라켈링언과 토네켄스브란트, 헤라르츠베르헌에서 개최되는 겨울의 끝을 축하하는 빵과 불의 축제
			하우텀 야르마르크트, 신트 리번스 하우텀의 연례 겨울 가축 시장
		2011	'놀이다양성' 진흥 프로그램: 플랑드르 지역의 전통 놀이 보호
			뢰번의 동갑내기 모임 풍습
		2012	브뤼허의 '성혈(聖血)의 행렬'
			앙트르 상브르 에 뫼즈의 행진
		2013	오스트되인케르케의 승마(乘馬) 새우잡이
		2014	카리용 문화 보호 : 보전, 전승, 교류 및 인식제고
	안도라, 스페인, 프랑스	2015	피레네 산맥의 하지 불 축제
	알바니아	2008	알바니아의 민속 아이소 폴리포니
	벨라루스	2009	콜랴드니예 차리(크리스마스 차르) 의례
	프랑스	2009	르 칸투 인 파지엘라, 코르시카의 세속 및 종교적 구송 전통
			말로야
			프랑스 목가구조(木架構造)의 스크라이빙 전통
			오뷔송 태피스트리
		2010	알랑송의 자수 레이스 공예술
			콩파뇨나주 : 지식과 정체성을 작업장에서 전수하는 장인 직업 훈련 네트워크
			프랑스의 미식(美食) 문화
		2011	프랑스 전통 승마술
		2012	페스트 노즈, 브르타뉴의 전통춤 집단 연행을 바탕으로 한 축제모임
		2013	7년마다 열리는 리무쟁의 성유물 전시 축제
	불가리아	2008	비스트리차 바비 - 쇼플루카 지방의 고대 폴리포니, 춤, 의식
		2009	네스티나르스트보, 과거에서 온 메시지 : 불가리 마을의 성 콘스탄틴과 헬레나 축일을 기념하는 파나기르 의식
		2015	페르니크 지방의 수로바 민속 축제
	슬로바키아	2008	푸자라와 그 음악

대륙	국가명	등재연도	등재목록
		2013	테르초바의 전통 음악
		2015	백파이프 문화
	아제르바이잔	2008	무감, 아제르바이잔의 민속 음악
		2009	아제르바이잔의 아시으크 예술
		2010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전통적인 아제르바이잔 카펫 직조 기술
		2012	아제르바이잔의 목이 긴 전통 현악기 '타르'의 공예술 및 공연 예술
		2013	초브칸, 가라바흐 지방의 전통 승마 경기
		2015	라흐치의 구리 공예
	아제르바이잔, 인도, 이란,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터키, 우즈베키스탄	2009	노브루즈, 노우루즈, 누루즈, 나브루즈, 나우로즈, 네브루즈
	에스토니아	2008	키누 문화 공간
		200	세토 렐로, 세토 민족의 폴리포니 가창(歌唱) 전통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2008	발트 지역 국가들의 '노래와 춤의 축전(祝典)'
	스페인	2008	엘체의 신비극(神秘劇)
		2008	파툼 데 베르가, 베르가의 성체축일 축제
		2009	전통 문화 센터 - 푸솔 학교 박물관의 교육 프로젝트
		2009	카나리아제도 라고메라 섬의 휘파람 언어, 실보 고메로
		2009	에스파냐 지중해 연안의 관개 수로 법정 : 무르시아 평야의 장로 평의회 및 발렌시아 평야의 수자원 재판소
		2010	인간 탑 쌓기
		2010	마요르카의 시빌 성가
		2010	플라멩코
		2011	안달루시아 세비야 주 모론 데 라 프론테라의 전통적 석회 제조 기술의 재활성화
		2011	알헤메시의 '마레 데 데우 데 라 살루트(건강의 성모 마리아)' 축제
		2012	코르도바의 파티오 축제
		2013	생물권 보전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목록 작성 방법 : 몬트세니의 경험
	오스트리아	2012	셰멘을라우펜, 오스트리아 임슈트의 카니발
		2015	빈 슈파니셰 호프라이출레의 고전 승마술과 고등 마술
	우크라이나	2013	우크라이나의 장식 민속 예술, 페트리키우스키 로즈피스
	이탈리아	2008	오페라 데이 푸피, 시칠리아의 인형극
			칸투 아 테노레, 사르디니아의 목가(牧歌)
		2012	크레모나의 전통 바이올린 공예
		2013	거대한 구조물을 어깨에 메고 행진하는 가톨릭 기념 축제
	조지아	2008	조지아인의 폴리포니 가창(歌唱)
		2013	고대 조지아의 전통 크베브리 와인 양조법
	체코	2008	슬로바츠키 베르분크, 모병(募兵) 댄스
		2010	홀리네츠쿠 지역 마을의 슈로브타이드 집집마다 방문하는 행렬과 가면들

대륙	국가명	등재연도	등재목록
		2011	체코 공화국 남동부 지방의 '왕들의 기마행렬'
	크로아티아	2009	고랴니 지방 렐레(크랄리체, 여왕)의 봄 행렬
			두브로브니크의 수호성인 성 블라이세 축제
			이스트라 음계를 이용한 이중창 및 이중주
			카스타브 지방 종지기들의 연례 카니발 가장 행렬
			크로아티아의 레이스 공예
			흐르바츠코 자고레 지방의 아동용 목재 장난감 제작 기술 전통
			흐바르 섬의 자 크리젠('십자가를 따라서') 행렬
		2010	오이칸예 가창(歌唱)
			북부 크로아티아의 생강 쿠키 제빵 기술
			신스카 알카, 신 지역 기사들의 마상(馬上) 시합
		2011	크로아티아 동부의 베차라츠 가창(歌唱)과 연주
			니예모 콜로, 달마티아 내륙지역 무반주 원무(圓舞)
		2012	크로아티아 남부 달마티아의 클라파 다성부 가창(多聲部 歌唱)
	키프로스	2009	레프카리티카, 레프카라의 레이스 공예
		2011	치아티스타 시 음송 대결
		2013	지중해식 식문화
	터키	2008	대중 이야기꾼 메다흐의 기예(技藝)
		2008	메블레빌리크 셰마(Mevlevilik şema) 의식
		2009	아시으클르크, 터키 음유시인의 예술 전통
		2009	카라괴즈
		2010	세마흐, 알레비-벡타시 의례
		2010	크르크프나르 오일 레슬링 축제
		2010	전통적인 소흐베트 모임
		2011	케슈케크, 터키의 전통 의식 요리
		2012	메시르 마주누 축제
		2013	터키식 커피 문화와 전통
	팔레스타인	2008	팔레스타인의 히카예
	포루투갈	2011	파두, 포르투갈의 도시 대중가요
		2015	카우벨 제작 기술
	헝가리	2009	모하치의 부쇼 축제 : 봄맞이 가면 카니발 풍습
		2011	탄차즈(Táncház) 방식 : 무형문화유산을 전승하는 헝가리식 모델
		2012	머초 민속예술, 전통마을의 자수(刺繡)
아프리카	세네갈	2013	주이, 세네갈 세레르 족의 예언 의식
	감비아· 세네갈	2008	칸쿠랑, 만딩 지방의 입문 의식
	기니	2008	소쏘발라 문화 공간(소쏘발라는 서아프리카의 대형 실로폰으로 만딩궤 공동체의 자유와 화합의 표상으로 여겨짐)
	나이지리아	2008	이파 점술
		2009	이젤레 가면극
	나미비아	2015	마룰라 과일 축제, 오시투티 쇼마공고
	마다가스카르	2008	자피마니리족의 목공예 지식
	말라위	2008	빔부자 치유 의식 춤

대륙	국가명	등재연도	등재목록
	말라위·모잠비크·잠비아	2008	구레 왐쿠루(의식 춤으로 이루어지는 비밀 종교 의식)
	말리	2008	야루알과 데갈의 문화 공간(대규모 목가적 축제)
		2009	7년마다 거행하는 캉가바 성소 '카마 블론'의 지붕 개수(改修) 의식
			상케 몽, 상케 호에서 연행되는 집단어로 의례
			쿠루칸 푸가에서 선언된 만덴 헌장
		2011	비밀 결사 코레뒤가우, 말리에서 연행되는 지혜의 의례
	말리,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2012	말리와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의 세누포 공동체의 밸러폰 연주와 관련된 문화적 연행과 표현
	모로코	2008	제마 엘프나 광장 문화 공간
			탄탄의 무셈(사하라 사막 유목민들의 연례행사)
		2012	세프루의 체리 축제
		2014	아르간, 아르간 나무와 관련된 풍습 및 기술
	모리타니	2011	무어인의 서사시 테이딘
	모잠비크	2008	초피 팀빌라(합주 음악)
	알제리	2008	고우라라의 아헬릴
		2012	틀렘센의 결혼 예복 전통과 관련된 의례와 공예 기술
		2013	시디 압델 카데르 벤 모하메드(시디 셰이크)의 영묘로 향하는 연례 순례
			투아레그 족의 임자드에 관한 관습 및 지식-알제리, 말리, 니제르
		2014	알제리의 자네트 오아시스에서 연행되는 스베이바 의례와 의식
		2015	Sbuâ, annual pilgrimage to the zawiya of Sidi El Hadj Belkacem in Gourara
	베냉, 토고 나이지리아,	2008	겔레데 의식의 구전 유산
	보츠와나	2012	보츠와나 크가틀렝 구의 토기 제작 기술
	에디오피아	2013	그리스도의 참 십자가 발견 기념 축제
		2015	시다마 부족의 새해 축제, 피체-참바랄라
	우간다	2008	우간다의 수피(樹皮) 옷감 만들기
		2012	비괄라, 우간다 부소가 왕국의 박나팔 음악과 춤
		2013	우간다 서부 바토로·바뇨로·바투쿠·바타퀜다·바냐빈디 부족의 엠파코 전통
		2014	우간다 중북부 랑고의 남자아이 씻김 의식
		2015	바송고라, 반야빈디, 바투로 부족의 '쿠게레' 구전 전통
	이집트	2008	베두인족의 서사시 '알 시랏 알 힐랄리야흐'
	자메이카	2008	무어타운의 마룬 유산
	잠비아	2008	마키시 가면 무도회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2008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아카 피그미족의 폴리포니 가창(歌唱)
	잠바브웨	2008	음벤데 제루살레마 춤
	케냐	2009	미지켄다족의 신성한 숲 카야와 관련된 전통 및 풍습
		2014	서부 케냐 이수하 및 이다호 공동체의 이수쿠티 춤

대륙	국가명	등재연도	등재목록
	코트디부아르	2008	아푼카하의 그보페, 타그바나 족의 횡취(橫吹) 음악
남아메리카	과테말라	2008	라비날 아치 춤극 전통
		2013	팍 의식(풍성한 옥수수 수확에 대해 자연에 감사를 표하는 의식)
	니카라과	2008	엘 궤궨세(식민 통치에 대한 강한 저항을 표현한 풍자극)
	도미니카공화국	2008	비야 메야 지역의 '성령형제단의 콩고스' 문화 공간(춤 및 민속 의식음악 분야 모임)
			코코로 춤극 전통(19세기 설탕농장에 동원되어 이주한 영국 카리브해 식민 노예 후손들이 발전시킨 민속 전통)
	멕시코	2008	원주민 축제, 망자(亡者)의 날
		2009	볼라도레 제례의식
			톨리만에 사는 오토미-치치메카족의 기념장소 및 살아있는 전통: 신성한 땅의 파수꾼 '페냐 데 베르날'
		2010	멕시코 전통 요리-조상 전래의 지속적 공동체 문화, 미초아칸 패러다임
			파라치코스, 치아파 데 코르소의 전통 1월 대축제
			피레쿠아, 푸레페차족의 전통 노래
		2011	마리아치, 현악과 노래 그리고 트럼펫 연주
		2012	크탁스크가크겟 막그칵스틀라와나: 멕시코 베라크루스 주 토토나카족의 원주민예술센터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2009	탱고
	아르헨티나	2015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전통적 회화 기법, 필레테 포르테뇨
	베네수엘라	2012	베네수엘라 성체축일의 춤추는 악마들
		2013	과레나스와 과티레의 라 파란다 데 산 페드로(산 페드로 대축일 축제)
		2014	마포요 구전전통 및 조상의 영토 내 상징적 준거
		2015	쿠라과 재배 및 가공에 관한 전통 지식 및 기술쿠라과 재배 및 가공에 관한 전통 지식 및 기술
	벨리즈, 온두라스, 니카라과, 과테말라	2008	가리푸나의 언어·음악·춤
	볼리비아	2008	오루로 카니발
			칼라와야족의 안데스 세계관
		2012	이차페케네 피에스타, 산 이그나시오 데 목소스에서 열리는 가장 큰 축제
	볼리비아, 칠레, 페루	2009	볼리비아·칠레·페루의 아이마라족 사회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브라질	2008	바이아 로콘카보의 '삼바 데 로다'
			와장피(Wajãpi)족의 구어 및 회화 표현
		2011	양콰, 사회와 우주의 질서 유지를 위한 이나웨네-나웨 족의 의식
		2011	국가 무형유산 프로그램 사업 공모
		2011	판당고의 살아 있는 박물관
		2012	프레부, 헤시피 카니발의 공연 예술
		2013	파라 주 벨렝 시의 '시리우 지 나자레' 축제(나자레 성모의 횃불 축제)

대륙	국가명	등재연도	등재목록
	에콰도르	2012	에콰도르 토키야 밀짚모자의 전통 공예
	에콰도르, 페루	2008	사파라족의 구전 유산과 문화적 표현물
	우루과이	2009	칸돔베와 그 사회문화적 공간 : 공동체 연행
	코스타리카	2008	코스타리카의 목동과 소달구지 전통
	콜롬비아	2008	바랑키야 카니발
			팔렝케 데 산 바실리오의 문화 공간
		2009	포파얀의 부활절 행렬
			흑과 백 카니발
		2010	푸트치푸우이(팔라브레로)에 의해 적용되는 와유족의 규범체계
			콜롬비아 남태평양 연안 지방의 마림바 음악과 전통 성가
		2011	유루파리 재규어 샤먼의 전통지식
		2012	키브도의 아시시의 산 프란시스코 축제
		2015	마그달레나 그란데 지역의 전통적인 바예나토 음악
	콜롬비아, 에콰도르	2015	콜롬비아의 남태평양 지역과 에콰도르의 에스메랄다스 주의 마림바 음악, 전통적인 찬트와 춤
	쿠바	2008	라 툼바 프란체사
	페루	2008	타킬레와 타킬레의 직물 공예
		2010	가위춤
			우아코나다, 미토 지역의 의식 춤
		2011	코이요리티의 주님 성소 순례
			에수바, 페루의 우아치파이레족이 아라큼부트어로 부르는 기도의 노래
		2013	케스와차카 다리의 연례 보수와 관련된 지식 및 기술 그리고 의식
		2015	콜카 계곡의 위티티 춤
오스트레일리아	바누아투	2008	바누아투의 모래 그림
	통가	2008	라카라카, 통가의 춤과 이야기 노래
아시아(중동)	사우디아라비아	2015	사우디아라비아의 춤·북 연주·시, 알라르다 알나즈디야
	아랍에미리트	2011	알 사두, 아랍 에미리트의 전통 직조 기술
	아랍에미리트, 오만	2012	알 타그루다, 아랍에미리트와 오만에 거주하는 베두인족의 전통 시가(詩歌) 낭송
	아랍에미리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2015	문화사회적 공간, 마즐리스
			너그러움의 상징 '아랍 커피'
	아랍에미리트, 오만	2015	전통 공연 예술, 알 라즈파
	아르메니아	2008	두둑과 그 음악
		2010	아르메니아 석비인 하치카르의 십자가석 예술, 상징, 공예 기술
		2012	아르메니아의 서사시 <사스나 트레르> 또는 <사순치 다비트>의 구송 연행
	예맨	2008	사나의 노래
	오만	2010	알바르아, 오만 도파르 계곡의 음악과 춤
		2012	알 아지 문화 - 애가(哀歌), 행진, 시
	오만, 아랍에미리트	2014	오만술탄국과 아랍에미리트연방의 전통 공연예술, 알 아이알라

대륙	국가명	등재연도	등재목록
	요르단	2008	페트라와 와디 룸의 베두족 문화 공간
	이라크	2008	이라크의 마캄
	이란	2009	이란의 음악 라디프
		2010	제례극(祭儀劇) 예술 타지예
		2010	카샨의 전통 카펫 직조 기술
		2010	파르스의 전통 카펫 직조 기술
			팔레바니와 주르카네이 의식
			호라산 지역의 바크쉬 음악
		2011	나칼리, 이란의 구연(口演) 극예술
			페르시아만 지역 이란 렌즈 선박의 전통적 건조 및 항해 기술
		2012	카산에서 연행되는 마샤데 아르데할의 칼리수얀 의식

출처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와 유산', http://heritage.unesco.or.kr/ich/ich_reg/

2.3 유형별 국외 인류무형문화유산 관련 정부 지원

▌인류무형문화유산 주요 현황

<표 4-30>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주요 현황

구분	국가	목 록
대표목록	볼리비아·칠레·페루	아이마라족 사회의 무형문화유산보호[28]
	인도네시아	바틱문화[29]
	에스파냐	전통 석회 제조 기술[30]
	브라질	판당고 살아있는 박물관[31]
	중국	차세대 푸젠 성 인형극[32]
	멕시코	토토나카 공동체 문화[33]
	일본	노가쿠(能樂)[34]
		아이누족 전통춤[35]
		구미오도리(組踊)), 오키나와의 전통 악극[36]
	벨기에	뱅슈 카니발[37]

28) 자료: 라틴아메리카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 센터(http://www.crespial.org/)
유네스코와 유산
http://heritage.unesco.or.kr/ichs/safeguarding-intangible-cultural-heritage-of-aymara-communities-in-bolivia-chile-and-peru/)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모범사례 nomination form proposal no.00299(2009)
(http://www.unesco.org/culture/ich/en/BSP/safeguarding-intangible-cultural-heritage-of-aymara-communities-in-bolivia-chile-and-peru-00299)

29) 자료: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2015)「페칼롱간의 인도네시아 바틱 무형문화유산 교육과 훈련」
바틱박물관(http://museumbatikpekalongan.info/)
유네스코와 유산
(http://heritage.unesco.or.kr/ichs/education-and-training-in-indonesian-batik-intangible-cultural-heritage-for-elementary-junior-senior-vocational-school-and-polytechnic-students-in-collaboration-with-the-batik-museum-in-pekalongan/)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모범사례 nomination form proposal no.00318(2009)
(http://www.unesco.org/culture/ich/en/BSP/education-and-training-in-indonesian-batik-intangible-cultural-heritage-for-elementary-junior-senior-vocational-school-and-polytechnic-students-in-collaboration-with-the-batik-museum-in-pekalongan-00318)

2.3.1 기반인프라

▌시설

<표 4-31> 국외 인류무형문화유산 시설 관련 정부지원

구분	내용
바틱문화	• 2006년 바틱박물관 개관
전통 석회 제조 기술	• 살아있는 박물관 설립 – 현장에서 제조공정을 관람이 가능하게끔 조성 – 가마 복원

30) 자료: 유네스코와 유산
(http://heritage.unesco.or.kr/ichs/ieeioei-iei-i-ee-e-e-ieioeei-iiui-iisoe-ioei-eii-izioeii/)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모범사례 nomination form proposal no.00511(2011)
(http://www.unesco.org/culture/ich/en/BSP/revitalization-of-the-traditional-craftsmanship-of-lime-making-in-moron-de-la-frontera-seville-andalusia-00511)

31) 자료: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2015)「살아있는 판당고박물관」
살아있는 판당고 박물관(www.museuvivodofandango.com.br)
유네스코와 유산(http://heritage.unesco.or.kr/ichs/fandangos-living-museum/)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모범사례 nomination form proposal no.00502(2011)
(http://www.unesco.org/culture/ich/en/BSP/fandango-s-living-museum-00502)

32) 자료: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2014)「무형문화유산보호 모범사례 2012-2013」
유네스코와 유산
(http://heritage.unesco.or.kr/ichs/strategy-for-training-coming-generations-of-fujian-puppetry-practitioners/)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모범사례 nomination form proposal no.00624(2012)
(http://www.unesco.org/culture/ich/en/BSP/strategy-for-training-coming-generations-of-fujian-puppetry-practitioners-00624)

33) 자료: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2014)「무형문화유산보호 모범사례 2012-2013」
유네스코와 유산
(http://heritage.unesco.or.kr/ichs/xtaxkgakget-makgkaxtlawana-the-centre-for-indigenous-arts-and-its-contribution- to-safeguarding-the-intangible-cultural-heritage-of-the-totonac-people-of-veracruz-mexico/)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모범사례 nomination form proposal no.00666(2012)
(http://www.unesco.org/culture/ich/en/BSP/xtaxkgakget-makgkaxtlawana-the-centre-for-indigenous-arts-and-its-contribution-to-safeguarding-the-intangible-cultural-heritage-of-the-totonac-people-of-veracruz-mexico-00666)
원주민예술센터(Centro de las Artes Indigenas, CAI)
(http://cumbretajin.com/2014/blog/es/centro-de-las-artes-indigenas-ejemplo-mundial)

34) 자료: 가나자와 문화부(http://www.kanazawa-arts.or.jp/),
노가쿠학회(http://nohgakugakkai.cside.com/), 노가쿠협회(http://www.nohgaku.or.jp/),
일본국립노악당(www.ntj.jac.go.jp/nou.html), 일본문화청(http://www.bunka.go.jp/),
일본예술문화진흥회(http://www.ntj.jac.go.jp/),
더노닷컴(http://www.the-noh.com/jp/link.html)
유네스코와 유산(http://heritage.unesco.or.kr/ichs/eeeiefiyoe-e/)

35) 자료: 일본 문화청(http://www.bunka.go.jp/)
http://www.bunka.go.jp/seisaku/bunkazai/ainu/
http://www.bunka.go.jp/seisaku/bunkazai/ainu/ainu_tenjikento_iinkai.html
http://ww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kondankaito/minzoku_kyosei/
공익재단법인 아이누문화진흥·연구추진기구(아이누문화재단)
(http://www.frpac.or.jp/index.html)
아이누문화재단 결산보고서(http://www.frpac.or.jp/about/files/H26Kessansho-3.pdf)

36) 자료: 오키나와국립극장(http://www.nt-okinawa.or.jp/)
전통 구미오도리 보존회(http://kumiodori.jp/)

37) 자료: 뱅슈카니발(http://www.carnavaldebinche.be/index.html)
마스크박물관(http://www.museedumasque.be/en/index.php)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판당고 살아있는 박물관</td><td>• 2006년 판당고의 살아있는 박물관 개관
• 지역문화센터 건립
– 2005년 바라 도 리베이라의 카이사라 문화센터
– 2007년 구아라케사바 판당고관
• 판당고 및 카이사라 문화에 관한 안내소 설치
– 예능보유자들의 거주지, 클럽, 판당고 하우스, 수공예품 상점, 박물관, 문화센터 등 관광객들을 위한 방문 장소 구성</td></tr>
<tr><td>푸젠 성 인형극</td><td>• 약 20개의 성 정부 공립 인형극단 설립
• 푸젠 성 무형유산보호센터를 중심으로 진행
– 정규 교육 및 견습 제도 실시
– 인형극단 육성
– 관련 교재 편찬 및 대중 서적, 영상, 음원 자료 보급
– 보유자 재정 후원, 인증 획득 지원 제공 등 법률 및 제도적 지원
• 공연무대·양성기관·전시관 설립</td></tr>
<tr><td>토토나카 공동체 문화</td><td>• 원주민예술센터를 중심으로 시행
– 2006년 7월 센터 건립을 위한 실무회의에 (원주민 조직 대표, 전통의 수호자, 교사, 토토나카 최고평의회, 원주민 언어 연구원, 지방대중문화청, 베라크루스자치대학교, 통합가족개발시스템, 전통 및 문화 단체 등) 여러 기관 및 사회단체 참여
• 원주민예술센터 내 총 13개 전통 ‘집-학교’ 운영
– 칸티얀의 집(조부모의 집), 언어의 집(원주민 언어를 가르치고 새로 만들기도 함), 전통 도자기의 집, 면직물의 집, 회화의 집, 치유 의술의 집, 음악의 집, 전통 춤의 집(어린이 볼라도레 학교 및 기타 춤), 토토나카 요리의 집, 연극의 집, 미디어 및 방송의 집(라디오 및 원주민 비디오) 등</td></tr>
<tr><td>노카쿠</td><td>• 국립노악당 1983년 설립
• 국립노악당, 각 유파별 노악당, 각지 노악당 다목적홀 가설무대 등이 공개무대로 활용됨
• 교토노악당, 나고야노악당, 가나자와 노가쿠미술관 등 운영
– 가나자와노가쿠미술관 연간 예산(천엔) 점진적 증가
(단위 : 천엔)
<table>
<tr><th>구분</th><th>2010</th><th>2011</th><th>2012</th><th>2013</th><th>2014</th><th>2015</th></tr>
<tr><td>예산</td><td>46,361</td><td>46,456</td><td>48,185</td><td>47,313</td><td>48,208</td><td>48,390</td></tr>
</table></td></tr>
<tr><td>아이누족 전통춤</td><td>• (재)아이누민족박물관 설립 진행 중
– 2011년 6월 아이누정책추진회의가 보고한 ‘민족 공생의 상징이 되는 공간’에 기반하여, 해당 문화 시설인 박물관의 정비 및 운영에 대한 기본 구상을 검토하고자 조사검토위원회를 설치함
– 이후 조사검토위원회는 2012년 3월 29일 제1회 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총 9회의 조사검토를 실시하며, 2013년 8월 ‘박물관 기본 구상’을 수립하고 2015년 3월 ‘박물관 기본 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일본 문화청에 보고함
– 설립계획
1) 2014년 6월 아이누민족박물관 설립이 확정됨
2) 2015년~2016년 박물관·전시실 설계
3) 2017년~2019년 박물관·전시실 건설 공사
4) 2020년 개관 예정
– 설립 목적
1) 아이누의 역사, 문화, 정신세계 등에 관해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고, 이해를 촉진하는 박물관
2) 아이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차기 박물관 전문</td></tr>
</table>

구분	내용
	가를 양성하는 박물관 3) 아이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조사 및 연구를 시행하는 박물관 4) 아이누의 역사, 문화 등을 전시하는 여러 박물관의 네트워크 거점이 되는 박물관 – 기본 업무 1) 전시: 상설전시, 특별전시, 순회전시 등 2) 교육·보급: 강의, 공연, 워크숍, 학교와 파트너십 체결, 전시해설 등 3) 조사·연구: 아이누 역사 문화 기초연구, 박물관발전방안연구 4) 박물관인재육성: 박물관전문가단체 육성, 인턴십제도 도입 5) 수집·보존·관리: 실물자료, 영상음향자료, 역사문서자료, 지도 등 – 조직 및 운영 1) 아이누족이 주체적·적극적으로 참여가능한 제도 구축 2) 국가가 주체적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지방공동단체, 민간단체 등 여러 단체 등과 연계 및 협력 3) 박물관 존재, 사명, 다양한 활동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이에 대한 의견이나 반응을 검토하여, 박물관 활동이나 운영에 반영 4) 상징공간 내외 기능에 대해 일괄적인 관리 운영을 검토 – 네트워크 1) 운영 및 활동을 지지하는 기능으로서, 국내외 박물관 및 연구기관, 아이누문화 전승단체 등과 네트워크 구축 2) 박물관 활동이나 아이누 역사, 문화 등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여러 사람들의 흥미나 관심을 촉구하고 이해와 공감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활동으로서 지속적인 홍보활동 전개 • 박물관 명칭은 2016년 5월 13일에 개최된 아이누 정책 추진 회의에서 결정됨
구미오도리	• 오키나와 국립극장 설립 – 구미오도리 공연에 적합한 최적의 무대 장치 구비
뱅슈카니발	• 가면국제박물관 – 1975년 마스크를 쓰는 카니발의 특성을 반영한 마스크박물관 개관 계획 발표 – 가면국제박물관에는 다양한 소재와 여러 모양의 마스크를 소장하고 있으며, 약 10,000개의 마스크를 보존하고 있으며, 관련 의상, 포스터, 시트뮤직, 악기, 주술용품, 인형 등 관련 품목을 약 30,000종 소장하고 있음. – 가면국제박물관은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전 세계 마스크와 관련 품목을 포함하고 있음에 따라 국제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함 – 가면국제박물관은 교육활동(상설전시, 기획전시, 출판, 워크숍이나 생일파티 등), 자료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음

DB 구축 및 기록

<표 4-32> 국외 인류무형문화유산 DB 구축 및 기록 관련 정부지원

구분	내용
아이마라족	• 국가적 보고서 3편 발행 – 민족지학적 보고서, 사진 기록 매체, 시청각 자료 등 기록 검토 내용 포함 • 지역분석보고서 발간: 아이마라족 문화유산 현황 • 지역적 정보은행 설립 – 지역사회, 연구자, 정부부처, 일반인 등에게 개방된 자료실 • 전승 자문인력 양성을 위한 도구 및 책자 제작 – 지역과 국가 수준에서 제작 • 아이마라족 구술표현 및 음악전통 확인·기록·전파
바틱문화	• 바틱 교육용 책자 및 단계별 시험 마련 – 학생들의 특정한 요구와 수준에 맞게 조정 – 예) 도구 다루기, 무늬 디자인하기, 옷감 염색하고 다루기, 무형문화유산으로서 바틱 다루기 등
판당고 살아있는 박물관	• 연구가, 작가, 기능보유자들에 의해 도서 목록과 시청각 컬렉션 구축 • 지도 및 자치 단체에 관한 교재가 수록된 CD, 도서, 판당고 예능보유자의 인생 이야기, 연주 방법 등을 담은 사진과 노래책 발간 • 순회 방문 안내문 발간
푸젠 성 인형극	• 데이터 베이스 구축 – 59개 레퍼토리와 보유자 70명에 관한 자료 보유 • 교육 교재 및 일반 독서 자료 편찬 • 시청각 자료 발간
토토나카 공동체 문화	• 공동체 회의 내용은 구체적인 보고서로 작성되어지고 있음 – 매월 19일 월별 평가보고서와 다양한 데이터를 취합하여 연례보고서 발간 – 연례보고서에는 책, 음반, 비디오 등 출간프로그램 수립 • 문헌센터 설립 계획
노카쿠	• 노악당에서 공연되는 극을 녹화하여 공공 도서관에 배포
아이누족 전통춤	• 아이누문화 및 언어 관련 입문서 출판 – 아이누문화교류센터 사업 중 아이누 문화에 관한 정보 수집 사업 • 아이누 생활문화재현 설명서 비디오, DVD 제작 • 아이누 문화보급 계발 DVD 제작
구미오도리	• 전통 구미오도리 보존회 – 30주년 기념 잡지 발간 – 구미오도리 상연 대본자료집 발간 – 구미오도리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40주년 기념 DVD 제작
뱅슈카니발	• 가면국제박물관 내 자료실, 사진 자료실, 영상자료실 운영

▌관련 진흥기관 설립 및 전문인력 확보

<표 4-33> 국외 인류무형문화유산 진흥기관 설립 및 전문인력 확보 관련 정부지원

구분	내용
아이마라족	• 소위원회 구성 – 볼리비아 문화부(Ministerio de Culturas), 칠레 국립문화예술원(Consejo Nacional de la Cultura y las Artes), 페루 국립문화원(Instituto Nacional de Cultura)로 구성 • CRESPIAL이 지역적 수준에서 실무 조정 역할
바틱문화	• 교사 대상 훈련 – 시설이 갖추어진 교육기관에서 바틱과 관련한 교육과 훈련을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교사 대상 훈련 실시 – 마지막 평가 및 시험은 바틱박물관에서 진행 • 기술전문학교 설립 – 바틱 분야에 종사할 학위 소지 전문가 양성을 위해 3년제 과정으로 설립 – 연행자 중 일부는 바틱박물관 또는 지역 학교에 강사로 등록
전통 석회 제조 기술	• 모론 석회 가마 문화 협회 설립 – 안달루시아 기술센터네트워크, 안달루시아 의회의 경제·혁신·과학부에서 주관하는 ROAPE 프로젝트 산하로 편입됨 – 안달루시아 기술센터네트워크, ROAPE 프로젝트, 리더 프로젝트의 자금 지원 받음 – 현장에서 석회 관한 지식 전파 및 홍보하고자 함 • 석회 기술 센터 설립 • 유형문화유산 복원 및 체험형 박물관 설립
판당고 살아있는 박물관	• 판당고 연행자 대표, 파나나주 및 상파울루주 조정관 합류를 통해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형성 – 문화 표현물의 보호, 기록, 확산을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가 박물관 활용 주체가 되어야한다는 인식 하에 판당고 연행자 대표가 판당고 살아있는 박물관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됨
토토나카 공동체 문화	• 부족사회의 주도적 참여를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력 – 문화예술 국가평의회 – 통합가족발전시스템 – 베라스쿠르 문화협회 – 대중문화국 – 원주민의 발전을 위한 국가위원회 – 국립 인류학 및 역사 연구소
노카쿠	• (사)일본노가쿠회가 전승의 주체이며 회원이 총합인정 보유자임 • 일본정부는 노가쿠협회 설립 당시 협회에 1,200,000엔, 후계자 양성에 ¥7,500,000엔 지원
아이누족 전통춤	• 공익 재단법인 아이누문화진승·연구추진기구 설립 – 1997년 6월 27일 홋카이도 설립 준비 주무부처인 북해도개발청(현 국토교통성) 및 문부성(현 문부과학성)에서 민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공익 법인으로 설립을 허가받아 홋카이도 삿포로 시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도쿄 도내에 아이누 문화교류센터를 개관 – 1997년 11월 '아이누 문화의 진흥 및 아이누 전통 등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계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동법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유일한 법인으로 정부에서 지정함 – 아이누에 관한 연구/아이누 문화 전승 및 교류, 보급 사업/아이누 문화 우수 활동 선정/아이누 전통 생활공간 재생사업 등
구미오도리	• 2013년 전통 구미오도리 보존회(伝統組踊保存会) 조직 – 전통 구미오도리 보존계승과 예능문화 진흥 발전, 기여에 목적을 둠 – 전승자 양성 사업, 구미오도리 보급 및 개발 사업, 예능을 통한 국제교류사업, 조사연구기록 작성 및 보존 사업(단절된 악극 발굴) – 오키나와시의 '오키나와 문화 활성화·창조발신지원사업'을 통해 지원금 교부받아 사업 시행

▌관련 제도 마련 및 개선 (법규, 조례 등)

<표 4-34> 국외 인류무형문화유산 제도 마련 및 프로그램 관련 정부지원

구분	내용
바틱문화	• 훈령 제정 '바틱 교육 프로그램' – 학교교과과정에 바틱 포함 – 2005-2006년도 1개 학교 도입, 3년 후 페칼롱간 소재 모든 학교(230개) 도입 –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직업고등학교, 기술전문학교 단계별·유형별 교육 마련 – 주요 목표: 젊은 세대가 역사 및 문화가치, 전통기술 등을 아우르는 인도네시아 바틱무형문화유산을 더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전통 석회 제조 기술	• 석회 기술 및 관련 유형 유산 문화재 등록(2009. 7. 14. 법령304호) • IAPH 무형 문화유산 지도에 포함 • 칼 데 모론의 상표 등록
판당고 살아있는 박물관	• 2009년 국립역사예술연구소(IPHAN)을 통해 무형문화유산 인정
푸젠 성 인형극	• 보유자 인증 제도 – 국가 인증 보유자 15명, 성 정부 인증 보유자 25명, 지자체 인증 보유자 83명
토토나카 공동체 문화	• 2008년 베라크루스주 파판틀라시에서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제정 • 2009년 볼라도레의식을 베라크루스주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선언 • 주실행기관은 볼라도레 지방평의회로 보존 계획의 후속조치 마련
노카쿠	• 1957년 무형문화재 지정 • 노가쿠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정
아이누족 전통춤	• 1984년 7월 사단법인홋카이도우타리협회에서 홋카이도 지사 및 의회에 '아이누 민족에 관한 법률' 제정 요청 • 1988년 8월 홋카이도, 홋카이도 의회, 사단법인홋카이도우타리협회는 '아이누 민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해 국가에 요청 • 1997년 5월 '아이누문화의 진흥 및 아이누 전통 등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계발에 관한 법률' 제정
구미오도리	• 구미오도리 배우 및 연행 관계자는 전통 구미오도리 보존회 회원이여야 함

▌연구·교육 사업 및 기반 마련

<표 4-35> 국외 인류무형문화유산 연구·교육 사업 및 기반 마련

구분	내용
전통 석회 제조 기술	• 2006년 제1회 석회세미나 – 모론 데 라 프론테라의 페르난도 비얄론 재단 주최
푸젠 성 인형극	• 연구소 및 정보 센터 설립을 통해 인형극 공연 예술 및 인형 제작 기술에 관한 연구 강화, 인형극에 관한 이론적 지원 제공
토토나카 공동체 문화	• 재정적·물질적 지원에 대한 관리, 정보 캠페인의 시행과 원주민 예술 및 문화의 보급, 지속 가능성을 위한 근거 구축 등 여러 방면에 대한 연구 시행
아이누족 전통춤	• 아이누언어 진흥 – 아이누어 교육사업: 교육자양성, 아이누어초급·상급 강좌 – 아이누어보급사업: 라디오강좌, 웅변대회

2.3.2 인적자원 관리

▌전승 자문인력 양성

<표 4-36> 국외 인류무형문화유산 전승 자문인력 양성

구분	내용
아이마라족	• 교사 훈련 및 현지 지역 공동체 출신 문화관리자 배양
바틱문화	• 예비워크숍 – 바틱박물관 직원 대상 – 바틱 문화적 가치와 전통 수공업 기술에 관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훈련 • 훈련워크숍 – 전래 방식인 구전을 통해 바틱 교육 능력 훈련 – 바틱 무늬의 상징성, 바틱의 역사 및 문화의 중요성 등 교육방법 훈련
전통 석회 제조 기술	• 교육 프로그램 진행 – 박물관 경영자, 전문기술자, 기술장인 등이 함께 진행 – 이론 워크숍 및 생산 과정에 초점을 맞춘 교육프로그램
판당고 살아있는 박물관	• 여러 자치 단체의 젊은 판당고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 추진
푸젠 성 인형극	• 계획 연수 프로그램 실행
토토나카 공동체 문화	• 토토나카 교사를 양성하여 '집-학교'의 집 책임자로 임명 • 무형유산 보유자는 센터운영에 핵심적인 역할로 참여
노카쿠	• 시테, 와키, 하야시, 교겡 등 핵심 4개 역할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며 각 개인인정 보유자로 인정 • 시테는 각 가문별로 육성하고 와키, 하야시, 교겡 역은 국립노악당에서 양성연수 실시 • 연수생은 공모로 진행하며 기초연수과정 3년(노악당), 전문연수과정 3년(각 유파)으로 연수기간은 총 6년
아이누족 전통춤	• 전통생활공간(이오루) 재생사업 – 공간을 활용한 전승자 육성 사업 포함
구미오도리	• 2005년부터 구미오도리 연수 실시 – 전통구미오도리보존회 협력으로 시행 – 3년의 연수과정으로 각 전공별 구미오도리의 대표적인 공연 6개 습득을 목표로 함 – 기초 실기를 포함한 여러 실기 연수 이외에 구미오도리 전승자에 적합한 지식과 소양을 갖추게끔 관련 강의, 다양한 전통공연 감상 실시

▌일반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표 4-37> 국외 인류무형문화유산 일반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구분	내용
바틱문화	• 바틱박물관 내 교육 프로그램 – 학생 및 일반 대중 대상 – 바틱 문화의 가치와 바틱 전통 수공예 훈련 – 관리 직원 참여
판당고 살아있는 박물관	• 판당고 예능보유자와 중재자, 지역 교육부가 협력하여 학교 교사들을 위한 워크숍 조직
푸젠 성 인형극	• 비공식 및 공식 교육을 통한 관람객들의 감상 능력 배양
토토나카 공동체 문화	• 센터 참여의 주요 대상이 일반인으로 지역공동체가 지닌 전통 관습을 보존 및 전승하고자 함
노카쿠	• 어린이체험교실 운영(국립노악당) • 외국인을 위한 노가쿠 교실 무료 운영(국립노악당)
아이누족 전통춤	• 아이누전통 보급계발 – 보급계발 촉진사업: 홍보 진행, 초중학교 대상 입문서 작성 및 배포, 부모자식을 위한 보급활동, 세미나, 강연회 • 어드바이져 파견: 아이누 전통과 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문화 단체 및 학교를 대상으로 전문 지식 또는 기술을 지닌 전문가를 파견하여 아이누문화 진흥 도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아이누문화체험강좌 마련
뱅슈 카니발	• 가면국제박물관에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 대상 워크숍 – 어른과 가족 대상 워크숍

▌전승 시스템 및 정책 개발

<표 4-38> 국외 인류무형문화유산 전승 시스템 및 정책 개발

구분	내용
판당고 살아있는 박물관	• 워크숍 및 순회 방문 등 관련 행사에 지역 판당고 예능보유자 참여 유도
푸젠 성 인형극	• 연행자, 지역 주민, 교육 기관 등 다양한 계층 참여로 인해 예비 연행자 200명 전문 수련 완수
토토나카 공동체 문화	• 2009년부터 토토나카족 청년층을 대상으로 인간문화재 프로그램 진행
노카쿠	• 국립노악당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후계자 양성 – 기타 보조역할, 교겐 역할 등에 젊은층 모집 및 훈련 – 14~25세 대상으로 6년 교육 과정 • 교토, 오사카 노악당 내 국가 지원 훈련프로그램 진행
아이누족 전통춤	• 아이누문화사업 – 아이누문화전승재생사업: 매뉴얼 작성, 실천상급강좌, 전통공예복제조성, 구전문예시청각자료작성, 풍속관습에 대한 전승사업
구미오도리	• 후계자 양성 워크숍 진행 및 공연 경험 기회 부여

2.3.3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전승 프로그램 지속화

<표 4-39> 국외 인류무형문화유산 전승 프로그램 지속화

구분	내용
아이마라족	• 300명의 아이마라족 교사와 아이마라어 사용자 참여 – 프로젝트 실행에 참여하여 문화관리자로서의 능력 강화
바틱문화	• 학교교육과정의 다방면과 통합 – 언어수업 : 바틱 관련 자료 예시로 활용 – 생물·화학수업 : 바틱 제주에 사용되는 천연 염색약에 대해 논의 – 컴퓨터수업 : 프랙털로 바틱 문의 제작 – 역사수업 : 바틱의 역사 다룸
전통 석회 제조 기술	• 석회 제조 장인들과 협력을 강화하여 교육 계획 마련 – 주요 교육 내용은 지속 가능한 유기적·생태적 건설에 사용가능한 석회 제조 전문 기술 복원 • 안달루시아 공예센터 네트워크 – 석회 전통기술의 보존 및 전승 방안 탐색을 위한 프로그램 – 생산과정과 지역 공예 상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해당 지역별 정체성을 토대로 하는 지역 개발 및 전통 공예 및 문화 발전 모색 – 지역 센터별 독자성을 확립하는 동시에 네트워크 공동 비전 확립
판당고 살아있는 박물관	• 판당고 집단과 5개 자치 단체에서 온 판당고 예능보유자들의 경험을 교류하는 회의
푸젠 성 인형극	• 50여 개 공동체 및 학교가 전문 인형극단과 협력 관계 구축
토토나카 공동체 문화	• 본 모델이 다른 공동체에서도 효과적인지에 대한 유효성 테스트 진행 예정,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젝트의 지원 근거 구축
아이누족 전통춤	• 아이누족이 살고 있는 15개 도시와 소도시에 설립된 17개 보존 협회를 통해 전승

▌축제 및 행사

<표 4-40> 국외 인류무형문화유산 축제 및 행사

구분	내용
아이마라족	• 관련국이 번갈아가며 가요제 및 음악제 개최 • 관련국 15개 지역사회 초등학교를 통해 단편소설대회 및 백일장 개최 – 전통 구술 표현을 습득함에 따라 세대 간 소통 가능성 증대 – 3개국 내 동일민족 간 전통문화를 공유하며 교류 기회 증대
전통 석회 제조 기술	• 2010년 석회 및 시멘트의 창조적 표현 그룹전(석회박물관 개최) • 2010년 산악지역 비아베르데(Via Verde) 백색 촌락의 제1회 석회의 날(석회박물관 개최) • 무역박람회 내 전시 • 2010년 제7회 유산 복원 비엔날레(ARPA): 스페인 바야돌리드 • 2012년 이베리아 석회대회 개최 • 지방 문화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포럼, '기술의 날' 행사 등에 참여 • 안달루시아 내 모론, 코케몬트, 레드 베르데
판당고 살아있는 박물관	• 지방 공연 조직 – 교육자 대상 행사 및 워크숍 내 공연 진행

구분	내용
푸젠 성 인형극	• 2007년 '베이징대학교에서 대화하는 동양과 서양 인형극의 정수' – 일반 대중을 위한 8편의 공연 및 두 차례의 세미나 무료 개최 • 대표 보유자를 중심으로 10여 개 인형극단이 연 1,000여회 공연 진행 – 취안저우 인형극단, 장저우 인형극단, 진장 손인형극단 등은 10개 지역 및 해외 순회 공연을 진행함 • 학교 및 유치원 내 '인형극 학내 공연 100회'라는 연례행사 개최
토토나카 공동체 문화	• 베라크루스 주의 여러 도시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는 타힌 정상회의(Tajin Summit)와 젬포알라에서 개최되는 이베리아·아메리카 여러 언어들의 만남(Ibero-American Encounter of Languages)에 참여 – 문화유산 보급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로 참여 – 도자기, 회화, 직물, 전통의학 등 교육 워크숍 개최
노카쿠	• 국립노악당에서 한 달에 4~5회 정기 노가쿠극 공연 진행
아이누족 전통춤	• 아이누문화보급사업 – 전통공예전시·공개 조성: 아이누 전통 공예 기술을 전승하고자 공예품 전시회를 열며, 지원금을 제공하여 전승 의지 및 기술 향상 도모 – 공예품전시회: 국내외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민족의상, 생활용품, 의례용품 등 아이누 전통 공예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아이누 문화에 대한 국민적 이해 및 전승 의욕 향상 도모 • 2016년도(이카라카라, 아이누 자수의 세계) 개최 일정 – 9월 17일~11월 3일: 홋카이도 도마코 마이시 미술박물관 – 2017년 2월 4일~3월 20일: 이라바키현 현립역사관 • 문화페스티벌: 민속무용을 포함한 아이누 문화를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축제 개최 – 2016년도 개최 일정 5월 21일: 도야마현 현민회관 7월 16일: 홋카이도 노보리베츠시 시민회관 9월 10일: 도쿄도 유라쿠쵸 아사히홀 10월 25일: 홋카이도 삿포로시 도신홀 • 박물관 등 아이누자료 전시 및 공개사업: 아이누전통문화 체험기회 증대 및 아이누 관련 자료 전시 • 아이누문화활동표창사업 – 공예작품콘테스트, 아이누문화상
구미오도리	• 오키나와 초등학생 대상 공연 개최 • 전승자 연수 성과 발표회 • 창작 기획 공연 • 특정 관객층을 위한 공연 진행: 학생, 부모 등

2.3.4 홍보 사업 개발

▌온-오프라인 홍보 시스템 제작

<표 4-41> 국외 인류무형문화유산 온-오프라인 홍보 시스템 제작

구분	내용
판당고 살아있는 박물관	• 웹사이트(www.museuvivodofandango.com.br) 제작
노카쿠	• 노악당 및 관련 단체 웹사이트 운영

▌체험 및 향유 확대 기회 마련

<표 4-42> 국외 인류무형문화유산 체험 및 향유 확대 관련 정부지원

구분	내용
바틱문화	• 일반인 대상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통 석회 제조 기술	• 칼레스 고르디요 체험 박물관 – 안내원이 동행하며 직접 석회 가공을 관람할 수 있음 • 프레스코 프로젝트 – 프레스코 프로젝트는 석회를 이용한 프레스코화를 일반인에게 소개하며 대중화하기 위한 프로젝트 – 예술가, 연구가(석회의 친환경적 요소 활용 목적), 전문가 네트워크로 구성 – 지역별, 박물관, 필립스, 슈나이더 전기, 시멘트 회사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
판당고 살아있는 박물관	• 도서, 연구 논문, 음반 및 비디오 등 40여 개 출판물을 지역문화센터, 박물관, 지역 도서관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푸젠 성 인형극	• 인형극 감상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 • 학교, 기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련 기회가 주어짐
노카쿠	• 지역별 노악당에서 여러 체험 활동 마련 – 노가쿠도 견학회: 무대, 분장실 견학 – 노가쿠 체험강좌: 노가쿠시(노를 공연하는 연기자) 지도에 따라 탈을 쓰고 무대에 서보거나 하야시(공연할 때 쓰이는 악기) 체험 가능 – 노가쿠 감상회: 실제 노의 공연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 – 다양한 강의 시행: 노에 관한 이야기, 무대복 입어보기, 우타이 체험 등 – 인원수나 예산에 따라 여러 프로그램 제공 가능 – 요청에 따라 공연 시 원하는 다과 제공 – 외국인을 위해 일부 공연에서 자막 제공
아이누족 전통춤	• 아이누문화교류사업 – 청소년국제문화교류연수 • 아이누문화교류센터사업 – 아이누족과 일반인 교류의 장 • 전통생활 공간 재생사업 내 체험 교류사업 – 초중학생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시행 – 2016년도 실시지역: 시라, 비라토리, 삿포로, 신히다카
구미오도리	• 아이모임(子の会) – 국립극장 오키나와 구미오도리 연수 수료자로 구성된 모임 – 3년 교육과정 수료 후 전통예능인으로서의 겸손하기 위한 마음수양 목적과 전승자로서 구미오도리를 차세대에 홍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08년도 설립 – 현 초중고교 예술감상회에 출연하며, 지방 순회공연 진행 – 학생 대상 체험형 워크숍 개최 – 구미도오리를 포함한 오키나와 전통 예능 공연 개최

▌미디어 홍보 확대

<표 4-43> 국외 인류무형문화유산 미디어 홍보 확대 관련 정부지원

구분	내용
노카쿠	• 국립노악당에서 공연되는 극을 녹화하여 각 공공 도서관에 배포

▌아마추어 및 동호회 확보 및 관리

<표 4-44> 국외 인류무형문화유산 아마추어 및 동호회 확보 및 관리 관련 정부지원

구분	내용
푸젠 성 인형극	• '캠퍼스 내의 인형극, 공동체 내의 인형극'을 모토로 한 활동 장려 – 인형극에 관한 지식 전파 – 인형극에 관한 공동체 인식 확대 – 인형극 감상 능력 배양

2.3.5 네트워크 구성 및 국제교류

▌유사 종목 국제 네트워크 사업 개발

<표 4-45> 국외 인류무형문화유산 유사 종목 국제 네트워크 사업 개발

구분	내용
아이마리족	• 볼리비아, 칠레, 페루 3개국 간 국제 네트워크 형성 – 2008년 3개국 프로젝트 착수 후 2009년 정부와 공동체 대표가 참가한 제1차 업무조정회의 개최 – 각국 특수성에 적합한 지역별 전략 수립을 위한 지방 워크숍 개최 – 3개국 내 지역 네트워크를 마련 – 개인, 지역사회, 단체, 문화관계자, 전문가, 원주민, 연구기관, 비정부기구, 정부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적·국제적 네트워크 마련
전통 석회 제조 기술	• 자연 박물관 네트워크 소속 – 자연 박물관 네트워크는 에스파냐 및 포르투갈 양국의 프로젝트임
토토나카 공동체 문화	• 스위스 쥐라주 무티에의 예술 공동체와 교류 – 2009년 원주민예술센터 본부에서 예술 연수 진행 – 2010년 스위스 에스파스 스탕 축제 참가 • 미국 스미스소니언 협회와 라틴아메리카 원주민의 예술적 표현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교환 및 보급을 위한 협력 체결

▌국제 교류 및 행사 개최

<표 4-46> 국외 인류무형문화유산 국제 교류 및 행사 개최

구분	내용
아이마리족	• 3개국 간 네트워크를 통해 3개국 평가 및 회의 등 협력을 통한 업무 시행
전통 석회 제조 기술	• 2003년 국제 유산 복원 전시회(이탈리아 페라라) • 2009년 국제 안달루시아 유산 복원 전시회(FIRPA)(스페인 그라나다) • 2011년 ROAPE프로젝트 '안달루시아와 모로코 자연지역의 공예' • '공예 진흥 센터를 북부 아프리카 모로코로 이전하는 모델' 프로그램 참여 – 모로코 내 안달루시아와 비슷한 특징을 가진 공예 및 지방 문화센터를 선정하여 멘토링 사업 진행

구분	내용
푸젠 성 인형극	• 2007년 '베이징대학교에서 대화하는 동양과 서양 인형극의 정수' – 동서양 연행자들 간 예술적·학술적 교류 활성화 • 취안저우 인형극단, 장저우 인형극단, 진장 손인형극단과 같은 대표 인형극단들은 2007년부터 미국·영국·일본 등 10개 국 이상에서 성황리에 순회공연을 마쳤으며, 수십 명의 외국인 인형극 연행자들을 견습생으로 받아들임 • 2009년 UNIMA China(국제인형극연행(Union Internationale de la Marionnette)–중국)는 취안저우 인형극단과 장저우 인형극단을 예술 교류 시험장으로 공표
토토나카 공동체 문화	• 멕시코 내 다른 주 및 전 세계 예술가 및 문화단체와 지속적 협력 추진 • 2008년 칠레 발파라이소 문화 축제(토토나카판 춤 공연 및 전시회) • 2009년 라맘마 실험극단과 공동으로 미국 뉴욕 Vocal Migrations에서 연극 및 어린이 전통춤 공연 • 2010년 로소 바스타르도 프린지 페스티벌에 제례와 전통의술 부문 참여 • 미국 워싱턴에 소재한 국립아메리칸인디언박물관에서 열린 살아있는 지구 축제에 2010년, 2011년 참가하여 호피(Hopi) 족과의 교류로 면직물의 집 개최 • 2010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두바이 문화예술청, 다르 이븐 알 하이탐 시각예술갤러리(Dar Ibn Al Haythan Visual Arts Gallery), 멕시코 무역투자 진흥청(Promexico) 등이 주최한 행사에서 무형문화유산 및 원주민예술센터 활동 홍보 • 2011년 칠레 발파라이소주 카사블랑카에서 개최된 대지의 근원 축제(Festival Raices de la Tierra)에서 원주민예술센터의 교육모델 및 활동 소개
아이누족 전통춤	• 아이누문화교류사업: 아이누 문화 활동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해외 원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문화 전승 및 보존 활동을 배우고, 아이누 문화 또한 소개하는 사업으로 아이누문화재단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함 • 아이누문화교류사업은 해외파견사업 및 해외초빙사업 두 방식으로 진행됨

▌국제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 개최

<표 4-47> 국외 인류무형문화유산 국제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 개최

구분	내용
전통 석회 제조 기술	• 2011년 이베리아 석회 포럼(FICAL)
토토나카 공동체 문화	• 2012년 에스파냐 메노르카에서 개최된 세계유산을 위한 최상의 실천 대회(Congress on Best Practices for World heritage)에서 엘타힌 고고학 유적과 무형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원주민예술센터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유네스코 연계 지속적인 사업 개발 및 참여 지원

<표 4-48> 국외 인류무형문화유산 유네스코 연계 지속적인 사업 개발 및 참여

구분	내용
토토나카 공동체 문화	• 2010년 멕시코 과나후아토에서 개최된 세계청년회의에서 유네스코와 협력하여 토토나카어, 볼라도레 의식, 바닐라콩 공예에 관한 워크숍 시행

2.3.6 기타

▌기타 지원

<표 4-49> 국외 인류무형문화유산 기타 정부지원

구분	내용
아이마라족	• 기술 (디지털, 온라인 등) 지원 – 정보통신기술(ICT)를 기반으로 학습 확대 계획
전통 석회 제조 기술	• 기술 (디지털, 온라인 등) 지원 – 박물관 내 시청각 자료 활용
판당고 살아있는 박물관	• 상품 개발 및 관광연계 – 판당고 관련 순회 방문을 통해 판당고 예능보유자들이 살고 있는 곳과 판당고 문화에 대해 홍보
노카쿠	• 상품 개발 및 관광연계 – 체험프로그램과 함께 기모노 입어보기, 근린 음식점에서의 저녁 식사와 연계 상품 제공
아이누족 전통춤	• 기술 (디지털, 온라인 등) 지원 – 아이누 생활문화재현 설명서 비디오, DVD 대여 – 아이누 문화보급 계발 DVD 대여

제 3 절 제주해녀문화 전승 및 보존을 위한 수요자 의견조사

1. 조사개요

1.1 조사목적

- 해녀에 대한 국내 인지도 파악
- 해녀에 대한 국외 인지도 파악
- 해녀문화 활성화 정책 파악

1.2 조사내용

<표 4-50> 설문조사내용

구분	설문 항목
1. 해녀에 대한 국내 인지도 파악	• 해녀문화 국내 인지도 • 국내에 잘 알려져 있는 내용 • 국내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내용 • 국내에 먼저 알려져야 할 내용
2. 해녀에 대한 국외 인지도 파악	• 해녀문화 국외 인지도 • 국외에 잘 알려져 있는 내용 • 국외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내용 • 국외에 먼저 알려져야 할 내용
3. 해녀문화 활성화 정책 파악	• 단기적으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정책 • 중장기적으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정책

1.3 조사대상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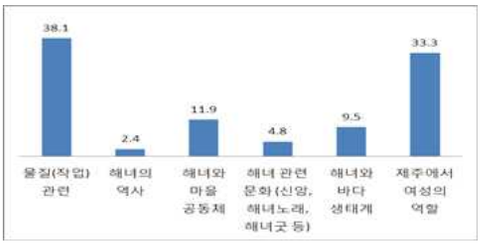
- 조사대상 : 해녀 아카데미 및 해녀학교 교육생 대상
- 응답자 수 : 42명
- 조사기간 : 2016년 6월 경
- 조사방법 : 설문지를 통한 자기기입식

2.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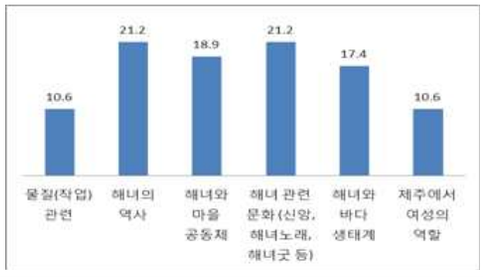
2.1 해녀에 대한 국내 인지도 파악

- 해녀에 관한 국내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 '알려져 있다'는 응답률이 19.5%로 나타났으며, '알려져 있지 않다'는 응답률이 41.4%로 나타남
- 국내에 잘 알려져 있는 내용으로는 '물질(작업)관련'이 38.1%로 가장 많았으며, '제주에서 여성의 역할' 33.3%, '해녀와 마을 공동체' 11.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국내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내용으로는 '해녀의 역사'와 '해녀 관련 문화'가 21.2%로 가장 많았으며 '해녀와 마을 공동체' 18.9%, '해녀와 바다 생태계' 17.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국내에 먼저 알려져 할 내용으로는 '해녀와 마을 공동체'가 24.0%로 가장 많았으며, '해녀의 역사' 21.0%, '해녀와 바다 생태계' 2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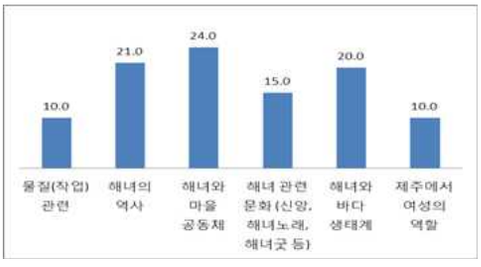
해녀에 관한 국내 인지도



국내에 잘 알려져 있는 내용(복수응답)



국내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내용(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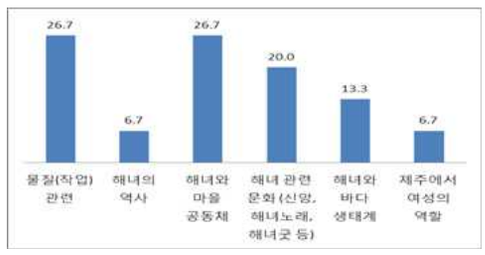
국내에 먼저 알려져야 할 내용(복수응답)

[그림 4-2] 해녀에 대한 국내 인지도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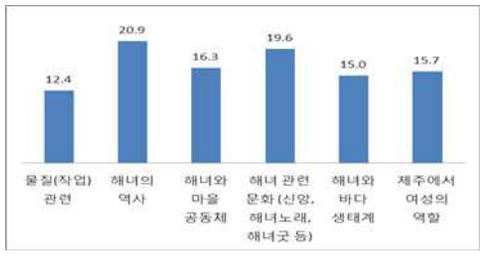
2.2 해녀에 대한 국외 인지도 파악

- 해녀에 관한 국외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 '알려져 있다'는 응답률이 12.5%로 나타났으며, '알려져 있지 않다'는 응답률이 78.1%로 나타남
- 국외에 잘 알려져 있는 내용으로는 '해녀와 마을 공동체'와 '물질(작업)관련'이 26.7%로 가장 많았으며, '해녀관련 문화' 20.0%, '해녀와 바다생태계' 1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국외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내용으로는 '해녀의 역사'가 20.9%로 가장 많았으며 '해녀관련 문화' 19.6%, '해녀와 마을공동체' 16.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국외에 먼저 알려져 할 내용으로는 '해녀의 역사'가 21.2%로 가장 많았으며, '해녀와 마을 공동체', '해녀관련 문화', '해녀와 바다 생태계' 17.7%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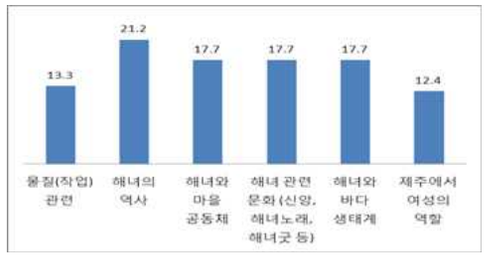
해녀에 관한 국외 인지도



국외에 잘 알려져 있는 내용(복수응답)



국외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내용(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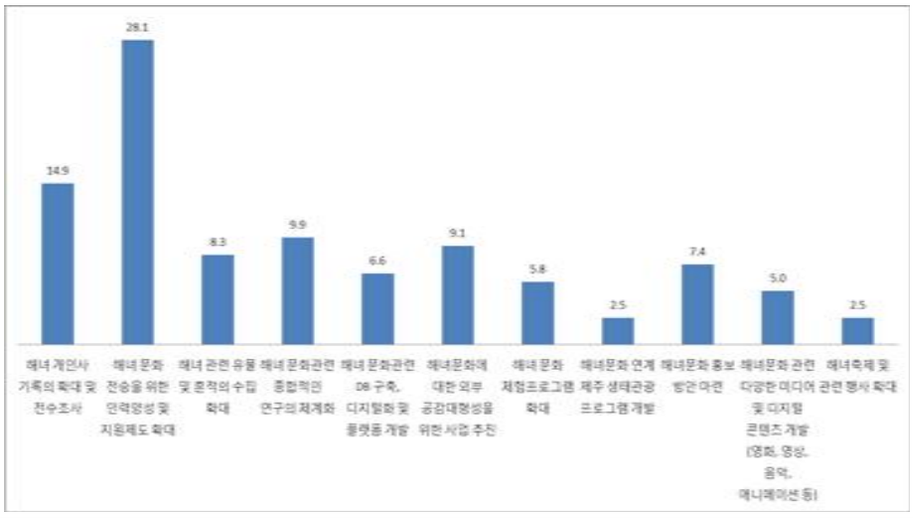


국외에 먼저 알려져야 할 내용(복수응답)

[그림 4-3] 해녀에 대한 국외 인지도 파악

2.3 해녀문화 활성화 정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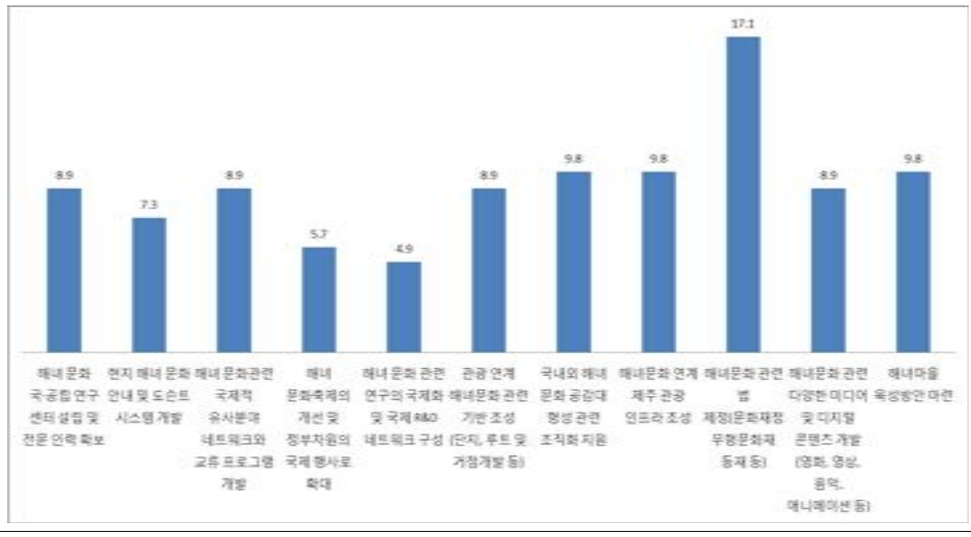
- 해녀문화 활성화를 위한 단기 정책방향으로는 '해녀문화 전승을 위한 인력양성 및 지원제도 확대'가 28.1%로 가장 많았으며, '해녀개인사 기록 확대 및 전수조사' 14.9%, '해녀문화 관련 종합적인 연구의 체계화' 9.9%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기적 정책 방향

[그림 4-4] 해녀문화 활성화 단기적 정책방향

• 해녀문화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으로는 '해녀문화 관련 법 제정'이 17.1%로 가장 많았으며, '국내외 해녀문화 공감대 형성 관련 조직화 지원', '해녀문화 연계 제주관광 인프라 조성', '해녀마을 육성방안 마련' 9.8% 등의 순으로 나타남



중장기적 정책 방향

[그림 4-5] 해녀문화 활성화 중장기적 정책방향

제 5 장

제주해녀문화 활성화를 위한 종합 방안

제 5 장 제주해녀문화 활성화를 위한 종합 방안

제 1 절 활성화 방향 및 목표 설정

1. SWOT 분석

• 제주해녀문화의 물리적 여건과 정책 및 시장여건 등 외부적 환경에 대한 강점요인(Strength), 약점요인(Weakness), 기회요인(Opportunity), 위협요인(Threat) 분석을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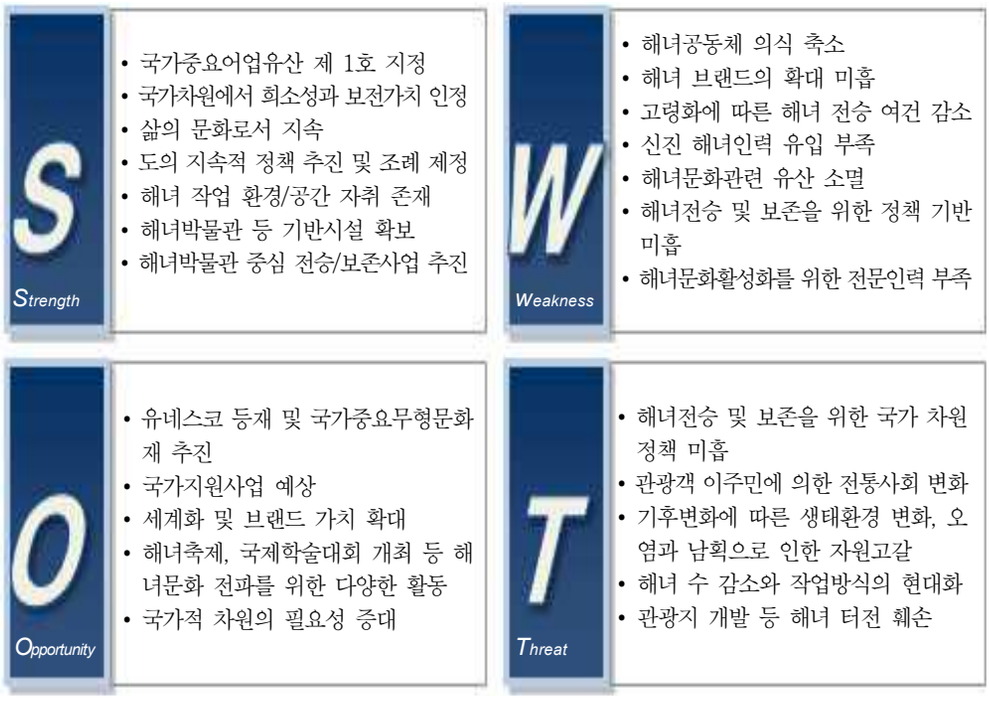
<표 5-1> SWOT 분석

Strength (강점)	
문화	삶의 종합문화로서 단절되지 않고 지속, 공동체 가치 보유
작업/제도	도차원 의료/전승 지원 및 정책 추진, 국가어업유산 지정 등
환경/공간	국내 최고 청정해역 및 주요 해녀작업 공간 자취 존재.
기반/정책	관련 종합계획 추진, 해녀박물관 중심 사업 추진

Weakness (약점)	
문화	공동체 가치 및 삶의 방식 변화, 해녀문화전승자 감소 해녀문화 브랜드가치 미흡, 자긍심 낮음
작업/제도	작업환경 열악, 노령화 및 젊은 층 유입 미흡 제도적 전승확대 한계, 협회 등 부재
환경/공간	환경오염 및 바당 환경관리 필요. 해녀작업공간 현대화 및 전통공간 소멸
기반/정책	해녀문화전승/수집/연구 및 사업 전문 인력 및 기반 부족

Opportunity (기회)	
문화	유네스코 등재 및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추진
작업/제도	자긍심 및 자부심 부여 가능, 체계적인 조사 및 관리 가능 (국가적 관심), 전국 해녀문화 통합 및 연계가능
환경/공간	생태/환경 연계 보존계획 및 에코박물관 필요성 대두. 해녀전승관련 환경 개선 방안 계획 필요성
기반/정책	등재이후 국가단위 지원사업. 기반확대 필요성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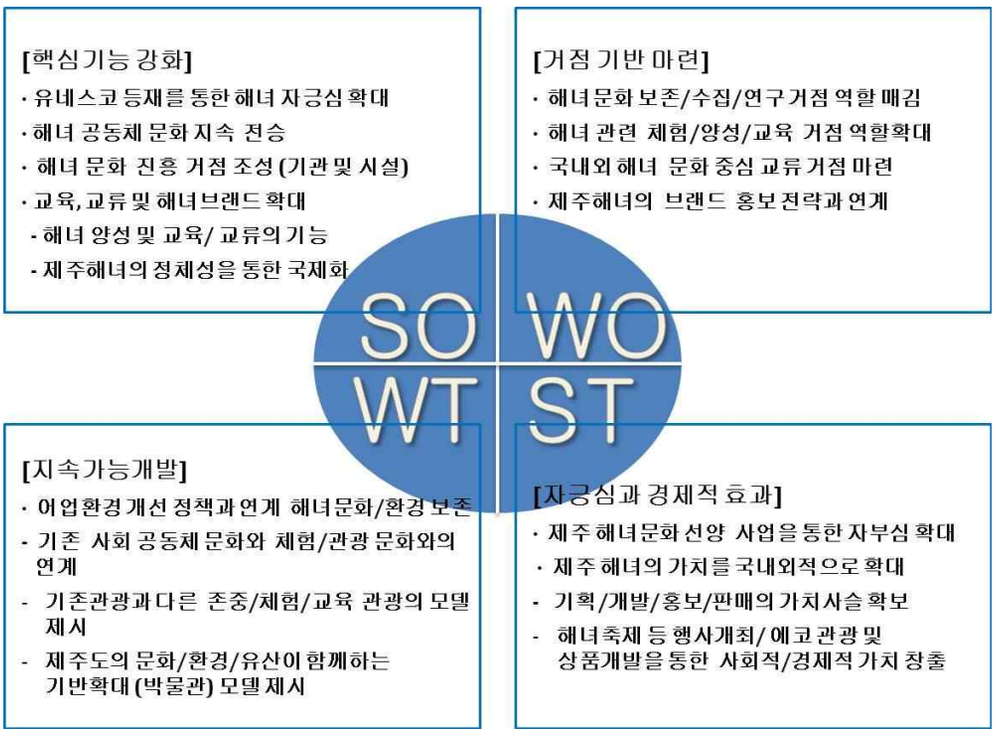
Threat (위기)	
문화	이주민 및 관광객 증가로 인한 사회/공동체 약화
작업/제도	어업 현대화 및 산업/시장의 변화. 어업관련 분쟁 확대가능
환경/공간	개발 및 관광지화, 수온상승 및 어종의 변화
기반/정책	국제화 및 국가브랜드로서 관리, 전승 기반 미흡



[그림 5-1] SWOT Matrix

2. SWOT 분석을 통한 전략 도출

• 앞서 실시한 SWOT 분석을 토대로 강화 · 극복 · 보완 · 회피 전략을 도출하여, 이를 제주해녀문화활성화 방안을 위한 전제사항으로 선정함



[그림 5-2] SWOT 분석을 통한 전략 도출

3. 중장기 정책 목표 제시

▌제주 해녀 자긍심 및 자부심 확보 (2016~2020)

- 선양, 교육, 기념물 및 홍보를 통해 해녀의 가치 확대 기반 확보

▌제주 해녀문화의 국내외 브랜드 확보 (2016~2020)

- 국가차원에서의 인식 확대 및 2020까지 태평양 국가 제주 해녀브랜드 확보

▌해녀 문화 진흥 기반 확보 (2016~2020)

- 전승, 보존, 환경/생태 연계 체험, 연구, 사업개발을 위한 기반 (인력/예산/공간) 마련 가능성 및 타당성 확보

▌해녀 문화 유산 수집 및 보존 확대 (2016~2020)

- 해녀 생애사 조사 및 수집의 제주 우선사업 추진 및 국내외 확대
- 해녀 문화 전문인력 1차 양성 및 활동

▌해녀 문화 체험의 조직/생태/환경/사회적 환경 조성

- 해녀협회 창설, 에코뮤지엄과 연계 주민 협업 개발 시스템 확보
- 해녀의 지식과 기술 기록화 사업 추진

4. 제주해녀문화 활성화 방향 설정

4.1 제주해녀문화정책 구분 및 방향

- 이러한 문화, 생업(작업), 제도 및 공간은 단순한 기술 및 장르를 넘어 삶의 양식 전반에 걸친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가치가 있으며, 제주해녀문화 발전방안의 경우 이러한 종합적인 가치를 고려하여 지속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필요가 있음

▌문화

- 제주 해녀의 역사, 여성의 역할, 공동체 및 생활방식, 관련 노래, 굿, 신화, 전설 및 의례 등의 지속을 위해 정책 방안으로는 수집, 연구, 교육, 체험 및 활용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문화관련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과 교류의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문화를 소재로 한 콘텐츠의 개발, 제작과 나아가 새로운 예술의 창조 등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의 제시가 필요함

▌작업

- 해양환경과 삶을 연결하는 문화로서 나잠업의 가치를 확대, 전승할 필요가 있으며 과거의 전승뿐만 아니라 단순한 어업을 넘어서 미래를 위한 자연-인간의 관계의 모델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제주해녀의 전승과 확대는 이러한 문화의 지속을 위해서 나잠업이 이어져야 하는 당위성이 제시될 수 있음. 정책적인 방안으로는 나잠업의 지속을 위한 양성, 교육, 그리고 관련 도구와 연계된 콘텐츠와 스토리의 홍보/체험. 바다(자연환경)와 공생하는 인

류의 모습이라는 가치의 확산 등에 관련한 정책방안마련이 필요함. 동시에 국외의 유사한 해양과 인류의 활동관련 네트워크를 통해 교류하고 인류지식차원에서의 보존과 전승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규범/ 제도

- 현재의 어업 및 해녀관련 제도(법규) 그리고 전래해온 규범 등은 앞의 문화와 작업이 지속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서 정책방안은 이러한 제도의 개선 혹은 지속, 전통적인 규범이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고 또한 이러한 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촉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데 중심을 둘 필요가 있음

▌공간

- 제주 해녀는 바다 그리고 그 중에 바다작업장(바당), 육지 그리고 그 중 삶의 공간을 포함하는 물리적 환경에 바탕을 두고 있기에 이러한 물리적 환경을 포함한 보존, 전승, 체험/교육들에 대한 정책이 통합적으로 이루어 질 필요가 있음. 또한 이는 제주 해양 생태계와 육지의 자연환경, 거주환경의 보존과 개선 등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제주해녀문화의 발전은 문화뿐만 아니라 환경, 도시계획, 주거계획 등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정책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정책 분야

- 기본적으로 정책 분야로는 문화재, 문화예술, 문화콘텐츠, 문화관광 나아가 지속을 위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수산, 환경, 도시계획 등의 정책 분야와 공감대형성과 지속을 위한 교육 정책, 축제 및 이벤트 개발, R&D 등과도 연계됨
- 대외적으로는 국제교류 분야 등을 포함하고 또한 시설 운영(박물관 등) 및 공간 조성(현장박물관 지정 및 정비) 등의 분야를 포함할 수 있음

4.2 구분별 정책 예시

4.2.1 문화

▌역사

- 제주 해녀 역사의 연구, 수집, 교육 및 출판 등 소개
- 국가차원에서의 제주해녀와 나잠업에 대한 역사 연구
- 태평양 및 국외의 유사 해양 어업 역사 연구 및 교류

▌생활사

- 제주해녀문화의 과거 및 현재의 개인사, 생활사 채록(수집), 분석, 연구 및 출판
- 제주해녀문화의 생활사 관련 체험 공간/프로그램 마련의 기반을 위한 DB 구축
- 제주해녀문화 일상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 제주해녀문화 채록 체험 및 연구자 되기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확산

▌문화예술

- 제주 해녀 전설 및 신화 수집, 연구, 교육, 콘텐츠 개발
- 제주 해녀 노래 및 문화예술의 연구, 개발 및 시연,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확대
- 제주 해녀 신앙관련 굿 등 연구와 동시에 전승, 보존 그리고 홍보
- 제주해녀문화관련 문화 콘텐츠 제작, 제작지원 및 유통

▌여성

- 여성의 역할과 여성 문화의 상징으로서 제주해녀문화의 위상 제고
- 공동체 문화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연구, 교육 및 홍보
- 새로운 현대의 여성상에 대한 연구/교류/네트워크 마련

▌종합 및 기타

- 제주해녀문화축제의 확대
- 제주해녀문화의 효과적인 연구와 확산을 위한 기구(예: 국립해녀진흥원) 설립
- 태평양 및 기타 관련 국외지역과의 네트워크 형성
- 국제 심포지엄 및 포럼 개최
- 국제기구 관련 센터 유치

4.2.2 작업

▌도구와 의복

- 제주 해녀 작업 관련 의복, 도구 등 수집, 연구 및 전시 확대
- 제주 해녀 관련 도구의 과학성 및 문화적 가치 연구와 확산
- 현대의 나잠어업의 도구관련 연구, 전시
- 도구/의복 등의 현대화와 제주해녀문화의 상관성 연구와 새로운 개선방안 개발

▌잠수기술

- 제주 해녀 잠수기술관련 과학적, 문화적 기록과 연구
- 제주 해녀 잠수(물질)관련 콘텐츠 수집을 통한 출판 및 제작
- 어장, 조수 이용 등 잠수와 해양환경과의 관계 연구
- 유사 잠수 기술 및 문화 관련 국제 교류와 컨퍼런스, 네트워크 구성
- 제주 해녀 체험/교육과 제주해녀문화의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해녀대학)
- 제주 해녀 전승을 위한 양성 기반 마련

4.2.3 규범/제도

▌규범/금기 등

- 제주 해녀관련 공동체와 규범 관계 현대에서의 가치 고찰

- 해양, 제주도 등 자연환경과 조화하는 전통 규범의 가치 고찰
- 제주해녀문화를 이루는 규범 지역별/시대별 수집과 연구/분석

▌어업 관련 제도

- 어업 자원과 채취시기를 통한 해녀문화의 변화 연구 및 교육
- 해양 기후 등의 변화, 역사적인 요구에 의한 어업 관련 제도의 변화 연구
- 육지 물질 해녀의 역사 및 변화, 현황에 대한 연구
- 현대 제주 해녀관련 어업 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스쿠버 다이빙 등과의 갈등 등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해녀 관련 제도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제주해녀문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추진
-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제도 정리와 개선방안 제시
-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지역문화종합계획에 제주해녀문화 별도 제시

4.2.4 공간

▌보존

- 제주 해녀의 작업 관련 유산 지정과 보존을 위한 연구, 행정 행위 추진
- 제주 해녀관련 작업공간(불턱 등) 보존을 위한 제도 마련과 보존/전시/체험/교육을 위한 예산 확보
- 제주해녀문화의 이해를 기반으로 한 역사문화관광의 포인트로서 제주해녀문화의 살아있는 공간 제시
- 제주해녀문화 관련 유형 유산 안내시스템 및 정보화를 추진하며 제주관광과 연계(올레, 자전거, 트래킹 등)
- 제주해녀문화의 신성 공간(해신당)의 유지, 보존을 위한 제도마련과 예산 확보, 안내 시스템 개선
- 제주 해녀 유형문화유산 제주해녀축제와 연계 1년 지속하는 제주해녀문화체험의 장으로 활용

▌해양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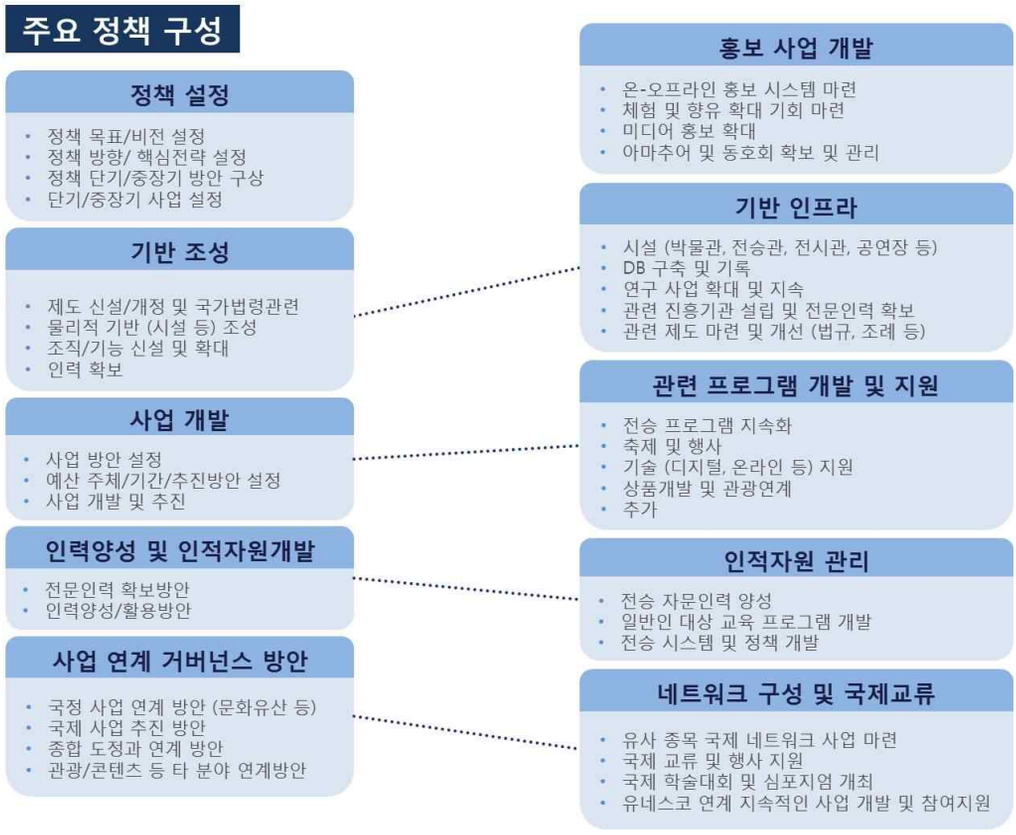
- 제주해녀문화의 지속과 해양 환경 보존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해양환경과 해녀문화의 연계성과 가치에 대한 연구/교육 확대
- 해양학과 인류학 등 통섭 교류 지원 및 확대(국내외 네트워크 구성)
- 제주 해녀의 관점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관점 채록, 연구 및 확산
- 해양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제주해녀문화의 가치 연구 및 확산/체험
- 동아시아 해양환경과 전통 어업문화 연구, 교류 및 네트워크 추진

▌육지 환경

- 제주 해녀 공동체, 마을, 가정, 건축과 삶에 대한 자료 수집, 보존 및 연구
- 제주 마을과 해녀 활동의 가치, 역할에 대한 연구/체험 및 교육
- 제주해녀문화와 환경의 조화를 체험할 수 있는 현장박물관 지정 및 지원/운영
- 지정 현장박물관의 공정 여행, 환경 및 문화체험 관광의 거점화

4.3 제주해녀문화정책 기능별 구상

- 제주해녀문화의 '문화', '작업', '규범', '공간'의 구분에 의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음
- 이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별 정책을 구분하여 중장기 방안의 기반으로 아래와 같이 제시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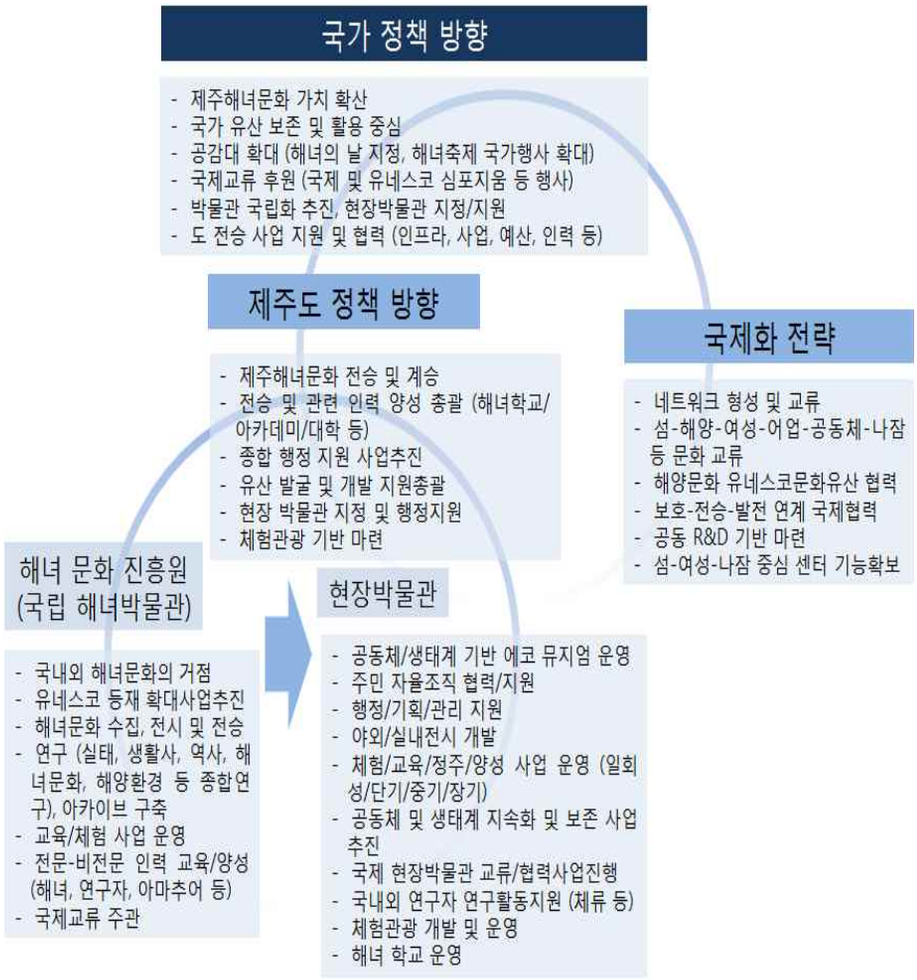


[그림 5-3] 주요 정책 구성

- 또한 앞의 구성을 통하여 정책 분야에서의 사업을 위와 같이 구성할 수 있음. 이는 우선 정책설정 단계에서 목표 및 비전, 전략을 설정함이 우선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정책 분야에서는 제도, 시설 등 기반을 조성하며 이에 따라 인력, 예산확보(국비 포함)등에 대한 설계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 나아가 직접/간접 사업의 개발, 중장기적 확산과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인적자원개발 또한 학계, 지역주민, 국내외 전문가의 네트워크 연계방안과 타 분야인 콘텐츠 산업 및 관광산업과의 연계방안도 제시할 수 있음

4.4 제주해녀문화 활성화 정책 추진 주체별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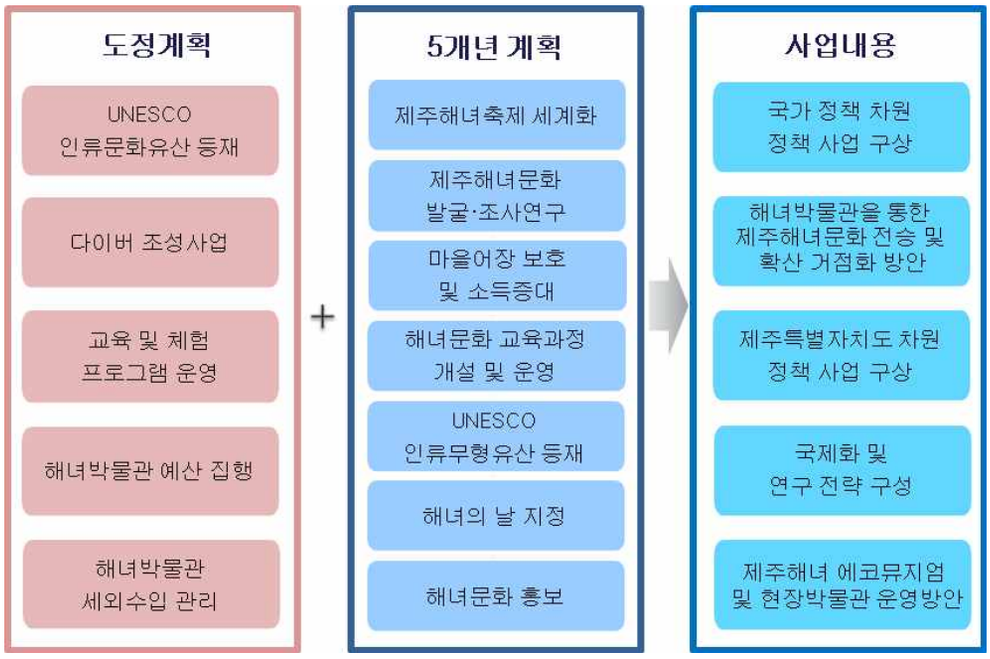
- 제주해녀문화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으로는 크게 국가정책, 제주도 정책, 해녀박물관 정책, 국제화 전략, 현장박물관 건립으로 나눌 수 있음



[그림 5-4] 제주해녀문화 활성화 정책 추진 주체별 구상

4.5 도정계획과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5개년 기본계획의 연계

- 도정계획과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5개년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도정계획에서도 해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따라서 이를 종합하여 제주해녀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과 (2016), 2016년 주요업무 실행계획
제주특별자치도(2011),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5개년 기본계획

[그림 5-5] 제주해녀활성화 방안 설정

제 2 절 국가차원 정책 구상

1. 제주해녀문화 가치확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서 제주해녀의 국제, 국가적 가치

- 제주해녀문화는 단순한 물질을 넘어 인류 차원[38]에서 '자연과 공존하는 삶', '여성의 지위 향상과 양성평등에 기여하는 국제인권규약에 부합', '사회 공동체간 상호존중과 시민 공동체의 원형을 제시'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어 세계 공통의 사회적인 삶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음
- 이는 '제주해녀문화가 가지고 있는 물질작업의 지속가능성, 약자에 대한 배려, 공익에 대한 헌신과 참여, 생태주의적 요소 등은 인류사회가 지향해야 할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임

▌가치 전승화 확산의 필요

- 제주해녀문화의 가치는 과거의 유산을 넘어서 공동체, 자연과의 조화, 양성평등 등 미래의 현대사회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에 살아있는 문화적 가치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단순한 문화유산의 보존을 넘어서 전승과 더불어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고 확산하

38)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서 내용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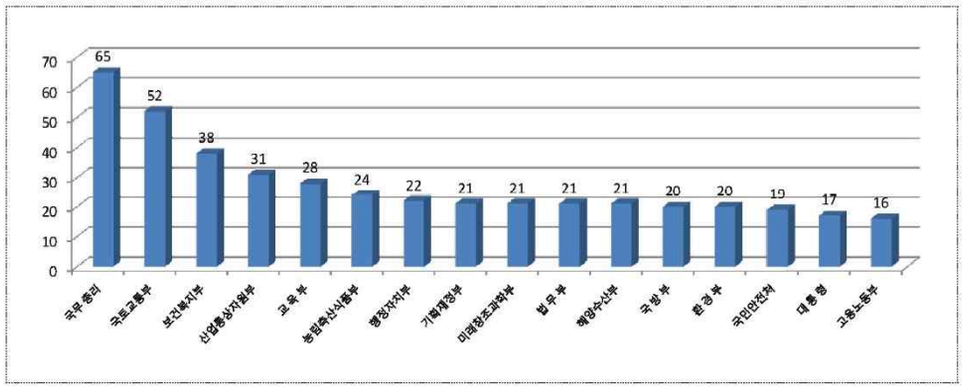
는 것이 필요함. 또한 UNESCO를 통한 인류 문화의 발전 이바지와 함께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러한 가치의 존중, 보존, 전승과 확산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와 계획이 반드시 필요함

- 이는 국정과제로서 제주해녀문화의 위상을 높이며 사회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중장기적 정책수립과 이에 걸맞은 기반, 예산, 인력, 사업의 구상이 필요함

2. 정부 차원에서의 행정기반마련

▌정부 위원회 설치

- 현재 법률과 대통령령에 근거한 총 549개의 행정기관위원회가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이 중 대통령,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행정위원회가 37개이고 자문위원회는 512개임
- 이 중 법률에 근거를 둔 위원회가 486개, 대통령령에 근거를 둔 위원회가 63개임
- 소속별 현황을 살펴보면, 대통령 소속이 17개, 국무총리 소속이 65개, 각 부처(소속기관 포함) 소속이 467개임



[그림 5-6] 소속별 위원회 현황 ('15.6월말 기준)

- 현재 대통령 소속위원회는 총 17개이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2개의 행정위원회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 청년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문화융성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등 15개의 자문위원회가 있음
-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의 경우 다수 부처가 관련되어 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이 필요한데 이 경우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함. 현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14개 행정위원회(대부분 과거사관련)와 51개 자문위원회를 포함 총 65개 위원회가 설치·운영 중에 있음
-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 중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음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유치지역지원위원회,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위원회, 군공항이전사업지원위원회, 문화다양성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제주특별

자치도지원위원회,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지원위원회, 새만금위원회

- 제주해녀문화는 그 자체의 종합적인 속성으로 문화재청, 해양수산부, 교육부, 여성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등 다양한 부처의 업무 및 역할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제주 해녀 정책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원회를 통해 향후 국가차원에서의 위상뿐만 아니라 예산 등 다양한 정책지원 등을 꾀할 수 있음

▌특별법 제정

- 특별법은 법의 효력이 특정한 사람이나 사항 및 특정지역에 한하여 적용되는 법임
- 관련 사례로는 광주광역시 소재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오송 소재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들 수 있음
- 제주해녀문화는 특정지역 및 특정인(단체) 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제주해녀지원 특별법(가칭)' 등의 제정을 꾀하여 제주해녀문화 뿐만 아니라 해녀 지속화, 해녀복지 및 환경 기반마련 등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3. 국가 유산 보존 및 활용 중심

▌국가 차원에서의 등재 및 보존

- 제주해녀문화[39]의 등재[40]는 '문화유산의 한 부분으로 공동체가 지속가능성과 협동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좀 더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 해양 생태학의 "전통적인 지혜의 보유자"로 인식할 것임
- 한편 '제주해녀문화의 등재'는 민속지식과 로칼 지식에 바탕을 둔 문화다양성을 촉진할 수 있음
- 또한 제주해녀문화가 보여주는 여성 중심의 독특한 경제문화는 동아시아를 획일적으로 남성중심 사회로 보는 시각과 대비되어, '인류의 문화다양성'을 보여줌
- 즉 살아있는 가치로서 문화유산의 의미와 함께 국내에 드문 해양문화 즉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지혜와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 유산임을 재확인할 수 있음
-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제2조(정의) 2항 무형문화재의 목록 중 제주해녀문화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는 물질 중심의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이라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다음에서도 제주해녀문화는 모두 관련되어 있음
  - 전통적 공연·예술 : 해녀 노래(민요) 등
  - 구전 전통 및 표현 : 해녀 굿의 본풀이 등 구전과 표현
  -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 해녀관련 의복, 음식문화 그리고 유·무형 생활 유산
  -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 해녀 신앙과 관련된 의식, 구조물(잠수굿, 해신당 등)

39)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서 내용 발췌
40) 여기에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의 등재를 의미하나 국가차원에서도 가치는 동일함.

– 전통적 놀이·축제 : 해녀 굿 등에 종합적으로 포함

• 따라서 타 무형문화재와 차별되게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요소가 모두 포함되는 삶의 양식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여 다른 지역의 해녀문화와 함께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등재가 당연시 됨

• 나아가 향후 국가차원의 종합계획의 수립이 필수적으로 필요함

▌기타 제도적 지정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된 보고서[41]에 의하면 기존의 「박물관 미술관 진흥법」을 개선하여 향후 현장박물관(On-site museum 혹은 Eco museum)을 양성화 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 기존의 제2종 박물관 구분에서 문화의 집을 삭제하고 대신, 제3종 박물관 유형으로서의 현장박물관 신설을 제안

– 현장박물관의 경우 마을주민들이 주축이 돼서 운영하기 때문에 제2종 박물관에 속하기 위한 조건인 자료의 수, 고용인력, 전시실·수장고, 시설 요건 등의 기초적인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진입장벽을 완화해야 할 것

– 제2종 시설에 포함되어있는 문화의 집의 경우 기능적으로 자료관, 사료관, 민속관, 문화관 등으로 중복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해야 함

– 그리고 「제3종 박물관 유형」으로서 유적·도시·마을 박물관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유형의 박물관 등록 기준 신설(미술관의 경우 도시·마을 미술관으로 유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을 제안하고 있음

<표 5-2> (신설) 제3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안)

유형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	학예사	시설
현장박물관 (유적박물관·도시박물관·마을박물관)	60점 이상	연구직 또는 준학예사 이상의 학예사 총 1명 이상	– 사적·명승·유적 등의 현장에 만들어진 전시·관림시설 – 유적, 유구 등을 이동·복원하여 야외에 만들어진 전시·관람시설 – 화재·도난 방지시설 – 온습도 조절장치
현장미술관 (도시미술관·마을미술관)	60점 이상	연구직 또는 준학예사 이상의 학예사 총 1명 이상	– 2,000㎡ 이상의 야외전시장 – 화재·도난 방지시설 – (필요시) 온습도 조절장치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현장박물관 활성화 방안 연구

• 이에 향후 법 개정과 더불어 제주해녀문화의 유산을 '현장박물관'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해야 함

41) 문화체육관광부, 현장박물관 활성화 방안연구, 2015, 134쪽

4. 기존 제도 개선

▌국가 법령 개선을 통한 해녀 위상 강화

- 수산업법 시행령 29조를 보면 다음과 같음
  - 제29조(신고어업)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나잠어업(裸潛漁業):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호미·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2. 맨손어업: 손으로 낫·호미·해조틀이 및 갈고리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 국가어업유산1호이며 유네스코 등재 인류유산(향후)로서 해녀의 가치 및 위상을 고취하기 위하여 과거 일제 강점기 용어인 '나잠어업'이라는 용어를 '해녀' 혹은 '전통잠수어업'으로 개정하여 해녀 직업의 위상을 제대로 자리잡게 할 필요가 있음

5. 공감대 확대(해녀의 날 지정, 해녀축제 국가행사 확대)

▌제주해녀 관련 행사의 확대

- 제주해녀 축제의 경우 현재까지는 제주도가 중심이 되어 개최되지만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등재 이후에는 바깥물질을 나갔다가 현지에 정착한 '출향해녀' 및 현지 '지방해녀'의 문화가 함께 모여 제시되고 공감할 수 있는 전국차원의 축제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나잠어업의 전통이 있는 국가의 전승자들과 교류하고 공감,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제주해녀문화의 가치가 공유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국제 협력의 지원이 필요함
- 중장기적으로는 유사한 전통이 있는 국가 및 지역과 순회 및 교류 축제로서 태평양 및 아시아권의 대표적인 해양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유네스코,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및 해외문화홍보원, 해양수산부 등의 협력을 꾀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국내 해녀문화의 종합, 유사 전통 보유 국가/지역의 참여유도, 순회 축제로 발전, 학술-공연-전시-체험 네트워크 축제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제주 해녀의 날 제안[42)]

- 제주해녀문화의 국가차원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등재 이후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등과의 협력을 통해 '해녀의 날' 지정 제안
  - 이와 관련된 유사한 사례로는 바다의 날, 문화의 날 등이 있음
- 이는 타 인류문화유산과 달리 다양한 분야에서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내포하고 있으며 더불어 미래의 가치를 제시하기에 국가차원에서의 기념일 추진을 제안함
  - 사례) 바다의 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바다 관련 산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국민의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관계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제

42)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지정을 넘어 유네스코 등재 이후 국가지정 검토 필요

정된 기념일임. 5월 31일을 '바다의 날'로 정한 것은 장보고(張保皐)가 청해진을 설치한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며 '바다의 날'은 21세기 해양시대를 맞아 해양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국제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국내적으로는 국민의 해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에서 1996년 제정함. 추가로 해양수산부는 매년 5월10일을 바다식목일로 지정하고 있음

- 사례) 문화의 날: 문화기본법 제12조(문화행사) ① 국민의 문화 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문화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10월을 문화의 달로 하고, 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문화의 날로 함(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동시 명시). 일본의 경우 '바다의 날'과 '문화의 날'은 공휴일임

▌제주해녀문화 교과서 수록 제안

• 초등학교 교과서 수록을 통한 제주해녀문화 가치 확산 및 공감대 형성

6. 국제교류 후원(국제 및 유네스코 심포지엄 등 행사)

▌제주해녀문화의 네트워크 및 교류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 제주해녀문화의 교류와 확산을 위하여 외교부와 국제교류재단, 교육부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외문화홍보원, 문화재청과 아태무형유산센터 등과 연계하여 해외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7. 해녀박물관 관련 기반 지원

▌제주해녀박물관의 기능 및 역할 확대 방안 지원

• 제주해녀박물관은 유네스코 등재 이후 제주도청과 함께 제주해녀문화 전승과 보존에 중심 역할을 할 것이지만 현재 인류무형유산의 가치로서 확산역할을 하기에는 기반, 제도, 예산, 인력 등에서 어려운 점이 다소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 차원에서의 노력이 중요하며, 국가차원에서도 다음과 같은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및 향후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지정을 통한 국고보조 확보
- 국가차원에서의 종합계획 수립과 함께 문화재청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특별자치도 보조금) 확대
- 재단법인 진흥원 등의 설립과 기금 출연 시 국고보조금 확보
- 국립기관(박물관 등)으로의 승격: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및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기관화 방안 고려
- 해양수산부의 독도연구센터 등과 같이 특별지역의 특별목적에 관한 연구기관 및 진흥기관 설립 유도(주요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과의 연계도 가능)

• 나아가 전문인력의 경우 지역 혹은 기존의 전문인력이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이 사전에 마련될 필요가 있음

8. 전승 및 연구사업 지원 및 협력(인프라, 사업, 예산, 인력 등)

▌유네스코 등재와 함께 다양한 국비 사업 협력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을 중심으로 하여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관광국과 타 국의 다양한 사업발굴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해양수산부, 교육부, 여성부, 외교부 등의 적극 협력 추진
- 제주해녀문화 전수 기록화 사업, 지리적 확대를 통한 국내외 관련 조사연구·발굴사업 추진, 제주해녀관련 유산(불턱, 해신당 등) 자원화 사업 등 적극 추진
- 제주해녀들이 물질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보호조치는 주로 해양수산부가 주관해야 함. 제주해녀문화의 가치 중 가정경제의 주체적 역할과 양성평등주의는 새로운 여성역할의 모델로서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고, 그리고 제주해녀문화가 가지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치에 대한 교육은 교육부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43]해야 함
- 국가 지원을 통하여 제주 해녀관련 콘텐츠 제작, 홍보 및 전파 지원(국외 국제교류재단, KBS 월드 및 아리랑 TV 등 활용)
- 영상관련(다큐멘터리 등) 주요 국제 행사 진출 지원 등의 문화사업 및 홍보사업 추진
- 한국연구재단 및 국제교류재단을 통하여 해외에 왜곡되거나 축소되어 알려진 제주해녀 관련 출판물, 논문 및 디지털 문건 등에 대한 전수조사, 조사 이후 관련 사실에 대한 학술적 대응관련 국가사업 추진 요구
- 별도로 국제 수준의 다국어를 통한 제주해녀관련 종합 연구를 보여주는 저작물 발간(학술용과 일반용 포함), 동시에 제주 해녀 연구와 연구 관련 국제 행사 및 학술대회 진출을 위한 예산(기금 등) 마련(예: 제주해녀문화연구기금)

[그림 5-7] 해녀 다큐 영화 '물숨'

43)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서 내용 발췌

• (사)제주해녀문화연구원 등의 민간 기존의 연구, 사업 단체를 통해 해녀 현황연구 및 해설사 양성, 홍보책자 등의 발간을 거버넌스를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음

제 3 절 제주특별자치도 차원 정책 구상

1. 제주해녀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제주도 旣 추진 계획[44)]

▌추진계획

• 제주해녀문화사업 활성화

– 출가 제주해녀 생활 실태 조사 및 보고서 발간(한반도, 일본)

– 제주해녀 국제 세미나 개최

– 일반인 대상 전문가 강좌를 통한 해녀박물관 대학 운영

• 제주해녀 세계화 및 홍보사업

– 여성생태 축제로의 제주해녀축제 활성화

– 제주해녀 구글 서비스 등 해외 홍보 활성화

– 제주해녀 공연, 체험 활성화

▌연차별 추진계획

<표 5-3> 제주해녀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연차별 추진계획
2016년	• 유네스코 등재신청 후 활성화 방안 수립 •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 일본 출가 해녀 생활실태 조사 및 보고서 발간 • 제주해녀문화 국제세미나 개최 • 제2기 해녀박물관대학 운영(일반인 대상 전문가 강좌) • 제9회 제주해녀축제 개최 • 제주해녀 공연 및 해녀체험 활성화
2017년	•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 기념우표 발행 • 제주해녀의 날 제정 • 제주해녀의 사계(四季)조사 및 보고서 발간 • 제주해녀문화 국제세미나 개최 • 제3기 해녀박물관대학 운영(일반인 대상 전문가 강좌) • 제10회 제주해녀축제 개최 • 제주해녀 공연 및 해녀체험 활성화
2018년	• 제주해녀의 날 기념식 개최 • 제주해녀문화 국제세미나 개최 • 제4기 해녀박물관대학 운영(일반인 대상 전문가 강좌) • 제11회 제주해녀축제 개최 • 제주해녀 공연 및 해녀체험 활성화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과, 제주해녀문화 계승·발전

44)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과, 제주해녀문화 계승·발전 내용 발췌

▌연차별 투자계획

• 재원별

<표 5-4> 제주해녀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연차별 투자계획(재원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기투자	임기내				임기후
			소계	2016	2017	2018	
계	4,400	1,740	2,660	610	670	690	690
도비	4,400	1,740	2,660	610	670	690	690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과, 제주해녀문화 계승·발전

• 단위사업별

<표 5-5> 제주해녀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연차별 투자계획(단위사업별)

(단위 : 백만원)

구분	구분	계	기투자	임기내				임기후
				소계	2016	2017	2018	
계		4,400	1,740	2,660	610	670	690	690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등재	소계	470	170	300	70	130	50	50
	도비	470	170	250	70	130	50	50
제주해녀문화 사업 활성화	소계	880	400	480	170	170	70	70
	도비	880	400	480	170	170	70	70
제주해녀 세계화 및 홍보사업	소계	3,050	1,170	1,880	370	370	570	570
	도비	3,050	1,170	1,880	370	370	570	570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과, 제주해녀문화 계승·발전

▌관련 기관 협조

• 제주해녀문화의 지속적 계승을 위한 문화재청과의 협력체계 구축

• 제주해녀축제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의 적극적 참여 유도

▌기대효과

•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를 통하여 문화도시로의 제주브랜드 가치 제고 및 전·현직 1만여 제주해녀의 자긍심 고취

• 제주해녀의 생태여성문화를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가치로 활용

2. 제주해녀문화 가치 확대 및 선양사업

▌유네스코 등재신청 후 활성화 방안 수립

• 제주해녀어업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

– 유산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 계획 수립 용역 추진

· “제주해녀어업” 대한민국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호 지정(‘15.12.16)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2016),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지정(2017) 추진

- 제주해녀축제 및 국제학술 대회 개최로 등재 역량 강화
- 제주해녀문화 중장기 발전 방안 종합계획 수립으로 등재 이후 세계적 문화 아이콘 및 제주문화 발전 모델 구체화

▌제주해녀 등재 홍보 및 선양사업

-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등재의 가치를 선양하는 다음과 같은 사업 추진

– 어촌계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기념마크 설치

– 등재 기념 비 제작 및 제막

▌제주해녀 대상 가치 전승 정책

- 제주해녀 헌장을 제정하여 해녀차원에서 전통적 가치 고취의 기반을 마련
- 제주해녀 정신적 가치관련 교육을 통해 과거의 공동체, 삶의 가치, 자연과 공생의 가치에 대한 재확인

– 건강 및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강좌 등과 연계하여 참여확대 유도 필요

- 입문 해녀 대상 제주 해녀의 전통적 가치(이웃과 상생, 자연과 공생) 교육 실시필요

▌제주해녀 가치 확대 정책

-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소 설치(현재 제주특별자치도만 제외, 강원도 준비 중) 및 ‘해녀 정신’을 통한 인권교육 실시

– 초중고, 군인, 공무원, 경찰 의무교육 시 해녀정신 교육 반영

-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교육을 제주도 차원에서 실시

– 해녀정신을 통해 양성평등교육실시

3. 전승 및 관련 인력 양성

▌해녀의 전통적인 가치 확보를 위한 노력

- 사회, 공동체 그리고 자연과 공생하는 전통적인 해녀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하여 ‘해녀 가치 관련 교육과정’과 ‘해녀헌장’의 제정을 추진함

▌해녀 학교 확대 및 어촌계 입회 정책 연계 추진

- 해녀 고령화로 인해 해녀수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신규 해녀 양성을 위한 가입 조건 완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해녀 축소의 문제 해결과 지속화를 위해서는 해녀의 양성과 양성된 해녀의 실제 현업의 종사연계가 중요함

- 과거의 혈연과 지역공동체 배출의 경우 한계가 있으며 향후 낮은 연령대의 다양한 계층에서의 해녀의 지속적인 유입과 확대가 필요한 시점임
- 양성 뿐만 아니라 고령화, 입회의 어려움 및 직업으로서의 지속성의 어려움이 있는 현실에서 현재 제주에서는 한수풀 및 법환에서 해녀양성과정(해녀학교)이 운영되고 있음
- 법환해녀학교의 모델의 경우 서귀포시, (사)제주해녀문화연구원 그리고 서귀포, 모슬포, 성산포 3개 수협 44개 어촌계 협력 모델이 향후 미래를 준비하는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법환해녀학교의 경우 해녀, 해녀해설사를 동시에 양성하고 있어 '직업'으로서의 해녀뿐만 아니라 문화전문가(해설사)로서의 전문가 양성을 준비하고 있어 유네스코 등재이후 해녀 및 해녀문화 확대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의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함
  - 지자체, 전문가, 어촌계(수협)의 협력구조의 해녀학교 4개 권역으로 확대 (2개 학교 확대)
  - 해녀학교와 어촌계 해녀 준회원 양해각서 유도를 통해 현업 연계 도정책으로서 추진하여 제도화(병행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어촌계 정관(예) 개정을 위한 중앙절충 강화)
  - 도시민 대상 해녀학교 양성과 선주민 대상 순회교육을 병행하여 신규 인력양성에 집중
  - 해녀 문화해설사 동시 양성을 통해 해녀연구와 현황조사가 지속되어야 함

▌해녀 안전방안 마련

- 해녀 고령화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한 정년제 도입, 대체 소득 창출방안 등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 검토
- 안전장비 지원 및 잠수 작업시간 줄이기 운동 추진, 고령 잠수 조업 자제 유도

4. 제주해녀 축제 확대사업

▌여성생태 축제로의 제주해녀축제 활성화

- 제주해녀축제 세계화 방안 마련
  - 국내외 독특한 직업의 여성을 초청하여 서로간의 교류 및 교감을 통해 화합의 장을 만드는 기반 마련
  - 세계 여성들의 지위향상
  - 남성과 동등한 역할을 하는 여성 이미지 확산
  - 해녀뿐만 아니라 직업, 전문직, 문화예술체육 및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들의 참여 유도

▌제주해녀 축제 프로그램 다양화 방안 마련

- 일반인 대상

- 해녀배 핀수영대회, 바릇체험, 물질체험, 불턱음악제, 다양한 여성들만의 직업체험
- 해녀영상 공모전, 해녀문학상

• 해녀 대상

- 해녀굿, 물질대회, 테왁수영대회, 소라까기

• 여성 특화

- 활발한 사회, 전문 활동을 하는 여성 대상 전시, 강좌 및 교류의 장 마련

▌축제 및 행사 공간 정비 사업추진

45)

[그림 5-8] 해녀박물관

• 제주해녀박물관 축제 및 행사 장소 정비 필요

- 유네스코 등재 이후 다양한 행사와 사업의 추진을 고려할 때 공간 관련 스트리트퍼니쳐(옥외 조경물) 및 구조물, 편의 공간이 매우 부족하며 박물관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조경계획과는 거리가 있음
- 이에 옥외공간 정비 관련 계획 및 추진을 통해 박물관의 위상과 제주해녀문화의 위상을 동시에 기념하며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조경비 산정

- 해녀박물관 전체 부지의 면적은 85,951㎡이며, 건축물(해녀박물관) 면적은 4,002㎡로 이를 제외한 조경면적은 81,949㎡로 나타남

45) 사진: 해녀박물관 홈페이지

– 조경비 산정의 기준은 '2015년 단지개발사업 조성비 추정 기초자료의 단위 공사비'의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함

<표 5-6> 투자계획비

구분		건축연면적 (㎡)	단가 (㎡/원)	투자비 (백만원)	비고
기반시설공사비	토공	81,949	10,920	895	
	조경공	81,949	16,200	1,328	
총계				2,223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2015년 단지개발사업 조성비 추정 기초자료의 단위 공사비

5. 체험관광 및 홍보 기반 마련

▌해녀생태유산 복구 및 정비

• 해녀생태길, 보존가옥, 불턱, 용천수, 해수욕장, 비석거리 등을 복원·재정비하여 방문객의 체험공간 및 관광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해녀 할망 민박확대 정책 추진

• 비어 있는 전통 가옥 '밖거리' 등 정비 예산 지원

• 해녀 민박 소개 프로그램 및 온라인 플랫폼 개발

• 해녀 마을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 상품 개발 (어촌계와 협력)

– 제주올레 '할망민박' 사업 연계(현재 숙소가 없는 시골 마을에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남는 방을 이용해 숙소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 서귀포시청과 함께 11개의 할망숙소 지원 중[46])

– 민박 개보수관련 제주관광기금 융자 혜택 포함(관광객이용시설 개보수자금 지원 현재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해당 관광사업자 또는 예정자 민박포함)

▌제주해녀 관련 SNS 페이지 구축 및 홍보마케팅 활성화

• 페이스북, 트위터 등 스마트폰을 통한 SNS(Social Network Service)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제주해녀 관련 SNS 페이지 구축 및 활성화를 통해 방문객들과 지속적인 소통이 가능하도록 함

• 일반적인 관광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재치있는 댓글과 이벤트 등의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를 가미하여 이용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

46) http://www.jejuolle.org/ 발췌

[그림 5-9] SNS 홍보이벤트 사례

<사례 : 고양시, 고양이가 운영하는 SNS>

- 고양시는 시민의 특성을 살려 시민에게 부담없이 다가가기 위해 '고양이' 캐릭터 로고를 제작하고 고양이를 의인화한 ~고양 어투의 고양체로 인지도를 높임
- 현재 페이스북 구독자 118,370명으로 지자체 페이스북 팬 수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고양시에 국한되지 않고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음
- 고양시 페이스북 '좋아요' 8,000건 돌파기념 고양 시장의 고양이 분장 공약과 부시장이 직접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시간을 통해 직접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등 신선한 SNS이벤트로 소통에 앞장서 큰 화제를 모음
- 고양이가 고양시 곳곳을 돌아다니는 홍보동영상 '진격의 고양시'와 작사, 작곡까지 직접 제작한 홍보뮤직비디오 'Go 고양' 등을 제작하여 유투브에서 17만 건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함

[그림 5-10] 고양시 SNS 홍보이벤트 사례

▌해녀 관련 스토리텔링 및 영상 출판 사업 확대

• 사례 : '제주문화원형을 주제로 한 문화콘텐츠 공모' (제주문화예술재단)

[그림 5-11] 제주문화원형을 주제로 한 문화콘텐츠 공모 사례

• 사업내용

□ 공모주제

○ 제주문화원형 활용, 제주문화자원을 주제로 한 문화콘텐츠 공모

□ 공모분야

○ 캐릭터, 문화상품, 영상콘텐츠, 멀티미디어콘텐츠 등 제한 없음(단, 시나리오분야 제외)

□ 2016 시상내역(상장 및 상금)

○ 대상(1명) : 금10,000,000원

○ 최우수상(1명) : 금5,000,000원

○ 우수상(2명) : 각 금2,500,000원

– 해녀 문화에 집중한 원형소재로 한 콘텐츠 공모 별도 추진 및 실시

– 어린이 대상 해녀주제 우수 도서 선정 및 지원(외국어 포함)

• 도 차원 지역의 역사와 설화 등에 대하여 조사·정리하여 세시풍속, 해안지명, 해녀, 물옷, 속담, 돌담 등을 이용한 분야별 콘텐츠 제작 지원

– 공식 안내 및 자료집 및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번역본 발간

– Youtube 등 연계 가능한 공식 소개 영상 제작

– 도 차원에서 해녀관련 어린이 설화 연계 뮤지컬 제작

[그림 5-12] 사례 국립국악원 뮤지컬 오늘이(제주 설화주세)

6. 소득확대 기반 마련

▌해녀 직영 음식점 브랜드화 및 해녀문화 연계 방안

• 해녀 직영 음식점의 도 차원 관리 및 지원 방안을 마련

• 가격 및 품질 개선을 통한 인증제도 도입 및 인테리어 등 지원

• 해녀 관련 기념품 연계 판매

[그림 5-13] 해녀 직영 음식점

▌사례: 타 지자체 식당 인증제도

• 서울 안심 먹을거리

– 서울 안심 먹을거리 인증제도는 200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27조(식품안전 통합인증제의 운영)에 의하여 시장은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단계에 이르기 까지 식품의 안전성을 유지 및 향상시키기 위해 그 안전성이 검증된 업체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로(식품안전통합인증제) 서울시가 식품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대한 식품안전성을 인증하여 시민들에게 우수한 안전식품을 편리하게 구입하고 소비 할 수 있게 하며 외식업소에서는 높은 품질의 안전한 식품을 생산의욕을 고취하는 제도임

– 식당 인증을 받은 업체들은 매우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인증업체들은 인증과정을 통해 스스로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어 업체들의 위생관리능력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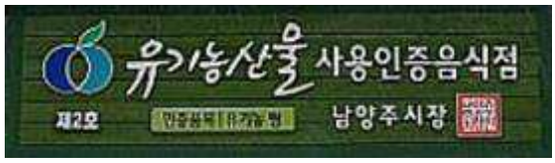
[그림 5-14] 서울안심먹을거리인증마크

• 남양주시 유기농산물 사용음식점

– 경기도 남양주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유기농산물을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해 2009년 6월 10일 유기농산물 사용인 음식점 5곳을 선정하여 인증제를 추진하였으며 남양주시 유기농산물 사용 음식점 인증 및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였음

–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 3조 규정에 따라 남양주시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시민들의 보건 증진을 위해 유기농산물을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소의 인증과 지원에 대해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림 5-15] 남양주시 유기농산물 사용음식점 인증마크

▌해녀 상품 브랜드 개발 및 인증

- 천초, 톳, 도박, 소라 등의 해녀 관련 각종 해산물을 이용한 식품을 개발하여 관광지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그림 5-16] 제주지역 특산물(사례)

▌제주해녀를 활용한 콘텐츠 상품 개발

- 제주해녀를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를 제작하여 식기, 소품, 의상 등 다양한 콘텐츠 상품을 개발함
- 제주해녀와 관련한 공예품 등 문자 체험에서 이루어지는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캐릭터 상품화함
  - 벨롱 장터 참여 공예인 등 대상 공모전 추진
  - 해녀 관련 관광상품 주문 제작 및 판매

7. 해녀 축제 확대 방안

▌제주해녀축제 개요

- 2016년 제9회를 맞은 제주해녀축제는 해녀박물관 및 인근 해안변일원에서 개최되며 2016년의 경우 9.24~25(토, 일) 거리퍼레이드로 시작되어 어업요/해녀노래, 테왁만들기, 해녀굿, 메역조문공연, 체험관, 원담광어 맨손잡이, 새내기해녀 물질대회, 해녀문화해설 등으로 이루어짐
- 해녀가 직접 참여하는 1일차 오전 거리퍼레이드, 노래 등과 새내기해녀대상 물질대회와 해녀가 즐길 수 있는 가요제, 마당놀이, 음식점, 시식회 등이 함께 진행되며 도민, 관광객 참

여 가능한 플리마켓, 보말까지, 박물관의 사진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됨

[그림 5-17] 제주해녀축제

▌예산 및 프로그램 확대

- 제주해녀축제는 현재 해녀를 보여주고 해녀가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장소, 예산 등의 문제로 보다 비중있는 축제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대가 필요함
  - 축제 운영을 위한 해녀, 주민, 전문가 협의체 및 실행위원회 조직구축
  - 국내외 해녀의 참가 및 연대를 위한 프로그램
  - 전통 해녀문화 중심의 프로그램(해녀 문화체험 루트 축제기간 운영)
  - 해녀 중심으로 즐길 수 있는 '굿'과 연결된 난장 개발
  - 관광객 체험관련 기반(물리적, 프로그램 및 해설사) 확대
  - 학술대회 및 전문가 대회 연계
- 한편 이러한 확대를 위해서는 도차원 뿐만 아니라 국가차원 지원이 필요함(현재 국가지원은 문화관광축제: 관광기금, 공연예술축제: 문예진흥기금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국가정책의 개선도 동시 필요함)

<표 5-7> 2016년도 주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축제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축제명	축제주요내용	2016 축제예산				
		소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강릉단오제	– 단오제 지정문화재 행사 및 경축부대행사 – 12개분야 78여개 프로그램	1,671	100	45	1,286	240
정선아리랑제	– 아리랑제전, 민속행사, 문화행사, 체육행사, 관광객체험행사 등	853			853	
봉원사 서울연꽃 문화축제	– 도심속 산사음악회 – 영산재, 연꽃퍼포먼스, 국악한마당 – 한지공예, 연꽃페이스페인팅 등 체험프로그램	48	10		25	13

축제명	축제주요내용	2016 축제예산				
		소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기지시 줄다리기 민속축제	– 줄다리기(줄고사, 줄나가기, 줄다리기 등) – 줄다리기를 테마로한 줄다리기대회 (읍면동 줄다리기, 스포츠줄다리기, 어린이 줄다리기 등) – 제례행사, 각종 체험행사 및 민속놀이 경연대회	456		56	400	
제주해녀축제	– 제주해녀국제학술대회 – 해녀굿(좀수굿) – 제주해녀유테스코등재기원퍼포먼스 – 해녀물질대회, 테왁수영대회 – 해녀문화해설트래킹, 불턱가요제등	300		300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6 지역축제 및 문화관광축제

8. 해녀학교 발전 방안 마련

▌해녀학교를 물질체험학교와 해녀양성학교로 이원화

- 예를 들어, 기존의 한수풀은 물질체험학교의 성격이 강하고, 법환잠녀마을은 해녀양성학교의 성격이 강함
- 한 학교에서 2개의 교육과정(물질체험과 해녀양성)을 개설하는 것은 인력/재정/시설면에서 부적합하므로 이원화 방안이 마련되어야함

▌각 어촌계 별로 해녀양성학교인 <불턱해녀학교>를 설립

- 졸업생을 그 어촌계의 계원으로 받아들여 실제로 해녀가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녀학교 개설을 원하는 각 어촌계 별로 해녀양성학교인 <불턱해녀학교>를 설립
- 또한, <불턱해녀학교>는 소규모로 운영하되, 교육프로그램과 강사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음

▌해녀학교 교육프로그램의 체계화와 강사구성의 전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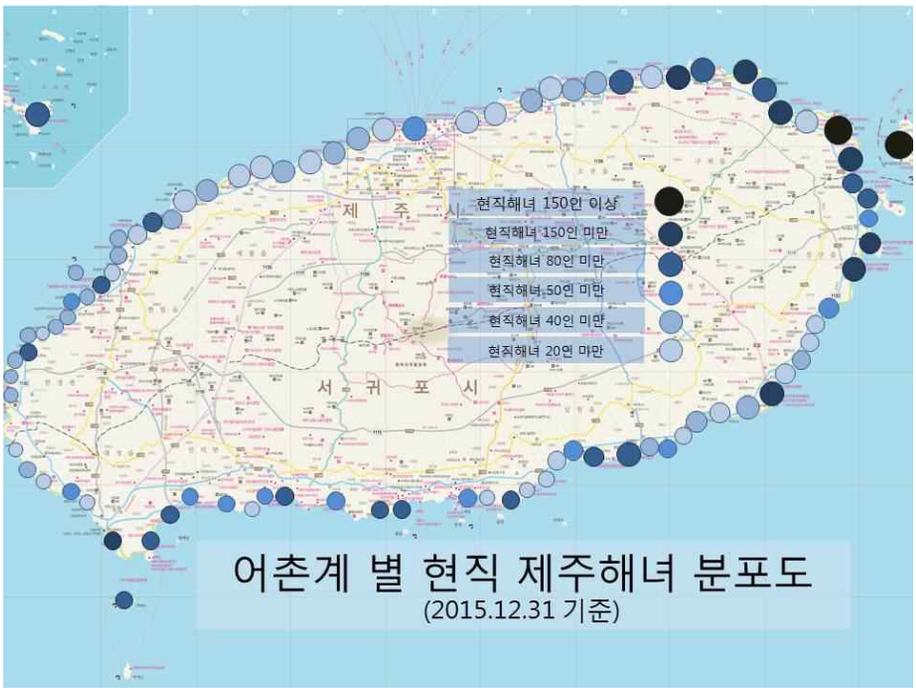
- 해녀, 어촌계장, 다이빙강사, 해양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강사풀을 만들어 기존 해녀학교의 교육프로그램을 평가하여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모든 강의는 해녀와 교육전문가(다이빙 강사, 해양전문가 등)가 2인 1조가 되어 해녀가 몸으로 배운 지식 및 기술을 보다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지식 및 기술과 접목하여 강의를 진행함

제 4 절 해녀박물관을 통한 제주해녀문화 거점 방안 마련

1. 해녀박물관의 발전 가능성

▌해녀박물관의 발전가능성

- 제주해녀문화 생태의 중심지(주변 주요 해녀관련 유산): 세화리, 상도리, 하도리, 종달리 인근 불턱(서동불턱 등), 해신당(생개납돈짓당, 각시당 등), 갯담, 공동창고, 별방진성, 각시당, 영등바당 등이 있어 해녀문화를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여건. 순비기나무, 우묵사스레피 등 해녀문화관련 자연생태 체험도 가능
- 또한 해녀박물관은 제주의 해녀 최다 밀집지역의 중심에 해녀박물관이 위치하고 있어 살아있는 제주해녀문화의 체험이 가능함



[그림 5-18] 어촌계 별 현직 제주해녀 분포도

▌해녀박물관과 제주 관광

- 문화체육관광부 2016 주요관광지 방문 통계[47]에 의하면 해녀박물관 및 주변 주요 관광지 방문객은 다음과 같음

47)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6 주요관광지점입장객 통계

<표 5-8> 해녀박물관 및 주변 주요 관광지 방문객

군구	관광지	방문객수
제주시	만장굴관광지	333,559
	민속자연사박물관	498,133
	해녀박물관	66,632
	국립제주박물관	172,934
서귀포시	성산일출봉	1,1639,857
	중문 주상절리대	904,137
	천지연폭포	953,259
	아쿠아플라넷	614,703

- 즉 제주해녀박물관은 현재 주요 최대 관광지인 성산일출봉 및 아쿠아플라넷, 만장굴 등과 매우 인접하고 있으며 특히 향후 성산포 공항의 건립이후 제주의 최대 거점 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장점이 있음
- 따라서 유네스코 등재, 공항 건립과 더불어 향후 제주의 주요 문화관광 거점의 위치와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
- 국토교통부[48]는 2015년 11월 10일 서귀포 신산리 지역에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발표

[그림 5-19] 제2공항

-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설계 등의 절차를 조속히 시행하여 '25년 이전 새로운 공항을 개항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
- 제2공항은 해녀박물관에서 14km 떨어져 위치해 있으며, 자동차로 약 24분 소요됨
- 향후 해녀박물관과 인근 제주해녀문화 관련 장소와 인접하며 향후 관광의 거점이 될 가능성이 깊음

48) 제주 서귀포 신산에 제2공항 건설 추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5.11.10

2. 해녀박물관 기능과 역할 확대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으로서 국제적 기능역할 담당 필요성

- UNESCO 등재 이후 정부가 약속한 사업 및 국제적이고 국가차원에서의 유산의 전승과 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주 해녀박물관이 사업추진 및 개발, 운영, 교류 및 연구/조사 등의 거점이 될 필요가 있음
- 현재 전국의 지자체 박물관 중에 매우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래의 평가와 같이 무형유산의 지식과 기술의 지속적인 재창조와 전승의 구심 역할의 부여를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함

> – 천진기 국립민속박물관장은 제주해녀에 대한 평가 세분화와 그에 맞춘 접근으로 문화유산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49] "제주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전제한 천 관장은 "'해녀'를 구성하는 것이 다양한 만큼 제주도 차원에서 호흡을 맞춰야만 유산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해녀박물관과 해녀학교 프로그램 등에 있어 긍정적 평가를 했다. 다만 유네스코 등재와 후속작업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 – 천 관장은 "무형유산의 가시성 확보와 향유라는 점에서 해녀박물관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지금처럼 무형문화유산과 연관된 '유형의 것' 보다는 이를 보호하는 지식과 기술의 지속적인 재창조와 전승에 있어 구심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 이어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시행에 들어간 일련의 과정을 볼 때 문화와 해양산업 관련 부서의 '협업'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제주도가 전승하고자 하는 것이 해녀를 중심으로 한 '나잠어업'인지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산적 가치의 확대인지 그 기준이 분명할 때 후속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유네스코 기준에 맞춰 제주해녀 공동체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하는 작업에도 관심을 둬야 한다"며 "대표목록 등재가 다른 무형유산보다 '우월하다'는 인정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이해가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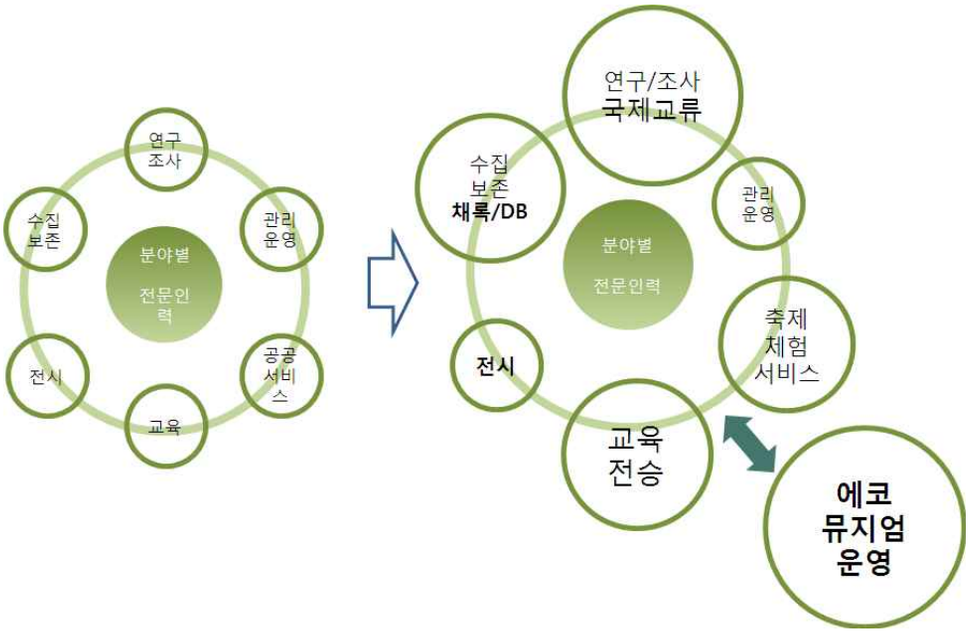
▌해녀박물관 현황 고려 기능 확대 필요성 및 방안

- 현재 기반, 운영상황 및 조직구조의 경우 1종 박물관으로서의 등록 및 운영 요건에는 만족하나 향후 제주 해녀의 종합적 가치를 제시할 종합박물관으로서 실질적인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종합박물관으로서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박물관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강연회·강습회·영사회(映寫會)·연구회·전람회·전시회·발표회·감상회·탐사회·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간행물·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과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등[50]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이며 또한 보다 폭 넓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제주해녀문화에 적합한 중장기적인 '에코 뮤지엄 운영'의 부분과 제주해녀문화의 종합적인 성격에 대한 역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박물관에서 보다 더욱 큰 범위의

49) 기획연재 제주해녀 미래 성장 동력으로 '*글로벌+로컬 무형유산 관리 체계의 꽃 피우다*', 제민일보, 2016.6.1
50) 현재 여건에 비해 우수하게 진행이 되고 있으나 향후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역할이 필요함.

역할이 필요할 수 있음

-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향후 미래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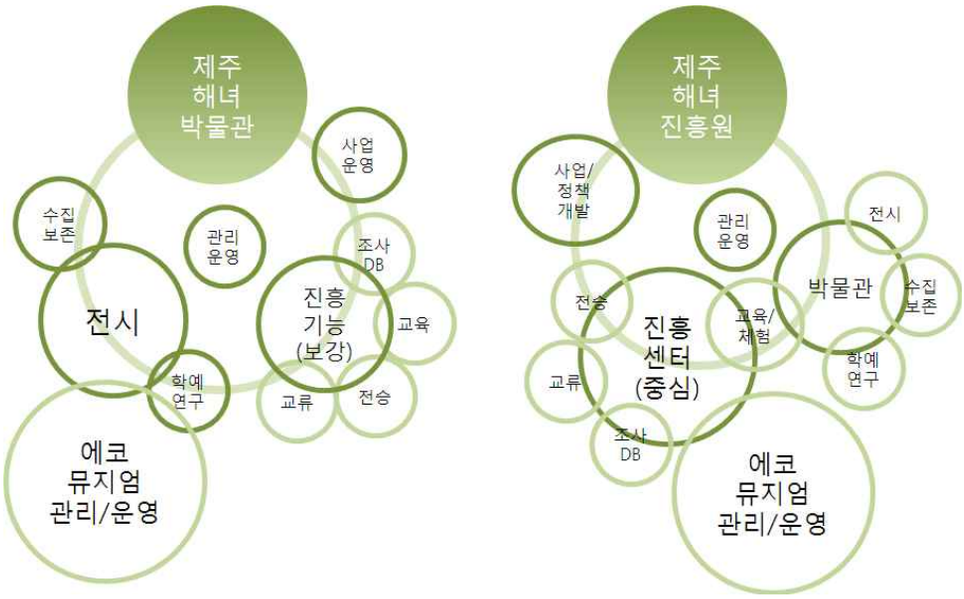


[그림 5-20] 해녀박물관의 기능 확대

- 일반 박물관의 기능인 수집/보존, 전시, 연구/조사 등에서 나아가 연구/조사/국제교류 측을 보다 확대하며, 또한 제주해녀문화의 지속적인 전승을 위한 교육/전승 부분의 확대 그리고 공공서비스에서 축제 및 체험 부분의 확대, 나아가 수집/보존의 특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속 혹은 연계시설로서 에코뮤지엄 운영의 부분을 포함하는 역할이 필요함

▌기능의 확대를 위한 대안

- 좌측의 경우 기존의 박물관 중심의 기능에서 다소 특수 분야가 확대된(진흥기능보강, 에코뮤지엄 신설 등) 개념이며 우측의 경우 사업이 중심이 되는 진흥기관(가칭: 진흥원)의 조직 개념을 예시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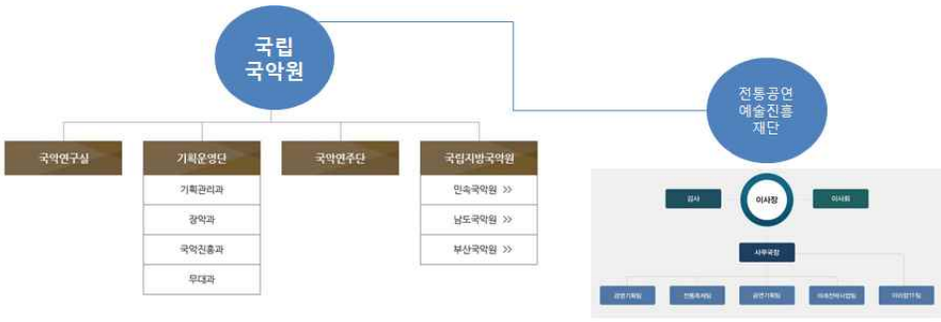


[그림 5-21] 기능확대를 위한 대안

▌국내 유사 사례

[그림 5-22] 국립중앙박물관과 박물관문화재단 조직

- 박물관 중심의 확대 방안에서는 기존 조직에서의 추가 역할의 신설 및 확대를 고려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도청 내 소속기관에서의 역할에서의 한계가 사업진행에 있어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현재 국립중앙박물관과 연계된 박물관문화재단 혹은 국립국악원과 연계된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설립되어 운영되는 사례를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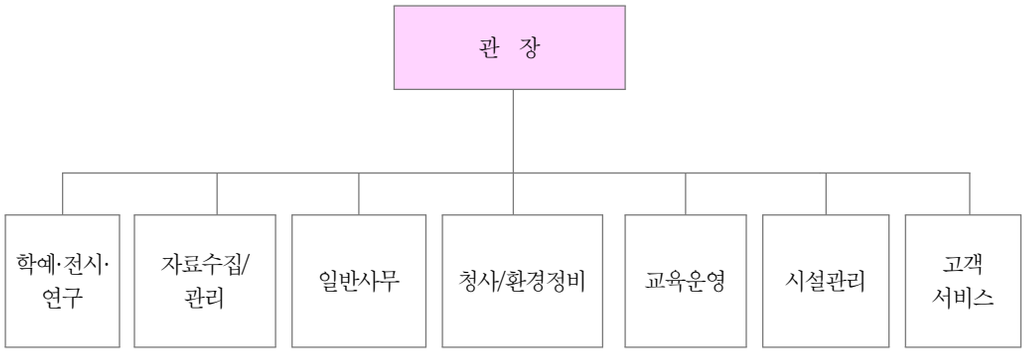


[그림 5-23] 국립국악원과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 제도적으로는 박물관문화재단 및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각 소속기관(중앙박물관 및 국악원)과 분리되어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재단법인이지만 실제 활동은 각 소속기관의 주요 사업의 진행, 운영, 추진을 맡고 있으며 동시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형식의 제주해녀박물관과 별도의 진흥기관이 있을 경우 박물관의 직접적 관리기관은 아니면서 사업의 연계 그리고 우선적으로 해양수산국 사업의 추진이 가능한 구조로 볼 수 있는 사례임

3. 해녀박물관 조직 확대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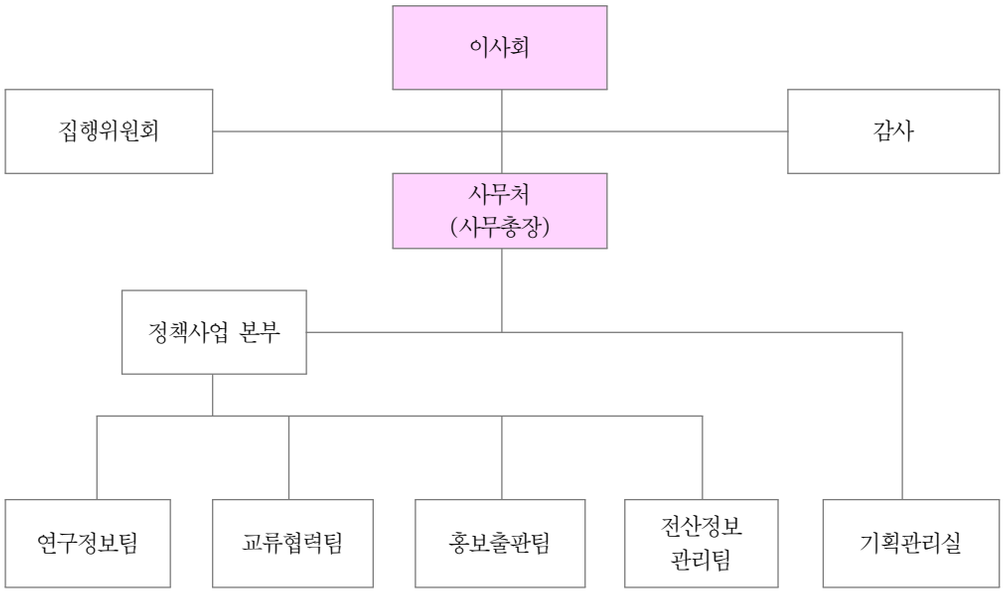
▌조직 확대방안 필요성



출처 : 제주해녀박물관, http://www.haenyeo.go.kr

[그림 5-24] 제주해녀박물관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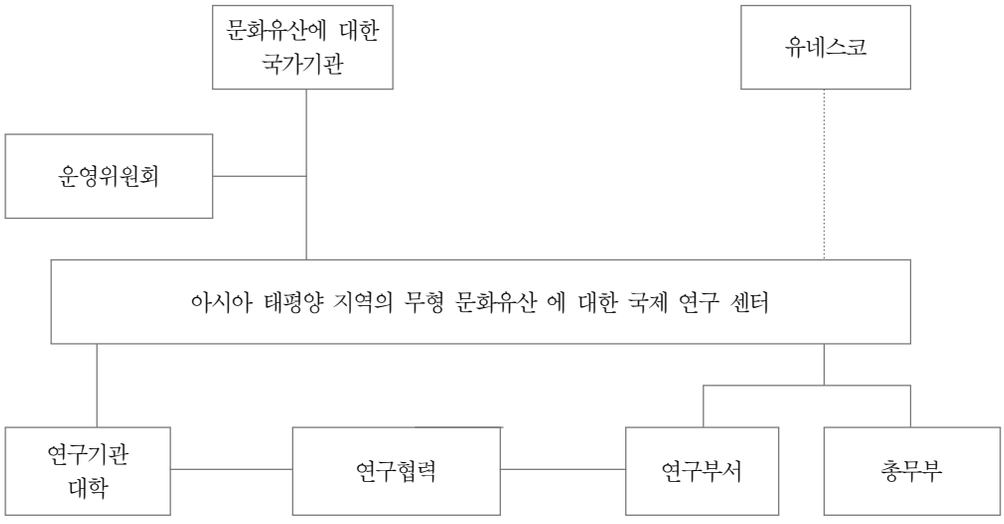
- 현재 제주 해녀박물관의 조직을 역할을 중심으로 (인원수와 별개로) 구성을 하면 위와 같음
- 실제로는 개별 직원 당 다수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며, 기능상 재구성한 위의 조직에서 향후 유네스코 등재 이후 적절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직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확대 할 필요가 있음



출처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http://www.ichcap.org

[그림 5-25]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조직도

- 위의 사례는 현재 전주에 소재하고 있는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의 조직도로서 교류 및 사업 중심의 구조임
- 아래의 사례는 일본 오사카 소재 아태무형유산 국제연구센터의 조직으로 연구 및 연구 네트워크 중심으로 된 구조임



출처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형 문화유산 국제 연구센터, http://www.irci.jp

[그림 5-26]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형 문화유산 국제 연구센터 조직도

- 향후 제주해녀박물관은 기존의 박물관 본연의 역할 + 교류/사업중심 + 연구/네트워크 중심과 추가하여 '에코뮤지엄 운영'의 역할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박물관의 역할과 추가되는 역할의 비중과 균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임

- 제주해녀문화의 지속과 전승이 중심일 경우 추가 역할의 비중이 커질 수 있으며 보존과 향유 중심이면 박물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는 구조임
- 전자의 경우에는 박물관으로서의 지속 보다는 보다 사업 중심의 진흥센터 혹은 진흥원의 구조를 고려할 수 있음

▌제주해녀박물관의 기능 확대에 따른 조직 구성 안

- 향후 제주해녀박물관의 기능 확대에 따른 조직구성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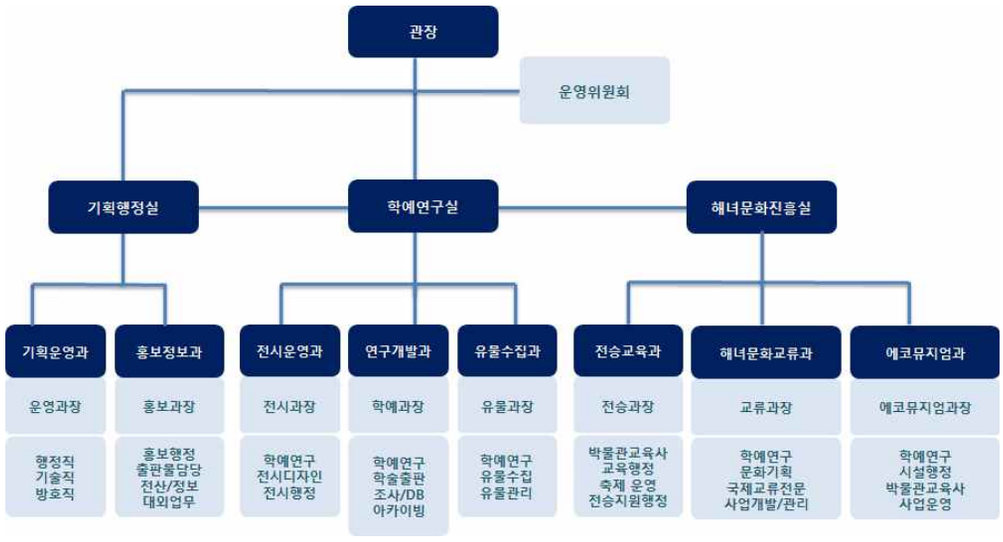
① 현 박물관 조직 확대와 조직 내에서 세부 조직 신설

② 현 박물관 조직의 확대와 병행하여 사업 중심 기관 신설

③ 현 박물관 조직의 진흥기관으로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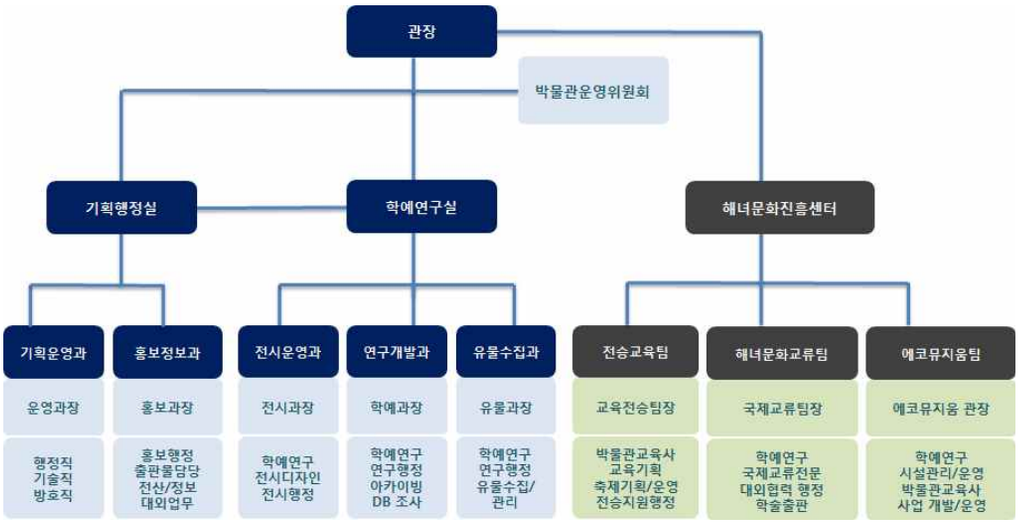
▌조직 개선 및 신설 방안(예시)

- 현 박물관 조직 확대와 조직 내에서 세부 조직 신설
  - 박물관 내 기획행정, 학예연구, 그리고 진흥실의 3대 구성을 통해 향후 역할을 추진할 수 있는 안임
  - 세부적인 조직의 경우 변경이 가능하나 일단 진흥실의 경우 전승/교육, 교류, 그리고 에코뮤지엄을 담당하도록 제시하였으며 연구개발의 경우 정책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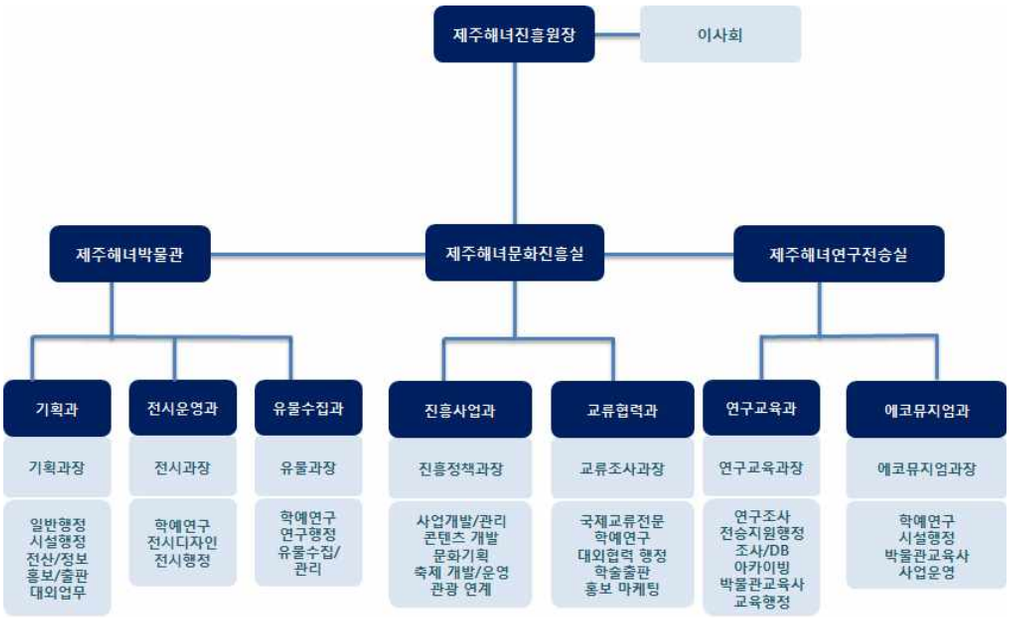
[그림 5-27] 현 박물관 조직 확대와 조직 내에서 세부 조직 신설

- 현 박물관 조직의 확대와 병행하여 사업 중심 기관 신설
  - 박물관 내 부속기관으로 센터를 신설한 경우임
  - 단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 판단에 따라 해녀문화진흥이 수산국 직접 사업 관리 중심으로 위임될 경우 진흥센터는 별도 조직이 되어 박물관과 연계될 수도 있음



[그림 5-28] 현 박물관 조직의 확대와 병행하여 사업 중심 기관 신설

- 현 박물관 조직의 진흥기관으로의 변화
  - 사업 중심 진흥기관을 신설하는 안으로 산하에 제주 해녀박물관과 진흥, 전승 기능이 포함된 안임
  - 이러한 경우는 다양한 분야에서 유연한 사업 추진에는 적절함
  - 단 현재 조직관련 진흥원으로의 변화는 대폭적인 관련 법정위상 변경 등 행정 행위가 다소 과도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어 단기간에 추진하기는 어려우며 필요시 중장기적 계획안에서 추진이 가능함



[그림 5-29] 현 박물관 조직의 진흥기관으로의 변화

- 제주해녀문화 진흥관련 기관(본 연구에서는 진흥원으로 통일)은 기본적으로 해녀박물관 관련, 해녀문화 세계화 관련, 그리고 해녀문화 연구로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위의 조직도는 예시이며 사업의 구체화와 함께 수정될 수 있음
- 관련 사업으로는 박물관 운영(전시, 유물관리, 학예연구), 교류 사업(국내외 학술, 국제단체 교류 등), 해녀축제 추진, 해녀문화단체 지원, 아카이브 구축, 해녀문화교육, 관련 도내외 행사 추진 등을 들 수 있으며 특히 시급한 부분으로 '도내 및 국내외 출가해녀 조사 등을 통한 해녀문화정리', '세계화 사업 및 해녀관련 문화사업의 주관 일원화'를 들 수 있음

주요사항

- 제주 해녀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의 수렴과 실제 주민들의 협력이 가장 중요함
- 따라서 타 박물관 보다 이러한 다양한 요구와 의견이 실제 박물관 운영에 관여되고 연계되는 조직의 구성이 필요하며, 모든 대안에서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함
  - 자문위원회: 권역별 해녀회, 어촌계, 주민자치(예: 읍사무소) 및 각계 주민 생활 및 공동체 관련 단체가 포함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박물관 운영이 지역의 삶과 연계되고 또한 제반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도록 함
  - 운영위원회: 연구기관(학계), 당연직 공무원, 해녀대표, 해양·수산·환경·여성·아시아지역 분야 다양한 학계, 생태관광, NGO/NPO 등으로 구성 제주해녀문화의 종합적 요소가 박물관 운영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함

제 5 절 제주해녀문화 소프트웨어 확대 방안 마련

1. 국제 네트워크 구성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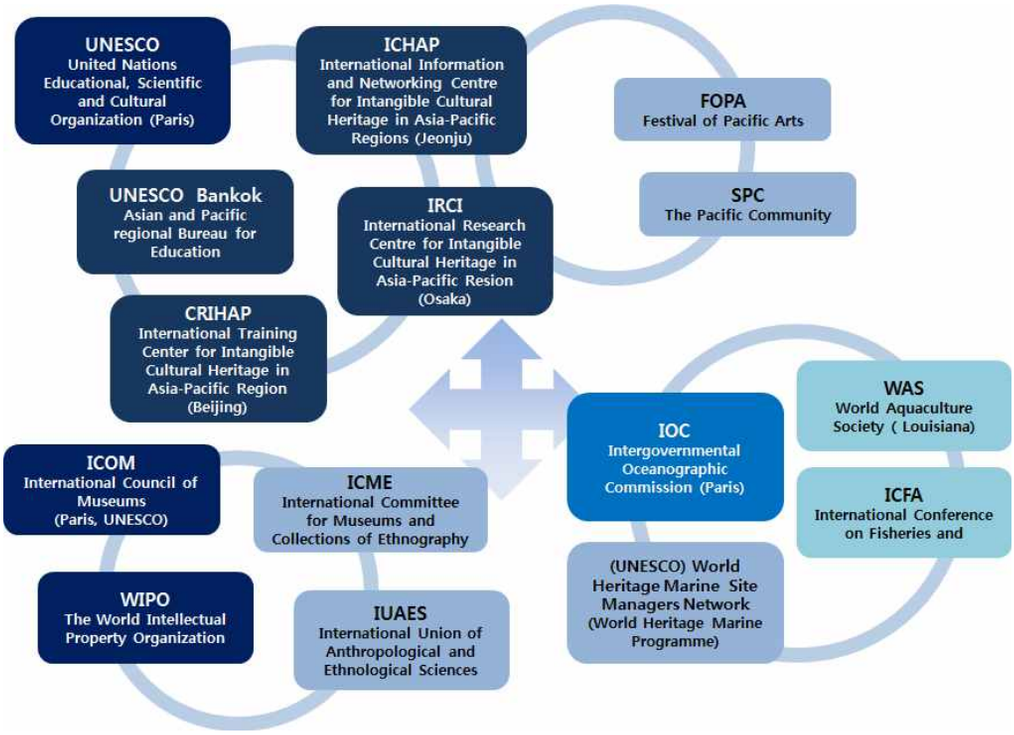
1.1 네트워크 형성 및 교류 방향

▌제주해녀문화 네트워크 구성의 가치

- 제주해녀문화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이후 국내의 유산에서 세계의 유산으로 위상이 확대됨
-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향후 국제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교류하여 제주해녀문화의 가치 확산, 전승의 효과 확대 등을 꾀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제주해녀문화는 단순한 기술적 측면 혹은 요소의 측면에서의 무형유산을 넘어서 환경(자연), 문화, 양성평등, 공동체, 조화, 예술, 신앙, 생업과 기술, 의식주 등 제주도에 얽힌 삶 전반에 아우르는 문화로서 향후 국제교류 역시 매우 다양한 분야와 교류를 하여 가치를 다방면에서 확산할 필요가 있으며 소급하여 국가적으로도 매우 다양한 영역, 분야와의 교류, 연구, 프로젝트, 사업 등을 통해서 연계될 필요가 있음

▌제주해녀문화 네트워크관련 기관/단체 예시

- 현재 제주해녀문화관련 교류 가치 및 가능성 있는 기관/단체는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유네스코와 무형유산 관련
  - 해양 및 해양관련 문화 관련
  - 태평양 문화 관련
  - 박물관학
  - 여성, 인류/민속학, 전통문화
- 본 보고서에는 국제단체 및 기관, 국제회의 중심으로 제시하였음
  - 예를 들어 향후 ICOM 내에서도 보다 다양한 국제위원회, 기술위원회 및 연계기관과의 교류를 제시할 수도 있으며 나아가 문화다양성, 나잠문화(일본, 대만 하와이 등 태평양 지역, 홍해지역, 지중해 권역 등)의 집중 교류 혹은 청소년, 학생, 대학 단위 및 NPO, NGO, 개별박물관 등과의 다양한 교류를 꾀할 수 있음
- 우선적 교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단체는 다음과 같이 예시될 수 있음



[그림 5-30] 우선적 교류 대상의 기관/단체(예시)

1.2 유네스코와 무형유산 관련 기관

▌유네스코(UNESCO)

- 교육·과학·문화의 보급 및 교류를 통하여 국가 간의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연합 전문기구이며 인류가 보존 보호해야 할 문화, 자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음

▌유네스코 방콕(UNESCO Bankok)

- 하노이와 프놈펜에서 유네스코 국가 사무소를 통해, 교육을 통한 인간의 개발, 과학 촉진, 문화, 통신 및 정보를 제공함

▌무형 문화유산 분야의 국제기관(CRIHAP)

- 유네스코의 후원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형 문화유산에 대한 국제 교육 센터는 중국 베이징에 설립 무형 문화유산(ICH) 분야의 국제기관임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ICHAP)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48개 유네스코 회원국들과 함께 무형문화 유산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설립 된 대한민국 문화분야 최초의 유네스코 카테고리2 국제기구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형 문화유산 국제 연구센터(IRCI)

- 무형 문화유산 보호 협약을 강화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형 문화유산 보호 강화의 더 강력한 국가정책 을 실현시키기 위해 일본에 설립되어짐

아태무형문화유산센터[51]

- 아태무형유산센터는 국내 유네스코 후원 무형유산관련 국제센터로 향후 등재 이후 다양한 사업과 국제교류의 연결 거점으로 보다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
- 설립배경
  - 문화재청의 주도 하에 한국 내 아태무형유산센터의 설립 계획 수립
  - 2005년 10월 개최된 제3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한국대표단 단장은 유네스코가 후원하는 동 센터 설립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
  - 2006년 9월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내에 설치된 아태무형유산센터 설립 기획단(ECIHCAP)은 아태지역 국가들과 양자 및 다자간 프로젝트를 통해 센터의 미래지향적 기반을 구축
  - 2008년 11월 설립기획단은 아태무형문화유산센터(ICHCAP)로 명칭변경
  - 2009년 1월 시행된 유네스코 타당성 조사 등 카테고리 2기구로서의 필요한 절차 수행
  - 제18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는 2009년 4월 유네스코 카테고리 2기구로 대한민국에 아태지역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설립을 권고
  - 2009년 10월 개최된 제35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최종 승인
- 한편 제주해녀문화와 관련하여 향후 유네스코 및 국제기구 관련 센터 유치를 장기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1.3 해양 및 해양관련 문화 관련

- 제주해녀문화는 해양학 및 해양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특히 해녀문화는 해양환경에 적응하는 인류의 대표적인 적응과 도전을 보여주는 사례임
- 이에 향후 해양관련 하여 다음에 예시된 다양한 국제기구 및 단체와도 밀접한 교류를 통해 제주해녀문화의 가치의 확산을 기대할 수 있음

▌국제해양학위원회(IOC)

- UN(국제 연합)내에서 기능적 자율성을 가진 기관으로 1960년에 설립된 유네스코 해양학위원회(IOC-UNESCO)는 유엔 시스템 내에서 해양 과학에 대한 유일한 관할 기관임

▌세계 해양 유산 해양 프로그램(World Heritage Marine Site Managers Network)

- 유네스코 세계 유산위원회와 각국 정부에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세계 해양 유산의 보존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함
- 보존, 네트워크, 훈련, (심해 등) 탐험, 보호를 중심 역할로 함

▌세계양식학회(WAS)

- 1970년 미국에서 설립된 비영리 국제양식 전문학회로, 양식 관련 정보·기술·지식을 교환함으로써 세계 양식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국제어업양식학회(ICFA)

- 2014년 스리랑카에서 개최되어 2016년 현재 3회를 맞이함
- 스리랑카의 가장 큰 연간 국제 행사로 어업과 양식업에 전념하고 있는 참가자들은 어업·양식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있음

51) 아태무형유산센터 ICHAP Courrier 한국어판 Vol.1 에서 발췌 (http://www.ichcap.org)

1.4 태평양 문화 관련

- 사실상 남태평양의 도서 및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있으나 문화의 연계성 및 정체성에서 향후 태평양 문화 및 태평양관련 공동체와의 밀접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보임

▌태평양 예술 축제(FOPA)

- 태평양 예술 축제는 1972년부터 4년마다 개최하고, 축제의 2주 동안 태평양 지역 각국의 예술가와 문화 실무자를 함께 제공하고 있음

▌태평양 공동체(SPC)

- 1947년부터 개발을 지원하는 태평양 지역의 주요 과학 기술 단체임. 문화관련 교류도 지원하고 있음

1.5 박물관학 및 박물관 관련

- 제주해녀문화의 경우 현재까지는 가장 중요한 거점이 박물관이며 현재 세계의 박물관은 계속 진화하고 교류하며 발전하고 있는데 이들의 중심에 서있는 국제기구들은 다음과 같음

▌세계 박물관 위원회(ICOM: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 1946년 박물관 전문가를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35,000명 이상의 회원들과 국제 박물관을 대표하는 박물관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 조직임
- 박물관의 정의부터 다양한 박물관관련 연구와 교류를 진행하고 있음
- 산하 국제, 국가, 권역, 기술 등 다양한 위원회가 있음

▌세계생활문화박물관 위원회 (ICME)

- 1946년에 설립되었고 지역, 국가, 국제적인 문화적 배경을 통해 수집된 민속학적 유산과 박물관을 대표하는 ICOM 내 국제위원회로, 변화하는 세계의 민속관련 유물과 박물관이 관련되어 있음

▌국제해양박물관회의(ICMM: International Congree of Maritime Museums)

- 해양박물관과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설립된 조직으로 세계박물관위원회의 협력기관임

1.6 인류/민속학, 전통문화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WIPO)

- 1967년 설립되었으며 지적 재산권 서비스, 정책, 정보 및 협력을 위한 글로벌 포럼임
- 188개의 회원국과 유엔의 자체 자금 조달 기관임
- WIPO는 특히 전통적인 지식에 대한 활동과 역할이 많은데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TK)을 인류의 문화, 영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로서 저작권을 강조하고 있으며 함께 전통 문화적 표현(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TCEs)도 관여하고 있어 제주해녀문화의 지식 체계 및 유산과 향후 연관이 밀접함

▌세계 인류학·민족학 연합(IUAES)

- 고고학자와 언어학자, 과학자와 인류학 및 민속학 분야에서 일하는 기관의 세계 조직임
- 이 조직의 목적은 인간의 지식을 확장하기 위해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세계의 모든 지역의 학자 간의 교류와 소통을 강화하는 것임

▌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여성연합(PPSEAWA)

- 하나의 예시로 The Pan Pacific and Southeast Asia Women's Association 의 경우 가족, 평화 그리고 태평양 사회와 환경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국제 여성 조직 등 다양한 국제 여성관련 단체, 조직과의 연계를 고려할 수 있음

2 제주해녀문화 연구 및 아카이빙 확대 방안

2.1 연구 확대 방향

▌제주해녀의 전통·민속지식 기록화

- 각 어촌계별 마을어장(경계, 여의 분포, 채취물의 서식처 등)에 대한 지식
- 채취물별 생태학적 지식과 채취방법에 관한 지식
- 바람과 물때에 관한 지식

▌제주해녀 역사/생애사 조사 확대 및 영상화

- 전수 생애사 채록 및 영상화: 고령 중심 우선 추진, 연령대 별 채록 및 영상화 작업 추진
- 출향 해녀 지역별 연구 확대 및 영상화
- 역사 자료 및 해외 반출 자료 포함 제주 해녀사 관련 자료 수집 및 발간 확대
- 제주 내에서도 지리적 분포와 활동의 특성 연구 – 지역학, 전통/역사 등 연계

▌여성의 역할 및 여성사 관련 국내외 연구 및 발간 확대

- 제주 여성의 항일 운동관련 조사 확대 – 육지의 여성 항일운동과 연계 공동연구
- 국내외 역사상 여성의 역할, 단체 및 개인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연구/조사
- 현대의 국내외 여성의 역할(직업, 삶 및 사회적 역할 등)에 대한 교류와 조사

▌전통 어업 관련 국내외 연구 및 발간 확대

- 태평양 및 인도양 나잠업 관련 해외 연구 교류 및 직접 조사 연구
- 국외 전통 어업 방식에 대한 교류 및 연구, 영상(다큐) 제작

▌해양 등 융합 연구 확대

- 제주해녀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서 타 분야와 연구를 확대[52)]
- 해양 분야 환경, 생물학, 선박학, 기상학 등 다양한 해양 분야 연구와 제주해녀 연구 연계

52) 사례: 2010년 제주도 해녀공동체와 제주도 해양자원 관리에 대한 주제의 논문(미국 텍사스 A&M 대학의 고재영 교수팀, 제주대학교 허문수 교수팀의 공동 연구)이 세계적 학술지인 해양 정책(Marine Policy)지에 게재

- 생리학, 의학, 물리학, 생물학 및 생태학, 기술 및 공학, 섬유학 등 제주해녀문화의 가치를 연구하고 또한 지속을 위한 기반 연구도 병행(예: 2014년 *제주도-서울대, 제주해녀 환경생리학적 능력조사*)
- 미학, 무용 및 음악 등 예술 분야, 공동체, 거주학, 지역 및 지리학 등

2.2 발간 및 연구 콘텐츠 제작 확대 방향

▌목적: 제주해녀문화의 가치의 확산과 공감대 형성

- 향후 조사 계획시 수집/채록/조사와 영상화 병행
- 발간시 전문가대상, 학술서적, 일반인대상, 아동대상, 제주소개 및 관광연계 등으로 구분하여 수요자의 욕구에 맞춤형 발간 사업 추진
- 방송 및 상영용 콘텐츠 지원 및 공모 사업[53] 추진
- 해녀문화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지원[54] 중장기 사업 추진

2.3 우선 사업 설정 및 추진 방안

▌제주해녀의 전통·민속지식 기록화 우선사업

- 각 어촌계별 전수조사를 통한 제주해녀의 지식 아카이빙

▌제주해녀 역사/생애사 조사 확대 우선사업

- 해녀 생애사 아카이빙
  - 우선 과제: 고령 해녀의 생애사 수집, 채록 및 영상화 작업은 가장 우선 순위로 시급한 사업으로 전수조사를 목적으로 추진(3개년 전수조사 계획 -지역단위로 단계별 시행)
  - 추가 과제: 젊은 해녀층의 인식 및 삶, 과정 등의 영상화(전수조사 계획 -지역단위로 단계별 시행), 남자해녀, 신규해녀 대상 조사 및 영상화(2015년 기준 23인)

▌연구 기반 마련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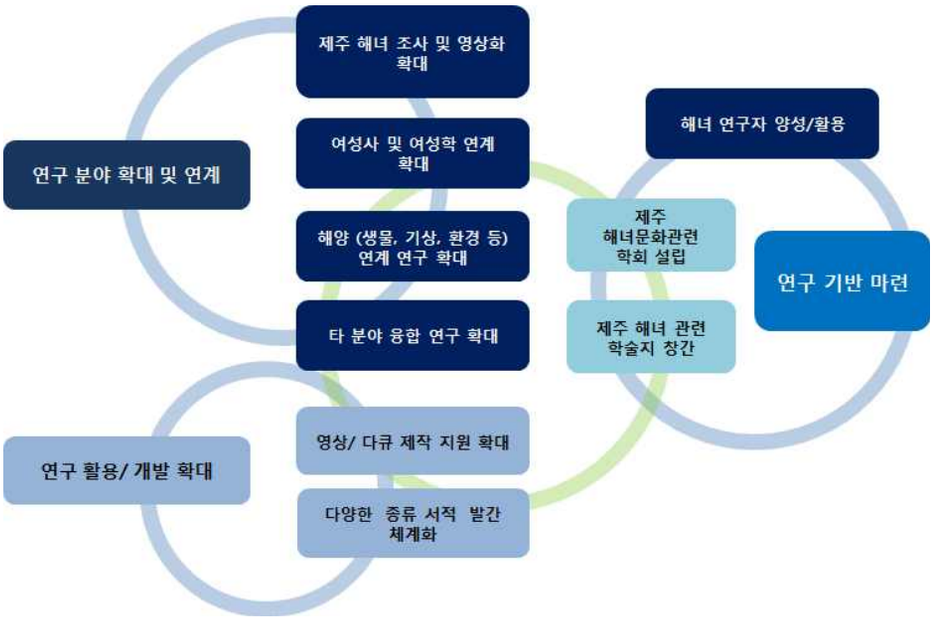
- 확대된 영역과의 연계 연구 확대 및 조사연구 지속화 및 보다 다양한 연구의 공유와 기반 구축을 위해 연구기반을 마련
  - 제주해녀문화의 관심확대와 네트워크 마련을 위해서 '(가칭)제주해녀문화 학회' 설립
  - 제주해녀문화연구관련 학술적 결과의 체계적 축적위해 학술지 창간: 국내 중심으로 출발하여 중장기(5년 이내) 국제 학술지로 발전 계획을 수립하며 국도비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 제주 해녀연구관련 전문연구자, 청소년·청년 연구원, 현지 조사 연구보조원 등 다양한 역량과 역할을 할 수 있는 해녀 연구 인력의 양성 및 활용이 필요
  - 전문 연구인력 양성 프로그램: 리서치 레지던스 및 교육/연구 프로그램 추진, 대학 등과 학위제도 연계 방안 고려 및 전문연구자 지정 제도 도입

53) 근거: 해녀문화콘텐츠 산업 진흥조례 제5조 (제작지원)
54) 근거: 해녀문화콘텐츠 산업 진흥조례 제4조 (해녀문화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지원)

- 제주의 청소년 해녀 연구원 양성 제도 도입, 나아가 전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적 지원 및 관리
- 해녀 현직 중(상주) 현지 조사 보조연구원 제도 운영: 해당 제도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의 연구 지원을 추진하며 동시에 현장 연구원을 양성
-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한 연구자 양성: 국내외 해녀 관련 연구 희망 연구자의 연구 활동 지원을 통해 해녀연구 인력확대와 제주해녀문화 공감대 확산



[그림 5-31]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제 6 절 제주해녀 에코뮤지엄 및 현장박물관 운영방안 마련

1. 현장박물관 필요성과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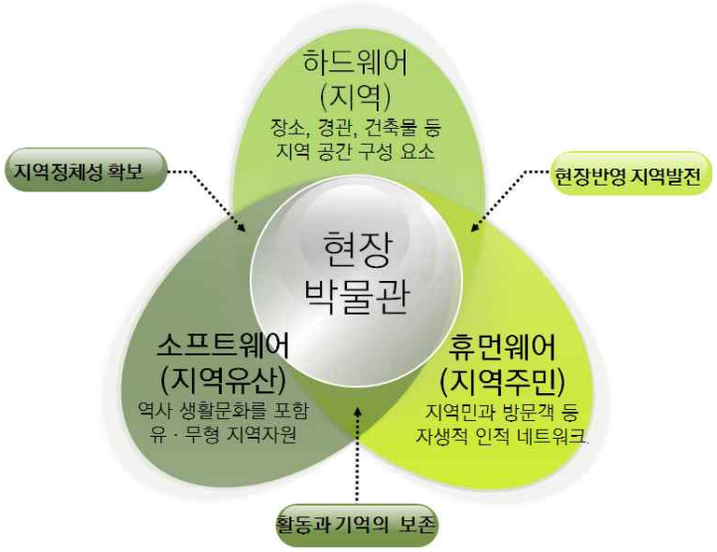
- 에코뮤지엄 혹은 현장박물관(On site Museum)은 기존의 고정된 유물 중심에서 지속된 사회 및 문화가 전승되는 환경, 경관과 장소적 맥락에서 운영되는 박물관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특히 제주해녀문화의 경우 현재 대표적인 해녀 집중 지역에 다음과 같은 이유에 따라 현장박물관 지정 및 운영이 필요함
  - 제주해녀문화의 전승: 해녀문화가 소멸되지 않고 전승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마련, 교육 양성의 장으로 활용 가능
  - 제주해녀문화의 이해: 제주해녀문화를 실제로 전승되고 있는 현장에서 교육, 체험 및 향유를 통해 이해
  - 제주해녀문화의 보존: 제주해녀문화의 기반이 되는 자연, 인공 환경과 함께 보존
  - 지역 주민 수익사업 및 체험 관광연계 및 특성화 체험마을 조성
  - 국제 관광의 거점: 제주의 삶과 문화, 자연을 가장 정확히 체험할 수 있는 공정여행의

중심 거점화 가능

2. 현장박물관의 의미와 형태

▌현장박물관 개념[55]

- 현장박물관은 장소적 맥락에서의 지역(하드웨어-전시공간), 유·무형의 자원(소프트웨어-전시대상), 이를 이끌어나가는 주체로서의 지역민(휴먼웨어-운영주체)을 주요 고려요소로 해야 함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현장박물관 활성화 방안 연구, 2016, p12

[그림 5-32] 현장박물관 구성요소 및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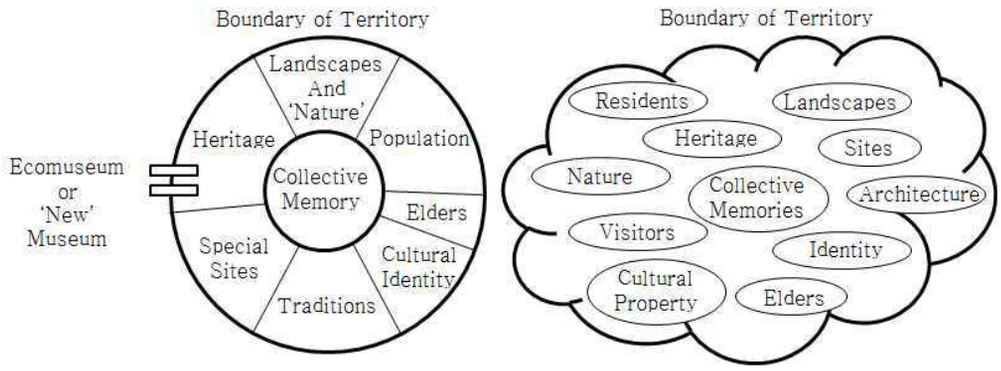
- 현장박물관의 목표는 지역의 유·무형 자원에 대한 연구, 보존, 활용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며 이는 지역사회에 활력을 부여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 할 수 있어야 함
- 지역주민뿐 아니라 지역 방문객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 자원의 가치를 공유하고, 지역민에 의한 자생적이고 자치적인 박물관 운영이 이뤄져야 함

▌현장박물관 개념의 확장[56]

- 야외 박물관: 농촌 생활양식의 인공적 재현
  - 퇴락하는 농촌과 농가에서 쓰던 가구 및 도구들을 보존함과 동시에 전원생활에 동경으로 등장
  - 야외에 조성된 박물관으로서 교육과 체험의 공간으로 활용
  - 박물관 연구센터로서 박물관 소유 유물들의 보존을 통한 역사적 재현에 중점을 둠
- 에코 뮤지엄: 장소와 유산을 함께 보존

55) 문화체육관광부, 현장박물관 활성화 방안연구, 2016 발췌
56) 문화체육관광부, 현장박물관 활성화 방안연구, 2016 발췌

- 유물과 생활의 다양한 맥락을 함께 보존하는 것에 중점을 둔 박물관
- 에코뮤지엄의 '에코(Eco)'는 일정한 지리적 범주 내의 특정한 지역을 규정하는 자연, 역사, 문화 등 총체적 환경을 포괄함
- 생활·환경박물관, 커뮤니티 뮤지엄 등 각 국가의 문화별 여건에 따라 새로운 용어로 대체되어 나타남
- 에코뮤지엄은 '코어(Core) 박물관'과 '새틀라이트(Satellite) 시설'로 구성[57]
- 에코뮤지엄에서의 유산은 기존 박물관의 유물 개념을 넘어 장소의 개념을 포함



출처 : Davis. Peter(1999), 『Ecomuseum : A Sense of Place』, p.72-73

[그림 5-33] 에코뮤지엄의 범위

<표 5-9> 전통적 박물관과 에코뮤지엄의 비교

구분	전통적 박물관	에코뮤지엄
전시영역	건물	장소
해석관점	수집한 유물	전체영역 내의 모든 유산
학문영역	박물관학	복합적인 학문영역
방문객	관광객	공동사회
시스템	박물관과 전문가	에코뮤지엄과 지역사회
전시방법	단순전시	적극적 체험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현장박물관 활성화 방안 연구, 2016, p15

• 현장박물관: 장소와 유산의 현장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전시 공간의 공존

- 광의의 '환경'을 전시물이자 전시장, 전시주체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해외 에코뮤지엄과 현장박물관은 일맥상통함
- 에코뮤지엄은 '자연'을 테마로 한 야외박물관에서 시작하여 점차 장소개념이 부각되면서 지역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진화함
- 국내 에코뮤지엄 도입 초기단계에서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에코뮤지엄 개념이 도입되는 정도에 그침

57) 에코뮤지엄에서의 '코어(Core)박물관'은 핵심시설이며 '새틀라이트(Satellite)'로 불리는 주변시설이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구조를 보임. 새틀라이트는 지역에 산재하여 있는 갖가지 산업유산, 자연유산, 문화유산 등에 대한 분관적인 기능을 담당함

- 정책적 관점에서 국내 현장박물관의 범위는 현장을 기반으로 한 전시공간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봐야함
- 국내의 현장박물관 사례들은 크게 유적형과 마을형으로 대별되는 양상을 보임

<표 5-10> 국내 현장박물관의 범위 설정

구분		유형	유형 사례	관람형태
현장성	유적	야외유적과 그 일대	- 유적지, 사적지, 건조물 등	영역(분산)
		전통적 박물관 공간	- 자료관, 사료관, 기념관, 유물관, 전시장, 보존소 등	건물(수집)
	마을	유산이 위치한 마을과 그 일대	- 민속촌, 역사마을, 문화마을, 자연 공원 등	영역(분산)
		커뮤니티 박물관 공간	- 자료관, 사료관, 향토관, 문서관, 기념관, 민속관, 교육관, 문화관 및 예술관, 문화의 집, 마을·도시박물관	건물(수집)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현장박물관 활성화 방안 연구, 2016, p 52

▌제주해녀 박물관의 시사점

- 제주해녀문화는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하드웨어가 가장 잘 결합된 문화로서 현장 혹은 에코뮤지엄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함
- 또한 유적, 마을의 유형도 모두 포함한 종합현장박물관의 가치가 있음
-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대부분 에코뮤지엄은 '코어(Core) 박물관'과 '새틀라이트(Satellite) 시설'로 구성된다는 점임
- 제주해녀문화는 이미 코어 박물관이 운영되고 있기에 새틀라이트 시설 혹은 마을의 연계를 통한 현장박물관의 구성의 1단계는 이미 완성된 상태임
- 그러나 도의 적극적인 의지와 계획수립, 주민 설명 및 이해 유도, 향후 운영을 위한 조직화, 시설물/토지/가옥 등 관련 시설 보존과 활용관련 제반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장기간의 노력, 교육 등의 행정력이 집중되고 거버넌스의 어려운 부분이 모두 드러나는 현실의 극복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
- 성공적인 해외 사례의 경우 역시 장기적인 계획년도 설정 하에 단순한 행정계획이 아닌 주민과의 밀접한 협력과 이해 그리고 추진을 통한 경우가 성공함을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현재 여건에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의 기회를 통해 주민과의 대화를 재개하고 계획을 재수립하여 장기적인 비전으로 현장박물관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3. 제주해녀 에코뮤지엄 사전 개관 방안(가이드라인 북 제작)

- 제주해녀 에코뮤지엄의 사전 개관의 개념은 에코뮤지엄 개관과 운영에 이르기까지 주민과 협력하는 과정 자체를 주 사업 및 프로그램으로 대상화 할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임

▌공동체/생태계 기반 에코뮤지엄 운영

- 주민 동의, 이해, 교육 및 공청회 등 행정행위를 포함한 거버넌스를 통하여 계획단계에서

개관, 운영에 이르는 단계를 박물관 프로그램 및 운영에 포함(아카이빙)

▌주민 자율조직 협력/지원

• 박물관 운영의 주체로서 주민 자율조직의 위상 마련 및 협력 지원 방안 구상

▌행정/기획/관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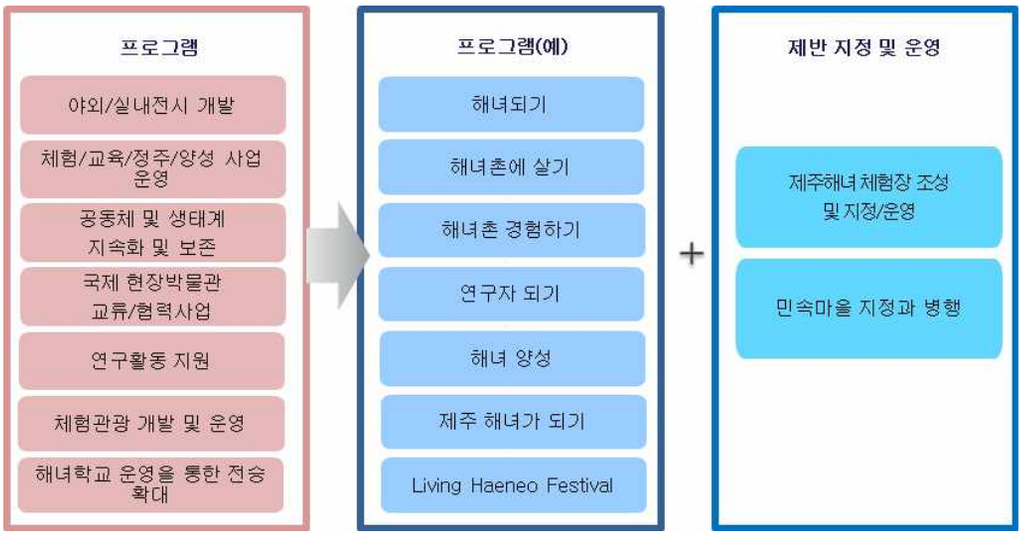
• 관, 민, 전문가, 학계, 그리고 관람객이 주체가 되는 제주해녀 에코뮤지엄의 운영 방향을 설정하며 행정의 역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한하여 제시

▌제반 사항

• 현실적인 문제로서 노하우 부족, 고령화에 따른 주민의 참여율, 편의 및 숙박시설 부재, 실제 소득과 연관된 논의, 정체성 및 자부심에 대한 공동의 관심 유도, 관광 확대가 아닌 적절한 체험 문화관광으로 제한할 수 있는 요건 논의

※ 가이드라인 마련
- 용역을 통한 기본계획 이전에 주민과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세부사항까지 명시된 체크리스트가 포함된 가이드라인 북 제작을 통해 사전개관을 추진
- 가이드라인의 제작은 주민, 전문가, 행정, 학계의 참여와 논의를 통해 과정을 중요시하여 제작함
- 주민 조직,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임, 법적 제반사항 사전 체크리스트 발굴
- 일반적인 에코뮤지엄의 방향성 및 목적과 제주해녀문화의 가치가 병행된 설명 포함 운영가이드라인과 외부(관광객 포함) 가이드라인 북 제작
- 가옥/토지/시설물 관련 보존 및 개축 등의 사항관련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논의를 통해 제작
- 외부 대상 가이드라인은 관광 안내서와 같이 제공(구매 및 후원의 형태)하며 동시에 제주 역사전통생활문화 기념물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디자인 등 연구

4. 제주해녀 에코뮤지엄 개관 프로그램 구성



[그림 5-34] 제주해녀 에코뮤지엄 프로그램 구성

▌제주해녀 에코뮤지엄 프로그램

• 제주해녀에코뮤지엄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제주해녀문화의 정체성과 현실을 고려한 야외/실내전시 개발
  – 체험/교육/정주/양성 사업 운영(일회성/단기/중기/장기)
  – 공동체 및 생태계 지속화 및 보존 사업 추진
  – 국제 현장박물관 교류/협력사업 진행
  – 국내외 연구자 연구활동 지원(체류 등) 확보
  – 체험관광 개발 및 운영을 통한 인식 확산
  – 해녀학교 운영을 통한 전승 확대

▌제주 해녀 에코뮤지엄 프로그램의 구체적 예시

  – 해녀 되기: 신청자와 스승으로 구성 자율적 진행
  – 해녀촌에 살기: 해녀마을 장기 거주용 가옥/토지 대여, 마을 주민으로 살아가기, 향후 영구거주 판단 (주민 협의체의 주관)하에 입어권 등 지속 거주의 여건 부여
  – 해녀촌 경험하기: 단기 가족단위 방문객 홈스테이 경험, 식사/노동/해산물 채취 등 체험, 손자손녀 되기 등 체험
  – 연구자 되기: 국내외 해녀 연구자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결과물은 제주해녀 에코뮤지엄의 콘텐츠로 확보
  – 해녀 양성: 장기 해녀 아카데미의 거점 운영, 해녀문화 전승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제시
  – 제주 해녀가 되기: 제주 외부 출가해녀 및 국내 및 국외 유사 전승자의 제주해녀문화체험, 살아있는 국제교류의 장 마련
  – Living Haenyeo Festival: 실제 삶과 노동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살아있는 제주 해녀 축제의 개발과 운영

▌제반 지정 및 운영관련

• 에코뮤지엄을 통해 공식 제주해녀 체험장 조성 및 지정/운영
• 민속마을 지정과 병행

5. 현장박물관 운영사례

5.1 브라질 ‘살아있는 판당고 박물관’ 사례[58)]

• 브라질 ‘판당고’ 문화는 201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 되며 동시에 보호프로그램이 유네스코 위원회 모범사례로 선정된 경우임
• 시설중심이 아닌 프로그램과 주민자율적인 활동이 주요소가 된 박물관 사례로서 제주 해녀 에코뮤지엄 관련하여 사례를 요약하고자 함

58) ‘살아있는 판당고 박물관’, ICHCAP 및 문화재청, 2013 중 발췌

-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프로그램 중 하나가 협약 제 18조에 따라 수립된 모범사례 목록이며 2009년 이후 12개 모범사례가 등재되고 판당고 살아있는 박물관은 그 중 하나임

▌판당고 박물관의 성격

- *'판당고, 살아있는 박물관'은[59] 문화유산을 그 환경에서 분리시켜 한정된 건물에 전시하는 일반적 성격의 박물관이 아니다. '살아있는 판당고박물관'은 5개 지방자치단체에 산재해 있는 판당고와 관련된 개인과 기관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라 할 수 있다. 그들을 연결하여 하나의 방문코스를 제시함으로써 방문자가 판당고 연행자(fandangueiros)와 소통하고 연행 환경 속에서 판당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판당고 연행자, 전문가, 조사자 간의 장시간 토론과 협의를 토대로 '살아있는 판당고박물관' 프로젝트는 2005년에 착수했다. 프로젝트는 지역 협력을 바탕으로 한 판당고 전승 강화와 지속가능한 관광 등 무형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포함한다.*
- 주민협력, 환경과 개인, 단체의 전통유산을 살리려는 노력 자체가 박물관의 주된 프로그램이 되며 시설중심이 아니라 이러한 활동이 박물관으로 제시되고 있음

[그림 5-35] 브라질 '살아있는 판당고 박물관'

▌판당고 박물관 관련 환경 및 여건

- 판당고 문화에 대해서 대서양지역 우림지역인 해당지역의 환경 파괴와 전통적인 삶이 파괴되면서 전승자 및 향유자가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고 이를 유네스코 등재와 살아있는 박물관을 통해 회복시키려는 노력이 지속되었음
- 이는 제주해녀문화에서 환경문제, 삶의 방식의 변화에 대응하는 에코뮤지엄의 목적과 일치하고 있음
- *15세기에[60] 유럽인들이들어온 이후 열대우림은 벌목과 목축을 비롯해 커피, 설탕, 유칼립투스 재배 같은 것들로 점점 사라져 갔다. 최근 수십 년 동안 기업농의 확장 및 1960년대 이후 늘어난 해변휴양지와 여름 별장을 위한 부동산 투기 때문에 삼림 파괴는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중대한 환경 문제의 대응책으로 브라질은 1980년대부터 이 지역의 상당 부분*

59) '살아있는 판당고 박물관', ICHCAP 및 문화재청, 2013, p 12
60) '살아있는 판당고 박물관', ICHCAP 및 문화재청, 2013, pp 24-26

을 국립공원과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따라서 조상 대대로 이 지역에 살아 온 지역민의 거주지가 졸지에 보호구역 안에 놓이게 되었다. 보호구역 내에서 금지된 것은 여름 별장과 목장만이 아니었다. 농업, 사냥, 어업 등과 같은 카이사라 공동체의 생계 기반이 되는 활동도 함께 금지되었다. 부동산 투기업자의 토지 구매로 이미 한 차례 위협받았던 카이사라 공동체의 생활방식이 더욱 심각한 혼란에 직면하게 되었다. 생활방식 및 공동체 문화와 관련된 전통과 지식, 기술을 더 이상 연행할 수 없었다. 무치라앙 횟수 감소로 판당고 무도회 개최도 줄었다. 젊은 층은 판당고에서 점점 멀어졌다. 현재 생물 다양성과 지역의 자연유산은 중요성을 인정받았으며, 지역 동식물에 대한 보호 조치는 향상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지역 주민은 빠져 있다. 세대에서 세대로 대물림해 전승된 사회, 경제, 문화 등의 관습은 무시한 것이다. 카이사라 공동체의 문화유산과 지역의 문화다양성은 아직 공식 인정을 받지 못했다.

- 이러한 상황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이 2007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UNESCO World Natural Heritage)으로 등재되었으나 사실상 문화유산 및 삶의 양식은 지속적으로 변화 혹은 소멸하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음

[그림 5-36] 판당고 무도회 및 생활 관습

▌판당고 박물관 착수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지역(카부레)의 주민 및 네트워크 조직이 구성되면서 박물관 계획을 착수하게 된 점이 현재의 모범사례가 된 주된 요인이라고 생각되어짐
- *카부레문화협회[61]는 2000년에 카이사라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노력에 착수했다. 비정부기구(NGO)인 카부레문화협회는 대화를 기반으로, 카이사라 공동체와 협력해 공동체의 불만과 요구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문화 활성화를 위한 계획으로 구체화시켰다. 여기서 만들어진 계획이 오늘날 '살아있는 판당고박물관'으로 탈바꿈된 것이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2년 동안 팀은 판당고의 연행과 기억을 조사하기 위한 일련의 계획 수립을 위해 협력했다. 그리고 판당고 연행자들 사이에도 만연해있는 '판당고는 죽었다'는 인식에 대한 대립각을 제시하기 위해 '살아있는 박물관'이라는 기본 개념이 제시되었다.*

61) '살아있는 판당고 박물관', ICHCAP 및 문화재청, 2013, pp 32-34

- 판당고 살아있는 박물관 프로젝트는 인류무형유산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공공지원 승인 등의 정책이 반영되면서 전기를 맞았으며 이는 현재 제주해녀문화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전기가 필요한 시점임을 알 수 있음
- 카부레 ***'살아있는 박물관'[62] 프로젝트는 카부레문화협회가*** **무형문화유산 항목으로 페트로브라스 문화 프로그램(Petrobras Cultural Programme)에 제안서를 제출한 2004년에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살아있는 판당고박물관' 설립 연구를 내용으로 하는 제안서는 자금 지원 승인을 받았으며, 살아있는 박물관 프로젝트는 2005년에 시행됐다. 이 제작 결과를 기반으로 판당고 '방문자 방문코스'(또는 문화 방문일정) 개발, 판당고 음악 CD 발간, 카이사라 문화 및 판당고 관련 서적 발간, 방문코스 안내 리플릿 인쇄 등의 목표가 수립되었다. 프로젝트는 토론을 통해 공동체의 불만 사항을 접수하고 판당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활동으로부터 시작됐다. 첫 번째 공동체 회의는 모헤티스, 파라나구아, 구아라케사바, 카나네이나, 이구아피에서 세미나 형식으로 개최되었다.

▌판당고 박물관의 주체

- 에코뮤지엄 및 현장박물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지역주민 혹은 해당 문화유산 전승자가 중요함
- *먼저 관련[63] (박물관을 구성하는) 공동체는 누구인가? 판당고의 연행과 지식 및 기술의 기본 바탕은 악기 연주자, 춤추는 사람, 공예장인 등 판당고 연행자다. 따라서 이들이 누구인지 먼저 파악해야 했다. 이와 관련하여 '살아있는 판당고박물관'의 틀 안에서는 공동체의 범위를 연행자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추가 합의가 있었다. 즉 공동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협회, NGO, 기금 지원 기관, 학교, 대학, 관광 협회뿐만 아니라 연구자, 활동가, 교육자, 문화 전문가, 국가 관계자도 포함하는 협력 관계망을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바로 이 협력 관계망이 '살아있는 판당고박물관'을 구성하는 것이다. 목적과 경험이 다른 개인과 단체 간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했지만 판당고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적에는 이견이 없었다.*

▌판당고 살아있는 박물관의 프로그램

- 판당고 살아있는 박물관 프로그램은 다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판당고 음악 녹음

[그림 5-37] 판당고 살아있는 박물관 프로그램

62) '살아있는 판당고 박물관', ICHCAP 및 문화재청, 2013, p 44
63) '살아있는 판당고 박물관', ICHCAP 및 문화재청, 2013, p 44

- ‘살아있는 판당고 박물관’ 책자 발간: 판당고의 정의, 레퍼토리를 포함한 음악, 춤에 대한 기술. 판당고와 관련된 자연과 장소 이야기 들이 담김. 이를 위하여 채록,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내용 등이 포함됨
- 책자와 음반의 발간 및 배포: 배포는 인근 및 해당 지자체 학교, 대학, 문화센터, 도서관 등에 배포되며 함께 연구소, 국립민속대중문화센터 협력 등으로 박물관, 민속위원회, NGO 등에도 배포됨
- 방문코스: 프로젝트[64] 진행 중 있었던 연구와 대화, 토론을 통해 ‘방문코스’(또는 문화방문일정)가 만들어졌다. 판당고 연행자 및 악기공의 집, 문화센터, 공예품 가게, 방문자 정보 부스와 기타 관련 지점이 확정됨. 이후 이들 지점은 지도에 표시되고 하나의 방문코스로 연결됐다. 이 노선을 보고 찾아온 방문자는 판당고 연행자와 접촉하고 판당고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 방문코스에 따른 판당고 연행자와 협력자, 방문자 간 상호 교류가 ‘살아있는 판당고박물관’의 핵심이다.
- 리플릿과 포스터: *리플릿[65]은 지역 주민, 협력자, 방문자에게 ‘살아있는 판당고박물관’을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 리플릿에는 연행자의 집, 가게, 센터와 기타 방문 지점을 연결하는 방문코스 노선과 함께 판당고 연행자와 연락하는 방법 및 방문 때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다. 예를 들어 리플릿에 열거되어 있는 판당고 연행자들에게 편하게 연락해도 되지만 그들의 사생활은 존중해야 한다.*

  ※ 이러한 리플릿 등은 앞서 제시한 가이드라인 북의 목적 및 내용과 동일함. 제주해녀문화 관련해서도 특히 주민과의 마찰 및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의 가이드라인 등이 포함한 리플릿 및 책자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함
- 안내판 과 방문안내 부스
- 지역 관광과의 연계: *방문자[66]와 판당고 연행자의 상호 교류 촉진을 위해서는 호텔, 여행사, 레스토랑 등 관광 업계와의 연계가 중요했다. 지역 관광업계와의 연계 문제는 이 네트워크의 참가자 가운데 관광 관련 학위가 있는 젊은 층이 코디네이터로 선정되어 책임졌다.*

  ※ 제주해녀문화의 경우에도 관광연계가 필요하나 지역 중심, 공정 및 체험 여행 중심의 선정관련해서는 협의를 통한 선정과 연계가 반드시 필요함

[그림 5-38] 살아있는 판당고 박물관 사례

64) ‘살아있는 판당고 박물관’, ICHCAP 및 문화재청, 2013, p 50
65) ‘살아있는 판당고 박물관’, ICHCAP 및 문화재청, 2013, p 50
66) ‘살아있는 판당고 박물관’, ICHCAP 및 문화재청, 2013, p 53

제 6 장

제주해녀문화 사업 개발

제 6 장 제주해녀문화 사업 개발

제 1 절 해녀문화 사업 구상

1. 제주해녀문화 정책 전략 및 사업 연계

• 제주해녀문화의 전승보존 및 확대를 위한 SWOT 분석 및 정책 환경을 고려할 때 앞서 구분한 사업방향별 사업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이 다양한 전략과 사업을 제시할 수 있음

<표 6-1> 제주해녀문화 사업구상

사업방향	전략	사업
A. 해녀문화 자긍심 고취 및 가치 확대	• 해녀문화에 대한 自强不息 고취 • 해녀문화의 현대적 가치 재발견	▶ 해녀 헌장 제정 ▶ 해녀와 사회 가치(식구, 공동체) 사례 발굴/발간 ▶ 현역 해녀 대상 공동체 가치 정기 교육실시 ▶ 입문 해녀 대상 해녀공동체 문화 교육 실시
B. 해녀문화 전승 및 양성	• 제주해녀가치 공감대확산 • 제주 해녀 양성 및 확대 • 제주 해녀 전문가 양성	▶ 제주해녀 가치 인권/양성 분야확대 ▶ 해녀 전통문화 아카데미 확대 ▶ 해녀학교 4곳 확대 및 양성확대 ▶ 해녀 양성을 위한 어촌계 가입 정책적 유도 ▶ 해녀대상 조사 해설인력 양성
C. 제도적 개선 및 복지	• 국가차원 제도적 기반 마련 • 기존 제도관련 개선사항 • 자율적 조직 구성 • 해녀 복지 및 안전방안 확대	▶ 제주해녀 특별법 및 국가위원회 설치 ▶ 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 1항 '나잠어업' 용어 변경 ▶ 해녀협회 창설 ▶ 전국차원 해녀 복지 및 양성 제도 마련 ▶ 할망바당 확대
D. 국제 교류	• 네트워크 형성 및 교류방향 마련 • 국제적 해녀의 가치 발견 • 해녀의 발자취 관련 조사	▶ 해양, 인류/민속, 여성, 태평양 관련 국제단체 가입 ▶ (태평양 및) 해녀 및 유사전통어업 국제 포럼개최 ▶ 해녀 및 전문가대상 국제교류 확대 ▶ 해녀의 발자취 (국내외) 연구 및 발간/영상 프로젝트 5년 계획 추진 (해녀문화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반영)
E. 해녀 홍보 및 브랜드 구축	• 제주해녀 등재 홍보 및 선양 • 제주해녀축제 활성화 및 확대 • 해녀 관련 아카이빙 및 제작 확대 • 해녀 안내 및 소개기반마련	▶ 제주 해녀의 날 지정 ▶ 제주해녀문화 국정 초등학교 교과서 수록 ▶ 유네스코 등재 기념판 제작 (어촌계별) 및 부착 ▶ 해녀축제 국제화 추진 ▶ 축제 및 행사 공간 정비사업 추진 (녹화, 조경 등) ▶ 해녀 조형물 제작 및 설치 ▶ (가칭)세계의 해녀 다큐 제작(방송사 연계) ▶ 해녀 문화홍보 공식 SNS 페이지 구축 ▶ 등재이후 중, 일, 영어 해녀 안내 및 홍보 영상/브로셔 개발 ▶ 해녀 관련 스토리텔링 및 영상 출판 사업 확대

사업방향	전략	사업
F. 소득확대 기반 마련	• 해녀 관련 판매 활성화 • 해녀콘텐츠 상품 개발 • 해녀체험 코스 마련	▶ 해녀 직영 음식점 브랜드화 및 해녀문화연계 ▶ 해녀 상품 브랜드 개발 및 인증 ▶ 해녀를 활용한 관광 콘텐츠 상품개발 ▶ 해녀 할망 민박확대 정책추진
G. 지식 기반마련	• 해녀 연구 전문화 • 해녀 기록/조사 연구확대 • 해양 등 융합연구 확대 •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 연구 기반 마련(학회 설립 및 해녀 전문 학술지 발간) ▶ 제주해녀 역사/생애사 조사 확대 및 영상화 ▶ 여성사 관련 국내외 연구 및 발간 확대 ▶ 전통 어업 관련 국내외 연구 및 발간확대 ▶ 해녀의 융합 학술적 가치 (생물학, 물리학, 기상학, 해양학 등) 총서 발간 ▶ 해녀 연구 전문인력 레지던스 양성사업 추진 ▶ 지식과 기술 기록화
H. 거점 (해녀박물관) 활성화	• 해녀박물관 관련 기반 확대 • 전승 및 연구사업 지원확대 • 주민 및 지역 중심 기반확대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준(준거시설) 기반확대(예산/ 인력) ▶ 제주의 해녀 전승 및 진흥위한 실행 조직 구성 ▶ 국립화 방안(단 도청, 해녀, 주민, 제주 전문가 중심 운영) ▶ 환경/생태/공동체 중심의 박물관으로서 기반확대
I. 에코뮤지엄 조성	• 공동체/생태계 기반 에코뮤지엄 운영 • 주민 자율조직 협력/지원 • 행정/기획. 관리 지원 • 공동체 및 생태계 지속화 및 보존 사업 추진 • 국제 현장박물관 교류/협력 • 체험관광 개발	▶ 에코뮤지업 운영 조직 구성 ▶ 에코뮤지엄 가이드라인 제작 ▶ 해녀 작업. 공동체유산 지정/복구/정비 ▶ 해녀관련 생태환경 보전 (해양, 생태, 수종, 어종 등) 계획수립 ▶ 해녀 생활/문화/자연 환경 종합 보전계획 수립 ▶ 제주해녀문화의 정체성과 현실을 고려한 야외/실내전시 개발 ▶ 체험/교육/정주/양성 사업 운영(일회성/단기/중기/장기) ▶ 숙박 포함 체험 공간 마련 (민박 등) ▶ 도내 (에코뮤지엄 보고서 예시) 해녀체험루트 개발 (바당올레) ▶ 해녀 공동체 문화체험 프로그램개발 및 4계절 시행

- 전략 및 방향은 기존 자료, 자문, 설문 등을 통해 나타난 의견과 연구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실현가능한 정책화한 모델로서 사업을 제시하였음
- 기본전략은 'A. 해녀문화 자긍심 고취 및 가치 확대', 'B. 해녀문화 전승 및 양성', 'C. 제도적 개선 및 복지 ', 'D. 국제 교류', 'E. 해녀 홍보 및 브랜드 구축' 'F. 소득확대 기반 마련', 'G. 지식 기반마련', 'H. 거점 (해녀박물관) 활성화', 'I. 에코뮤지엄 조성' 으로 구분하여 전략 및 사업방향을 제시하였음

2. 제주해녀문화 정책 사업추진방안

2.1 사업 단계별 추진 계획

• 방향-전략을 통해 구상된 사업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책사업으로 제시하였으며 사업목표년도 2020에 맞추어 단계별 추진계획을 제시하였음. 단 2020이후 지속사업도 포함하였음

<표 6-2> 제주해녀문화 사업 단계별 추진 계획

사업	2017	2018	2020
A. 해녀문화 자긍심 고취 및 가치 확대			
A-1. 해녀 헌장 제정	공청회 및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반영	
A-2. 해녀와 사회 가치(식구, 공동체) 사례 발굴/발간	기획 및 수집	발간 및 영상화	
A-3. 현역 해녀 대상 공동체 가치 정기 교육실시	교육프로그램개발	시범교육실시	교육확대 및 평가
A-4. 입문 해녀 대상 해녀공동체 문화 교육 실시	교육프로그램개발	시범교육실시	교육확대 및 평가
B. 해녀문화 전승 및 양성			
B-1. 제주해녀 가치 인권/양성 분야확대	해녀정신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개발	인권위 설치 및 양성교육기반마련-교육실시	
B-2. 해녀 전통문화 아카데미 확대	관내 장소 섭외 및 예산 계획수립	강사, 시기, 절차 마련	확대 시행
B-3. 해녀학교 4곳 확대 및 양성확대	수협(어촌계), 특별자치도 양해각서 작성 및 기반마련	강사, 시기 및 시범교육 실시	확대 시행
B-4. 해녀 양성을 위한 어촌계 가입 정책적 유도	계획수립	자문회의/공청회	시범 제도 도입
B-5. 해녀대상 조사 해설인력 양성	입문해녀대상 교육	시범해설인력 활용	정규 해설사활동
C. 제도적 개선 및 복지			
C-1. 제주해녀 특별법 및 국가위원회 설치	특별법 제안(국회), 제출 (정부) 및 법사위원회 심사-상임위-본회의(국회)		심의의결 및 제정, 위원회 설치
C-2. 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 1항 '나잠어업' 용어 변경	해양수산부 개정안 (정부안) 확정 및 제출-정기국회 확정		시행
C-3. 해녀협회 창설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복지지원 조례 (해녀협회 조항포함) 제정 (도의원 및 도지사 발의)-의결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추가 개정		
C-4. 전국차원 해녀 복지 및 양성 제도 마련	직업훈련촉진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대상포함(시행령 개정 등)		시행 및 국비지원
C-5. 할망바당 확대	기조성 6곳	15개소 확대(도계획)	관리카드 작성·관리로 사후관리
D. 국제교류			
D-1. 해양, 인류/민속, 여성, 태평양 관련 국제단체 가입	관련 단체/회의 참석 및 조사	공식가입 및 MOU, 행사 참가	
D-2. (태평양 및) 해녀 및 유사전통어업 국제 포럼개최	포럼계획수립 및 초청자 선정	섭외 및 포럼 준비 (공간, 프로그램)	해수부 주관 국가 포럼으로 개최
D-3. 해녀 및 전문가대상 국제교류 확대	국제교류 대상 선정(단체, 기관) 및 계획수립, 등재이후 사업 관련 국비신청		

사업	2017	2018	2020
D-4. 해녀의 발자취 (국내외) 연구 및 발간/영상 프로젝트 5년 계획 추진 (해녀문화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반영)	다큐 계획수립 및 준비	다큐 기획 및 세부계획수립	촬영 및 제작(지속)
E. 해녀 홍보 및 브랜드 구축			
E-1. 제주 해녀의 날 지정	각종기념일에 대한 규정 - (국가)해수부주관 추가 추진		
E-2. 제주해녀문화 국정 초등학교 교과서 수록	개정교육과정에 결정에 따라 수록안	확정 및 최종 고시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개발(국내대상)
E-3. 유네스코 등재 기념판 제작 (어촌계별) 및 부착	제작 디자인 선정 (예산마련)	제작, 어촌계 부착	
E-4. 해녀축제 국제화 추진	국제화 프로그램 계획 및 섭외 추진	예산 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확정	1차 확대 축제개최
E-5. 축제 및 행사 공간 정비사업 추진 (녹화, 조경 등)	예산마련, 조경 및 옥외공간 정비 기본설계 실시	실시설계 및 착공	
E-6. 해녀 조형물 제작 및 설치	제작 디자인 안 공모 절차 추진	공청회 및 선정	제작 및 설치
E-7. (가칭)세계의 해녀 다큐 제작(방송사 연계)	다큐 계획수립 및 준비(해녀문화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반영)	다큐 기획 및 세부계획수립	촬영 및 제작(지속)
E-8. 해녀 문화홍보 공식 SNS 페이지 구축	국문 완성, 중,일,영문 번역본 완성	등재 직후 지속 운영	
E-9. 등재이후 중,일,영어 해녀 안내 및 홍보 영상/ 브로셔 개발	국문 완성, 중,일,영문 번역본 완성	보완 및 제작/발간	
E-10. 해녀 관련 스토리텔링 및 영상 출판 사업 확대	제작 기획	제작 착수 및 작업	
F. 소득확대 기반 마련			
F-1. 해녀 직영 음식점 브랜드화 및 해녀문화 연계 방안	인증제도 조례 제정 및 지원방안 계획	해녀상품 연계 개발 및 개보수 지원 근거 마련	브랜드화 및 지원 사업 추진
F-2. 해녀 상품 브랜드 개발 및 인증	브랜드 공모 및 개발	선정 브랜드와 상품 연계	홍보 및 판매
F-3. 해녀를 활용한 관광 콘텐츠 상품개발	지역 공예 및 디자인 관련 관광콘텐츠 공모-선정		상품 시제작 및 시범 판매
F-4. 해녀 할망 민박확대 정책추진	민박지원 제도 마련	대상 수요조사 및 신정 접수	공식 민박 사업추진
G. 지식 기반 마련			
G-1. 연구 기반 마련(학회 설립 및 해녀 전문 학술지 발간)	학회설립 (정관, 이사회 등 조직)	학술지 시범발간 및 학술회의 개최	학술지 등재추진
G-2. 제주해녀 역사/생애사 조사 확대 및 영상화	1차 조사 착수 및 영상화	75세이상 전수조사계획 및 추진	
G-3. 여성사 관련 국내외 연구 및 발간 확대	해녀연계 여성학 학술대회 개최	국내외 국제학술대회로 추진 및 해녀문화 홍보	
G-4. 전통 어업 관련 국내외 연구 및 발간확대	전통어업관련 국내 (어업유산 중심) 포럼 창설 및 회의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 자문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위원회 연계)		해외 전통어업관련 포럼 추진

사업	2017	2018	2020
G-5. 해녀의 융합 학술적 가치 (생물학, 물리학, 기상학, 해양학 등) 총서 발간	저명 학자 지정 융합연구 계획수립 및 착수	학술적 가치 발표 및 홍보, 연구 공모	선집 발간 및 일반 홍보용 발간
G-6. 해녀 연구 전문인력 레지던스 양성 사업 추진	레지던스 기반 마련	공동연구프로젝트 및 레지던스 착수	
G-7. 지식과 기술 기록화	지식과 기록물 생산 및 수집	지식과 기록물 보존·관리	정보제공
H. 거점(해녀박물관) 활성화			
H-1.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준(준거시설) 기반확대(예산/ 인력)	확대 계획 수립 및 도의회 제출	도차원 정부 확대 안 제출 및 협의	
H-2. 제주의 해녀 전승 및 진흥위한 실행 조직 구성	조직 계획 수립 및 도의회 제출	예산 반영 및 조직 구성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개정)	
H-3. 국립화 방안(단 도청, 해녀, 주민, 제주 전문가 중심 운영)	조건/효과/절차 관련 자문/공청회	도내 의견 확정 및 정부 제출(확정시)	절차 추진 (주관부처, 예산, 인력 등)
H-4. 환경/생태/공동체 중심의 박물관으로서 기반 확대	환경 및 공동체 기반 실태조사	기본 방향 설정 및 체크리스트 개발	실행 및 추진
I. 에코뮤지엄 조성			
I-1. 에코뮤지업 운영 조직 구성	(해녀)주민협의체 조직 및 자문/실행 기구조직		지속 협의 및 운영
I-2. 에코뮤지엄 가이드라인 제작	(해녀)주민협의체/전문조직 구성	협의체 및 전문가 공동 제작	1차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발간
I-3. 해녀 작업. 공동체유산 지정/복구/정비	작업유산 리스트/체크리스트 개발	체크리스트 통합 지정/복원/정비 사업추진	
I-4. 해녀관련 생태환경 보전(해양, 생태, 수종, 어종 등) 계획수립	등재연계 기상, 해양생물/해양지질 등 조사 및 보존 계획수립 (제주특별자치도해양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자문위원회 및)		발간 및 1차년사업추진
I-5. 해녀 생활/문화/공간 환경 종합 보전계획 수립	등재연계 생활/문화/공간환경 조사 및 보존 계획수립 (제주특별자치도해양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자문위원회 및)		발간 및 1차년사업추진
I-6. 제주해녀문화의 정체성과 현실을 고려한 야외/실내전시 개발	전시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주민)해녀협의체와 협의 및 확정	전시 사업추진
I-7. 체험/교육/정주/양성 사업 운영 (일회성/단기/중기/장기)	협의체(주민/해녀) 공동으로 사업프로그램 개발		운영개시
I-8. 숙박 포함 체험 공간 마련(민박 등)	공모/신청 및 접수	환경정비 및 운영방안 수립	착수 및 프로그램 진행
I-9. 도내 (에코뮤지엄 보고서 예시) 해녀체험루트 개발 (바당올레)	루트 개발 및 정비 착수	프로그램 및 공간 정비	루트 개방
I-10. 해녀 공동체 문화체험 프로그램개발 및 4계절 시행	프로그램 및 장소 기획	섭외 및 개발(프로그램, 공간)	시범 시행 및 평가

2.2 사업별 예산 근거 분석

- 본 항은 사업관련 국내 유사 사업을 통해 준거 예산 근거를 제시하고자 함. 이를 통해 총 사업비 관련 현실적인 공공예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한편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계획에서의 예산 추정의 경우 동일하게 제시하여 이전 계획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였고 신규 제시된 사업의 경우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 유사예산

을 통해 제시하고자 함

2.2.1 해녀문화 자긍심 고취 및 가치 확대 관련 예산

▌유사사업 예산

<표 6-3> 해녀문화 자긍심 고취 및 가치 확대 관련 예산

세부사업	유사사업	관련예산
▶ 해녀 헌장 제정	국정 예산(산정 어려움)	
▶ 해녀와 사회 가치(식구, 공동체) 사례 발굴/발간	문화재 유형별 이야기자원 지속발굴[67]	80백만원
	해녀문화 자료수집[68]	130백만원
	해녀문화 자료집 발간[69]	130백만원
▶ 현역 해녀 대상 공동체 가치 정기 교육실시	무형유산 교육과정 개설·운영[70]	759백만원
▶ 입문 해녀 대상 해녀공동체 문화 교육실시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 계획 수립 추진[71]	95백만원

2.2.2 해녀문화 전승 및 양성 관련 예산

▌유사사업 예산

<표 6-4> 해녀문화 전승 및 양성 관련 예산

세부사업	유사사업	관련예산
▶ 제주해녀 가치 인권/양성 분야확대	국가인권위원회 예산 투입	
▶ 해녀 전통문화 아카데미 확대	해녀문화교육센터 건립[72]	2,000백만원
	전통공연예술문화학교 운영[73]	50백만원
▶ 해녀학교 4곳 확대 및 양성확대	다이버(해녀, 스쿠버) 지원센터 조성사업[74]	400백만원
	(서귀포)법환해녀학교 초기계획 및 운영예산	150백만원
	전수교육관 건립·보수 지원(14개소)[75]	7,700백만원
▶ 해녀 양성을 위한 어촌계 가입 정책적 유도	이수심사제[76]	76백만원
▶ 해녀대상 조사 해설인력 양성	전통예술기획자 양성프로젝트[77]	100백만원

67) 문화재청, 2016년도 사업별 예산
68)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5개년 기본계획, 2011~2015년도 사업별 예산
69)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5개년 기본계획, 2011~2015년도 사업별 예산
70) 국립무형유산원, 2016년도 사업별 예산
71) 제주특별자치도, 2016년도 사업별 예산
72)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5개년 기본계획, 2011~2015년도 사업별 예산
73)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2016년도 사업별 예산
74) 제주특별자치도, 2016년도 사업별 예산
75) 문화재청, 2016년도 사업별 예산
76) 국립무형유산원, 2016년도 사업별 예산
77)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2016년도 사업별 예산

2.2.3 제도적 개선 및 복지 관련 예산

▌유사사업 예산

<표 6-5> 제도적 개선 및 복지 관련 예산

세부사업	유사사업	관련예산
▶ 제주해녀 특별법 및 국가위원회 설치	국정 예산 (산정 어려움)	
▶ 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 1항 '나잠어업' 용어 변경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백만원
▶ 해녀협회 창설	독립사무실, 상근직원 및 운영비 10% (등록관련)	100백만원
▶ 전국차원 해녀 복지 및 양성 제도 마련	보유자특별지원금[78] (1인당*100만원)	200백만원
▶ 할망바당 확대	조사 계획 이후 예산 추정	

2.2.4 국제교류 관련 예산

▌유사사업 예산

<표 6-6> 국제교류 관련 예산

세부사업	유사사업	관련예산
▶ (태평양 및) 해녀 및 유사전통어업 국제 포럼개최	제주국제크루즈포럼 개최[79]	300백만원
	국제크루즈 박람회 참가[80]	30백만원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국제학술대회[81]	50백만원
▶ 해녀 및 전문가대상 국제교류 확대	국제예술교류지원[82]	324백만원
	문화재국제교류[83]	264백만원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84]	118백만원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지원[85]	10백만원
▶ 해녀의 발자취 (국내외) 연구 및 발간/영상 프로젝트 5년 계획 추진 (해녀문화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반영)	청색혁명 프로젝트 사업[86]	56백만원
	무형문화재 전승실태조사[87]	50백만원

78) 문화재청, 2016년도 무형유산 관련예산
79) 제주특별자치도, 2016년도 사업별 예산
80) 제주특별자치도, 2016년도 사업별 예산
81) 제주특별자치도, 2016년도 사업별 예산
8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6년도 사업별 예산
83) 문화재청, 2016년도 사업별 예산
84) 문화재청, 2016년도 사업별 예산 중 세계유산등재 운영비 1식
8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5년도 사업별 예산
86) 제주특별자치도, 2016년도 사업별 예산
87) 문화재청, 2016년도, 1식 50백만원, 실태조사연구예산

2.2.5 해녀 홍보 및 브랜드 구축 관련 예산

▌유사사업 예산

<표 6-7> 해녀 홍보 및 브랜드 구축 관련 예산

세부사업	유사사업	관련예산
▶ 제주 해녀의 날 지정	해녀의 날 지정[88]	비예산
▶ 유네스코 등재 기념판 제작 (어촌계별) 및 부착	황동 및 주물 현판(개당)[89] 예시: 	0.5백만원
▶ 해녀축제 국제화 추진	세계무형유산 등재 종목 관련 행사 공모 및 상설공연지원[90]	790백만원
	강릉 단오제 등재 및 축제 확대(8일)	1,671백만원
	정선아리랑제 행사확대	863백망원
	판소리, 강릉단오제등 국고지원(1식)[91]	615백만원
▶ 축제 및 행사 공간 정비사업 추진 (녹화, 조경 등)	해녀박물관 시설물 개보수 및 안전관리사업[92]	72백만원
	제주해녀축제 세계화[93] 하드웨어포함	2,300백만원
	경주 전통도자기 전승 공방마을 조성 타당성 조사 및 대체사업 발굴 연구[94]단가참고	2,223백만원
▶ 해녀 조형물 제작 및 설치	제주해녀상 건립[95]	10,000백만원
▶ (가칭)세계의 해녀 다큐 제작(방송사 연계)	제주해녀 미디어 콘텐츠 제작[96]	80백만원
	2016년도 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 사업[97]	최대 500백만원
	전통예술재발견(K-Sound) 방송 프로그램 제작[98]	1,500백만원
▶ 해녀 문화홍보 공식 SNS 페이지 구축	의료관광 온라인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99]	500백만원
	녹색관광 홈페이지 (관광공사)	260백만원
	관객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홍보마케팅 사업 중 '온라인 홍보'[100]	34백만원
	'국악대중화 국내외 홍보'[101]	21백만원
▶ 등재이후 중, 일, 영어 해녀 안내 및 홍보 영상/ 브로셔 개발	전통예술텍스트 번역및전통예술해외보급[102]	300백만원
	'국악누리 제작 및 발간(6회)'[103]	120백만원
▶ 해녀 관련 스토리텔링 및 영상 출판 사업 확대	무형유산 기록화, 구술채록 동영상제작[104]	90백만원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공모전[105]	20백만원

88)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5개년 기본계획, 2011~2015년도 사업별 예산
89) 하이마켓 홈페이지, www.hi-market.co.kr
90)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2016년도 사업별 예산
91) 문화재청, 2016년 예산, 인류무형유산 민간경상보조(국고) 1식
92) 제주특별자치도, 2016년도 사업별 예산

2.2.6 소득확대 기반 마련 관련 예산

▌유사사업 예산

<표 6-8> 소득확대 기반 마련 관련 예산

세부사업	유사사업	관련예산
▶ 해녀 직영 음식점 브랜드화 및 해녀문화 연계	서울시 식당 융자금[106] 지원	1,000백만원
▶ 해녀 상품 브랜드 개발 및 인증	해변(해수욕장) IOS인증 재 취득[107]	3백만원
	서울안심먹을거리 인증제도[108]	200백만원
	자원봉사 친화기업 인증제 실시[109]	10.5백만원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활성화사업[110]	500백만원
	남양주시 유기농산물 사용음식점 인증제[111]	10.3백만원
	지역 특화문화 콘텐츠 개발[112]	180백만원
	제주마씸 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 지원[113]	130백만원
	제주수산가공식품 글로벌 명품브랜드화사업[114]	104백만원
	청정제주 축산브랜드상품 육성[115]	1,290백만원
	한라마 혈통정립 브랜드화[116]	300백만원
▶ 해녀를 활용한 관광 콘텐츠 상품개발	제주해녀 캐릭터 개발[117]	50백만원
▶ 해녀 할망 민박확대 정책추진	어촌체험휴양마을 조성[118]	4,742백만원
	유휴어항 해양관광 리모델링 사업[119]	1,281백만원

93)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5개년 기본계획, 2011~2015년도 사업별 예산
94) 경주시청(2014), 경주 전통도자기 전승 공방마을 조성 타당성 조사 및 대체사업 발굴 연구 p.157
95)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5개년 기본계획, 2011~2015년도 사업별 예산
96)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5개년 기본계획, 2011~2015년도 사업별 예산
97) 미래창조과학부, 2016년도 사업별 예산
9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6년도 사업별 예산
99)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2016년 예산
100) 국립국악원, 2016년도 사업별 예산
101) 국립국악원, 2016년도 사업별 예산
102)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2016년도 사업별 예산
103) 국립국악원, 2016년도 사업별 예산
104) 문화재청, 2016, 기록화 동영상, 구술채록 및 자료집 1회: 50+40백만원
105) 제주문화예술재단, 2016년도 사업 예산
106) 서울시(2016)는 음식점, 휴게소, 제과점 등이 시설을 개선하거나 모범음식점, 관광식당으로 지정된 업소가 운영 자금이 필요할 경우 업소당 최고 1억원 까지 일반융자 2%, 특별융자 1%의 낮은 금리로 융자지원 계획발표
107) 제주특별자치도, 2016년도 사업별 예산
108) 서울특별시, 2016년도 사업별 예산
109) 제주도청, 2016년도 사업별 예산
110) 제주도청, 2016년도 사업별 예산
111) 남양주시청, 2016년도 사업 예산
112) 충남문화산업진흥원, 201년도 예산 결산
113) 제주도청, 2016년도 사업별 예산
114) 제주도청, 2016년도 사업별 예산
115) 제주도청, 2016년도 사업별 예산
116) 제주도청, 2016년도 사업별 예산
117)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5개년 기본계획, 2011~2015년도 사업별 예산
118) 제주특별자치도, 2016년도 사업별 예산

2.2.7 지식 기반 마련 관련 예산

▌유사사업 예산

<표 6-9> 지식 기반 마련 관련 예산

세부사업	유사사업	관련예산
▶ 연구 기반 마련(학회 설립 및 해녀 전문 학술지 발간) ▶ 여성사 관련 국내외 연구 및 발간 확대 ▶ 전통 어업 관련 국내외 연구 및 발간확대 ▶ 해녀의 융합 학술적 가치 (생물학, 물리학, 기상학, 해양학 등) 총서 발간	해양문화유산 연구활용[120]	3,626백만원
	해녀문화 조사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121]	210백만원
	무형문화재 정기조사 및 보고서발간[122]	174백만원
▶ 제주해녀 역사/생애사 조사 확대 및 영상화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제작[123]	821백만원
	기록보존 확대 및 콘텐츠 제작[124]	500백만원
	무형유산 자료수집 및 아카이브 구축[125]	760백만원
	무형유산 아카이브 서비스/ 가치확산[126]	632백만원
	2016년 제주지역 물질실태조사[127]	30백만원
▶ 해녀 연구 전문인력 레지던스 양성사업 추진	전통문화교육원운영지원[128]	2,235백만원
	전승공예품은행[129]	752백만원
	전승지원관리시스템 구축·운영[130]	80백만원
	대한민국 무형문화축전[131]	210백만원
	공연기회 확대를 통한 예능종목 전승활성화[132]	2,984백만원
	(서귀포)법환해녀학교 초기계획 및 운영예산	150백만원
▶ 지식과 기술 기록화	기록보존 확대 및 콘텐츠 제작[133]	500백만원
	무형유산 자료수집 및 아카이브 구축[134]	760백만원

119) 제주특별자치도, 2016년도 사업별 예산
120) 문화재청, 2016년도 사업별 예산
121)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5개년 기본계획, 2011~2015년도 사업별 예산
122) 문화재청, 2016, 무형문화재 조사연구 및 발간비
123) 문화재청, 2016년도 사업별 예산
124) 국립무형유산원, 2016년도 사업별 예산
125) 국립무형유산원, 2016년도 사업별 예산
126) 국립무형유산원, 2016년도 사업별 예산
127) 제주해녀문화연구원, 2016년도 사업별 예산
128) 문화재청, 2016년도 사업별 예산
129) 국립무형유산원, 2016년도 사업별 예산
130) 국립무형유산원, 2016년도 사업별 예산
131) 국립무형유산원, 2016년도 사업별 예산
132) 국립무형유산원, 2016년도 사업별 예산
133) 국립무형유산원, 2016년도 사업별 예산
134) 국립무형유산원, 2016년도 사업별 예산

2.2.8 거점(해녀박물관) 활성화 관련 예산

▌유사사업 예산

<표 6-10> 거점(해녀박물관) 활성화 관련 예산

세부사업	유사사업	관련예산
▶ 제주의 해녀 전승 및 진흥위한 실행 조직 구성	해녀아카데미 등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135]	12백만원
	충남문화산업발전위원회 운영[136]	30백만원
	종축개량공급위원회 운영[137]	3백만원
	사회적경제조직 육성[138]	1,110백만원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준(준거시설) 기반확대(예산/ 인력) ▶ 국립화 방안(단 도청, 해녀, 주민, 제주 전문가 중심 운영) ▶ 환경/생태/공동체 중심의 박물관으로서 기반 확대	문화재연구소 운영[139] 박물관 국립화 및 확대방안: 별도 부록에 제시	11,760백만원

2.2.9 에코뮤지엄 조성 관련 예산

▌유사사업 예산

<표 6-11> 에코뮤지엄 조성 관련 예산

세부사업	유사사업	관련예산
▶ 에코뮤지업 운영 조직 구성 ▶ 에코뮤지엄 가이드라인 제작	경기만 에코뮤지엄 조성사업[140]	1,000백만원
	에코 뮤지엄 시티 진해 사업[141]	1,200백만원
	운곡습지 생태체험지구 조성사업[142]	6,200백만원
▶ 해녀 작업. 공동체유산 지정/복구/정비 ▶ 해녀관련 생태환경 보전 (해양, 생태, 수종, 어종 등) 계획수립 ▶ 해녀 생활/문화/자연 환경 종합 보전계획 수립	문화재보존관리정책강화[143]	806백만원
	국유문화재관리[144]	768백만원
	수중문화재발굴 및 보존처리[145]	3,152백만원
	천연기념물 및 명승 보호[146]	1,008백만원
	바다환경 안전보전사업[147]	67백만원
	공공마리나 시설개선사업[148]	151백만원
	어촌체험관광시설 보수·보강[149]	150백만원
▶ 제주해녀문화의 정체성과 현실을 고려한 야외/실내전시 개발	무형유산 기획전시 운영[150]	396백만원
	무형유산 상설전시 운영[151]	377백만원
	국제무형유산영상페스티벌 추진[152]	100백만원

135) 제주특별자치도, 2016년도 사업별 예산
136) 충남문화산업진흥원, 2015년도 사업 예산
137) 제주도청, 2016년도 사업별 예산
138) 제주도청, 2016년도 사업별 예산
139) 문화재청, 2016년도 사업별 예산
140) 반월신문, 2016.07.13 일자, http://www.banwol.net/news/articleView.html?idxno=33571

세부사업	유사사업	관련예산
▶ 체험/교육/정주/양성 사업 운영(일회성/단기/중기/장기)	무형유산 교육과정 개설·운영[153]	759백만원
	찾아가는 해양박물관[154]	50백만원
▶ 숙박 포함 체험 공간 마련 (민박 등)	JDC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2015)	140백만원
▶ 도내 (에코뮤지엄 보고서 예시) 해녀체험 루트 개발 (바당올레)	광릉숲 둘레길 조성사업(7개코스, 59㎞)[155]	3,170백만원
	용인시 용담호수 둘레길 사업(4.1㎞)[156]	480백만원
▶ 해녀 공동체 문화체험 프로그램개발 및 4계절 시행	해녀아카데미 등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157]	12백만원
	소주방 활용 궁중음식 전시·체험프로그램[158]	700백만원
	고고학 체험교실[159]	100백만원
	청소년 해양문화유산 진로체험[160]	20백만원

3. 제주해녀문화 사업별 예산 산정

<표 6-12> 제주해녀문화 사업별 예산 산정

사업	예산추정
A. 해녀문화 자긍심 고취 및 가치 확대	
A-1. 해녀 헌장 제정	기실행
A-2. 해녀와 사회 가치(식구, 공동체)사례 발굴/발간	130백만원
A-3. 현역 해녀 대상 공동체 가치 정기 교육실시	50백만원
A-4. 입문 해녀 대상 해녀공동체 문화교육 실시	50백만원
소계	230백만원
B. 해녀문화 전승 및 양성	
B-1. 제주해녀 가치 인권/양성 분야확대	40백만원 (강사료X100어촌계X2건)
B-2. 해녀 전통문화 아카데미 확대	50백만원
B-3. 해녀학교 4곳 확대 및 양성확대	450백만원(150백만원X3곳)

141) 아시아뉴스통신 2015.12.03 일자,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932039&thread=11r02
142) 신아일보, 2016.08.29일자,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5805
143) 문화재청, 2016년도 사업별 예산
144) 문화재청, 2016년도 사업별 예산
145) 문화재청, 2016년도 사업별 예산
146) 문화재청, 2016년도 사업별 예산
147) 제주특별자치도, 2016년도 사업별 예산
148) 제주특별자치도, 2016년도 사업별 예산
149) 제주특별자치도, 2016년도 사업별 예산
150) 국립무형유산원, 2016년도 사업별 예산
151) 국립무형유산원, 2016년도 사업별 예산
152) 국립무형유산원, 2016년도 사업별 예산
153) 국립무형유산원, 2016년도 사업별 예산
154) 문화재청, 2016년도 사업별 예산
155) 중부일보, 2016.09.21 일자,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06232
156) focusnews, 2016.05.04 일자,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50400154941088
157) 제주특별자치도, 2016년도 사업별 예산
158) 문화재청, 2016년도 사업별 예산
159) 문화재청, 2016년도 사업별 예산
160) 문화재청, 2016년도 사업별 예산

사업	예산추정
B-4. 해녀 양성을 위한 어촌계 가입 정책적 유도	70백만원
B-5. 해녀대상 조사 해설인력 양성	100백만원
소계	710백만원
C. 제도적 개선 및 복지	
C-1. 제주해녀 특별법 및 국가위원회 설치	국고(비예산사업)
C-2. 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 1항 '나잠어업' 용어 변경	20백만원(연구-운영비)
C-3. 해녀협회 창설	100백만원
C-4. 전국차원 해녀 복지 및 양성 제도 마련	200백만원
C-5. 할망바당 확대	추정불가
소계	320백만원
D. 국제교류	
D-1. 해양, 인류/민속, 여성, 태평양 관련 국제단체 가입	40백만원 (출장 및 운영비 20X2건)
D-2. (태평양 및) 해녀 및 유사전통어업 국제 포럼개최	70백만원
D-3. 해녀 및 전문가대상 국제교류 확대	118백만원(문화재청 유사)
D-4. 해녀의 발자취 (국내외) 연구 및 발간/영상 프로젝트 5년 계획 추진	60백만원
소계	288백만원
E. 해녀 홍보 및 브랜드 구축	
E-1. 제주 해녀의 날 지정	10백만원 (운영비)
E-2. 제주해녀문화 국정 초등학교 교과서 수록	비예산
E-3. 유네스코 등재 기념판 제작(어촌계별) 및 부착	50백만원 (0.5백만원X100)
E-4. 해녀축제 국제화 추진	1,000백만원 (615백만원 국고)
E-5. 축제 및 행사 공간 정비사업 추진(녹화, 조경 등)	2,223백만원 (보고서 추정 참조)
E-6. 해녀 조형물 제작 및 설치	1,000백만원
E-7. (가칭)세계의 해녀 다큐 제작(방송사 연계)	500백만원
E-8. 해녀 문화홍보 공식 SNS 페이지 구축	221백만원 (200구축+21홍보)
E-9. 등재이후 중,일,영어 해녀 안내 및 홍보 영상/ 브로셔 개발	100백만원
E-10. 해녀 관련 스토리텔링 및 영상 출판 사업 확대	90백만원
소계	5,194백만원
F. 소득확대 기반 마련	
F-1. 해녀 직영 음식점 브랜드화 및 해녀문화 연계 방안	200백만원 (융자금: 서울 1,000백만원)
F-2. 해녀 상품 브랜드 개발 및 인증	20백만원
F-3. 해녀를 활용한 관광 콘텐츠 상품개발	50백만원
F-4. 해녀 할망 민박확대 정책추진	에코뮤지엄 민박 사업 연계 (I-8)
소계	270백만원
G. 지식 기반 마련	
G-1. 연구 기반 마련(학회 설립 및 해녀 전문 학술지 발간)	175백만원
G-2. 제주해녀 역사/생애사 조사 확대 및 영상화	700백만원 (50X4개권역 + 콘텐츠 500)
G-3. 여성사 관련 국내외 연구 및 발간 확대	150만원
G-4. 전통 어업 관련 국내외 연구 및 발간확대	150백만원

사업	예산추정
G-5. 해녀의 융합 학술적 가치 (생물학, 물리학, 기상학, 해양학 등) 총서 발간	150백만원
G-6. 해녀 연구 전문인력 레지던스 양성사업 추진	210백만원
G-7. 지식과 기술 기록화	500백만원
소계	1,885백만원
H. 거점(해녀박물관) 활성화	
H-1.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준(준거시설) 기반확대(예산/ 인력)	별도 박물관 기반확대 예산 참조
H-2. 제주의 해녀 전승 및 진흥위한 실행 조직 구성	50백만원 (운영비)
H-3. 국립화 방안(단 도청, 해녀, 주민, 제주 전문가 중심 운영)	별도 박물관 기반확대 예산 참조
H-4. 환경/생태/공동체 중심의 박물관으로서 기반 확대	I 에코뮤지업 조성 예산
소계	50백만원 + 기반확대(박물관)
I. 에코뮤지엄 조성	
I-1. 에코뮤지업 운영 조직 구성	50백만원 (운영비)
I-2. 에코뮤지엄 가이드라인 제작	300벡만원 (가이드라인 제작과정 운영비포함)
I-3. 해녀 작업. 공동체유산 지정/복구/정비	700백만원 (종합계획 및 정비)
I-4. 해녀관련 생태환경 보전(해양, 생태, 수종, 어종 등) 계획수립	1,000백만원
I-5. 해녀 생활/문화/공간 환경 종합보전계획 수립	100백만원
I-6. 제주해녀문화의 정체성과 현실을 고려한 야외/실내전시 개발	300백만원 (전시 실현 포함)
I-7. 체험/교육/정주/양성 사업 운영(일회성/단기/중기/장기)	50백만원 (운영계획 수립)
I-8. 숙박 포함 체험 공간 마련(민박 등)	140백만원 (착수 예산)
I-9. 도내 (에코뮤지엄 보고서 예시) 해녀체험루트 개발 (바당올레)	1,000백만원 (기반조성예산포함)
I-10. 해녀 공동체 문화체험 프로그램개발 및 4계절 시행	100백만원 (프로그램 진행예산포함)
소계	3,740백만원
총계	12,687백만원
총계-에코뮤지엄[161]	8,367백만원
총계-에코뮤지엄-조경공사비[162]	6,624백만원

- 제주 해녀문화 중장기 방안에서 추정하는 계획년도(5개년) 사업 총예산은 12,687백만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해녀문화 자체의 발전과 외부적인 홍보, 공감대형성과 전승 및 양성관련 예산과 국제교류 및 연구조사를 포함한 것임
- 단 총 예산 중 박물관 부지의 축제 및 행사를 위한 조경공사비는 부지면적 및 단가를 통해 추정하였는데 이전에 어느 정도(전체 혹은 부분) 조경공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하기에 추정액(2,223백만원)은 단지 예시로 간주할 수 있음. 또한 에코뮤지엄의 경우 박물관 확대와 병행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음. 이에 에코뮤지엄 관련 및 조경공사비를 제한 경우 총 추정예산을 6,624백만원으로 추정 가능함
- 또한, 제주해녀박물관의 기반확대를 위한 예산추정은 준거시설에 의거 별도로 부록에 추정하였음

161) 에코뮤지엄의 경우 기반확대와 연계 중장기 구상으로 계획추진필요
162) 조경공사비의 경우 별도 시설조성비로 (건설비) 포함되며 일괄 추정예산으로 별도 계획을 통해 정확한 예산추정이 필요

참고문헌

연구보고서

경주시청, 「경주 전통도자기 전승 공방마을 조성 타당성 조사 및 대체사업 발굴 연구」, 경주시청, 2014.

국립무형유산원,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국립무형유산원, 2016.

국립문화재연구소, 「대만 무형문화재 보호제도 조사 귀국 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국토해양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11~2020」, 국토해양부, 2011.

국토해양부, 「해녀 복지증진 및 관광자원화」, 국토해양부, 2009.

문화재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문화재청, 2016.

문화체육관광부, 「2015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문화체육관광부, 2015.

문화체육관광부, 「2016 주요관광지점입장객 통계」, 문화체육관광부, 2016.

문화체육관광부, 「2016 지역축제 및 문화관광축제」, 문화체육관광부, 2016.

문화체육관광부, 「현장박물관 활성화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6.

유네스코,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003」, 유네스코(2003)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무형문화유산보호 모범사례 2012-2013」,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2014.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페칼롱간의 인도네시아 바틱 무형문화유산 교육과 훈련」,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2015.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2016년도 업무계획」,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2016.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과, 「2016년 주요업무 실행계획」,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과, 2016.

제주특별자치도, 「2016년 주요 업무 계획」, 제주특별자치도, 2016.

제주특별자치도,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 제주특별자치도, 2007.

제주특별자치도,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제주특별자치도, 2011.

제주특별자치도,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제주특별자치도, 201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5개년 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 2011.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생태박물관 조성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2013.

제주특별자치도, 「해녀항일운동공원조성 기본계획수립 연구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2009.

제주특별자치도, 「해녀항일운동공원조성 기본계획수립 연구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2014.

제주특별자치도,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제주특별자치도, 201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익산 미륵사지 출토유물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6년도 사업별 예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6.

한국토지주택공사, 「2015년 단지개발사업 조성비 추정 기초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2015.

단행본

유네스코, 『살아있는 판당고박물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2015.
제주도, 『제주도세요람』, 제주도, 193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통권 118호』, 제주특별자치도, 2014.
제주특별자치도,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 제주특별자치도, 2007.
Davis. Peter, 『Ecomuseum : A Sense of Place』, A&C Black, 2011.

인터넷 자료

가나자와 문화부, www.kanazawa-arts.or.jp
고창농악보존회, www.gochanggut.org
고창판소리박물관, http://www.gochang.go.kr/pansorimuseum/index.gochang
공익재단법인 아이누문화진흥·연구추진기구(아이누문화재단), http://www.frpac.or.jp/index.html
광주김치타운, kimchitown.gwangju.go.kr
국립국악원, www.gugak.go.kr
국립박물관문화재단, www.cfnmk.or.kr
국립중앙박물관, www.museum.go.kr
국립해양문화재 연구소, www.seamuse.go.kr
국악의성지, gukak.namwon.go.kr
남사당놀이보존회, www.namsadang.or.kr
남양주시청, www.nyj.go.kr
남원농악보존회, www.namwongut.org
노가쿠학회, http://nohgakugakkai.cside.com/
노가쿠협회, http://www.nohgaku.or.jp/
대한택견연맹, www.koreataekkyon.com
더노닷컴, http://www.the-noh.com/jp/link.html
라틴아메리카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 센터, http://www.crespial.org/
마스크박물관, http://www.museedumasque.be/en/index.php
뮤지엄김치간, www.kimchikan.com
미래창조과학부, www.msip.go.kr
바틱박물관, http://museumbatikpekalongan.info/
박동진판소리전수관, www.parkdongjin.com
뱅슈카니발, http://www.carnavaldebinche.be/index.html
법제처, www.law.go.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
살아있는 판당고 박물관, www.museuvivodofandango.com.br
서울아리랑페스티벌, www.seoularirangfestival.com
아리랑보존회, www.ariranginfo.co.kr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형 문화유산 국제 연구센터, http://http://www.irci.jp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 www.baudeogi.com
안성맞춤랜드, asmcland.or.kr
안성시청, www.anseong.go.kr
오키나와국립극장, www.nt-okinawa.or.jp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www.ichcap.org
유네스코한국위원회, http://unesco.or.kr/
유럽 문화유산 네트워크, www.european-heritage.net
일본 문화청, www.bunka.go.jp
일본국립노악당, www.ntj.jac.go.jp/nou.html
일본예술문화진흥회, www.ntj.jac.go.jp
잉글리시 헤리티지, www.climatechangeandyourhome.org.uk
전주소리문화관, http://sori.jjcf.or.kr/
전통 구미오도리 보존회, http://kumiodori.jp/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www.kotpa.org/newhome
정선아리랑문화재단, www.jacf.or.kr
제주문화예술재단, www.jcaf.or.kr
제주특별자치도, http://child.jeju.go.kr/
제주해녀문화연구원, www.jejuhaenyeo.org
제주해녀박물관, www.haenyeo.go.kr
충남문화산업진흥원, www.ctia.kr
충주시청, www.cj100.net
충주시택견전수관, www.taekgyeon.net
평택농악보존회, www.ptnongak.or.kr
하이마켓 홈페이지, www.hi-market.co.kr
한국택견협회, www.krtga.com
한국판소리보존회, www.koreapansori.com
호남좌도임실필봉농악, www.pilbong.co.kr

부 록

제 1 절 해녀박물관국립화방안

1. 해녀박물관 국립화의 필요성 및 가치

1.1 국가 수준의 확대 필요성 및 가치

▌국립박물관 전환 및 기능의 확대 방향 및 근거

- 유네스코 등재 이후 세계적인 인류유산이 되는 제주해녀문화의 수집, 관리, 보존, 전시 및 관련 연구, 교류 등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위상에서 진행하기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계가 있음
- 현재 해녀박물관은 위치상 제주해녀문화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과거 유산뿐만 아니라 가장 해녀의 활동이 집중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 이미 주요 관광거점에 위치하지만 향후 공항건설 이후 가장 중요한 관광 중심에 위치하게 되어 관람객 등 방문 증가가능성 높음
- 제주만의 문화가 아니라 이미 전국차원의 문화로 진화한 해녀문화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의 '국립화'가 필요함
- 나아가 등재 이후 일본 및 기타 나잠어업 등 전통어업연관 문화의 중심거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의 기능 확립 필요
-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제주도에 위치한 해녀박물관은 향후 전국의 문화를 아우르는 거점으로서 '한국해녀 박물관' 즉 국가차원의 국립화에 의한 '국립해녀박물관'을 지향할 필요가 있음

▌국가 차원의 문화로서의 해녀문화의 국가문화로서 가치 전승 및 확산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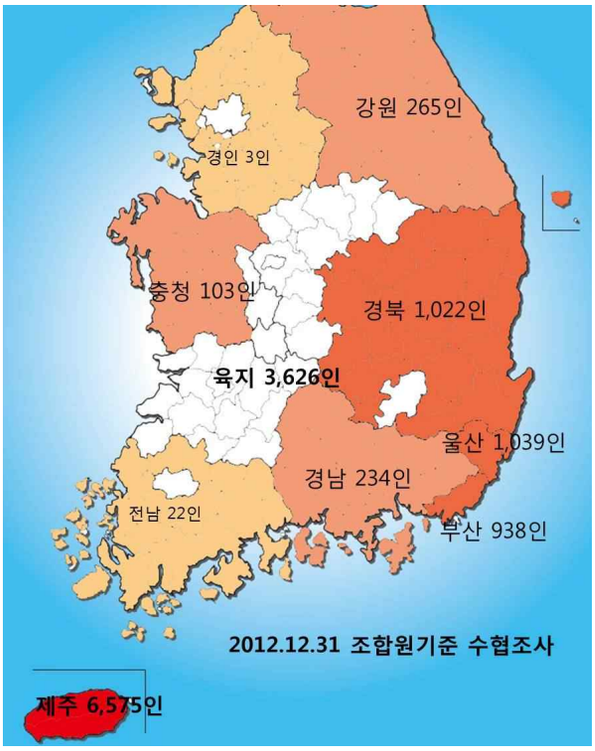
- 해녀문화는 제주가 중심이지만 이미 20세기 초 제주 해녀의 육지 및 국외 진출로 인해 현재 전국토의 문화가 되었음
  - 1937년 자료[163]에 의하면 출가해녀 통계가 한반도에 경상남도(1,869인)을 비롯 전라남북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함경남북도, 황해도에 2,301인이 진출, 그 외 일본,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중국의 칭다오 및 다롄에도 활발히 진출하여 활동하였음
  - 수협중앙회 조사 2012년 12월 31일 기준에 의하면 현재 전국 조합원소속 해녀 10,201인 중 경인 3인, 강원 265인, 충청 103인, 전남 22인, 경북 1,022인, 경남 1,273인, 부산 938인, 제주 6,575인으로 조합의 경우 전국에 옹진 (경인), 고성, 동해시, 삼척, 원덕, 속초, 양양, 강릉, 죽왕 (강원), 보령, 서산, 안면도 (충남), 신안, 거문도, 여수 (전남), 경주, 강구, 구룡포, 울릉군, 죽변, 영덕북부, 포항, 후포 (경북), 거제, 삼천포, 울산, 의창, 진해, 통영, 남해군, 욕지, 사량, 창원서부 (경남), 부산, 기장 (부산)의 조합에 소속되어 있어 내륙지방 외에 전국에 해녀의 활동과 그에 따른 해녀문화가 제주에서 파생되어 지역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볼 수 있음

163) 제주도, 『제주도세요람』, 1937년, 참조

- 한편 국가 무형문화재 지정 역시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제주해녀가 아닌 타 지자체의 해녀를 아우르는 한국 '해녀'로 지정 추진 중임

  ※ 향후 제주해녀문화의 단독등재 이후 타 지자체의 지속적인 공동등재 요청이 일 경우 타 지자체의 해녀를 포함한 '한국해녀'로 변경 될 수도 있음

- 따라서 제주 이외의 해녀의 문화를 포함한 다양한 해녀문화를 아우르고 전승하는 기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제주에 위치한 해녀박물관의 역할이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그림 1] 전국 해녀 분포 현황

▌국제 연계되는 해양문화 거점으로서의 해녀문화 확대 필요

- 유네스코 등재 이후 일본의 아마 해녀문화 및 유사 나잠어업 및 전통어업 문화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국제교류 및 협력이 가능한 기능으로의 확대에 국가차원 역할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정 및 도민 차원에서의 기능확대(국립화)의 가치

- 국립화를 통해서 국가 중심문화로서 해녀문화의 위상강화와 더불어 제주해녀들의 위상 확대 효과가 있음
- 제주도가 타지자체의 해녀들을 아우르는 해녀의 메카로서의 입지 확립
- 제주도의 해녀박물관 운영비 연간 6억원 절감(인건비 제외)
- 지역 고용 창출효과(제주도민 약 50명 채용): 예) 2016년 국립제주박물관 현원 58명(공무원 26명, 청경 4명, 용역 17명, 계약직 11명), 사업 및 운영비 24여 억 원(인건비 제외)

- 국비의 지속적 투자와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낙수효과 증대효과
- 제2 국제공항과 더불어 인근에 위치한 해녀관련 세계적 랜드마크 구축을 통한 제주이미지 홍보 가능
- 유네스코 등재 이후 국가의 대표적인 어업유산의 차원에서 확대되어 해양문화, 해양문화, 여성문화, 어업문화, 민속 및 전통문화의 거점으로 국가 차원에서의 운영과 사업추진의 기반이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함

1.2 국립화 관련 대안 분석

▌기능관련 확대와 국립화

- 해녀문화 확산을 위한 기존의 해녀박물관 기능 확대 방안으로는 기존 박물관의 조직확대, 위상을 높인 박물관으로서 센터 등을 통한 연구 및 기타 사업기능 추가, 진흥원으로서 사업중심 기구로서의 재편을 들었음
- 이 중 현재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제주해녀박물관'의 국립화를 들 수 있는데 이는 박물관의 위상을 국가적 차원으로 높이며 동시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임
  - 관련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법) 제 4조 (사업)에서는 박물관의 사업으로 '박물관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강습회·영사회(映寫會)·연구회·전람회·전시회·발표회·감상회·탐사회·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간행물·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등 폭 넓게 정의하고 있기에 '박물관'의 위상을 통해 진흥원, 진흥센터 등의 사업, 교류 및 연구의 역할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음

▌국립화 관련 제도적 근거 및 명시

- 문화체육관광부 및 중앙행정기관(부처)의 국립박물관 설립에 관하여는 근거 등이 제도적으로 제시되고 있지는 않고 단계 및 행정 행위 정도가 제시되고 있음
- 박물관법에 의하면 국립박물관의 설립에 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음

『제2장 국립박물관과 국립미술관, 제11조(설립 협의) ①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 박물관이나 국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의 경우 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음.

『제7조(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립박물관이나 국립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사업계획서
2. 시설의 명세서 및 평면도

3.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 내역서
4. 조직 및 정원』

-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박물관 설립관련 '제10조 (설립 및 운영)'에는 『5.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유산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 및 문화향유의 균형적인 증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중앙, 민속 박물관 및 현대미술관의 지방관의 설립근거를 들고 있음.

• 도립기관 국립화 사례: 국립미륵사 유물전시관 사례

- 1997년 개관이후 전라북도 미륵사지유물전시관 운영
- 2009년 미륵사지석탑 해체조사 중 사리장엄구 출토, 국립박물관 승격건의문 국회 전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요청
- 2013년. 국정과제 (113-4-2. 익산 미륵사지유물전시관 국립승격추진) 지정
- 2015년 1. (가칭) 국립익산박물관 건립추진방향 보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2015년 6. 국립익산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연구완료, 2015년 사업비 정부예산안 반영
- 2015.9. 국립익산박물관 조직신설 협의
- 2015.12.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 2015.12.30.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 발족 : 지자체 인력파견 제정을 통해 6명 파견

※ 주요 시사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동시근무가능

• 제주해녀문화의 특수성을 고려 국립화의 단계에서도 학예, 연구, 전시 및 사업 분야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문인력 및 공무원의 공동근무가 가능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한데 관련하여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의 경우의 참조가 가능

• 「미륵사지유물전시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 281호)」

- 제3조(전시관의 구성 및 운영) ① 전시관에 관장 1명을 두며,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전시관의 관장은 전시관의 운영 및 증·개축 업무를 총괄하고, 전시관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전시관의 직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이러한 사례 등을 통해 향후 국립화의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와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

▌해녀박물관 국립화의 대안

• 현재 시행중인 제도 및 운영 기관 등을 살펴볼 때 제주 해녀박물관이 박물관에 한해서 국립화로 전환될 수 있는 대안은 다음 3가지로 볼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제주박물관 분관(제주에 2곳의 국립지방박물관 유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문화재청 소속 국립박물관(현재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운영중)

–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해양박물관(부산광역시 소재) 분관

- 이 중 현재 소속관련 및 어업유산 1호의 성격을 볼 경우 해양수산부와 연관성이 깊으며 국립해양박물관 분관 및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 등과 연계한 분관형식의 박물관 등이 가능함
- 그러나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등재와 문화로서의 제주해녀문화를 고려할 때 주제의 정체성을 고려하면 '문화재청' 관련 연관이 가장 적합함

1.3 국립화 관련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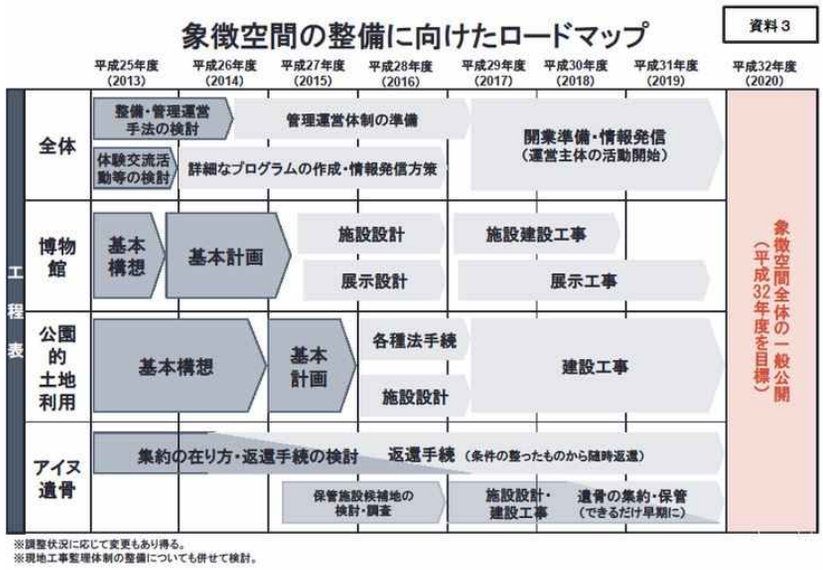
1.3.1 유네스코 무형유산 박물관 국립 전환 사례 : 아이누 민족 박물관

▌현황

- 민족박물관은 전체 부지의 중앙에 위치하고 전면의 구관은 1967년에 시라오이죠립의 시라오이민속자료관으로 개관하여, 1984년에는 후면으로 연결하는 형태로 아이누민족박물관(신관)을 건설하였음. 참고로 아이누 족의 문화유산으로서 아이누 전통춤은 2009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었음

[그림 2] 아이누 민족 박물관

- 현재는 재단법인 아이누민족박물관이 운영을 하고 있으며, 박물관법에 따라 등록박물관(역사분야)으로 학예원 4명이 근무하고, 아이누민족의 유형문화재를 중심으로 전시하고 있음



[그림 3] 아이누 민족 박물관

▌국립 전환 관련 보도

- 스가 관방장관은 2014년 정부의 아이누 정책 추진 회의에서 홋카이도 시라오이쵸우에 건설할 예정의 아이누 민족에 관한 박물관이나 공원에 대해서 도쿄에서 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이 개최되는 2020년까지 완성시킨다는 의지를 제시
- 동시에 아이누 민족과의 공생을 상징하기 위한 공간은 올림픽이 개최되기 전에 완성시키는 계획을 제시
- 현재까지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제시되고 있지 않지만 2020년 올림픽 및 2009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등은 우리의 경우와 다소 유사한 부분이 있어 지속적인 과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3.2 프랑스의 국가와 지방의 협력을 통합 박물관 건립 사례

- 프랑스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법인을 구성하여 예산, 인력, 전문성을 협력하는 방안으로 2002년 6월 14일에 문화협력공공법인(EPCC)을 창설하는 법[164]을 제정
- 기존의 국립문화시설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역할과 주관이 필요한 문화시설
- 문화재의 경우 국가와 협력에 의한 법인으로 법적지위를 변경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
- 대표적인 사례로는 프랑스 남부의 유명한 로마시대 유적인 '뽕뒤가르(Pont du Gard)'나 아비뇽의 '교황청(Palais des Papes)' 같은 문화유산, 파리의 새로운 문화센터인 '104센터(Le CentQuatre Paris)', 만화페스티벌의 도시 앙굴렘(Angoulême)의 '만화이미지센터(Cité internationale de la bande dessinée et de l'image)', 혹은 해외의 다양한 기부로 건립된 '지베르니인상파박물관(Musée des impressionnismes Giverny)' 등이 있는데 특히 지방문화분권의 사례로서 프랑스 대표 문화시설인 퐁피두센터와 루브르박물관의 분관인 메츠

164) Loi n° 2002-6 du 4 janvier 2002 relative à la création d'établissements publics de coopération culturelle

퐁피두센터(Centre Pompidou Metz)와 랑스 루브르(Louvre Lens)박물관이 EPCC 법인의 대표적 시설임

[그림 4] 프랑스 북부 Lens의 Louvre 분관

[그림 5] 프랑스 동부 Metz의 Pompidou 분관

2. 확대 및 국립화의 기본 방향

- 기존의 국가중심의 지방 국립박물관 및 문화재청 소속기관과 다른, 지역의 문화, 사회 그리고 자연이 주체가 되며 이러한 주체가 콘텐츠, 운영에 반영되는 형태의 확대된 거점을 지향

▌해녀와 제주도의 정체성 중심의 방향성

- 주민(해녀) 협의체 및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는 박물관 지향
- 시설(건축물), 마을(공동체), 자연 (바당)이 동일하게 박물관 공간으로 구성되는 박물관
- 전시, 생활, 체험-교육 이 동일한 비중으로 콘텐츠화 되는 박물관

▌운영에 있어서 협력 중심의 방향성

- 코어 운영(전시, 교육, 체험, 수집 등)에 있어서 주민, 전문가 거버전스 중심으로 운영(해녀 및 주민의 박물관의 주체로)
- 박물관 행정 운영에 있어서 중앙정부(국립화의 경우)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협력 행정 추진 (익산 유물전시관 사례 참조)

▌기능에 있어서 차별성

- 전시중심(박물관), 연구중심(연구소·센터), 사업중심(진흥기관)의 기능이 동시에 가능한 기능으로 편성

▌특화된 기반으로 확대

- 앞서 제주 정체성, 협력, 기능차별성을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확대에 있어서 국가차원의 확대가 필요할 경우 본 지향점을 중심으로 하여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

3. 준거모델의 설정을 통한 확대 방안

- 앞서 제시한 중심 방향성에 걸맞는 준거모델은 현재 국내에(국가차원) 존재하고 있지 않기에 유사한 두 가지 준거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박물관 중심과 연구기능 중심의 기관으로 살펴보았음

3.1 준거모델 설정

- 본 항은 해녀박물관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기존의 국가차원의 기관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단 이 부분은 국립화에 대한 논의 이전에 '해녀박물관'이 국제적인 문화유산을 주제로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임. 두 사례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 익산미륵사지유물전시관'과 문화재청 소속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를 들어서 박물관 중심의 확대방안과 연구기관+박물관 형태의 확대방안의 사례로 제시하였음

3.1.1 국립 익산미륵사지 유물전시관 준거사례

▌국립 익산미륵사지 유물전시관 연혁

- 도립기관 국립화 사례: 국립미륵사 유물전시관 사례
  - 1997년 개관이후 전라북도 미륵사지유물전시관 운영
  - 2009년 미륵사지석탑 해체조사 중 사리장엄구 출토, 국립박물관 승격건의문 국회 전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요청
  - 2013년. 국정과제 (113-4-2. 익산 미륵사지유물전시관 국립승격추진) 지정
  - 2015년 1. (가칭) 국립익산박물관 건립추진방향 보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2015년 6. 국립익산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연구완료, 2015년 사업비 정부예산안 반영
  - 2015.9. 국립익산박물관 조직신설 협의

- 2015.12.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 2015.12.30.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 발족: 지자체 인력파견 제정을 통해 6명 파견

조직 및 인력 계획안

- 여기에서는 2010년 당시 도립시설인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의 역할확대를 위한 연구[165]에서 향후 국가의 대표적인 유형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박물관의 조직, 사업 등의 계획을 제시하고자 함
- 당시 연구에서는 조직관련 총 25명 즉 현재 '해녀박물관'의 약 두배 정도의 인원을 예상하였으며 기획, 운영 17, 학예 8명을 제시하였음. 다소 기획운영의 일반행정, 기능직의 비율이 많으나(일반적인 국립박물관 경향) 해녀박물관의 경우 학예연구에 보다 다양한 학예 및 연구인력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단 일단 현재 계획 수준에서의 확대를 목표를 둘 수 있음

<표 1> 조직 및 인력 계획안

구분	구성인력	
합계	총 25명 : 5급 1, 6급 2, 7급 2, 9급 2, 연구관 2, 연구사 5, 기능 11	
기획운영과 (17명)	17명 : 연구관 1, 5급 1, 6급 1, 7급 2, 9급 1, 기능 11	
	국립익산박물관 업무 총괄(관장)	학예연구관(1명)
	기획운영과 업무 총괄(과장) – 임용, 복무, 교육훈련, 급여 등 인사 – 조직, 국회, 기획, 법령, 성고관리 – 예산편성, 지출, 결산, 계약 – 보안, 물품·국유재산 관리, 민원, 문서수발 – 비정규직 관리, 문화행사 등	행정5급(1명) 행정6급(1명) 행정9급(1명)
	박물관 건축, 토목분야 시설 관리 홈페이지 관리 등 전산업무 기타 타 업무 지원 등	시설7급(1명) 전산7급(1명)
	전기, 통신, 기계분야 시설관리 방재실 업무 총괄 야외 조경관리 관용차 관리 및 운전 관람안내 및 유물보호, 청사보호 기타 타 업무 지원 등	기능10급 전기원(2명) 기능10급 기계원(1명) 기능10급 농림원(1명) 기능10급 운전원(1명) 기능10급 방호원(6명)
학예연구실 (8명)	8명 : 연구관 1, 연구사 5, 별정 6급 1, 9급 1	
	학예연구실 업무 총괄(실장) – 개관준비, 유물관리, 상설전시실 운영, 특별전시, 학술조사·연구, 국내·외 교류 – 유물 보존처리 – 보존 환경 관리 및 분석	학예연구관(1명) 학예연구사(3명)
	익산지역 백제 유적 발굴 조사	학예연구사(1명)
	익산 지역 국가귀속문화재 관리·운영	학예연구사(1명)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박물관교육직(1명)
	학예연구실 일반서무 및 예산, 민원 비정규직 관리, 기타 타 업무 지원 등	행정9급(1명)

출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2), 익산 미륵사지 출토유물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방안 연구, p 104

165)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2), 익산 미륵사지 출토유물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방안 연구,

관리 운영 및 사업 예산

- 본 항에서는 현 국립지방박물관의 사업예산을 비교하는 부분을 제시하고자 함. 일반적으로 관리 운영 및 사업 예산은 기본경비와 주요 사업비로 구성됨. 아래 표는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 국립지방박물관의 예산 현황을 참고로 제시함

<표 2>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 국립지방박물관의 예산 현황

구분	중앙 박물관	경주 박물관	광주 박물관	전주 박물관	부여 박물관	대구 박물관	김해 박물관	공주 박물관
주요 사업비 (백 만원)	21,795	1,953	1,761	1,387	1,908	1,499	1,574	1,430
기본경비 (백 만원)	974	311	290	344	272	267	211	373
정원 (명)	244	45	33	34	28	24	25	22
관람객 (만 명)	324	149	37	33	45	35	44	44
시설 연면적 (m^2)	137,543	18,940	14,293	13,270	9,686	15,090	16,608	12,102
소장 문화재 (점)	303.789	99,462	68,990	29,959	38,950	59,854	64,502	37,544

출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2), 익산 미륵사지 출토유물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방안 연구, p 109

사업비 분석

- 지방국립박물관 중 4급 상당 기관의 주요 사업비 현황을 살펴보면, 주요 사업비는 상설전시 및 특별전시, 소장품 관리 및 보존처리, 학술조사연구,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시설 개보수 및 관리, 시설 운영예산으로 구성
- 연간 사업비 총액은 국립부여박물관 1,908백만 원, 국립공주박물관 1,430백만 원, 국립대구박물관 1,500백만 원, 국립청주박물관 1,269백만 원, 국립김해박물관 1,574백만 원, 국립제주박물관 1,422백만 원, 국립진주박물관 1,236백만 원, 국립춘천박물관 1,433백만 원임. 이를 평균하면 1,470,50백만 원임.
- 4급 상당 국립지방박물관의 연간 사업비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각각 상설 및 특별전시 209,25백만 원(14.22%), 소장품 관리 및 보존 처리 168,63백만 원(11.46%), 학술조사연구 56,50백만 원(3.84%),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248,50백만 원(16.89%), 시설 개보수 및 관리 277,38백만 원(18.85%), 시설 운영예산 511,25백만 원(34.74%)으로 구성됨

<표 3> 사업비 분석

구분	총액	상설·특별전시	소장품 관리 및 보존처리	학술조사 연구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시설 개보수 및 관리	시설 운영
평균 (백 만원)	1,471.50	209.25	168.63	56.50	248.50	277.38	511.25
비율 (%)	100	14.22	11.46	3.84	16.89	18.85	34.74

출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2), 익산 미륵사지 출토유물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방안 연구

<표 4> 익산미륵사지 준거에 의한 해녀박물관 확대 로드맵 목표

내용		2016	2018	2020	2025	
인원	행정/기능	12인	13인	14인	14인	
	학예/연구	2인	5인	8인	11인	
일반운영비		214백만원	300백만원	500백만원	788백만원	
사업비		363백만원	470백만원	550백만원	683백만원	전시 210
						관리보존 138
						연구 90[166]
						교육문화 245

▌제주특별자치도와 정부 협력 방안모색

- 제주해녀문화의 특수성을 고려 국립화의 단계에서도 학예, 연구, 전시 및 사업 분야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문인력 및 공무원의 공동근무가 가능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한데 관련하여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의 경우의 참조가 가능
- 「미륵사지유물전시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 281호)」
  - 제3조(전시관의 구성 및 운영) ① 전시관에 관장 1명을 두며,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전시관의 관장은 전시관의 운영 및 증·개축 업무를 총괄하고, 전시관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전시관의 직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이러한 사례 등을 통해 향후 국립화의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와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

3.1.2. 국립해양문화재 연구소 기능 수준의 확대방안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 해녀박물관

- 국립해양문화재 연구소는 문화재청에 소속된 국립 기관으로서 우리나라 수중문화유산을 담당하고 연구하는 유일한 기관임. 국립해양문화재 연구소는 해양역사박물관인 '해양유물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음. 특히 수중문화재의 과학적 보존과 분석, 고선박 및 전통선박 복

166) 유형문화재에 비해 소장품관리/보존처리 부분을 감소하고 연구를 확대하였음

원, 고선박의 조선기술과 항해기술 연구, 해양고고학적 유적지와 유물조사, 섬 문화 및 전통고기잡이연구 등은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이루고 있음

- 해녀박물관도 국립해양문화재 연구소와 같이 향후 무형문화재 지정을 고려하면 국내 해녀문화 및 유산을 담당하고 연구하는 중심기관으로서 국가차원의 대표적인 박물관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연구/사업/전시 기능을 포함하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장기적인 준거모델로 제시될 수 있음

국립해양문화재 연구소의 연혁

<표 5> 국립해양문화재 연구소 연혁

년도	연혁
1975	신안해저유적 발견(1975)과 발굴(1976~1984) : 한국 최초의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1981	목포보존처리장 개설 : 문화재관리국(현 문화재청) 소속 국립문화재연구소 부설 기관
1990	목포해양유물보존처리소 개소
1994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개관
2009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로 명칭 변경
2011	태안보존센터 완공 : 충청남도 태안에 위치
2012	수중문화재 발굴 전용 선박 '누리안호' 건조
2014	서해수중유물보관동 건축 시작(2017년 완공 예정) : 충청남도 태안에 위치

출처 : 국립해양문화재 연구소 홈페이지, www.seamuse.go.kr

국립해양문화재 연구소 현황 및 예산 비교

- 총 4개과 63명으로 구성됨(기획운영과 21명, 수중발굴과 24명, 해양유물연구과 8명, 전시홍보과 9명)
  (해녀박물관의 경우 관장을 비롯해 학예직 2인 포함 14인(일반직 4인, 청원경찰 1인, 공무직 9인 근무)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6년 총 예산은 14,056백만원 임
  - 일반회계 : 기본경비 1,039백만원, 사업비 6,778백만원
  - 보호기금 : 서해수중유물보관동건립비 6,239백만원

<표 6> 2016년 기준 해녀박물관과의 비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예산항목	해녀박물관 (해녀박물관 운영·관리+해녀박물관 시설정비 · 유지관리)
7,817백만원	총 운영비 예산	577백만원
1,039백만원	일반운영비	214백만원
6,778백만원	사업비	363백만원

출처 : 문화재청 내부 자료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규모

– 시설규모 : 본관 및 별관 건축연면적 총 건물 2동 9,895㎡(본관 지상2층 지하1층 8,307㎡, / 별관: 교육동 1,588㎡)
본관시설: 상설전시 4실, 기획전시1실, 어린이해양문화체험관 1실 등
별관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탈염장

• 국립해녀박물관 규모

– 시설규모 : 건물 2동 4,958.2㎡(지하1층, 지상3층), 기념탑 1개(H=12M)
지하1층(1,590㎡) 세미나실, 수장고, 기계실 등
1층(1,449㎡) 영상실, 전시실, 로비 등 / 2층(643㎡) 전시실
3층(320㎡) 전망대 / 분관(956.2㎡) 공연장, 어린이해녀관, 사무실 등

▌로드맵 및 단계

• 국립화와 별개로 중요성을 고려하여 현 해녀박물관의 인력, 예산 및 규모의 증가를 준거시설 국립해양문화재 연구소를 설정하여 목표를 제시하였음

• 인건비의 경우 별도로 총 예산 설정에서 제시함

<표 7> 해양문화재연구소 준거에 의한 해녀박물관 확대 로드맵 목표

내용	2016	2018	2020	2025
인원	14인	20인	30인	39인[167]
일반운영비	214백만원	300백만원	500백만원	643백만원[168]
사업비	363백만원	1,000백만원	2,500백만원	4915백만원[169]
규모 (연면적)	4,958m2	6,500m2	8,000m2	9,895m2

4. 공용관광지 요금 현실화 방안 관련

▌분석 방식 관련

• 현실화연구: 앞선 연구는 공영관광지 39개를 원가분석의 대상으로 설정. 활동기준원가를 산정한 후 적정입장료를 산정하였음

• 의견: 적정입장료 산정이 기본 분석 방식임에도(해녀박물관 현행 1,100원-원가분석 6,340원) 본 연구내용에서는 1, 2안 모두 인상을 제시하였으나 정책적 판단에 의해 무료로 책정되었음

▌적정요금안의 요인 관련

• 현실화연구: 요금인상의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문화적, 자원적 가치를 검토하여 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요금인상'으로 제시, 요금 무료화의 경우 '제주를 대표하는 문

167)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인원에서 수중발굴인원 제외
168) 수중발굴등의 업무 등을 인원비율별로 운영비에서 제외
169) 수중발굴등의 업무 등을 인원비율별로 운영비에서 제외

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공공 및 관광객의 이용도를 획기적 제고'로 차별화 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가 상당히 주관적임

- 의견: 해녀박물관은 유네스코 등재 이후 오히려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앞선 분석의 경우와 병행하여 요금인상이 필요한 부분임

▌사례군 분석

- 현실화연구: 해녀박물관과 같이 무료화 대상으로는 항일기념관, 김만덕 기념관, 선사유적, 유적지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음.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은 대부분 인상, 유지 등에 포함되고 있음
- 의견: 해녀박물관과 같은 법에 의해 등록되게 되어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민속자연사 박물관, 도립미술관, 현대미술관의 요금인상, 그리고 현행유지의 사립박물관 서귀포 감귤박물관 등이 유지에 포함된 것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음. 공립 1종 박물관으로서 법적으로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을 필요가 있음

▌해녀박물관과 타 시설과의 비교

- 현실화연구: 해녀박물관은 '부산어촌 민속관'을 타 지역 사례로 들며 무료화를 제시하고 있음. 같은 '무료화' 대상은 대부분 기념관을 대상으로 함
- 의견: 타 지역의 사례를 들 때 차라리 울산 장생포고래박물관의 경우 2,000원 일반요금, 별관포함 5,000원 요금의 사례 그리고 4D 패키지로 9,000원으로 책정하고 있음. 목포자연사박물관 역시 3,000원(일반성인)을 책정하고 있음. 또한 해녀박물관은 해녀관련 원자료 중심으로 해녀 관련 시도지정문화재 14점을 포함 3,579점 박물관자료을 소장하고 있어 타 기념관 및 모조품 중심의 공용관광지와 달리 콘텐츠 중심의 주요 박물관인 점을 간과하고 있음

▌추가 의견

- 국제적 가치: 유네스코 등재와 나아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의 경우 국제적 그리고 문화적 가치가 대외에서 인정받은 부분이며 나아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요인이 분명히 있어 인상이 오히려 필요함
- 향후 제2공항 건설을 고려하면 관광거점(차량 이동 20분 내외)에 위치하며 이는 향후 문화관광의 중심의 경제적 가치를 오히려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간과하고 있음

제 2 절 제주해녀문화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제주해녀문화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후 제주해녀문화를 세계적인 문화 아이콘 및 제주문화 발전 모델로 구체화하기 위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제주해녀문화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해녀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선행 조사로써 진행되는 본 설문조사는 차후 실행될 제주해녀문화 발전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조사결과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조사문항에 따라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 6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규원 연구위원

연 구 진 : 김규원 연구위원
담 당 : 이정헌 연구원(e-mail : grape0217@kcti.re.kr, tel : 010-5090-6012)

※ 다음의 질문을 잘 읽고 해당하는 것을 골라 √표 해주십시오.

문1. 현재 제주해녀문화에 대해 국내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잘 알려져 있다 ② 잘 알려져 있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⑤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문2. (문1. ①~③ 응답자만) 현재 제주해녀문화에 대해 국내에 잘 알려진 내용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전부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물질 (작업) 관련
② 해녀의 역사
③ 해녀와 마을 공동체
④ 해녀 관련 문화 (신앙, 해녀노래, 해녀굿 등)
⑤ 해녀와 바다 생태계
⑥ 제주에서 여성의 역할
⑦ 기타( )

문3. 현재 제주해녀문화에 대해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전부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물질 (작업) 관련
② 해녀의 역사
③ 해녀와 마을 공동체
④ 해녀 관련 문화 (신앙, 해녀노래, 해녀굿 등)
⑤ 해녀와 바다 생태계
⑥ 제주에서 여성의 역할
⑦ 기타( )

문4. 앞으로 제주해녀문화에 대해 국내에 가장 먼저 알려져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전부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물질 (작업) 관련
② 해녀의 역사
③ 해녀와 마을 공동체
④ 해녀 관련 문화 (신앙, 해녀노래, 해녀굿 등)
⑤ 해녀와 바다 생태계
⑥ 제주에서 여성의 역할
⑦ 기타( )

문5. 현재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걸 아십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르고 있다

문6. 현재 제주해녀문화에 대해 국외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잘 알려져 있다 ② 잘 알려져 있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⑤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문7. (문5. ①~③ 응답자만) 현재 제주해녀문화에 대해 국외에 잘 알려진 내용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전부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물질 (작업) 관련
② 해녀의 역사
③ 해녀와 마을 공동체
④ 해녀 관련 문화 (신앙, 해녀노래, 해녀굿 등)
⑤ 해녀와 바다 생태계
⑥ 제주에서 여성의 역할
⑦ 기타( )

문8. 현재 제주해녀문화에 대해 국외에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전부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물질 (작업) 관련
② 해녀의 역사
③ 해녀와 마을 공동체
④ 해녀 관련 문화 (신앙, 해녀노래, 해녀굿 등)
⑤ 해녀와 바다 생태계
⑥ 제주에서 여성의 역할
⑦ 기타( )

문9. 앞으로 제주해녀문화에 대해 국외에 가장 먼저 알려져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전부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물질 (작업) 관련
② 해녀의 역사
③ 해녀와 마을 공동체
④ 해녀 관련 문화 (신앙, 해녀노래, 해녀굿 등)
⑤ 해녀와 바다 생태계
⑥ 제주에서 여성의 역할
⑦ 기타( )

문10. 향후 해녀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정부 및 제주도 차원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할 정책이 무엇입니까?
다음 보기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하는 정책 순서대로 해당하는 번호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보기>

① 해녀 개인사 기록의 확대 및 전수조사	② 해녀 문화 전승을 위한 인력양성 및 지원제도 확대
③ 해녀 관련 유물 및 흔적의 수집 확대	④ 해녀 문화관련 종합적인 연구의 체계화
⑤ 해녀 문화관련 DB 구축, 디지털화 및 플랫폼 개발	⑥ 해녀문화에 대한 외부 공감대형성을 위한 사업 추진
⑦ 해녀 문화 체험프로그램 확대	⑧ 해녀문화 연계 제주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⑨ 해녀문화 홍보 방안 마련	⑩ 해녀문화 관련 다양한 미디어 및 디지털 콘텐츠 개발 (영화, 영상, 음악, 애니메이션 등)
⑪ 해녀축제 및 관련 행사 확대	⑫ 기타( )

문11. 향후 해녀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정부 및 제주도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이 무엇입니까?
다음 보기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하는 정책 순서대로 해당하는 번호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보기>

① 해녀 문화 국·공립 연구 센터 설립 및 전문 인력 확보	② 현지 해녀 문화 안내 및 도슨트 시스템 개발
③ 해녀 문화관련 국제적 유사분야 네트워크와 교류 프로그램 개발	④ 해녀 문화축제의 개선 및 정부차원의 국제 행사로 확대
⑤ 해녀 문화 관련 연구의 국제화 및 국제 R&D 네트워크 구성	⑥ 관광 연계 해녀문화 관련 기반 조성 (단지, 루트 및 거점개발 등)
⑦ 국내외 해녀 문화 공감대 형성 관련 조직화 지원	⑧ 해녀문화 연계 제주 관광 인프라 조성
⑨ 해녀문화 관련 법 제정(문화재청 무형문화재 등재 등)	⑩ 해녀문화 관련 다양한 미디어 및 디지털 콘텐츠 개발 (영화, 영상, 음악, 애니메이션 등)
⑪ 해녀마을 육성방안 마련	⑫ 기타( )

문 12. 다음은 귀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해당 부분에 √표시해 주세요.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결혼여부는?
   ① 미혼 ② 기혼 ③ 기타

3. 귀하의 연령은? 만( )세

4. 귀하의 직업은?
   ① 전문직 ② 사무직 ③ 생산·기술직 ④ 서비스직 ⑤ 공무원·교직원
   ⑥ 자영업 ⑦ 학생 ⑧ 무직 ⑨ 주부 ⑩ 기타( )

5. 귀하의 사시는 지역은?
   ① 서울 ② 부산 ③ 인천 ④ 대구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도 ⑨ 강원도 ⑩ 경상북도
   ⑪ 경상남도 ⑫ 충청북도 ⑬ 충청남도 ⑭ 전라북도 ⑮ 전라남도
   ⑯ 제주도 ⑰ 세종 ⑱ 국외

6. 귀하의 최종학력은?
   ① 고졸이하 ② 전문대졸(재학) ③ 대졸(재학) ④ 대학원졸(재학)이상

7. 귀하의 월(月)평균 소득은?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200만원 미만 ③ 200만-300만원 미만
   ④ 300만-400만원 미만 ⑤ 400만-500만원 미만 ⑥ 500만 원 이상

♠ 끝까지 응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